

차례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	i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겸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v
주석:	
로마서 서론	1
로마서 1 장	6
로마서 2 장	38
로마서 3 장	53
로마서 4 장	70
로마서 5 장	82
로마서 6 장	99
로마서 7 장	111
로마서 8 장	124
로마서 9 장	152
로마서 10 장	172
로마서 11 장	183
로마서 12 장	196
로마서 13 장	214
로마서 14 장	233
로마서 15 장	247
로마서 16 장	262
부록 1: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278
부록 2: 본문비평	286
부록 3: 용어해설	289
부록 4: 교리적 선언	299

로마서의 특별주제 목차

보내다(아포스텔로), 1:1	8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1:2	10
하나님의 아들, 1:3	10
육체(싸르크스), 1:3	12
하나님의 이름, 1:4	13
밥의 복음적 편향, 1:5	18
부르심을 받은, 1:6	18
성도, 1:6	19
아버지, 1:7	20
의, 1:17	24
바울의 저작에서의 “진리,” 1:18	28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파쎄이로), 1:23	31
마음, 1:24	32
영원히(헬라어의 관용어), 1:25	32
아멘, 1:25	33
동성애, 1:26, 27	34
신약에서의 사악함과 덕, 1:28-31	35
바울의 헤르페트 합성어 용법, 1:28-31	36
회개, 2:4	40
인종적 우월감, 2:11	43
자랑, 2:17	48
렐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함축적 의미, 2:18	49
무효의 그리고 무효로 하다(카탈게오), 3:3	55
영광, 3:23	62
사람의 구원에 대한 신약의 증거, 3:24	63
속량하다/구속하다, 3:24	63
믿다/신뢰, 4:5	73
인, 4:11	76
보증, 4:16	79

평화, 5:1	85
서다, (<i>히스테미</i>), 5:2	86
환난, 5:3	88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함, 5:17-18	95
침례(세례), 6:3-4	102
성화, 6:4	103
형식(튜포스), 6:17	108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 7:25	122
예수와 성령, 8:9	130
삼위일체, 8:11	131
신자의 유업, 8:17	136
자연자원, 8:19	137
소망, 8:25	141
인내의 필요, 8:25	142
인격이신 성령, 8:26	143
장자, 8:29	146
선택/예정과 신학적 균형의 필요	147
<i>아르케</i> , 8:38	150
중보기도, 9:8	155
저주(<i>아나쎄미</i>), 9:3	158
언약, 9:4	159
남은 자, 세 의미, 9:27-28	168
모퉁이 돌, 9:33	170
복종, 10:3	174
구원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동사 시제, 10:4	175
고백, 10:9	177
주의 이름, 10:9	178
나사렛 예수, 10:13	179
신비, 11:25	191
거룩, 12:1	198

이 세대와 오는 세대, 12:2	199
새롭게 됨(아나카이노시스), 12:2	200
하나님의 뜻(셀레마), 12:2	201
신약의 예언, 12:6	204
관대한, 진실한(하프로테스), 12:8	206
코이노니아, 12:13	210
인간 정부, 13:1	216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 13:9	222
출애굽기 20 장 13, 14, 15, 17 절에 대한 설명	222
약함, 14:1	236
그리스도인은 서로 비판해야 하는가?, 14:13	241
하나님의 왕국, 14:17	242
함양하다, 15:2	249
세우다(페릿슈오), 15:13	253
그리스도인과 배고픔, 15:26	258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6:1	264
교회(에클레시아), 16:1	267
개인적인 악, 16:20	272
영원한, 16:26	276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맨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맨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쇳,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튜트가르텐지아, GBS, 1997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4 권), 조지 A. 버트릭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비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페슈타), 조지 M. 람사
LXX	칠십인역(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5 권), 윌лем A. 반게머른 편저
NRSV	새 개정 표준역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월리암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5 권), 메릴 C. 텐니 편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인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⁴).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⁴)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세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담담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찾음,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 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그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꿨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I 전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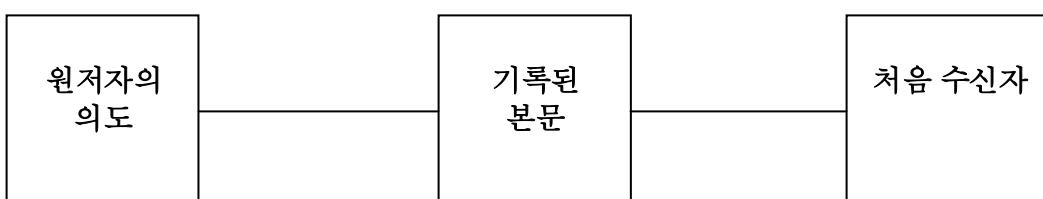
- (1)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 (2)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쓴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3)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4)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돋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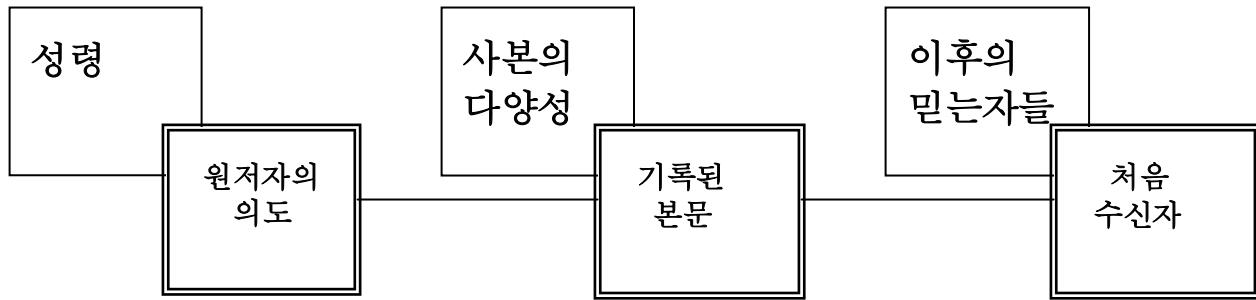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간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돋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돋는 주제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문서 간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 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돋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앱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 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자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렘, *성경해석학*, 75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빌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 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굽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돋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예루살렘역(JB)
-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의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로마서 서론

들어가는 말

- 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책이다. 이것은 로마의 환경에 영향을 받은 “그 당시”의 문서이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해야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어쨌든 로마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저작이다. 바울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아마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지도자 간의 질투, 참조, 14:1-15:13)를 다룸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나. 로마서에서 바울의 복음제시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1. 어거스틴은 주후 386년 로마서 13:13-14을 읽다가 회심했다.
 2. 구원에 대한 마틴 루터의 이해는 그가 시 31:1과 롬 1:17(참조, 히 2:4)을 비교할 때 급격하게 변했다.
 3. 주후 1738년 런던에서 있었던 메노나이트 집회에서 담당했던 설교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서론을 읽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요한 웨슬리는 이것을 들은 후에 회심했다!
- 다. 로마서를 아는 것은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 이 서신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기본 진리가 되게 한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말했다!

저자

분명하게 바울이 저자였다. 1:1은 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이 서신을 그의 손으로 쓰지 않고 더디오가 대필했다(참조, 16:22)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저작시기

- 가. 추정되는 로마서의 저작시기는 주후 56-58년이다. 로마서는 거의 정확하게 저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신약의 몇 권 안되는 책 중의 하나이다. 이 시기는 행 20:2 이하와 롬 15:17 이하를 비교하여 나온 것이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 그가 로마서를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 나. F. F. 브루스와 머리 해리스의 것을 약간 수정한 바울서신의 추정 연대

책	시기	저작 장소	사도행전과의 관계
1. 갈라디아서	48년	시리아 안디옥	14:28; 15:2
2. 데살로니가전서	50년	고린도	18:5
3. 데살로니가후서	50년	고린도	
4. 고린도전서	55년	에베소	19:20
5. 고린도후서	56년	마게도냐	20:2
6. 로마서	57년	고린도	20:3

7-10. 옥중 서신			
골로새서	60년대 초		
에베소서	60년대 초	로마	
빌레몬서	60년대 초		
빌립보서	62 후반-63년		28:30-41
11-13. 4 차 전도여행			
디모데전서	63년(혹은 그 이후)	마게도니ا	
디도서	하지만 64년	에베소(?)	
디모데후서	68년 이전에)	로마	

수신자

이 서신의 목적지는 로마로 되어 있다. 우리는 누가 로마에 교회를 세웠는지 모른다:

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회심하고 집에 돌아가 교회를 시작한 것 같다(참조, 행 2:10).

나. 스데반이 죽은 후(행 8:4)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를 피해 떠났던 제자들일 수 있다.

다.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로마에 들렸을 때 회심한 사람들일 수 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들을 보고싶어 한다(참조, 행 19:21). 그곳에 바울의 많은 친구가 있다(참조, 롬 16장).

분명히 그는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서바나(스페인)로 가는 길(참조, 롬 15:28)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기지고 있었다. 바울은 지중해의 동쪽에서 행한 그의 사역이 마쳐진다고 느꼈다. 그는 새로운 지역을 찾고 있었다(참조, 15:20-23, 28). 그리스에 있는 바울로부터 로마에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은 그 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던 여집사 뵈뵈인 것 같다(참조, 롬 6:1). 주후 1세기에 유대인 텐트제조자에 의해 고린도의 뒤안길에서 쓰여진 이 서신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회심한 랍비인 다소 출신의 사울이 면밀하게 설명한 복음이라는 사실에 이 책의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강하게 지역적 상황을 드러내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도의 믿음을 조직적으로 제시한다.

동지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날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문적 용어(“칭의,” “전가,” “양자됨,” “성화”)가 로마서에서 온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탐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놀라운 편지를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라!

목적

가. 그의 서바나 선교여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 바울은 지중해 동쪽에서 행한 그의 사도적 사역이 마쳐진 것으로 보았다(참조, 15:20-23, 28).

나. 로마교회의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이의 문제점을 시사하기 위해.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된 후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 결과일 것이다. 그때 이방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다. 로마 교회에 바울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신실하게 회심한 유대인들(행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신실하지 않은 유대인들(갈라디아서 그리고 고후

3 장, 10-13 장에 언급된 유대주의자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론과 철학으로 복음을 혼합시키려고 노력했던 이방인들(골로새서, 애베소서)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 라.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 무모하게 첨가하려는 위험한 개혁자로 고소되었다. 로마서는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복음서)을 사용하여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조직적으로 변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개요

- 가. 서론(1:1-17)
1. 인사말(1:1-7)
 - ㄱ. 저자(1-5)
 - ㄴ. 목적지(6-7a)
 - ㄷ. 첫 인사(7b)
 2. 이유(1:8-15)
 3. 주제(1:16-17)
- 나. 하나님의 의의 필요(1:18-3:20)
1. 이방 세계의 쇠퇴(1:18-32)
 2. 유대인의 외식과 이교도 도덕주의자들(2:1-16)
 3. 유대인의 판단(2:17-3:8)
 4. 보편적 저주(3:9-20)
- 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인가(3:21-8:39)
1.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3:21-31)
 2. 의의 기초: 하나님의 약속(4:1-25)
 - ㄱ. 아브라함의 바른 태도(4:1-5)
 - ㄴ. 다윗(4:6-8)
 - ㄷ. 아브라함과 할례의 관계(4:9-12)
 - ㄹ.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4:13-25)
 3. 의의 성취(5:1-21)
 - ㄱ. 주관적인 면: 분에 넘치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쁨(5:1-5)
 - ㄴ. 객관적인 기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5:6-11)
 - ㄷ. 아담/그리스도 모형론: 아담의 범죄, 하나님의 예비(5:12-21)
 4.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개인의 의로움을 가져온다(6:1-7:25)
 - ㄱ. 죄에서의 자유(6:1-14)
 - (1) 예상되는 반박(6:1-2)
 - (2) 침례(세례)의 의미(6:3-14)
 - ㄴ. 사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당신의 선택(6:15-23)
 - ㄷ. 율법에 대한 결혼관계(7:1-6)
 - ㄹ.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가 그 선함을 막는다(7:7-14)
 - ㅁ. 믿는 자 안에서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7:15-25)
 5. 하나님의 의가 가져 오는 주목할 만한 결과(8:1-39)
 - ㄱ. 성령 안에 있는 생명(8:1-17)
 - ㄴ. 창조의 회복(8:18-25)
 - ㄷ. 성령의 한결같은 도우심(8:26-30)
 - ㄹ. 믿음에 의한 칭의의 법적 승리(8:31-39)

- 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9:1-11:32)
 - 1. 이스라엘의 선택(9:1-33)
 - ㄱ. 믿음에 따른 실질적 상속자(9:1-13)
 - ㄴ. 하나님의 주권(9:14-26)
 - ㄷ.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은 이방인을 포함한다(9:27-33)
 - 2. 이스라엘의 구원(10:1-21)
 - ㄱ. 하나님의 의 대 인간의 의(10:1-13)
 - ㄴ. 하나님의 자비는 세계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전달자를 필요로 한다(10:14-18)
 - ㄷ.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적 불신앙(10:19-21)
 - 3. 이스라엘의 실패(11:1-36)
 - ㄱ. 유대인의 남은 자(11:1-10)
 - ㄴ. 유대인의 질투(11:11-24)
 - ㄷ.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눈멀(11:25-32)
 - ㄹ. 바울의 벅찬 찬양(11:33-36)
- 마.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가져오는 결과(12:1-15:13)
 - 1. 거룩함으로의 초대(12:1-2)
 - 2. 은사의 사용(12:3-8)
 - 3. 믿는 자와 다른 믿는 사람과의 관계(12:9-21)
 - 4. 국가와의 관계(13:1-7)
 - 5. 이웃과의 관계(13:8-10)
 - 6. 우리 주님과의 관계(13:11-14)
 - 7. 교회의 지체와의 관계(14:1-12)
 - 8.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우리의 영향(14:13-23)
 - 9. 그리스도를 닮은 대인관계(15:1-13)
- 바. 결과(15:14-33)
 - 1. 바울의 개인적 계획(15:14-29)
 - 2. 기도의 요청(15:30-33)
- 사. 추신(16:1-27)
 - 1. 끝 인사(16:1-24)
 - 2. 축복기도(16:25-27)

독서의 첫 번째 단계(vi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책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당신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1. 책의 전체 주제
2. 문학의 형식(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vi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단번에 그 책을 다시 읽으라. 중심 논제를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그 논제를 설명하라.

1. 첫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2. 두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3. 세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4. 네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5. 기타

로마서 1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인사말	첫 인사말	인사말	인사말	인사
1:1-7	1:1-7	1:1-6	1:1 1:2-6	1:1-2 1:3-7
		1:7a 1:7b	1:7a 1:7b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바울	로마를 방문하기 원함	감사	감사기도	감사와 기도
1:8-15	1:8-15	1:8-15	1:8-12 1:13-15	1:8-15
복음의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서신의 주제	복음의 능력	진술된 주제
1:16-17	1:16-17	1:16-17	1:16-17	1:16-17
사람의 죄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죄	이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1:18-23	1:18-32	1:18-23	1:18-23	1:18-25
1:24-32		1:24-25 1:26-27 1:28-32	1:24-25 1:26-27 1:28-32	1:26-27 1:28-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i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을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 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아야만 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 4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7 절은 이 서신의 서론을 형성한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 가장 긴 서론이다. 바울은 그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어쩌면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자들이 있는 교회에게 그 자신과 그의 신학을 소개하려 애쓰고 있었다.
- 나. 8-12 절을 감사기도로 시작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헬라 편지의 특징이었고 특별히 바울의 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 다. 16-17 절은 이 책의 주제를 진술한다.
- 라. 18 절부터 3:20 절은 첫 번째 문학단위 및 바울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을 제시한다; 모든 인간은 잃어버려졌고 구원이 필요하다(참조, 창 3 장).
1. 부도덕한 이교도
 2. 도덕적인 이교도
 3. 유대인
- 마. 롬 1:18-3:20은 창 3 장(놀랍게도 랍비들은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창 6 장을 죄의 기원으로 본다)을 반영한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도록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그러나 사람은 깨달음과 더불어 능력과 탁월함의 약속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인간은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무신론적 인본주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허락하셨다(심지어 이를 주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에 책임이 따르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의지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인간의 선택(언약적 관계)에 의해 인간을 나누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참조, 창 6:5-7) 인간은 모든 권리와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도덕적으로 자유한 존재이다. 반복되는 구절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참조, 1:24, 26, 28)는 하나님의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라 그러한 자유에 대한 승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다(참조, 3:22; 6:5-7, 11-13)!
- 바. 1:18-3:20에 대한 신학적 요약은 3:21-31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복음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이다—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즉, 에덴의 경험)로 되돌아 가는 길을 공급하신다.
- 사.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문학 단위에서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반역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흥미롭다(참조, 1:18-3:20). 이 문학 단위가 분명히 창 3 장의 신학을 반영하지만 개인적 유혹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사탄에게 다시 평계를 대거나(참조, 창 3:13) 하나님께 평계를 대는 것(창 3:12)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참조, 창 1:26; 5:1, 3; 9:6). 그들은 선택할 권리와 힘과 의무를 가진다.

그들은 공동적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자의 죄(참조, 3:23)에 대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6

¹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²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³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⁴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⁵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⁶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1 “바울” 바울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은 두 개의 이름(유대식 그리고 로마식)을 가지고 있었다 (참조, 행 13:9). 바울의 유대 이름은 사울이었다. 이스라엘의 고대 왕과 같이 그는 베냐민 지파이었다(참조, 롬 11:1; 빌 3:5). 그의 로마 이름은 헬라어로 바울인데 그 뜻은 “작은”이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했다

1. 정경 외의 책인 2 세기의 바울행전의 “바울과 쎄클라”라고 불렸던 데살로니가에 관한 장에서 암시했던 그의 체구
2. 처음에 그가 교회를 꾸몄을 때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자라는 그의 개인적 생각 (참조, 고전 15:9; 앱 3:8; 딤전 1:15)
3. 단순히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었을 것이다

3 항의 경우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

▣ “종” NKJV, NRSV, TEV, JB 역은 “종”이라고 기록한다. 이 개념은 주 예수와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구약의 경청(참조, 모세-민 12:7; 수 1:1; 여호수아-수 24:29; 다윗-시편[제목]; 사 42:1, 19; 52:13)이었다.

▣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것은 그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참조, 행 9:15; 갈 1:15; 앱 3:7). 바울은 고전 1:1; 고후 1:1; 갈 1:1; 앱 1:1; 골 1:1; 딤전 1:1; 딘 1:1에서 한 것처럼 그의 영적 자질과 권위를 그가 전혀 만난적이 없었던 이 교회를 향해 주장하고 있다. 1:6의 특별주제: 부르심을 보라.

1 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사회에서 “사도”라는 용어는 “공식적 대표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였다(참조, 역대하 17:7-9). 신약에서 이 용어는 두 가지 의미: (1) 특별하게 12 제자와 바울 (2) 교회 안에서 이어지는 영적은사(참조, 고전 12:28-29; 앱 4:11)로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보내다(아포스텔로)

이것은 “보내다”(즉, 아포스텔로)를 말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이다. 이 용어는 여러 신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 가. 랍비들은 이 용어를 다른 사람의 공식적 대표로서 부름을 받고 보내진 사람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영어의 “대사”와 비슷하다(참조, 고후 5:20).

- 나. 복음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요한복음에서 이 용어는 메시아적 의미를 가진다(참조, 마 10:40; 15:24; 막 9:37; 뉴 9:48; 특별히 요 4:34; 5:24, 30, 36, 37, 38; 6:29, 38, 39, 40, 57; 7:29; 8:42; 10:36; 11:42; 17:3, 8, 18, 21, 23, 25; 20:21).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낼 때 사용된다(참조, 17:18; 20:21).
- 다. 신약은 제자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한다.
 - 1. 중심되는 원래의 12 제자(참조, 뉴 6:13; 행 1:21-22)
 - 2. 사도들을 돋는 자와 협력자로 이루어진 특별한 무리
 - ㄱ. 바나바(참조, 행 14:4, 14)
 - ㄴ. 안드로니고와 유니스(KJV, 유니아, 참조, 롬 16:7)
 - ㄷ. 아폴로(참조, 고전 4:6-9)
 - ㄹ. 야고보와 주의 형제들(참조, 갈 1:19)
 - ㅁ. 실루아노와 디모데(참조, 살전 1:1)
 - ㅂ. 아마도 디도(참조, 고후 8:23)
 - ㅅ.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참조, 빌 2:25)
 - 3. 교회 속에서 계속되는 은사(참조, 고전, 12:28-29; 엡 4:11)
- 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서 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자신에 대해 이 호칭을 사용한다(참조, 롬 1:1; 고전 1:1; 고후 1:1; 갈 1:1; 엡 1:1; 골 1:1; 딤전 1:1; 딤후 1:1 딘 1:1).

■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택정함을 입었고(참조, 렘 1:5; 갈 1:15) 그 상태가 계속됨을 의미하는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것은 아람어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유희였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그리고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빌 3:5])은 유대 율법주의를 위해 구분되었지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구분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 구분된”(참조, 출 19:6; 벤전 2:5)이라는 의미인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와 관계가 있다. “성인,” “거룩하게하다,” “구분하다”라는 단어는 모두 “거룩한”(하기오스)이라는 같은 헬라어 어근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의 문맥에서(그리고 5 절에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바울을 “부르시고”(1 절 중반부) “구분하신”(1 절 하반부) 목적을 나타낸다.

복음은 “좋은”(유)과 “소식”(양겔로스)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참조, 3-4 절)인 새언약(참조, 렘 31:31-34; 갈 36:22-32)에서 드러내는 교리를 설명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바울의 복음이 아니다(참조, 15:16; 막 1:14; 고후 11:7; 살전 2: 2, 8, 9; 벤전 4:17). 바울이 혁신가나 문화의 변혁가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가 받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였다(참조, 고전 1:18-25).

1:2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 . .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은 부정과 거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목적하신 계획이었다(참조, 창 3:15; 사 53 장; 시 118 편; 막 10:45; 뉴 2:22; 행 2:23; 3:18; 4:28; 딘 1:2). 사도행전의 초기 설교(케리그마)는 구약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1.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야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현재 성취되었다(행 2:30; 3:19, 24; 10:43; 26:6-7, 22; 롬 1:2-4; 딤전 3:16; 히 1:1-2; 벤전 1:10-12; 벤후 1:18-19).
2. 예수님은 침례(세례)받으실 때 메시아로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행 10:38).
3. 예수님은 침례(세례)받으신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행 10:37).
4.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과 능력의 일을 행하신 것으로 특성지워진다(막 10:45; 행 2:22; 10:38).
5. 메시야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막, 10:45; 요 3:16; 행 2:23; 3:13-15, 18; 4:11; 10:39; 26:23; 롬 8:34; 고전 1:17-18; 15:3; 갈 1:4; 히 1:3; 벤전 1:2, 19; 3:18; 요일 4:10).
6.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행 2:24, 31-32; 3:15, 26; 10:40-41; 17:31; 26:23; 롬 8:34; 10:9; 고전 15:4-7, 12 이하; 살전 1:10; 딤전 3:16; 벤전 1:2; 3:18, 21).
7.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셨고 “주”라는 이름이 주어졌다(행 2:25-29, 33-36; 3:13; 10:36; 롬 8:34; 10:9; 딤전 3:16; 히 1:3; 벤전 3:22).
8.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행 1:8; 2:14-18, 38-39; 10:44-47; 벤전 1:12).
9. 그는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행 3:20-21; 10:42; 17:31; 고전 15:20-28; 살전 1:10).
10.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침례(세례)받아야만 한다(행 2:21, 38; 3:19; 10:43, 47-48; 17:30; 26:20; 롬 1:17; 10:9; 벤전 3:21).

비록 신약의 다른 저자들이 그들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것을 남기고 다른 특징을 강조했지만, 위의 개요는 초대교회의 선포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이루었다. 마가복음 전체는 사도베드로의 캐리그마와 근접한다.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기초하여 기록한 복음서로 보여진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마가복음의 기본적 골격을 따른다.

1: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의 중심 메세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이시다. 구약에서 나라, 왕, 메시야는 “아들”이라고 불렸다(참조, 삼하 7:14; 호 11:1; 시 2:7; 마 2:15).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구성원이셨다(참조, 히 1:1-2; 3:6; 5:8; 7:28). 놀랍게도 이 절은 이 책에서 바울이 기독론에 초점을 맞춘 단 한번의 기록이다. 로마서는 완전한 조직신학이 아니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주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뜻한다. “아들” 또는 “내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신적 의미를 가진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124회 이상 사용되었다. 예수님의 자신을 칭하신 용어인 “인자”는 단 7:13-14에서 신적 의미를 갖는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음의 특별한 네 그룹을 지칭할 수 있었다.

1. 천사들(대개 복수형, 참조, 창 6:2; 육 1:6; 2:1)
2.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시 2:7; 89:26-27)

3. 이스라엘 나라 전체(참조, 출 4:22-23; 신 14:1; 호 11:1; 말 2:10)
4. 이스라엘 재판관들(참조, 시, 82:6)

예수님과 관련된 용법은 바로 두 번째 경우이다. 이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삼하 7 장; 시 2 편, 89 편과 관련이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종말론적 왕을 나타내는 경우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 특별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해사본에서는 메시아적 의미의 호칭이 일반적이다(예수와 복음서의 사전, 770 쪽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한 유대인의 묵시적 저작의 두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 호칭이다(참조, 에스드라스 상 7:28; 13:32, 37, 52; 14:9 과 애녹 1 서 105:2).

이것이 예수님께 대해 사용될 때 그것의 신약적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그의 선재하심(참조, 요 1:1-18)
2. 그의 독특한(동정녀) 출생(참조, 마 1:23; 뉘 1:31-35)
3. 그의 침례[세례](참조, 마 3:17; 막 1:11; 뉘 3:22. 하늘에서의 소리는 시 2 편의 왕의 지위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로 연결한다)
4.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참조, 마 4:1-11; 막 1:12, 13; 뉘 4:1-13. 예수는 자신이 아들됨을 의심하도록 혹은 적어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유혹받았다).
5.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귀신들(참조, 막 1:23-25; 뉘 4:31-37; 막 3:11-12)
 - ㄴ. 불신자들(참조, 마 27:43; 막 14:61; 요 19:7)
6. 제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마 14:33; 16:16
 - ㄴ. 요 1:34, 49; 6:69; 11:27
7. 자신의 확인
 - ㄱ. 마 11:25-27
 - ㄴ. 요 10:36
8.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적 은유의 사용
 - ㄱ.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심
 - 1) 막 14:36
 - 2) 롬 8:15
 - 3) 갈 4:6
 - ㄴ. 자신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파테르)를 종종 사용하심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구약과 구약의 약속 및 그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이 여자를 취하여 그 결과 “타이탄” 혹은 “거인”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교도적 배경 때문에 이 칭호의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은 삼하 7 장의 예언과 관계가 있다. 메시야는 유다지파(참조, 창 49:4-12; 사 65:9) 출신으로서 다윗왕의 계보에서 나왔다(참조, 사 9:7; 11:1, 10; 렘 23:5; 30:9; 33:15). 마태복음에서는 오실 구원자에 대한 유대인의 소망을 반영하는 호칭으로서 예수님께 대해 여러 차례 사용된다(참조, 9:27; 12:23; 15:22; 20:30).

바울이 예수님의 이러한 면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 그는 이것을 오직 여기와 담후 2:8에서만 언급했다; 두 구절 모두 초대교회의 신조에서 인용하였을 것이다.



NASB, NKJV,

NRSV

“육체에 따르면”

TEV

“인간적 속성에 대하여는”

JB

“인간적 본질에 따르면”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고 1 세기의 절충주의적 종교세계(참조, 요일 1:1-4; 4:1-3)에서 종종 부인하였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확인이었다. 이 절은 바울이 “육체”(싸르크스)라는 용어를 항상 부정적인 의미(참조, 2:28; 9:3)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바울은 일반적으로 “육체”를 “영”과 대조하여 사용하였다(참조, 6:19; 7:5, 18, 25; 8:3-9, 12, 13; 고전 5:5; 고후 1:17; 11:18; 갈 3:3; 5:13, 16, 17-19, 24; 6:8; 앱 2:3; 골 2:11, 13, 18, 23).

카탸와 목적격으로 이어진 이 문법구조가 4 절에서 평행을 이룬다. 예수님은 인간(육체로는, 3 절)이셨고 하나님(성결의 영으로는)이셨다. 성육신의 교리는 중대하다(참조, 요일 4:1-3). 그것은 또한 예수님 스스로 택하신 호칭인 “사람의 아들”(참조, 시 8:4; 겸 2:1[인자]; 단 7:13[하나님])에 대한 의미일 것이다.

특별주제: 육체(싸르크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적인 기준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1:20; 2:6, 8; 3:18). 바울은 그의 저작에서 “육체”(즉, 싸르크스)라는 용어를 여러 방법으로 사용한다.

1. 인간의 몸(참조, 롬 2:28; 고전 5:5; 7:28)
2. 인간의 혈통(즉, 아버지-아들, 참조, 롬 1:3; 4:1; 고전 10:18)
3. 모든 인간(참조, 고전 1:26, 29)
4. 창 3 장에서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참조, 롬 6:19; 7:18)

1:4 “선포되셨으니” 이것은 부정과 거 수동 분사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하였다. 이것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시작이었다거나 그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8:11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 “하나님의 아들로” 헬라 신비주의가 주는 잘못된 암시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참조, 마 4:3)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자제했다(동정녀 탄생의 사실도 같다). 이 개념은 항상 “한 종류의 유일한”(모노게네스)으로 수식된다(참조, 요 1:18; 3:16, 18; 요일 4:9). 그러므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 아들이신 예수”이다.

신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련하여 두 개의 신학적 기둥을 가지고 있다. (1) 두 분은 같다(참조, 요 1:1; 5:8; 10:30; 14:9; 20:28; 고후 4:4; 빌 2:6; 골 1:15; 히 1:3) (2) 두 분은 분리된 인격이시다(참조, 막 10:18; 14:36; 15:34).

■ “부활하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의 삶과 메세지를 확인하였다(참조, 4:24; 6:4, 9; 8:11). 예수님의 신성(참조, 요 1:1-14; 골 1:15-19; 빌 2:6-11)과 부활(참조, 4:25; 고전 15 장)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

■ 이 절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의 모본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시고 그를 높이셨다고 주장했던 이단적인 “양자론”을 지지하는데 종종 사용되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이 항상(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것은 여러 본문 특별히 요 1 장과 17 장에 근거하여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시 그에게 어떤 놀라운 것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비록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지위는

그에게 할당된 구속 사역의 완전한 성취로 인해 아무튼 풍부하게 되셨다. 부활은 나사렛 예수의 삶, 모본, 가르침,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성부의 확인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완벽하신 구세주, 회복되시고 보상되신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나타낸다! 부록 3-양자론을 보라.



NASB, NKJV	“거룩하심의 성령을 따라”
NRSV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TEV	“그의 신성한 거룩하심에 관하여”
JB	“거룩하심의 영, 영의 순서로”

어떤 번역본은 영을 “대문자(Spirit)”로 번역하여 성령을 의미하는 반면 “소문자(spirit)”는 예수님의 영을 가리킬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영이시다.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은 대문자, 구두점, 장 절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위의 번역은 모두 전통을 따른 것이거나 번역가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3 절과 4 절을 이해함에 있어 세 가지 관점이 있다:

1. 예수님이 두 본질인 그의 인간되심과 하나님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2. 예수님이 지상사역의 두 단계로서 인간되심과 부활하신 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행구절로서

▣ “예수” 아람어 이름인 예수는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와 같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두 단어 “야웨”와 “구원”的 합성어이었다. 이것은 “야웨가 구원하신다,” “야웨가 구해내신다,” 또는 “야웨는 구원이시다”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마 1:21, 2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했던 히브리어 단어 메시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구약에서 여러 지도자의 무리(선지자, 제사장, 왕)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는 표시로서 기름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의 모든 직임을 성취하셨다(참조, 히 1:2-3).

구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시대를 이끌 특별한 “기름부은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 “아들,” “메시아”이셨다.

▣ “주” 유대주의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는 너무나 거룩하므로, 랍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취하여(참조, 출 20:7; 신 5:11) 십계명 중 하나를 범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아돈)라는 호칭으로 이를 대신하였다. 신약의 저자들이 신학적인 문맥에서 예수님을 “주”(“퀴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했다(참조, 행 2:36; 롬 10:9-13; 빌 2:6-11).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고대에 이 용어가 신에 대하여 나타내는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샴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보통은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합성어는 하나님으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방법이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창 16:13

- ㄷ. 엘-샤다이(“전능자 하나님” 또는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영원하신 하나님”),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 16
- ㅁ. 엘-베로(“언약의 하나님”), 산 9:46
-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육 5:8, “나는 엘 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신실하신” 신 7:9; 32:4
 - ㅂ.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ㅅ. “지식” 삼상 2:3
 - ㅇ.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ㅈ.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ㅊ. “거룩하신 분” 사 5:16
 - ㅋ. “힘” 사 10:21
 - ㅌ. “나의 구원” 사 12:2
 - ㅍ. “크고 능하신” 렘 32:18
 - ㅎ. “깊으심” 렘 51:56
- 5. 수 22:22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 나. 엘론
 -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병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 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 단 3:26; 4:2; 5:18, 21에서는 일라이르(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 3. 이 이름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 ㄱ. 멜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또한 헬라어로 같은 뜻을 지닌 휩시스토스를 사용(참조, 1:32, 35, 76; 6:35; 8:28; 행 7:48; 16:17)
- 다. 엘로힘(복수형), 시편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방의 신들을 말할 수 있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악한 천사)들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육 1:6; 38:7. 이것은 또한 사람인 재판관들에게도 사용되었다(참조, 출 21:6; 시 82:6).
5. 성경에서 이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야웨와 함께 사용된 창 2:4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생명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이것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병행하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멜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육 1:6; 시 82:1; 89:5, 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에서 하나님의 창조; 창 1:2에서 성령의 행하심;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고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행자셨다(참조, 요 1:3, 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라. 야웨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히 지키신다(참조, 시 103).
 이 이름은 창 2:4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가지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갖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해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야웨)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족장들과 그들의 가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샤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의해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 동사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헤플 동사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레았듯이 계속해서 그려 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 구약의 문맥 개요,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 (2) 야후(이름, 예, 아사야)
 - (3) 요(이름, 예,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조합이 가능한 많은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례(야웨께서 공급하신다),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 Kemp(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시다), 삿 6:24
 - ㅂ. 야웨-쓰바웃(만군의 야웨), 삼상 1:3, 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ㅅ. 야웨-로이(야웨는 나의 목자),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야웨는 우리의 의이시다), 램 23:6
 - ㅈ. 야웨-삼마(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갤 48:35

1:5 “우리”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자주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로마서 서론에서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다. 편집자로서의 “우리”를 강하게 의미하는 이 처음 용어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과 사도적 임명(참조, 행 9 장)을 가리킬 것이다.

▣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과 연결됨을 확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다(참조, 9 장). 이것은 공로로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은혜 때문이다!

▣ “...하게 하나님”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이 문맥(참조, 1 절)에서 에이스가 사용된 두 번째 경우이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참조, 7 절).



NASB, JB	“믿음의 순종”
NKJV	“믿음에 순종함을 위해”
NRSV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도록”
TEV	“믿고 순종하도록”

이것은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용어인 “믿음”의 첫 번째 사용이다. 이 단어는 이 장과 이 책에서 세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5 절. 이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진리나 교리의 내용을 말한다(참조, 행 6:7; 13:8; 14:22; 16:5; 롬 14:1; 16:26; 갈 1:23; 6:10; 유 3, 20 절).
2. 8 절.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 신뢰의 의미로 사용된다. 영어 단어의 “믿다,” “믿음,” “신뢰하다”는 모두 한 헬라어 용어(파스티스/파스튜오)를 번역한 것이다. 복음은 개념적(교리)이며 또한 개인적이다(참조, 16 절; 요 1:12; 3:16).
3. 17 절. 이것은 신뢰감, 충성, 의지의 구약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히 2:4의 의미이다. 구약에는 발전된 믿음의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삶(참조, 창 15:6에서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제시되는데, 완전한 믿음이 아닌 분투하는 믿음(참조, 히 11장)이다. 인간의 소망은 옳게 실행하거나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기초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이 있다:

- ㄱ. 회개(참조, 2:4; 믹 1:15; 뉘 13:3, 5; 행 3:16, 19; 20:21)
- ㄴ. 믿음/신뢰(참조, 1:16; 요 1:12; 3:16; 행 16:31, 침례(세례)는 믿는 자의 공공적인 선포이다)
- ㄷ. 순종(참조, 2:13; 고후 9:13; 10:5; 베전 1:2, 22)
- ㄹ. 인내(참조, 2:7; 뉘 18:1; 고후 4:1, 16; 갈 6:9; 살후 3:13).

새언약의 조건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이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한다(참조, 16 절, 요 1:12).



NASB	“그의 이름을 위하여”
NKJV	“그의 이름 때문에”
NRSV	“그의 이름을 위하여”
TEV	“그리스도를 위하여”
NJB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10:9의 특별주제를 보라.



NASB, NRSV	“모든 이방인 중에서”
NKJV	“모든 민족 중에서”
TEV	“모든 나라의 사람들”
JB	“모든 이교도 민족에게”

이것은 보편적인 복음이다. 창 3:15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인간을 포함한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을 포함한다(참조, 요 3:16; 4:42; 앱 2:11-3:13; 딤전 2:4, 4:10; 딤 2:11; 베후 3:9).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참조, 행 9:15; 22:21; 26:17; 롬 11:13; 15:16; 갈 1:16; 2:29; 앱 3:2, 8; 딤전 2:7; 딤후 4:17).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갤 18;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 19-20, 21-32),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언약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다(참조, 앱 2:11-3:13)!

이 점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미리 갖고 있는 모든 색채이다(즉, 요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1:6 “너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교회의 팝박자)였지만 그의 독자들 역시 과분하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 속한다.



NASB, NKJV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NRSV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TEV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JB	“그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1. “불러 내심을 받은 자들” 혹은 “모여진 사람들”을 뜻하는 “교회”라는 용어와 관련된 언어유희
2. 신적 선택을 지칭(참조, 롬 8:29-30; 9:1 이하; 앱 1:4, 11; 3:21; 4:1, 4)
3. 개역 영어성경(RSB)은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를 듣고 그에게 속한 너희”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NRSV, TEV, JB 역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신다(참조, 요 6:44, 65; 15:16; 고전 1:12; 앱 1:4-5, 11). “부르심”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 ㄱ.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로 부르심을 받는다(즉, 클레토스, 참조, 롬 1:6-7; 9:24, 이것은 신학적으로 고전 1:1-2; 딤후 1:9; 벤후 1:10과 비슷하다).
- ㄴ.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른다(즉, 에피칼레오, 참조, 행 2:21; 22:16; 롬 10:9-13). 이 진술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말하는 관용어이다.
- ㄷ.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즉, 클레시스, 참조, 고전 1:26; 7:20; 앱 4:1; 빌 3:14; 살후 1:11; 딤후 1:9).
- ㄹ. 믿는 자들은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입었다(참조, 행 13:2; 고전 12:4-7; 앱 4:1).

개역개정 1:7

⁷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7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마 3:17; 17:5). 지금 이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낸다. 이러한 전환은 앱 1:20(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행동)과 2:5-6(믿는 자들을 대신한 예수님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다.

▣ “로마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다.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로마서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서신이었다. 로마서는 그가 설교했던 복음의 가장 발전된 표현이다. 비록 그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 언급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자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지역적 상황에 의해 가장 적게 영향을 받고 있다.



NASB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음”

NKJV, NRSV, JB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TEV

“그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 이 용어는 빌 4:21을 제외하고 항상 **복수형**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그 문맥에서도 이것은 집합적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동체, 가족,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1 절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6 절에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7 절에서 믿는 자들은 또한 “성도”로 불린다. 이 “부르심”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에 관련된 진리를 주장하는 방법이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참조, 3:9-13; 사 53:6; 베전 2:25).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신다(참조, 6:44, 65; 15:16).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 우리의 구원(우리에게 전가된 의와 법적 위치)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섬김을 위한 은사(참조, 고전 12:7, 11)와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이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성도

이것은 **야웨**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어떤 사람, 물건, 장소를 구별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진 히브리어의 카다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신성한 자”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야웨**는 그의 본질(스스로 영원히 계신 영)과 성품(도덕적으로 완전하심)에 의해 인간과 구별되신다. 그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신다. 그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홀로 거룩하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타락(창 3 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관계적이며 도덕적인 장벽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양심있는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참조, 례 11:44; 19:2; 20:7, 26; 21:8). **야웨**와의 믿음의 관계로 그의 백성은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언약적 자격으로 거룩하게 되지만 또한 그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참조, 마 5:48).

이러한 거룩한 삶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의 역설적인 상황을 만든다.

1.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됨
2.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음

믿는 자들은 “성도”(하기오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1) 거룩하신 자(성부)의 뜻 (2) 성자(예수님)의 사역 (3) 성령의 임재가 거하시기 때문이다.

신약은 항상 성도를 **복수형**으로 지칭한다(한 번의 예외인 빌 4:12에서 조차도 문맥상 그것은 **복수형**이다). 구원받는 것은 가족, 몸, 건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 믿음은

개인적인 영접으로 출발하지만 공동교제에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 성장, 행복을 위해 각각 은사를 받는다(참조, 고전 12:7). 우리는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 거룩함은 가족의 특성이다!

■ “하나님 . . .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서신의 특징적인 서론 부분의 축복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헬라어의 “인사말”(카레인)과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용어인 “은혜”(카리스)로 이루어진 언어유적이이다. 바울은 이런 헬라식 서두와 전통적 히브리 인사말인 살롬과 “평화”를 결합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추측이다. 신학적으로 항상 은혜가 평화에 앞서 나오는 것을 주목하라.

■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일반적으로 두 이름에 오직 하나님의 전치사만 사용한다(참조, 고전 1:8; 갈 1:3; 앱 1:2; 빌 1:2; 살후 1:2; 딤전 1:1; 딤후 1:2; 딤 1:4). 이것은 삼위 일체의 두 위격을 문법적으로 연결시키는 그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성부와의 동등하심을 강조한다.

특별주제: 아버지

구약은 친밀한 가족적 은유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한다

1.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야웨의 “아들”로서 묘사된다(참조, 호 11:1; 말 3:17)
2. 심지어 신명기 앞 부분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유추가 사용된다(신 1:31)
3. 신명기 32 장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로 불린다
4. 이 유추는 시 103:13에 진술되고 시 68:9에서 발전된다(고아의 아버지)
5. 예언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이었다(참조, 사 1:2; 63:8;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63:16; 64:8; 렘 3:4, 19; 31:9).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의 파테르로서 “아버지”라고 되어있는 것 중 많은 경우는 아람어의 아바(참조, 14:36)를 반영할 것이다. 가족적인 용어인 “아버지” 또는 “아빠”는 예수님과 성부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심은 그들과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격려하시는 것이다.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는 오직 야웨에게만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종종 사용하시고 두루 사용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계시이다.

개역개정 1:8-15

⁸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⁹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중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¹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¹¹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¹²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¹³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¹⁴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¹⁵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8 “먼저” 이 문맥에서 “먼저”는 “처음부터” 또는 “나는 반드시 시작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J. B. 필립스의 번역).

■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 .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은 통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7:26의 특별주제: 찬양과 감사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보라.

■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7 절에서와 같이 여기에서 사용한 “모든”은 네로의 칙령으로 로마 밖으로 피신했던 믿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결과로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했던 믿는 이방인 지도자들 사이의 시기와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롬 9-11 장도 같은 문제를 언급할 것이다.

이것이 롬 14:1-15:13의 “약한 자”와 “강한 자”的 연관성을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롬 16:19은 같은 사실을 암시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 세계(참조, 살전 1:8)를 의미하는 동양적 과장(과장법)이었다.

1:9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참조, 9:1; 고후 1:23; 11:10-11, 31; 12:19; 갈 1:20; 살전 2:5). 이것은 그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유대식 방법이었다.

■ “내 심령으로” 이것은 인간의 생명(즉, 호흡, 히브리어의 루아흐, 참조, 창 2:7)의 의미로 사용된 인간의 영(참조, 8:5, 10, 16; 12:11)에 프뉴마를 사용한 좋은 예이다.

1:10 “(항상) 구하노라” 바울은 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참조, 고후 11:28)! 9:3의 특별주제: 중보기도를 보라. 16 장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많은 친구와 협력자가 있었다.

■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집필의 목적에서 사실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참조, 15:22-24). 그가 오랫동안 머물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바울은 항상 아무도 사역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지를 원했다(참조, 15:20; 고후 10:15, 16).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가 스페인 선교여행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참조, 15:24).

■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이것은 13 절과 15:32에서 평행을 이룬다. 바울은 그의 삶과 여행 계획이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다(참조, 행 18:21; 고전 4:19; 16:7). 12:2의 특별주제를 보라.

1: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은 15:23과 평행을 이룬다. 오랫동안 바울은 로마의 믿는 자들을 만나기 원했다(참조, 행 19:21).

■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가 영적 통찰력이나 축복의 의미에서 사용되었다(참조, 11:29; 15:27).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었다(참조, 15 절).

■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헤스테미의 부정과거 수동 부정사 형태이다. 5:2의 특별주제를 보라.

1:12 이것은 그리스도인 교제의 목적이다. 은사는 믿는 자들을 사역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한다.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참조, 고전 12:7). 모든 은사는 관계가 있다. 모든 은사는 구원 받을 때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참조, 고전 12:11). 모든 신자는 부르심을 입었고, 은사를 받았고, 전임 사역자이다(참조, 앵 4:11-12).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확신 뿐 아니라 친밀한 공동체적 상호관계도 진술한다. 믿는 자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1:13 “형제들아 . . .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바울이 중요한 진술을 할 때 종종 사용한 관용구이다(참조, 11:25; 고전 10:1; 12:1; 고후 1:8; 살전 4:13). 이것은 문학적 목적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멘, 아멘(진실로 진실로)”과 비슷하다.

■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것은 수동형 동사이다. 사탄이 작인으로 작용하는 살전 2:18에 같은 구절이 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음도 알았다. 어쨌든 둘 다 사실이다(참조, 옵 1-2 장; 단 10 장). 15:22에서 이 단어의 사용은 아직 마쳐지지 않은(그러나 닫힌)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의 선교사역에 대한 방해를 뜻했다.

■ “너희 중에서도 . . .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문맥에서 “열매”는 회심자를 의미할 것이지만요 15:1-8; 갈 5:22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의미했다. 마 7장은 “너의 열매로 너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열매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적합한 평행구절은 바울이 같은 농경적 은유를 사용한 빌 1:22일 것이다.

1:14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용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1.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14 절).
2. 바울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8:12).
3. 이방인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15:27).

■ “헬라인” 이것은 지중해 부근의 문명화되고 개화된 사람을 가리킨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알려진 세계를 헬라화시켰다. 로마는 점령했고 헬라 문화를 흡수했다.

■ “야만인이나” 이(의성어) 용어는 일반적으로 북쪽에 살던 교육받지 못하고 개화되지 않은 민족들을 의미했다. 이것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그들의 말이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에게는 “바 바 바”처럼 들렸다.

■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것이 헬라어로 “바바리안”과 평행을 이룰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개인을 의미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개역개정 1:16-17

¹⁶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¹⁷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16-17 16-17 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다. 이 주제는 3:21-31에서 확대되고 요약된다.

1:16

NASB, NRSV
NKJV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TEV “내가 복음 안에서 완전한 확신을 가졌노니”
JB “내가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마 8:38 과 뉴 9:26 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복음의 내용이나 복음에 따르는 편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참조, 딤전 1:12, 16, 18).

고전 1:23 에서 복음이 고통받는 메시아를 확인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헬라인은 복음이 몸의 부활을 확인했기 때문에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

▣ “구원” 구약에서 히브리어 단어(야쇼)는 주로 육체적인 구원(참조, 약 5:15)을 의미하나 신약에서 헬라어 단어(소조)는 주로 영적 구원(참조, 고전 1:18, 21)을 의미한다. 로버트 B. 거틀스톤, 구약의 동의어, 124-126 쪽.

■	
NASB	“믿는 모든 자에게”
NKJV	“믿는 모든 자를 위해”
NRSV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TEV	“믿는 자 모두”
NJB	“믿음을 가진 자 모두”

복음은 모든 인간(오! 내가 “모든 자,” “누구나,” “모든”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을 위한 것이지만 믿는 것은 받아들여짐(참조, 행 16:30-31)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이다. 다른 조건은 회개(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신다. 그는 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해야 할 일(참조, 요 6:44, 65)을 정하신다. 그러나 여러 상호적인 조건이 있다, 1:5 의 설명을 보라.

여기서 번역된 “믿다”라는 헬라어는 영어로는 “믿음” 또는 “신뢰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헬라어는 영어의 어떤 단어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분사임을 주목하라. 구원하는 믿음은 계속되는 믿음이다(참조, 고전 1:18; 15:2; 고후 2:15; 살전 4:14)!

원래 “믿음’에 대한 이 헬라어 용어의 뜻과 관계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이 그의 발을 벌려 쉽게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자세를 의미했다. 이것과 반대되는 구약의 은유는 “내 발이 수렁 속에 있었다”(시 40:2),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 하였다”(시 73:2)이다. 관계된 히브리어의 어근인 **에문**, **에류나**, **아민**은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럽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다. 구원의 믿음은 타락한 인간의 신실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있다. 곧 하나님의 믿음직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이다!

▣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이유는 2:9-10 그리고 3 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되지만 9-11 장에서 충분히 발전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마 10:6; 15:24; 막 7:27 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을 따른다.

이것은 로마교회에 있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시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1:17 “하나님의 의” 문맥에서 이 구절은 (1) 하나님의 성품과 (2)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는가를 의미했다. JB 역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번역한다. 이것이 믿는자의 도덕적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반면 그것은 주로 의로운 심판관 앞에서 믿는자의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종교개혁 아래로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은 “믿음에 의한 칭의”(참조, 고후 5:21; 빌 3:9)로서 특징지워졌다. 이 절이 마틴 루터의 삶과 신학을 바꾸었던 바로 그 절이다! 어쨌든 칭의의 목표는 성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는 것이다(참조, 롬 8:28-29; 앱 1:4; 2:10; 갈 4:19). 의는 단지 법적 선언일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이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능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참조, 고후 5:21).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 용어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물론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 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쳐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 언약의 개념이었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윤리적 의)를 사람들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제공하심.
4.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참조, 1:26-27)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동산의 교제를 회복하심(관계적인 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결착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저작에서 사용한 범주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의 디카이오쉬네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점이 없었다. 이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바울이 말하는 역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신다는 점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둘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격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귀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 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 26; 4:3, 5, 13; 9:30; 10:4, 6, 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고후 6:14
 - ㄹ. 디모데 전서 6:11
 - ㅁ. 디모데 후서 2:22; 3:16
 - ㅂ. 요한일서 3:7
 - ㅅ. 베드로 전서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이것은 IVP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834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튼튼하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더 강조하거나 어느 것을 빼뜨리면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환영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NASB, NKJV

“믿음에서 믿음까지”

NRSV

“믿음으로 믿음을 위해”

TEV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JB

“이것은 어떻게 믿음이 믿음에 이끄는지를 보여준다”

이 구절에는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두 전치사 에크와 에이스가 있다. 바울은 같은 구조의 문장을 고후 2:16에서 사용하고 고후 3:18에서는 아포와 에이스를 사용한다. 기독교는 성품과 삶의 양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선물이다.

이 구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여러 가능성이 있다. 윌리엄스 NT는 이것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번역한다. 중심되는 신학적 관점은 (1)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계시된”) (2) 인간은 응답을 해야만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3) 믿음은 경건한 삶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참조, 5:1; 빌 3:9).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은 믿음의 반응을 조건으로 한다(참조, 막 1:15; 요 1:12; 3:16; 행 3:16; 19; 20:21).



NASB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NKJV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NRSV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TEV	“믿음을 통해 의로 하나님께 되돌아 가는 자는 살 것이다”
JB	“정직한 사람은 믿음을 통해 생명을 발견한다”

이것은 합 2:4에서 인용한 것인데 맷소라 본문이나 70 인역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믿음”은 확장된 은유적 의미인 “신뢰감,” “신실함,” 또는 “~에게 향한 충성심”을 나타낸다.

구원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 한다(참조, 3:5, 21, 22, 25, 26). 그러나 인간의 신실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한다는 증거이다. 같은 구약 본문을 갈 3:11 과 히 10:38에서 인용한다. 다음 문단인 롬 1:18-3:20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반대되는 것을 드러낸다.

여러 현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열거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보한: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에서 마친다”
2. 호취: “믿음으로만”
3. 바랫: “오직 믿음에 기초하여”
4. 녹스: “믿음이 처음이요 마지막”
5. 스태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직한 사람은 살리라”

개역개정 1:18-23

¹⁸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¹⁹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²⁰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평계하지 못 할지니라 ²¹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²²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²³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18 “가르 (for)” 주제를 진술하는 16-17 절에서 가르 (for)가 여러 번 사용됨을 주목하라—세 번, 그리고 지금 이것은(가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되는 내용에서 바울이 복음의 첫 번째 요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 “하나님의 진노가” 18-23 절은 바울시대의 이교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교도 세계에 대한 바울의 특징적 묘사는 유대인의 문학작품(참조, 솔로몬의 지혜, 13:1 이하; 이리스테아스의 편지, 134-

38쪽)에서도 발견되며 심지어 헬라인과 로마인의 윤리적인 글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도 말한다(참조, 23-32 절; 2:5, 8; 3:5; 4:15; 5:9; 9:22; 12:19; 13:4-5).

진노와 사랑은 모두 하나님께 적용한 인간의 용어이다. 이 용어들은 믿는 자들이 응답하여 살기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진리를 표현한다. 하나님 뜻(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고의적인 거부는 이 절에서 말하듯이 일시적 결과는 물론 종말론적인 결과(참조, 2:5) 도 초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분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심판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참조, 사 28:21 이하)이다. 사랑은 그의 성품이다: 신 5:9 과 5:10; 7:9 을 비교해보라. 하나님 안에 정의와 자비가 두드러지게 있다. 역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답변을 해야할 것인데(참조, 전 12:13-14; 갈 6:7)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참조, 14:10-12; 고후 5:10).

■ “나타나나니” 복음이 계시된 진리(17 절)인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발견이나 논리에 의해 얻은 내용이 아니다.

■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은 인간의 고의적인 거부를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21, 32 절; 요 3:17-21). 이 절은 (1)그들이 진리를 알지만 이를 거부한다 (2) 그들의 삶의 양식은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는, (3) 그들의 삶 그리고/또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다.

특별주제: 바울의 저작에서의 “진리”

바울이 사용한 이 용어와 이 용어의 파생어는 구약에서 이 용어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 애메트에서 왔는데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신실한이라는 의미이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저작에서 이것은 거짓과 대조되는 진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이것과 가장 가까운 평행구절은 사해사본의 “감사의 찬양”인데 여기서는 계시된 교리를 가리킨다. 에세네 공동체의 구성원은 “진리의 증인”이 되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한다.

1. 롬 1:18, 25; 2:8, 20; 3:7; 15:8
2. 고전 13:6
3. 고후 4:2; 6:7; 11:10; 13:8
4. 갈 2:5, 14; 5:7
5. 앱 1:13; 6:14
6. 골 1:5, 6
7. 살후 2:10, 12, 13
8. 딤전 2:4; 3:15; 4:3; 6:5
9. 딤후 2:15, 18, 25; 3:7, 8; 4:4
10. 딘 1:1, 14

바울은 또한 그의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1. 행 26:25
2. 롬 9:1
3. 고후 7:14; 12:6
4. 앱 4:25
5. 벌 1:18

6. 딥전 2:7

그는 또한 고전 5:8에서 그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앱 4:24; 5:9; 벌 4:8에서 그의 삶의 양식(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을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한다. 그는 때때로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한다:

1. 하나님, 롬 3:4(참조, 요 3:33; 17:17)
2. 예수님, 앱 4:21(요 14:6과 비슷함)
3. 바울, 고후 6:8

오직 바울만 이것의 동사형태(즉, 알레튜오)를 복음을 의미하기 위해 갈 4:16과 앱 4:15에서 사용한다. 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콜린 브라운의 신약신학의 새 국제사전(중보판), 제 3 권, 784-902쪽을 참고하라.

1:19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인간은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참조, 20 절; 육 12:7-10; 시 19:1-6[자연을 통해], 12-15[성경을 통해], 지혜는 물론). 신학에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부른다. 이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특별계시인 성경 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초이다(참조, 골 1:15; 2:9).

“알다”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말하는 구약적인 의미로(참조, 창 4:1; 렘 1:5) (2) 어떤 주제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헬라어적인 의미로(참조, 21 절). 복음은 영접하여야 할 분(예수님)이시며 또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분에 대한 메세지를 말한다! 이 절에서는 오직 2 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0 이 절은 하나님의 세 가지 면을 언급한다.

1.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그의 성품, 참조, 골 1:15; 딥전 1:17; 히 11:27)
2.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자연의 창조에서 보여진)
3. 하나님의 신성(하나님의 행하심과 창조의 동기에서 보여진)

▣ “창세로부터” 전치사 아포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비슷한 구절이 막 10:6; 13:19; 벤후 3:4에 나온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1) 물질적인 창조에서(20 절) (2) 성경(시 19, 119 편)에서 (3)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참조, 요 14:9)에서 보여진다.

▣ “신성” 헬라어 작품에서 셰이오템스는 “신적 주권”으로 번역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많이 보여진다. 예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다(참조, 고후 4:4; 히 1:3).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골 1:19; 2:9). 복음의 놀라운 진리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참조, 히 12:10; 요일 3:2). 인간(참조, 창 1:26-27)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셰이オス, 참조, 벤전 1:3-4)!



NASB	“만들어진 것을 통해 분명히 보여졌고 이해되어졌나니”
NKJV	“만든 것들에 의해 분명히 보이고 이해되었나니”
NRSV	“그가 만드신 것들을 통해 이해되어졌고 보여졌나니”
TEV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안에서 분명히 보여졌고 인식되었나니”
NJB	“창조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이해에 의해 분명히 보여졌나니”

노에오(참조, 마 15:17)와 카쏘라오(둘 다 현재 수동태)의 결합은 참된 이해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1) 자연 (2) 성경. 그것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반응을 요구한다(참조, 지혜서, 13:1-9).

▣ “그러므로 그들이 평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법적인 변호가 안된다”이다. 이 헬라어 용어(아 + 아풀로게오마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와 2:1에서만 사용된다. 1:18-3:20의 신학적 목적이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잃어버려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인간은 그들이 가진 지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고 또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오직 책임을 물으신다.

1:21 “하나님을 알되” 인간은 점진적으로 종교적이 되지 않는다—그들은 점진적으로 악해져 간다. 창 3장 이후로 인간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두움이 점점 깊어진다!

▣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23, 24 절에서 이것은 이교도적 우상숭배의 비극이다(참조, 렘 2:9-13).

▣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올래프 M 몰리의 신약: 세 번역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들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 속을 더듬어 찾는다”라고 했다. 인간의 종교 제도는 영적인 반역과 교만의 기념비이다(참조, 22 절; 골 2:16-23).

이 구절의 두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이다. 이 수동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와 적절한 반응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빛에 대한 그들의 거부가 그들의 마음을 강화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참조, 10:12-16; 왕하 17:15; 렘 2:5; 앱 4:17-19)?

▣ “마음” 구약에서 이것은 한 사람의 전부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사고나 감정의 진행을 의미하는 방법이었다. 1:24의 특별주제를 보라.

1:22

NASB, NKJV	“지혜 있다 공언하나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다”
NRSV	“지혜 있다 주장하나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다”
TEV	“그들은 그들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어리석다”
JB	“그들이 자신을 철학자로 부르면 부를 수록 그들은 더욱 더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의 “저능아”가 왔다. 문제는 인간이 그들 자신의 지식에 대해 갖는 교만과 확신이다(참조, 고전 1:18-31; 골 2:8-23). 이것은 창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식은 분열과 심판을 초래했다. 인간의 지식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절대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1:23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 5:1, 3; 9:6)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고의적으로 거만하게 하나님을 땅의 형상들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1. 동물(이집트)
2. 자연의 힘(페르시아)
3. 인간적 형상(그리스/로마)—우상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했다(참조, 신 4:15-24).

이와 같은 오래된 죄의 또 다른 새 형태는

1. 환경보호주의(어머니인 지구)

2. 새 시대에 대한 동양적 사상(신비주의, 영적 주의, 밀교)
3. 무신론적 인본주의(막스주의, 유토피아주의, 점진적 이상주의, 종교 혹은 교육에 대한 궁극적 믿음)
4. 전인적 의료(건강과 장수)
5. 교육

▣ “영광” 3: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썩어질 사람”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페셰이로)

페셰이로는 기본적으로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 또는 약탈하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을 가리킬 수 있다

1. 재정적 파탄(아마도 고후 7:2)
2. 육체적 멸망(참조, 고전 3:17a)
3. 도덕적 부패(참조, 롬 1:23; 8:21; 고전 15:33, 42, 50; 갈 6:8; 계 19:2)
4. 성적 유혹(참조, 고후 11:3)
5. 교육적 파괴(참조, 벤후 2:12, 19)
6. 멸망해가는 인간의 전통(참조, 골 2:22; 고전 3:17b)

종종 이 용어는 이와 같은 문맥에서 부정된 반대쪽에 대해 사용된다(참조, 롬 1:23; 고전 9:25; 15:50, 53).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육체와 우리가 천국에서 갖는 영원한 몸의 대조적 평행을 주목하라.

1. 썩을 것 대 썩지 않을 것, 고전 15:42, 50
2. 불명예 대 영광, 고전 15:43
3. 약함 대 능력, 고전 15:43
4. 자연적 몸 대 영적 몸, 고전 15:44
5. 첫 아담 대 마지막 아담, 고전 15:45
6. 땅의 형상 대 하늘의 형상, 고전 15:49

개역개정 1:24-25

²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²⁵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친송할 이시로다 아멘

1:24, 26, 28 “하나님께서 그들을 . . . 내버려 두사” 이것은 가장 심각한 심판의 경우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길을 가게 하라”(참조, 시 81:12; 호 4:17; 행 7:42). 23-32 절은 하나님께서 이교 세계와 그들의 종교성(또한 우리의)을 거부하심(일시적 진노)을 설명한다! 이교도들의 삶은 성적 변태와 착취로 특징된다!

1:24 “마음”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마음

헬라어 *καρδία*는 70 인역과 신약에서 히브리어 *לְבַדָּה*에 대한 말로서 사용된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참조, 바우어, 아른트, 긴그리치, 맹커, 헬라어-영어 사전, 403-404쪽):

1.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삶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뉴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 ㄴ. 인간의 영적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전 1:5; 딤후 2:22; 벤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적,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14;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앱 1:18; 4:18; 약 1:26; 벤후 1:19; 계 18:7; 마음은 고후 3:14-15 과 빌 4:7에서 생각과 동의어임)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 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앱 6:22; 빌 1:7)
6. 성령이 일하시는 독특한 영역(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 앱 3:17])
7. 마음은 은유적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7, 신 6:5의 인용). 생각, 동기, 행동을 말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몇 가지 특이한 용법은:
 - ㄱ. 창 6:6; 8:21,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또한 호세아 11:8-9를 보라)
 - ㄴ. 신 4:29; 6:5,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 ㄷ. 신 10:16,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 ㄹ. 젤 18:31-32, “새 마음”
 - ㅁ. 젤 36:26, “새 마음” 대 “돌로 된 마음”

1:25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참조, 살후 2:4, 11) (2) 인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야웨 대신에(참조, 18-23절) 자신이 만든 것을 예배하는 것—우상들(참조, 사 44:20; 렘 13:25; 16:19) 또는 (3) 인간이 복음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참조, 요 14:17; 요일 2:21, 27). 문맥상 2 항이 가장 적합하다.

▣ “경배하고 섬김이라” 인간은 섬길 신을 항상 가질 것이다. 어떤 분이 계신 것과 어떤 진리가 있는 것과 자기 자신의 한계 너머에 어떤 것이 있음을 모든 인간이 느낀다.

▣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축복으로 갑자기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의 글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다.(참조, 롬 9:5; 고후 11:31). 바울은 글을 쓸 때 종종 기도한다(참조, 9:5; 11:36; 15:33; 16:27).

▣ “영원히”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영원히(헬라어의 관용어)

히브리어 올림을 반영하는 헬라어의 관용적 표현 가운데 하나는 “세대들에”(참조, 뉴 1:33; 롬 1:25; 11:36; 16:27; 갈 1:5; 딤전 1:17)이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심볼*, 321-319쪽을 보라. 다른 표현으로는 “세대에”(참조, 마 21:19[막 11:14]; 살전 1:55; 요 6:58; 8:35; 12:34; 13:8; 14:16; 고후 9:9)와 “세대의 세대에”(참조, 앱 3:21)가 있다. “영원히”를 일컫는

이러한 관용적 표현들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세대들”이라는 용어는 “장엄함을 말하는 복수형”으로 불려지는 랍비들의 문법적 구문에서 나타내는 수사적 의미를 갖는 복수형일 것이다. 혹은 이 복수형이 유대적 의미에서 “무죄한 세대,” “악한 세대,” “오는 세대,” “의의 세대”의 여러 세대를 가리키는 개념일 수 있다.

■ “아멘”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아멘

I 구약

- 가. “아멘”이란 용어는 진리(에메쓰)나 진실성(에문, 에무나) 그리고 믿음 또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 나. 이것의 어원은 사람의 안정된 육체적 자세이다. 이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미끄러지는 (참조, 신 28:64-67; 시 40:2; 73:18; 렘 23:12) 또는 비틀거리는(참조, 시 73:2) 사람이다. 이 문자적 용법으로부터 신실한, 믿을만한, 충성된, 의지할만한의 뜻을 가지는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참조, 창 15:6; 합 2:4).
- 다. 특별용법:
1. 기둥, 왕하 18:16(딤전 3:15)
 2. 확신, 출 17:12
 3. 견실함, 출 17:12
 4. 안정성, 사 33:6; 34:5-7
 5. 참, 왕상 10:6; 17:24; 22:16; 잠 12:22
 6. 견고한, 대하 20:20; 사 7:9
 7. 믿을 수 있는(토라), 시 119:43, 142, 151, 168
- 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다른 두 단어가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1. 바타, 신뢰
 2. 야라, 두려움, 존경, 예배(참조, 창 22:12)
- 마. 신뢰 또는 신뢰감이라는 의미가 신뢰나 신뢰감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문자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신 27:15-26; 느 8:6; 시 41:13; 70:19; 89:52; 106:48).
- 바. 이 단어의 신학적 열쇠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이다(참조, 출 34:6; 신 32:4; 시 108:4; 115:1; 117:2; 138:2).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야웨와 그의 약속의 언약적 성실하심이다.
야웨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합 2:4).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인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II 신약

- 가. 어떤 진술의 신뢰감에 대한 결론적 의식적 확인으로서, 신약에서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은 일반적이다(참조, 고전 14:16; 고후 1:20; 계 1:7; 5:14; 7:12)
- 나. 신약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롬 1:25; 9:5; 11:36; 16:27; 갈 1:5; 6:18; 엡 3:21; 빌 4:20; 살후 3:18; 딤전 1:17; 6:16; 딤후 4:18).
- 다. 중요한 진술을 시작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요한의 책에서는 종종 중복된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다(참조, 뉴 4:24; 12:37; 18:17, 29; 21:32; 23:43).

- 라. 계시록 3:14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사 65:16에서 야웨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마. 신실함 또는 믿음, 신뢰감 또는 신뢰의 개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로 신뢰하다, 믿음, 믿다로 번역된다.

개역개정 1:26-27

²⁶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²⁷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1:26,27 동성애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번성하라)에서 벗어나는 한 경우이다. 이것은 죄이고 또한 다음의 경우에서 커다란 문화적 문제였다: (1) 구약에서(참조, 레 18:22; 20:13; 신 23:18) (2) 헬라-로마 세계에서(참조, 고전 6:9; 딤전 1:10) (3)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는 전체 문맥이 창 1-3 장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삶의 한 예로서 열거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었다(참조, 창 1:26-27; 5:1, 3; 9:6).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을 입었다(참조, 창 1:27).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이었다(참조, 창 1:28; 9:1, 7). 인간의 타락(참조, 창 3 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쳤다. 동성애는 명백한 위반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 문맥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겠다(참조, 29-31 절). 모든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나타내고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특히 삶의 양식과 관련이 있는 죄를 미워하신다.

특별주제: 동성애

동성애를 또 하나님의 적절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현대 문화의 압력이 상당하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뜻을 거슬리는 파괴적인 삶의 양식으로 비난한다.

1.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 1 장의 명령을 위반한다
2. 이것은 이교도의 예배와 문화에 나타나는 특징이다(참조, 레 18:22; 20:13; 롬 1:26-27; 유 7 절)
3.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자기 중심적 독립을 드러낸다(참조, 고전 6:9-10)

한편, 이 문제에서 떠나기 전에 나는 모든 반역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특별한 죄에 대해 미움과 거만함으로 행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분명히 죄를 범하는 점에서 그렇다. 이 영역에 관한 한 격렬한 정죄보다 기도와 관심, 간증과 동정이 더 바람직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적 범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고 따라서 심판을 가져온다.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충동은 종종 반역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을 구하고,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나 만을 위한” 삶으로 바꾼다(참조, 롬 8:1-8; 갈 6:7-8).

개역개정 1:28-32

²⁸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²⁹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³¹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³²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28-31 이것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반역하고 타락하고 독립적이게 된 사람들을 특징짓는다(참조, 롬 13:13; 고전 5:11; 6:9; 갈 5:19-21; 앱 5:5; 딤전 1:10; 계 21:8).

인류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를 선택한 점이었다. 그러한 삶이 영속적으로 되는 것이 지옥이다. 독립적인 것은 비극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상실된 삶이고, 독립적인 삶이고, 성취함이 없는 삶이다. 영원한 지옥의 가장 나쁜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함에 있다!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사악함과 덕

신약에서 사악함과 덕의 항목은 자주 나타난다. 이 항목들은 종종 랍비들의 가르침과 문화적(헬라적) 항목을 반영한다. 신약에서 대조되어 나타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u>사악함</u>	덕
1. 바울	롬 1:28-32 롬 13:13 고전 5:9-11 6:10 고후 12:20 갈 5:19-21 엡 4:25-32 5:3-5 ---	--- 롬 2:9-21 --- 고전 6:6-9 고후 6:4-10 갈 5:22-23 --- ---
2. 야고보	골 3:5, 8 딤전 1:9-10 6:4-5 딤후 2:22a, 23 딛 1:7; 3:3 약 3:15-16	빌 4:8-9 골 3:12-14 --- ---
3. 베드로	벧전 4:3 벧후 1:9	딛후 2:22b, 24 딛 1:8-9; 3:1-2 약 3:17-18 벧전 4:7-11 벧후 1:5-8
4. 요한	계 21:8 22:15	--- ---

1:29 “그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인간이 자유로 여기는 것은 자기-예배이다: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나를 위하여!” 1:24, 26, 28에서는 **수동태**의 행위자가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창 1-3 장과 관련이 있는 이 문맥에서는 인간이 지식을 택한 일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아가 행위자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택한 그들 자신의 독립에 따르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셨다.

▣ “가득한 자요”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인간은 자신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으로 가득차고 그렇게 특징지어진다. 랍비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검은(악한 옛제르)개와 흰(좋은 옛제르)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가장 잘 먹이는 쪽이 가장 크게 된다.

1:29-31 이러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요 그 증상이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선택한 개인과 사회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바울이 죄의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의 한 가지 경우이다(참조, 고전 5:11; 6:9; 고후 12:20; 갈 5:19-21; 앱 4:31; 5:3-4; 골 3:5-9).

1:30 “교만한”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바울의 “휘페르” 합성어 용법

바울은 헬라어 전치사인 휘페르를 사용하여 새 단어를 만드는 것을 특별히 좋아했다. 이 전치사는 “위에” 혹은 “위”를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소유격(탈격)과 함께 사용될 때 “대신에”를 의미한다. 이것은 페리(참조, 고후 8:23; 살후 2:1)처럼 “대하여” 혹은 “관하여”를 의미할 수 있다. 목적격과 함께 사용될 때 “위로,” “위에,” 혹은 “건너”를 의미한다(참조, A. T. 로벗슨, 역사적 연구에 비추어 본 헬라어 신약 문법, 625-633쪽). 바울이 어떤 개념에 강조를 나타내기 원할 때는 이 전치사가 들어가는 합성어를 사용했다. 다음은 이 전치사가 들어가는 합성어를 바울이 특별히 사용한 목록이다.

가. 하팍스 레고메논(신약에서 단 한번만 사용됨)

1. 휘페르악모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넘긴 자, 고전 7:36
2. 휘페르아욱사노, 과도하게 늘리는 것, 살후 1:3
3. 휘페르바이노, 넘어가는 것 혹은 범죄하는 것, 살전 4:6
4. 휘페르케이나, 저편에, 고후 10:16
5. 휘페르렉테이나, 과도히 늘리는, 고후 10:14
6. 휘페르엔툭카노, 중재하다, 롬 8:26
7. 휘페르니카오, 크게 승리하다, 롬 8:37
8. 휘페르플레오나조, 넘치게 풍부하다, 딤전 1:14
9. 휘페르윤소오, 크게 기뻐하다, 빌 2:9
10. 휘페르프로네오, 고상한 생각을 갖다, 롬 12:3

나. 바울의 글에서만 사용되는 단어

1. 휘페르아이로마이, 자신을 높이다, 고후 12:7; 살후 2:4
2. 휘페르발론토스, 측량할 수 없는, 굉장히, 고후 11:23; (여기서만 부사로, 동사로는 고후 3:10; 9:14; 앱 1:19; 2:7; 3:19에서)
3. 휘페르볼레, 빗맞힘, 과도한 무장, 롬 7:13; 고전 12:31; 고후 1:8; 4:7, 17, 22:7; 갈 1:13)
4. 휘페르렉페릿수, 모든 범위를 뛰어 넘는, 앱 3:20; 살전 3:10; 5:13
5. 휘페르리안, 가장 높은 정도로 또는 탁월하게, 고후 11:5; 12:11
6. 휘페르로케, 탁월함, 뛰어남, 고전 2:1; 딤전 2:2
7. 휘페르레릿슈오, 충분히 보강하다, 롬 5:20(중간태, 풍성히 채우다, 넘치는, 고후 7:4)

다. 바울이 사용하였고 다른 신약저자들이 드물게 사용한 단어

1. 휘페르아노, 매우 높이, 앱 1:21; 4:10; 히 9:5
2. 휘페르에코, 뛰어남, 탁월함, 롬 13:1; 빌 2:3; 3:8; 4:7; 벤전 2:13
3. 휘페르에파노스, 가정하는 또는 거만한, 롬 1:30; 딤후 3:2; 뉴 1:51; 약 4:6; 벤전 5:5

바울은 놀라운 열정의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 좋았던 경우에는 그들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또 그들이 나빴던 경우에는 매우 나쁜 것으로 보았다. 이 전치사는 그로 하여금 죄, 자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최상급의 느낌을 표현하게 도왔다.

1:32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진술은 모세의 율법을 반영한다. 이것은 롬 6:16, 21, 23; 8:6, 13에 요약되어 나타난다. 사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의 반대이다(참조,겔 18:32; 딤전 2:4; 베후 3:9).

▣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비참한 일은 동료를 필요로 한다. 타락한 인류는 다른 이의 죄를 변명의 구실로 사용한다, “모두가 이것을 하는데요.” 각 문화는 각각 독특한 죄로 특징되어진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가?
2. 왜 로마서는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적 진술인가?
3. 당신 자신의 말로 1:18-3:20의 개요를 말하라.
4. 복음을 결코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음을 인해 하나님께 거부당할 것인가?
5.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6.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설명해 보라.
7. 24-27 절은 동성애의 이슈에 대한 내용인가?

로마서 2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유대인이 심판에 놓이다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이 분노하심에서 제외됨
2:1-16	2:1-16	2:1-11	2:1-16	2:1-11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죄 있음	심판의 기준	유대인과 율법 (2:17-3:8)	율법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 할 것임
		2:12-16		2:12-16
2:17-3:8	2:17-24	2:17-24	2:17-24	2:17-24
	할례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			할례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 할 것임
	2:25-29	2:25-29	2:25-29	2:25-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로마서 2:1-3:20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2 장과 3 장은 1:18에서 시작된 문학적 단위를 완성한다. 이 부분은 다음 내용을 다룬다:
 1. 모든 사람이 잃어버려 짐
 2.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3. 각 사람이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할 필요.
- 나. 2 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하여 7가지 원리가 나온다
 1. 2 절, 진리를 따라서
 2. 5 절, 쌓인 죄

- 3. 6 & 7 절, 행위에 따라서
 - 4. 11 절,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가 아님
 - 5. 13 절, 삶의 양식
 - 6. 16 절, 사람의 마음의 비밀
 - 7. 17-29 절, 특별한 민족적 구분이 없음.
- 다. 2:1-17에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주석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다. 2:12-29 이 유대인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하다. 1-17 절은 세네카(사회적 규범)와 같은 도덕적인 이교도들과 유대 민족(모세의 율법)에게 말하는 2중 목적을 가진다.
- 라. 1:18-21에서 바울은 사람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4-15에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도덕적 양심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중인인 창조된 세계와 양심은 구약이나 복음 메시지를 접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는 배경이 된다. 인간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준대로 살지 않음을 인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

¹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평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²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³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⁴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⁵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⁶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⁷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⁸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⁹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¹⁰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¹¹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2:1

NASB	“남을 판단하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없을 것은”
NKJV	“오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든 네가 용서받지 못할 것은”
NRSV	“네가 남을 판단할 때 네가 누구든 네게 용서가 없을 것은”
TEV	“네가 누구든 네게 용서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네가 남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JB	“네가 누구일 지라도 만일 네가 남을 판단한다면 네게 용서가 없을 것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법적 변호가 없음”이다(참조, 1:20). 이것은 헬라어 문장에서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맨 앞에 나온다. 1-16 절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유대인 율법주의자와 헬라의 도덕주의자 양자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다른 이를 판단함으로써 자신을 정죄한다.

2:2 “우리가 아노라” 이 대명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아마도 동료인 유대인을 가리킨다. 2-4 절에서 바울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서 통렬한 비난으로 불리는 질문과 답변의

기교를 사용한다. 이것은 반대자를 가정하여 놓음으로써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하박국, 말라기서와 헬라어 철학가(소크라테스와 스토퍼의 학파)는 물론 랍비들도 사용하였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표현은 로마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2:2; 3:19; 7:14; 8:22, 28). 바울은 그의 청중이 1 장에 나오는 부도덕적인 이교도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하나님의 심판”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한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선물을 주심을 인해 하나님께 자기 일을 고해야 할 것이다(참조, 5-9 절; 마 25:31-46; 계 20:11-15). 그리스도인 조차도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참조, 14:10-12; 고후 5:10).

2:3 바울이 사용하는 수사적 질문의 문법적 형태는 “아니오”라는 답을 기대한다.

■ “네가 . . . 생각하느냐” 이것은 헬라어 동사 *로기조마이*이다. 바울은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롬 2:3, 26; 3:28; 4:3, 4, 5, 6, 8, 9, 10, 11, 22, 23, 24; 6:11; 8:18, 36; 9:8; 14:14; 갈 3:6; 또한 고린도전후서에서 10 회, 빌립보서에서 2 회). 4:3과 8:18의 설명을 보라.

■ “사람아” 이것은 1 절에 있는 같은 관용어와 어울린다. 9:20에서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2:4 이것은 헬라어에서도 질문으로 되어 있다.

■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내를 오해하여 이것을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죄를 짓는 기회로 종종 바꾼다(참조, 벤후 3:9).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종종 “풍성하심”으로 설명한다(참조, 9:23; 11:33; 골 1:27; 앱 1:7, 18; 2:4, 7; 3:8, 16; 빌 4:19).

■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회개는 하나님과의 믿음-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참조, 마 3:2; 4:17; 막 1:15; 6:12; 뉘 13:3, 5; 행 2:38; 3:16, 19; 20:22). 히브리어에서 이 용어는 행동의 변화를 뜻한 반면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했다. 회개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 존재에서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고 지도를 받는 삶으로 기꺼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우선순위를 좇는 것과 자신의 노예가 됨에서 돌이키는 것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새 자세로 새 세계관이며 새 주인을 갖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아담의 모든 타락한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갤 18:21, 23, 32; 벤후 3:9).

신약에서 회개를 뜻하는 여러 헬라어 용어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으로는 고전 7:8-12 이 있다: (1) *뤼페오*, “슬퍼함” 또는 “슬픔,” 8 절(2 회), 9 절(3 회), 10 절(2 회), 11 절; (2)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다” 또는 “나중에 돌아보다,” 8 절(2 회), 9 절 (3) *메타노이아*, “회개” 또는 “나중 생각,” 9, 10 절. 이것의 대조는 거짓 회개(*메타멜로마이*) (참조, 유다, 마 27:3 와 에서, 히 12:16-17) 대 참된 회개(*메타노에오*)이다.

참된 회개는 신학적으로 다음과 관련이 있다: (1) 예수님의 설교에서 새 언약의 조건임(참조, 마 4:17; 막 1:15; 뉘 13:3, 5) (2)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설교(케리그마, 참조, 행 3:16, 19; 20:21) (3)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참조, 행 5:31; 11:18 과 딤후 2:25) (4) 멸망(참조, 벤후 3:9). 회개는 선택이 아니다!

특별주제: 회개

회개(믿음과 더불어)는 옛 언약(나훔, 왕상 8:47; 슈브, 왕상 8:48; 갤 14:6; 18:30; 율 2:12-13; 속 1:3-4)과 새 언약의 언약적 요구이다.

1. 침례(세례)요한(마 3:2; 막 1:4; 뉘 3:3, 8)

2. 예수(마 4:17; 막 1:15; 2:17; 놀 5:32; 13:3, 5; 15:7; 17:33)
3. 베드로(행 2:38; 3:19; 8:22; 11:18; 벤후 3:9)
4. 바울(행 13:24; 17:30; 20:21; 26:20; 롬 2:4; 고후 2:9-10)

그러나 무엇이 회개인가? 이것은 슬퍼함인가? 이것은 죄를 그치는 것인가? 신약에서 이 개념의 여러 함축적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7:8-11인데, 이 본문은 다르면서도 서로 관계가 있는 3 가지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슬픔”(ὕδα, 참조, 8 절[2 회], 9 절[3 회], 10 절[2 회], 11 절). 이것은 슬픔이나 번민을 뜻하며 신학적으로는 중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2. “회개”(μετανοέω, 참조, 9, 10 절). 이것은 “후에”와 “마음”의 합성어로서 새 마음, 생각하는 면에서의 새로움, 삶과 하나님께 대한 새 자세를 뜻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다.
3. “후회”(μεταμέλομαι, 참조, 8 절[2 회], 10 절). 이것은 “후에”와 “돌봄”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마 27:3에서 유다에 대해 사용되었고 히 12:16-17에서 예수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슬퍼함을 뜻한다

회개와 믿음이 언약의 행위로서 요구된다(참조, 막 1:15; 행 2:38, 41; 3:16, 19; 20:21).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것을 암시하는 몇 본문이 있다(참조, 행 5:31; 11:18; 딥후 2:25). 그러나 대부분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언약적 응답에 필요한 것으로 이것을 본다.

회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어서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구원받은 자는 새 마음과 심령을 받는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산다. “나를 위해 무엇이 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한다. 회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나 혹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룩하신 부과의 새로운 교제로서 신자가 점차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다.

2:5-9 이 절들은 (1) 타락한 인간의 완고함과 (2)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설명한다.

2:5 “고집” 이스라엘이 출 32:9; 33:3, 5; 34:9; 신 9:6, 13, 27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해진다.

▣ “마음” 1:24의 특별주제를 보라.

▣ “진노의 날” 이것은 “주의 날”로 구약에서 불린다(참조, 요엘, 아모스). 이것은 심판의 날의 개념을 가지며 신자들에게는 부활의 날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해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고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진노를 쌓고 있는 자가 죄인들 자신(“너희”와 “너희 자신”)임을 주목하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쌓인 진노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자연스런 경과대로 되게 허용하신다.

진노는 하나님께 사용된 인간의 모든 단어와 마찬가지로 단지 유추적으로(신인동형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사용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이시다. 인간은 유한하며 죄있는 육체적 존재다. 하나님은 격노함과 같이 감정적으로 진노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반역에 대해 대응하시는 분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를 해결하시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성경에서 이것은 시간적 요소이며 (일시적, 참조, 1:24, 26, 28)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종말론적, 참조 2:5-8). 주의 날(심판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시에 회개하여 그들의 미래가 축복을 받고

심판받지 않도록(참조, 신 27-28 장) 경고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당시의 위기를 사용하여 미래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나타냈다.

2:6 이것은 시 62:12의 인용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이에 대해 고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원리를 나타낸다(참조, 롬 3:11; 잠 24:12; 전 12:14; 램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갈 6:7-10; 딤후 4:14; 벤전 1:17; 계 2:23; 20:12; 22:12). 선자들까지도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참조, 고후 5:10). 선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구원받는다(참조, 앱 2:8-10[특히 2:14-26];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2:7 “~자에게는”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그러나 ~한 자들에게는).

■

NASB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NKJV “영생을 인내로 계속하여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
NRSV “인내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 그가 영생을 주실 것이다”
TEV “어떤 이들은 계속하여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JB “항상 선을 행함으로 명성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행 10:34-35). 이 본문은 의를 얻는 행함(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얻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로마서 전체의 주요 주제와 맞지 않는다. 1-16절 혹은 1-11절이 한 문단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라. 전체적인 신학적 요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따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며(11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다(12절). 만일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빛(이방인에게는 자연계시, 유대인에게는 특별계시, 참조, 10:5)에 따라 산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3:9-18, 23의 요약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가 처음에 가진 믿음의 응답을 확증하고 그것이 유효함을 입증한다.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이다(참조, 10, 13절; 마 7장; 앱 2:8-10; 약 2:14-26; 요한일서). 8:25의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를 보라.

■ “영생” 이것은 요한의 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이지만 공관복음에서는 드물게 사용된다. 바울은 이 표현을 단 12:2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딤 1:2; 3:7). 그 곳에서 이 단어는 새 시대에 갖는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뜻한다. 그는 이것을 갈 6:8에서 처음 사용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교리적인 면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논제이다(참조, 2:7; 5:21; 6:22, 23). 이것은 목회서신에서도 여러 번 사용된다(참조, 딤전 1:16; 딤 1:2; 3:7).

2:8

NASB “이기적 야망을 가진 자”
NKJV, NRSV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
TEV “다른 이들은 이기적이다”
NJB “시기로 행하는 자”

이 용어는 원래 “고용을 위해 일하다”를 뜻한다(참조, 토비야 2:11).

로우와 니다, 헬라어-영어 사전, 제 2권 104쪽,는 이 용어의 두 용법을 말한다.

1. “이기적 야망,” 롬 2:8에서 “다른 이 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에서 사용하는데, 이 문맥에서의 용법이다.
2. “적대감,” 빌 1:17에서 “다툼”으로 번역하고 있다(또한 고후 12:20; 갈 5:20; 빌 2:3; 약 3:14, 16을 보라).

▣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알레세이아)라는 용어는 진실함과 믿음직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에멧)를 가진다. 이 문맥에서는 지식적인 면이 아닌 도덕적 초점을 나타낸다. 1:18 의 특별주제: 바울의 글에서의 진리를 보라.

2:9 “각 사람의 영에는” 바울은 “모든” 혹은 “각”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파스를 로마서의 여러 장에서 앞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쁜 소식”(인간의 상실성과 하나님께서 편애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음)과 “좋은 소식”(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저로 주신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내용의 보편적 적용을 나타낸다.

이 문맥은 강하게 보편적 심판과 이것에 뒤따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진리는 의인과 악인 두 쪽다 부활할 것을 말한다(참조, 단 12:2; 요 5:28-29; 행 24:15).

만일 6-11 절이 대차구조를 가진다면, 심판과 악인에 대한 내용인 8-9 절은 핵심 요절을 이룬다.

2:8-10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것은 강조를 말하기 위해 반복된다.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기에 먼저 기회를 가졌지만(참조, 1:16; 마 10:6; 15:24; 요 4:22; 행 3:26; 13:46),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기에 또한 먼저 심판을 받는다(참조, 9-11 장).

2:11

NASB, NKJV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NRSV “이는 하나님께서 편애를 나타내지 아니하심이라”
TEV “이는 하나님께서 같은 척도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심이라”
NJB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지 않으심이라”

문자적으로 이것은 “얼굴을 들다”로서 구약의 사법제도에서 나온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레 19:15; 신 10:17; 대하 19:7; 행 10:34; 갈 2:6; 앱 6:9; 골 3:25; 벤전 1:17). 만일 재판관이 자신이 하고 있는 재판에 있어서 이에 관계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재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 앞에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들게 해서는 안되었다.

특별주제: 인종적 우월감

I 서론.

- 가.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 의해 그들의 사회 안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이다. 인종적 우월감은 여러 면에서 현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에, 국수주의(또는 부족주의)는 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다.
- 나. 국수주의는 바벨에서 시작되었고(창 11 장) 그 기원이 노아의 세 자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로부터 소위 인종이 시작(창 10 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인류는 한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참조, 창 1-3 장; 행 17:24-26).
- 다. 인종주의는 여러 편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종류로는 (1) 교육적 속물 균형 (2) 사회 경제적 교만 (3) 자기 의로 가득 찬 종교적 율법주의 (4) 교리적 정치적 가입이 있다.

II 성경의 자료

가. 구약

1. 창 1:27 – 인류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입었는데 이점이 그들을 독특하게 한다. 이 점은 또한 그들 각자가 귀하고 위엄이 있는 존재임을 뜻한다(참조, 요 3:16).
2. 창 1:11-25 – 여기에는 “... 그 종류를 따라 ...”가 10번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인종적 구분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것은

동물에 대한 것이지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3. 창 9:18-27 – 이것은 인종적 우월함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의 아버지인 노아가 술취함으로 인한 무감각에서 깨어난 후에 그를 저주한 것이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맹세/저주를 뒷받침해 주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흑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자들의 조상이었고 이집트의 벽화에서도 그들이 흑인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4. 수 9:23 – 이것은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섬길것을 입증하는 구절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기브온 족속은 유대인과 같은 인종적 줄기를 가진다.
5. 스 9-10 장과 느 13 장 – 이것은 인종적 구분을 지지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볼 때 인종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그들은 같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왔다, 창 10 장) 종교적 이유로 이들과의 결혼을 비난하는 것이다.

나. 신약

1. 복음서

ㄱ.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증오감을 사용하여 여러 경우에 말씀하셨다.

-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
- (2) 우물가의 여인(요 4:4)
- (3) 감사하는 문둥병자(눅 17:7-19)

ㄴ. 복음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 (1) 요 3:16
- (2) 루 24:46-47
- (3) 히 2:9
- (4) 계 14:6

ㄷ. 왕국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것이다

- (1) 루 13:29
- (2) 계 5 장

2. 사도행전

ㄱ. 사도행전 10 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과 복음의 우주적 선포를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이다.

ㄴ. 베드로는 사도행전 11 장에서 보여 준 그의 행동을 인해 비난받았고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회의로 모여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었다. 1 세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은 굉장히 심각했다.

3. 바울

ㄱ. 그리스도 안에는 장벽이 없다.

- (1) 갈 3:26-28
- (2) 앱 2:11-22
- (3) 골 3:11

ㄴ.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 (1) 롬 2:11
- (2) 앱 6:9

4. 바울과 야고보

5. 요한

ㄱ. 신자의 책임에 대한 한 가지 강한 진술이 요일 4:20에 있다.

III. 결론

- 가. 인종주의 혹은 이와 관련이 있는 어느 종류의 선입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전혀 걸맞지 않는다. 여기에 1964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뉴멕시코의 글로리에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헨리 바넷이 말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인종주의는 이단적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 비과학적인 것은 물론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 나.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용서, 이해를 잃어버려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거부감은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악한 자로 하여금 믿는 자의 믿음, 확신, 성장을 방해하는 기회가 되게 한다. 이것은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는데 장애로 역할을 한다.
- 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 부분은 그리스도인 삶의 헌신에서 발행한 “인종관계”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발췌했다)

개인적 영역에서:

- ★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라.
- ★ 기도와 성경연구, 또한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인종적 편견을 몰아내도록 노력하라.
- ★ 인종 문제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표현해 보라. 특별히 인종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삼지 않는 부분을 접근하라.

가족적 영역에서

- ★ 가정이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지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라.
- ★ 아이들과 부모가 집 밖에서 인종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발전되도록 하라.
- ★ 부모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일에 자신의 모범을 보이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 ★ 가족적으로 인종적 선을 건너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라.

교회에서

- ★ 인종주의와 관련된 성경의 진리를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회중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
- ★ 교회가 행하는 예배, 교제, 봉사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음을 상기하라. 신약교회에서 조차 인종적 장벽이 보이지 않았다(엡 2:11-22; 갈 3:26-29).

매일의 삶에서

- ★ 일하는 모든 곳에서 어떤 종류의 인종적 차별도 극복하도록 도우라.
- ★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일하는 모든 단체나 기구와 협력하라. 비난 받아야 될 것은 인종차별의 문제이지 사람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이것의 취지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지 쓴 감정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 ★ 만일 어떤 특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일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이를 조직하라. 공동체 안에서 일반 대중에게 홍보를 통한 교육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과 또한 인종 관계를 개선시킬 특별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조직하라.
- ★ 인종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증진시키는 법률가와 그러한 법률의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왜곡된 생각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라.
- ★ 법률을 실행하는 자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

- ★ 폭력을 피하고 법을 존중하되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법의 구조가 인종차별을 증진시키는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
- ★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드러내도록 하라.

개역개정 2:12-16

¹²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¹³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¹⁴(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¹⁵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¹⁶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2:12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약이나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이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모든 사람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참조, 1:19-20; 시 19:1-6)과 본유적인 도덕적 센스(참조, 2:14-15)를 갖고 있다. 모든 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서 자발적으로 어긋남이 비극이다(참조, 1:21-23; 3:9, 19, 23; 11:32; 갈 3:22).

▣ “율법” “율법”이란 용어에 판사가 없다. 이 문법 구조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내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법”을 여러 다른 여러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1) 로마의 법 (2) 모세의 율법 (3) 인간의 사회적 규범을 말하는 일반적 개념. 판사의 여부가 아니라 문맥이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인간의 마음 속에 드러내신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을 모든 인간이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참조, 15 절).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자”라는 용어는 랍비들의 용법에서 토라의 학생을 랍비들이 일컫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신약의 저자들이 히브리 사고를 가졌고 코이네 헬라어로 글을 쓰고 있음을 기억하라. 따라서 단어 분석은 헬라어 사전이 아닌 70 인역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의로운” 혹은 “의롭게 된”(키케의 모든 형태임)은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3:4, 20, 24, 26, 28, 30; 4:2, 5; 5:1, 9; 6:7; 8:30, 33). “의로운,” “의롭게 된,” “칭의,” “바른”과 “의”는 모두 디카이오스에서 왔다. 1:17 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히브리어(쎄덱)에서 이것은 원래 길고 곧은 갈대(5 내지 7 미터)로서 벽이나 울타리가 똑바로 되었는지 재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재판의 기준을 나타내게 되었다.

바울의 글에서 이 용어는 두 가지 초점을 갖는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죄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의를 거저 주신다. 이것은 종종 전가된 의 혹은 법적 의로 불린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법적 신분을 가리킨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주제의 기원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죄있는 인간 안에 회복시키는(참조, 창 1:26-27) 하나님의 활동,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이 절은—마 7:24; 농 8:21; 11:28; 요 13:17; 약 1:22-23, 25처럼—신자들이 듣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한다. 전가된 의는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신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법적이며 도덕적이다. 새 언약은 인간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하며 또한 경건한 삶을 요구한다. 이것은 거저지만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다.

▣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종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요구한다(참조, 레 18:5; 마 7:24-27; 눅 8:21; 11:28; 요 13:17; 약 1:22-25; 2:14-28). 많은 면에서 이 개념은 행하기 위해 듣는다는 의미인 히브리어 쉐마를 흉내낸다(참조, 신 5:1; 6:4; 9:1; 20:3; 27:9-10).

2:14

NASB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NKJV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자연히 율법에 있는 일을 행할 때에는 비록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NRSV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때에는 비록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TEV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적인 의지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을 지라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JB “예를 들면, 율법을 결코 듣지 못했던 이교도들이지만 이성에 이끌려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때에는 실제로 율법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율법 ‘~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나니”

모든 문화는 그 안에 사회적 규범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빛(기준)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참조, 고전 9:21). 이 절은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본성적 지식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말한다.

2:15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내면에서 들리는 도덕적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조명을 받은 성경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타락은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조세계(1:18-20)와 이러한 내면의 도덕률(2:14-15)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이다. 히브리어에는 “양심”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슈네이데시스)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없다. 선악에 대한 내면의 도덕적 감각을 나타내는 헬라 개념에 대해 스토퍼 철학가들이 종종 다루었다. 바울은 다소에서 받았던 초기의 교육을 통하여 헬라 철학가들을 잘 알았다(그는 행 17:28에서는 크레안테스를; 고전 15:33에서는 멘안더를; 딘 1:12에서는 에피메니데스를 인용하고 있다). 그의 고향은 헬라 수사법과 철학으로 유명한 학교로 잘 알려졌다.

2:16 “그 날이라” 2:5의 설명을 보라.

▣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문맥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가리킨다. “나의”라는 대명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에 대한 그의 청기지 의식을 반영한다(참조, 16:25; 고전 15:1; 갈 1:11; 디전 1:11; 딤후 2:8). 이것은 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께 대한 진리를 헬라-로마 세계에 전하여야 할 책임감에 대한 각별한 느낌을 그가 가졌음을 나타낸다.

▣ “하나님이 . . .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참조, 삼상 2:7; 16:7; 왕상 8:39; 대상 28:9; 대하 6:30; 시 7:9; 44:21; 139:1-6; 잠 15:11; 21:2; 램 11:20; 17:10; 20:12; 눅 15:16; 행 1:24; 15:8; 롬 8:27; 계 2:23). 성부는 성자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동기와 행동을 법적으로 검사하실 것이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참조, 요 3:17-21). 그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신자들에게 따라야 할 모본을 주기 위해 오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재판한다.

한편 신약은 예수께서 심판 때에 성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행할 것임을 가르친다(참조, 요 5:22, 27; 행 10:41; 17:31; 딤후 4:1). 재판관이시며/또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긴장은 요한의 복음에서 나타난다(참조, 3:17-21 대 9:39).

개역개정 2:17-24

¹⁷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¹⁸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¹⁹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²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²¹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²²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²³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²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17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 조건은 20 절까지 이어지는데 결론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TEV는 예수께서 하셨을 확증을 가정하며 번역을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 전통,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다고 믿었다(참조, 마 3:9; 요 8:33, 37, 39).

■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접받는 방법으로서 의지한 것은 (1) 그들의 인종적 혈통과 (2)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개인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하는 율법주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참조, 마 5:20; 갈 3 장).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함의 주제를 발전시킨다. 바울은 교만한 이스라엘과 교만한 헬라의 지성주의에 대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않다는 점이다(참조, 앱 2:8-9, 또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취하실 때 대단한 것을 얻지 못하셨다!).

특별주제: 자랑

헬라어 용어인 카우카오마이, 카우케마, 카우케시스는 바울이 대략 35 회 사용하고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2 회만 나온다(두 번 다 야고보서에서). 이것은 고린도전후서에서 주로 사용된다. 자랑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진리가 있다.

- ★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거나/자랑해서는 안된다(참조, 고전 1:29; 앱 2:9)
- ★ 신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한다(참조, 렘 9:23-24 를 암시하는 고전 1:31; 고후 10:27)

따라서 자랑/영광돌림에는 적절한 것과 적절치 못한 것이 있다(즉, 자긍).

1. 적절한 것

- ㄱ. 영광의 소망 안에서(참조, 롬 4:2)
- ㄴ.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참조, 롬 5:11)
- 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즉, 바울의 주요 주제, 참조, 고전 1:17-18; 갈 6:14)
- ㄹ. 다음의 경우에 바울이 자랑한다
 - (1) 보상없이 하는 그의 사역(참조, 고전 9:15, 16; 고후 10:12)
 - (2) 그리스도로 부터 온 그의 권위(참조, 고후 10:8, 12)
 - (3) 다른 이의 수고에서는 그가 자랑하지 않음(고린도에서 어떤 이가 그랬듯이, 참조, 고후 10:15)

- (4) 그의 인종적 유산(어떤 이들이 고린도에서 하였듯이, 참조, 고후 11:17; 12:1, 5, 6)
 - (5) 그의 교회들
 - (ㄱ) 고린도(고후 7:4, 14; 8:24; 9:2; 11:10)
 - (ㄴ) 데살로니가(참조, 살후 1:4)
 - (6)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에 대한 그의 확신(참조, 고후 1:12)
2. 부적절한 것
- ㄱ. 유대인의 유산과 관련하여(참조, 롬 2:17, 23; 3:27; 갈 6:13)
 - 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어떤 자들이 자랑함
 - (1) 사람을(참조, 고전 3:21)
 - (2) 지혜를(참조, 고전 4:7)
 - (3) 자유를(참조, 고전 5:6)
 - ㄷ.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함(참조, 고후 11:12)

2:18 “분간하며” 다음의 특별주제인 시험을 보라.

특별주제: 헬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고의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 있다.

1. 도키마조, 모키미온, 도키마시아

이 용어는 금속제련 용어로서 어떤 물질(은유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순수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가리킨다. 불은 찌꺼기를 태워버림(정화)으로써 순수한 금속을 드러낸다. 이 물리적 과정은 하나님과/혹은 사람이 다른 이를 시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강력한 숙어가 되었다. 이 용어는 받아들여짐의 관점에서 시험이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것은 한 번 뿐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시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 ㄱ. 소, 뉴 14:19
- ㄴ. 우리 자신, 고전 11:28
- ㄷ. 우리의 믿음, 약 1:3
- ㄷ. 심지어 하나님, 히 3:9

이러한 시험의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 가정된다(참조, 롬 1:28; 14:22; 16:10; 고후 10:18; 13:3; 빌 2:27; 벤전 1:7). 따라서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여 다음을 입증한다

- ㄱ. 가치있음
- ㄴ. 좋음
- ㄷ. 진실됨
- ㄹ. 값 있음
- ㅁ. 영예로움

2.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이 용어는 잘못을 찾아내거나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께서 받은 유혹과 관련되어 종종 사용된다.

- ㄱ. 이것은 예수께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참조, 마 4:1; 16:1; 19:3; 22:18, 35; 막 1:13; 뉴 4:2; 10:25; 히 2:18)

- ㄴ. 이 용어(페이라조)는 마 4:3 과 살전 3:5 에서 사탄의 호칭으로 사용된다.
- ㄷ. 이것(합성어의 형태인 엑페이라조)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마 4:7; 뉘 4:12; 또한 고전 10:9 을 보라).
- ㄹ. 이것은 신자들이 받는 유혹이나 시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7:5; 10:9, 13; 갈 6:1; 살전 3:5; 히 2:18; 약 1:2, 13, 14; 벤전 4:12; 벤후 2:9).

▣ “율법” 17 절 이하는 유대 민족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문맥에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킴이 틀림없다. 이것은 할례를 다루는 25 절에 의해 확인이 된다.

2:18-20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길(유대교라는 그들의 종파)이 바른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종교적 문제에 관한 한 자신들이 참된 교사라고 확신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참조, 뉘 12:48).

그들의 확신과 평행을 이루는 구들을 살펴보라.

1.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19 절
2. 어둠에 있는 자의 빛, 19 절
3. 어리석은 자의 교사, 20 절
4. 어린 아이의 선생, 20 절
5.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20 절

2:21-24 만일 사람이 자신의 순종을 신뢰한다면, 그 순종은 완전해야만 한다(참조, 마 5:20, 48; 갈 3:10 은 신 27:26 의 인용이다. 또한 약 2:10).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불가능성을 말한다. 바울은 21-23 절에서 다섯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유대인 독자/청중에게 한다.

2:22 22-23 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그 설명이 바울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죄들이 마 5:20-48 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한 방법과 비슷한 영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지 래드는 신약신학에서 말하기를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는 것, 영적 간음, 또한 자기와 함께 지으심을 받은 자들 위에 재판관과 주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만 합당한 현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말한다, 505 쪽.

2:22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어떤 것에서 돌아섬이 이 용어의 어근적 의미이다.

▣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2:24 이것은 70 인역 사 52:4 의 인용이다.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참조, 신명기 27-28 장)은 세계에 중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따라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볼 수 있었다(참조,겔 36:22-32).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사람을 야웨께로 이끄는(참조, 창 12:3; 앱 2:11-3:13)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다(참조, 출 19:5-6). 1:5 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개역개정 2:25-29

²⁵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²⁶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²⁷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²⁸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²⁹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25 “할례” 바울은 아직 신랄한 비난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적어도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고 우쭐댈 것이다(참조, 창 17:10-11). 우리는 아브리함의 계보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소중히 여겨 온 유대인의 소망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부정한다(참조, 마 3:7-10; 요 8:31-59).

이스라엘의 모든 이웃은 블레셋만 제외하고는 할례를 행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행위 자체가 아니었고 바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이었다(참조, 26-27 절). 이것은 모든 종교 의식에 있어서 사실이다. 종교적 사람들은 종종 책임감은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원한다.

2:25-26 “만일 . . . 만일 . .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순종(참조, 신 27-30 장)이 2 장에 나타난 바울의 논점에서 열쇠이지만, 3:21-31에서는 그렇지 않다(참조, 갈 3 장).

2:26-27 이 절들은 어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빛에 비추어 행동한다는 소망을 제시한다. 성경에서 이러한 유일한 예는 사도행전 10 장의 고넬료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절에 잘 들어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한 지역에 있던 회당에서 예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절들은 유대인의 구원의 필요를 말하는 바울의 논점에 반대되는 경우이다. 로마서 3:23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도 없이 잃어버려진 자들임을 요약해서 말한다. 만일 창조를 통해서 또한 내면의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빛대로 산 유대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그들이 그리스도께 응답하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다.

2:28-29 “유대인이 아니요 . . . 유대인이며” 이것은 오늘날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흐름과 이에 따른 시도로서 구약의 백성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혹은 그들을 캡슐에 싸놓는 시도를 인해 중요한 논의가 된다. 오직 한 언약과 한 백성만 있다(참조, 롬 9:6; 갈 3:7-9, 29; 6:16; 벤전 3:6).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발전이요 완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항상 있었다. 그들은 “심령의 백성”이지 의식이나 혈통을 따른 백성이 아니다. 부모가 아니라 믿음이 열쇠이다.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언약적 마음이 표식이다.

■ “육신”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9 “” 언약의 증표로서 받는 할례(참조, 창 17:14)는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열려 있음을 말하는 은유였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여러 의미로 발전되었다: (1) 마음의 할례(참조, 신 10:16; 렘 4:4) (2) 귀의 할례(참조, 렘 6:10) (3) 입술의 할례(참조, 출 6:12, 30). 율법은 결코 외적 법전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의미했다. 13:9의 특별주제: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보라.



NASB

“마음에 있는 것이니 성령으로 하고 글자로 하지 아니한”

NKJV

“마음에 있는 것이니 성령 안에 있고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한”

NRSV

“마음의 문제—이것은 영적이지 문자적이 아니다”

TEV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것이지 기록된 율법의 일이 아닌”

JB

“마음에—문자가 아닌 영의 어떤 것”

이 구는 헬라어에서 애매하다. 어떤 번역은 이것을 영적인 것 대 글자적인것으로 취한다(참조, NRSV, 20 세기 신약, 뉴스 역, 폐쉬타의 조지 A 람사 역, 윌리암 역, 새 버클리 역). 다른 번역은 성령(참조, 7:6; 고후 3:6, 여기에서는 비슷한 구문이 사용된다) 대 기록된 본문의 대조로 취한다(참조, NASB, NKJV, NEB, NIV, TEV).

바울은 어떤 이방인들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 할례만 받은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참조,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보다 더욱 넓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욥, 멜기세덱, 이드로, 갈렙, 라합, 롯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지파 조차도 이집트 사람과의 사이에 넣은 자손이었다(참조, 창 41:50-52).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대인의 신실치 못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미치는가(3:3-4)?
2.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3:1-8)?
3. 신랄한 비난이란 수사법은 어떤 것인가?
4. 무엇이 5-8 절에 있는 가정된 신랄한 비난의 요점인가?
5. 만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칭의를 얻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정말 차이를 가져오는가(3:8)?
6. 전적타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무엇인가(3:10-18)?
7. 무엇이 모세의 율법 혹은 일반적 법의 목적인가(3:20; 갈 3:24-25)?
8. 인간의 잃어버려짐을 다루는 1-3 장에서 왜 사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가?
9. 구약의 약속은 조건적인가 혹은 무조건적인가?
10. (1)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2) 유대인의 삶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은 무슨 목적을 가지는가?
11. 1:18-3:20에 있는 바울의 논쟁을 당신 자신의 말로 문단별 개요를 말하라.

로마서 3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유대인과 율법 (2:17-3:8)	하나님의 심판이 변호됨	유대인의 유리한 점	유대인과 율법 (2:17-3:8)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구하지 못 할 것임
3:1-8	3:1-8	3:1-8	3:1-4 3:5-6 3:7-8	3:1-8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모든 사람이 죄 있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모든 사람이 죄 있다.
3:9-20	3:9-20	3:9-18 3:19-20	3:9-18 3:19-20	3:9-18 3:19-20
믿음을 통한 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참 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정의의 계시
3:21-26	3:21-26	3:21-26	3:21-26	3:21-26
	자랑이 배제됨	자랑이 배제됨		믿음이 하는 것
3:27-31	3:27-31	3:27-31	3:27-31	3:27-3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8 절이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이는 그가 신랄한 비난(가정적인 반대자)으로 불리는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 나. 일부 유대인들이 2:17-29에 어떻게 반응할 것을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반대에 대해 답을 한다(콜리, 보한, 로마서, 37-39쪽).
1. 첫 질문. 유대인들은 정말로 아무런 유리한 점을 가지지 않는가? (1-2절)
 2. 두 번째 질문. 일부 유대인들이 불신실함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했는가? (3-4절)
 3. 세 번째 질문.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셨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가? (5-8절)
- 다. 결론이 2:11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편애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자연계시와/또는 특별계시)에서 떠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 라. 9-18절은 유대인의 죄를 묘사하는 구약의 연속적 인용이다.
- 마. 19-20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구약의 목적을 결론짓는다(참조, 갈 3장).
- 바. 21-31절은 1:18-3:20의 결론이다. 이것들은 복음의 첫 신학적 요점이다(2쪽의 간략한 개요를 보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8

¹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²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³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⁵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⁶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⁷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⁸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3:1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바울은 통렬한 비난 혹은 반대자의 가정이라는 문학적 기교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한다.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특권의 종류에 대하여는 3:2과 9:4-5을 보라.

3:2 “우선은” 바울은 1:8에서 “첫째는”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 항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는 같은 방법을 여기서 사용한다. 바울의 글은 매우 함축적이고 구술에 의한 것이어서 종종 글의 문법적 구조가 불완전하다.

▣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특권이며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참조 9:4-5).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의 청지기이다(부정과거 수동, 참조 살전 2:4).

로기온(신탁)이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나타낸다(참조, 신 24:4, 16; 신 33:9; 시 119:67; 사 5:24; 28:13). 이것은 신약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행 7:38; 히 5:12; 벤전 4:11).

3: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5 절과 7 절도 조건절의 제 1유형 문장이다.



NASB, NKJV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NRSV, JB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TEV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엇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각자의 (1) 신실하지 않음 또는 (2) 야웨를 각자가 믿지 않음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약속(즉, 타락한 인류의 구속)과 인간이 응답할 것에 대한 조건적 명령을 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이것은 성경의 역설이다(참조, 3:4-5).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참조, 호 1, 3 장).

■ “폐하겠느냐”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무효의 그리고 무효로하다(카탈게오)

이것(카탈게오)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이 단어를 적어도 25 회 사용하는데 이것의 어원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가. 이 어원의 기본적 어근은 알고스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1. 비활동적인
2. 놀고 있는
3. 사용하지 않은
4. 쓸모없는
5. 작동하지 않는

나. 카탸와 함께 쓰인 합성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1. 비활동적임
2. 쓸모없음
3. 취소된 것
4. 폐지된 것
5.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

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한 번 사용되었는데 열매없는을 뜻한다, 따라서 쓸모없는 나무(참조, 뉘 13:7).

라. 바울이 이것을 비유적 의미로 사용할 때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을 작동하지 않게 하심
 - ㄱ. 인간의 죄된 본성 – 롬 6:6
 - 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모세의 율법 – 롬 4:14; 갈 3:17; 5:4, 11; 앱 2:15
 - ㄷ. 영적 세력 – 고전 15:24
 - ㄹ. “무법한 자” – 살후 2:8
 - ㅁ. 육체의 죽음 – 고전 15:26; 딤후 1:16(히 2:14)
2. 하나님께서 새 것을 위해 현 것(언약, 시대)을 바꾸심
 - ㄱ.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들 – 롬 3:3, 31; 4:14; 고후 3:7, 11, 13, 14
 - ㄴ. 율법에 사용된 결혼의 유추 – 롬 7:2, 6
 - ㄷ. 이 세대의 것들 – 고전 13:8, 10, 11
 - ㄹ. 이 봄 – 고전 6:13
 - ㅁ. 이 세대의 지도자들 – 고전 1:28; 2:6

이 단어는 여러 방법으로 번역되었지만 주된 의미는 어떤 것을 쓸모없는, 무효의, 무효로하다, 작동하지 않는, 힘없게 함을 뜻한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파괴된, 또는 폐지된의 뜻을 갖지는 않는다.

3:1

NASB “이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NKJV, TEV “분명히 그렇지 않다”

NRSV “결단코”

JB “그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회구법으로서 소원이나 기도를 나타내고, “결코 그럴 수 없다”로 번역해야 한다. 놀라서 믿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구는 바울이 신랄한 비난이라는 문학적 기교를 위해 종종 사용한다(참조, 3:4, 6, 31; 6:2, 15; 7:7, 13; 9:14; 1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이것은 어떤 추정적 주장을 강조하여 부인하는 그의 방법이었다.

바울이 추정적 반대자의 질문과 진술을 거부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학적 기교를 주목하라.

1. “결코 그럴 수 없다,” 4, 6 절
2.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4 절
3.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5 절
4.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8 절

▣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이다. 이 구문은 주제의 계속적 상태에 초점을 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되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장이이다! 이것은 시 116:11의 암시이고 또한 읍이 32:2; 40:8에서 배운 것과 비슷하다.

이 장에서 죄의 보편성을 말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는 패스(모든, 각)가 4, 9, 12, 19, 20, 23, 24 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구원 또한 모든 사람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라(참조, 3:22).

▣ “기록된 바” 문자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었고 계속해서 기록되었다”이다.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셨음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전문적인 관용어가 되었다(참조, 마 5:17-19). 이것은 70 인역(LXX) 시 51:4의 인용이다.

3:5-6 바울이 이 절에서 하고 있는 논쟁은 세상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참조, 창 12:3; 출 19:5-6). 구약에서 “선택”은 섬김을 위함이지 특권을 위함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다(참조, 느헤미야 9 장).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이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실패했다(참조, 3:24)!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참조, 창 3:15)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음 언약에 대해 성실하심은 로마서 9-11 장에서 확증된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거부되었지만,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바울이 5-6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랄한 비난은 7-8 절과 평행을 이룬다.

3: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3 절과 7 절도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

▣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여기에서 대명사 ‘우리’는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집합적 의미이다.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은 신랄한 비판을 사용한다(참조, 3:5; 7:7; 8:31; 9:14, 39). 바울은 반대자를 가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시를 명확히 한다(참조, 말 1:2, 6, 7, 12, 13; 2:14, 17[2회]; 3:7, 13, 14).



NASB	“(내가 사람의 밀하는 대로 말하노니)”
NKJV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NRSV	“(내가 사람의 방법 대로 말하노니)”
TEV	“(내가 여기서 사람의 하는 대로 말하노니)”
JB	“—사람의 유추를 사용하는 것—”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논쟁에서 종종 인간의 논리를 사용한다(참조, 6:19; 고전 9:8; 갈 3:15). 여기서 이것은 가정하고 있는 반대자의 주장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한다.

3:7-8 5절과 7절 사이에 명백한 평행이 있다. 바울은 (1) 가정적인 반대자를 내세우는 신랄한 비난이라는 문학적 기교를 계속해서 사용하든지 또는 (2) 자신이 주장하는 바 믿음으로써만 누리는 청의에 대한 설교를 비난하는 것에 대응한다(참조, 8절).

바울은 비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나 답을 주는 대신에 강력하게 그 비난을 정죄한다. 믿음으로 자격없는 자가 거저 누리는 청의에 대한 반대는 이것이 무법한 상태 혹은 더욱 더 불신실함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새 영과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었다! 유대인, 헬라의 도덕주의자, 바울, 이들은 모두 그들의 개종자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외적인 법률조항을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새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진다(참조, 렘 31:31-34; 갤 3:22-36).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또한 3절과 5절도)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 “풍성하여” 15: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의 영광” 3:23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3:9-18

⁹ 그러면 어찌하나 우리는 나오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¹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¹¹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¹²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¹³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¹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¹⁵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¹⁶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¹⁷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¹⁸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3:9 “우리는 나오나” 이 부분의 문법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이 본문의 주된 진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인 것은 분명하다(참조, 3:9, 19, 23; 11:32; 갈 3:22). 그러나 이 내용이 특별히 유대인을 가리키는지(바울과 그의 친족, 참조, TEV, RSV) 혹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지(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바울과 동료 신자들) 불확실하다. 유대인들은 몇 가지 기득권을

가졌다(참조, 1-2 절; 9:4-5),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은 더 큰 책임을 갖게 한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잃어버려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나으냐”라는 용어를 보다 적은 수의 학자들이 중간태 (“더 나은”) 대신에 수동태로 이해하여 “~에 의해 뛰어나게 된”으로 번역한다.

로마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가장 지역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갖는 것으로 종종 여겨진다. 바울서신의 대부분은 지역적 필요나 위기(문제를 다루는 문서)를 다룬다. 그러나 믿는 유대인 지도자와 믿는 이방인 지도자 사이의 시기가 이 장과 9-11 장의 배경이 될 것이다.

■ “죄 아래” 바울은 “죄”를 타락한 인류 위해 군림하는 잔인한 지배자로 의인화한다(참조, 6:16-23).

3:10-18 “기록된 바” 이 구는 4 절에서도 나온다. 뒤따르는 진술은 구약의 연속적 인용으로서 인간의 타락성을 강조하기 위해 몸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1) 10-12 절, 갤 7:20 또는 시 14:1-3 (2) 13 절, 시 5:9 또는 140:3 (3) 14 절, 시 10:7 (4) 15-17 절, 사 59:7-8 과 잠 1:16 (5) 18 절, 시 36:1. 바울이 사 53:6 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은 놀랍다.

개역개정 3:19-20

¹⁹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²⁰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아니라

3:19 “우리가 알거니와” 이 절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 “율법” 이 문맥에서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킴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10-18 절에 있는 인용된 본문을 인함이다. 바울은 “율법”을 그가 9 절에서 “죄”에 대하여 했듯이 의인화한다(참조, 6:16-23).

■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비록 구약의 인용이 있는 여러 곳에서 이 표현이 이방인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이 구는 독특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를 가리킨다.



NASB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NKJV	“모든 입이 멈춰지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있게 하려 함이라”
NRSV	“이는 모든 입이 잠잠해지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TEV	“인간의 모든 평계를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려고”
JB	“그러나 이는 모든 이로 잠잠케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라”

이것은 1:18-3:20 의 주된 주제인데 이 단원의 요약은 3:23 에 나온다.

■ “모든 입” 19-20 절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여러 구가 나온다.

1. “모든 입,” 19 절
2. “온 세상,” 19 절
3. “어떤 육체도,” 20 절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은 시 143:2 에 대한 암시인데 한 구가 첨가되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참조, 갈 2:16; 3:11). 혼신된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종교적 열심과 규정을 꼼꼼히 지키는 것이 내적 평화를 줌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NASB, NRSV	“율법으로는 죄에 대한 지식이 옴이니라”
NKJV	“법으로는 죄의 지식이 있음이니라”
TEV	“율법이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범죄하였음을 알게하는 것인니라”
JB	“법이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 범죄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니라”

이것은 구약의 한 목적이다. 13:9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의 목적은 죄있음을 드러내고 또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끄는 것이었다(참조, 4:15; 5:13, 20; 7:7; 갈 3:19-22, 23-29).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3:3-4)
2. 유대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3:1-8)
3. 무엇이 5-8절에 있는 가정적 반대(신랄한 비판)의 요점인가?
4.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가 (참조, 3:8)?
5. 전적타락에 대한 신학적(칼빈) 개념을 정의하라 (참조, 3:10-18).
6. 모세의 율법이나 일반적인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조, 3:24-25)?
7. 왜 사람의 상실함을 다루는 1-3장에서 사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가?

로마서 3:21-31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로마서 3:21-31
 1. 1:18-3:30의 점증적 요약
 2. 1:16-17의 강화
 3. 4-8장의 서론(특히 3:28)
 - 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교리의 점증적 요약은 개혁가들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1.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이 “이 서신의 중요한 요점이고 이 서신과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했다
 2. 존 칼빈은 “성경에서 이 부분 보다 더 심원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절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다. 이것은 복음적 기독교에서 바로 그 신학적 핵심을 이룬다.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다. 요 3:16이 한 절로 된 복음이라면 이 부분은 두 문단으로 요약된 복음이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짐 장이요 영혼이다.
- 세 가지 중요한 해석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2. “하나님의 의”라는 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믿음”과 “믿다”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라. 나는 22 절(참조, 29 절)에 있는 “모든”과 24 절(참조, 5:15, 17; 6:23)에 있는 “선물”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21-26

²¹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²²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²³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²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²⁵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체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²⁶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21 “이제는”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 반역의 옛 시대와 의의 새 시대를 대조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26 절; “그러나 지금은” 6:22; 7:6).

■ “율법 외에” 바울이 앞에 있는 장들에서 모세의 율법(NASB)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일반적 의미에서 법(NRSV, TEV, NJB, NIV)을 의미하는 가에 대하여 종종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이 문맥에서 유대인의 율법이 바울의 논증에 적합하다. 모든 사람이 내적 외적으로 도덕적 사회적 규범으로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했다. 타락한 인류인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 이외에는 어떤 규정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참조, 창 3 장).



NASB	“하나님의 한 의”
NKJV, NRSV	“하나님의 의”
TEV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나님 자신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는 방법”
NJB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

“의”에 정관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죄 있는 백성을 받으심을 가리킨다. 바로 이 구가 롬 1:16-17의 신학적 주제에 사용되었다. 분명히 계시된 이 기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참조, 22, 24-26 절).

이 용어(디카이오шу네)와 이 단어의 파생어(2:13의 설명을 보라)가 이 문맥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된 점은 이것의 중요성을 나타낸다(참조, 1:17; 3:5, 21, 22, 25, 26; 4:3, 5, 6, 9, 11, 13, 22; 5:17, 21; 6:13, 16, 18, 19, 20; 8:10; 9:28, 30, 31; 10:3, 4, 5, 6, 10, 17). 이 헬라어 용어는 구약에서 건축과 관련된 은유로서 “기준” 혹은 “길이를 측정하는 갈대”를 뜻하는 세덱에서 유래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신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한다(참조, 고후 5:21).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이를 영접하는 것은 자랑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특히 율법주의적 종교인을 매우 겸손케 하는 일이었고 또 그러한 일이다.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타났으니” 이 구는 1:17 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동사가 다르다. 여기서는 동사가 “나타났고 계속해서 분명히 나타났다”로 해석된다. 여기는 **완료 수동 직설법**이, 17 절에서는 **현재 수동 직설법**이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복음을 구약(참조, 4 장)과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히브리 정경의 세 부분(율법, 예언서, 성문서) 가운데 두 부분을 가리킨다. 처음 두 부분은 전체를 가리키곤 했다(3:19 의 설명을 보라). 복음이 우선적인 형태에 있어서 구약에 들어있음이 분명해진다(참조, 루 24:27, 44; 행 10:43). 이것은 나중에 갖게 된 생각, “제 2의 방안,” 혹은 마지막 순간에 생긴 일이 아니다(참조, 1:2).

3:2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이다. 이것은 **소유격** 구문이다. 이것은 갈 2:16 과 빌 3:9 에서 및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서 롬 3:26; 갈 2:16, 20; 3:22 에서 반복된다. 이것은 (1) 예수님이 믿음 혹은 신실하심(**주격적 소유격**)이나 (2)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목적격적 소유격**)을 의미할 수 있다. 같은 문법 구문을 가진 갈 2:16 을 고려할 때 2 항이 가장 좋은 설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칭의가 갖는 주요한 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에 의해 우리 삶에서 작용하게 된 그리스도의 의로서(참조, 4:5; 6:23), 반드시 믿음/신앙/신뢰함으로써(참조, 앱 2:8-9) 영접해야 할 내용이며 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내용이다(참조, 앱 2:10).

▣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참조, 24 절; 사 53:6; 갤 18:23; 요 3:16-17; 4:42; 딛전 2:4; 4:10; 딛 2:11; 벤후 3:9; 요일 4:14).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이것은 선택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반드시 균형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결정론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도 안되고, 어떤 이들이 주장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극단적 칼빈주의의 개념에서 이해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언약적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구약에서 선택은 섬김을 위한 것이었지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택하셨다(참조, 창 12:3; 출 19:5-6).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시작자이시다(참조, 요 6:44, 65). 에베소서 1 장과 로마서 9 장은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 신학적으로 강조된 예정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본문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뿐만(칭의)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신자를 택하셨다(참조, 앱 1:4; 골 1:12). 이것은 (1)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참조, 고후 5:21) 또는 (2)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재생산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참조, 롬 8:28-29; 갈 4:19; 앱 2:10)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뜻은 어느 날 이를 천국에 대한 것이며 현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예정의 목적은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의 자손들 중 선택된 적은 수의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향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로의 부르심이다(참조, 살전 5:23; 살후 2:13). 예정설을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닌 신학적 보유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신학적 시스템이 가진 비극이다. 종종 우리의 신학적 틀은 성경 본문을 뒤틀어 놓는다!

8:33 의 특별주제: 선택/예정과 신학적 균형의 필요를 보라.

▣ “믿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수의 의를 그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각자 개인적으로 영접함(**현재 분사**)에 있다(참조, 1:16; 요 1:12; 3:16, 20:31; 롬 10:9-13; 요일 5:13). 성경은 전가된 의를 위한 두 기준으로서 믿음과 회개를 제시한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31 및 1:5 의 설명을 보라). 이 본문은 명확하게 구원의 보편적 범위를 드러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다 유일하다(참조, 요 10:1-2, 7; 11:25; 14:6). 누구라도 또한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참조, 1:16; 4:11, 16; 10:4, 12; 갈 3:28; 골 3:11).

3:23-26 이것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이다.

3:23

NASB, NKJV,

NRSV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TEV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멀리 있으매”

JB “죄를 범하여 상실하였으매”

이것은 1:18-3:20의 요약이다. 모든 이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필요를 가진다(참조, 3:9, 19; 11:32; 갈 3:22; 사 53:6). “죄를 범하여”는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고, “이르지 못하더니”는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다. 아마도 이 구는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집학적으로 타락한 것(참조, 5:12-21)과 각 사람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것 둘 다를 가리킨다. 현대 영어 번역본 중 어느 것도 이러한 구분을 특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절은 신학적으로는 21 절과 관계있고 24 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 “영광”(카보드)을 나타내는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원래 상업용어(저울의 추를 가리킴)로서 “무겁다”는 뜻이다. 무거운 것이 가치가 있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빛난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을 나타내기 위해 추가되었다. 그는 홀로 귀하고 존귀한 분이시다. 그는 너무 빛나셔서 타락한 인간이 바라볼 수가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다(참조, 렘 1:14; 마 17:2; 히 1:3; 약 2:1).

“영광”이라는 용어는 어떤 면에서 애매모호하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룰 수 있다(21 절); (2) 이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가리킬 수 있다(참조, 요 12:43); (3) 이 단어는 사람이 그 안에서 지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킬 수 있는데(참조, 창 1:26-27; 5:1; 9:6), 이 형상은 후에 반역을 인해 망가졌으나(참조, 창 3:1-22),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참조, 고후 3:18). 이 용어는 야웨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참조, 출 16:7, 10; 레 9:23; 민 14:10), 이것은 여전히 목적으로 되어 있다.

특별주제: 영광

성경의 개념인 “영광”은 정의하기 어렵다. 신자들의 영광은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이 아니다(참조, 1:29-31; 렘 9:23-24).

구약에서 “영광”(카보드)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렘 1:14; 마 17:2; 히 1:3; 약 2:1).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룰 수 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킬 수 있다; 또는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참조, 창 3:1-22). 이 용어는 광야 방랑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 16:7, 10; 레 9:23; 민 14:10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3:24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절은 현재 수동 분사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다—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참조, 5:15-17; 6:23). 헬라어 용어인 “의롭게하다”(디카이오우)는 “의”(디카이오쉬네)와 같은 어근에서 왔다. 하나님이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참조, 요 6:44, 65).

24-25 절에서는 구원을 말하기 위해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였다: (1) 법적 용어로서 “지불 할 처벌이 없음” 또는 어떤 사람이 죄없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롭다 하심” (2) 노예시장에서 “되사다” 또는 “풀어 주다”를 뜻하는 “구속” (3) 제사제도에서 온 용어로서 어떤 장소를 덮는 것 혹은 속죄하는 것을 뜻하는 “화해.” 이것은 속죄의 날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던 장소인 언약궤 뚜껑을 가리킨다(참조, 례 16 장; 히 9:5).

특별주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신약의 증거

이것은 다음의 내용에 기초한다

1. 성부의 성품(참조, 요 3:16), 성자의 사역(참조, 고후 5:21), 성령의 사역(참조, 롬 8:14-16).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순종에 따른 보상으로서나 단순한 신조에 기초하지 않는다
2. 이것은 선물이다(참조, 롬 3:24; 6:23; 앱 2:5, 8-9)
3. 이것은 새 생명이요 새 세계관이다(참조,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4. 이것은 지식(복음)이요 교제(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갖는)이며 새로운 생활양식(성령이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맑는 삶)이다.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지 그 중 어느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선물” 바울은 이 개념을 여러 경우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1. 도례안, 부사, “거저로”
2. 도례아, 명사, “거저 받는 선물”
3. 도론, 명사, “선물” (참조, 앱 2:8)
4. 카리스마, 명사, “빛 없음” 또는 “거저 받는 호의” (참조, 1:11; 5:15; 6:23; 11:29; 12:6)
5. 카리소마이, 동사, “호의로 거저 주다” (참조, 8:32)
6. 카리스, 명사, “거저 받는 호의” 혹은 “거저 받는 선물” (참조, 4:4, 16; 11:5, 6; 앱 2:5, 8)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얻는 길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성경의 초점은 얼마나 커다란 값이 지불되었는가나 누구에게 그 값이 지불되었는가 (어거스틴)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흄없는 대속에 의해 죄의식과 형벌로부터 구출된 것에 있다(참조, 요 1:29, 36; 고후 5:21; 벤전 1:19).

이 절은 또한 창 3:15에 있는 고가의 지불도 나타낸다. 예수님은 저주(참조, 갈 3:13)를 감당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위한 대속자로서 죽으셨다(참조, 고후 5:21). 구원을 거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진정 값싼 것은 아니다.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첨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례 25, 27 장), 또는 친척(참조, 롯 4:15; 사 29:22)을 되돌리는 권리의 문화적 측면은 신학적으로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롬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 24; 47:4; 48:17; 49:7, 26; 54:5, 8; 59:20; 60:16; 63:16; 렘 50:34).
2. **과다**,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 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적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된다, 시 49:7, 8, 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 시 130:7-8
- 나. 신학적 개념은 관계된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이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롬 19:25-27; 33:28)
 3. 어떤 사람은 반드시 중재자로서 그리고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일에서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다(즉, 고엘).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
-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확보되었다; 값은 지불되었고 구속은 성취되었다!

II 신약

- 가. 신학적 개념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벤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있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앱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임,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빚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생각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힘있는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놀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벤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뉴 1:68
 - (2)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뉴 2:38
 - (3) 예수님의 단 번에 드려진 더 나은 제사, 히 9:12
- 4. 아폴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 5. 안틸리트론(참조, 딤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놓아 주심과 연결되는 중요한 본문이다(딛 2:14에서와 같이). 그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제물이었다; “모든 자”를 위해 죽은 자(참조, 요 1:29; 3:16-17; 4:42; 딤전 2:4; 4:10; 딤 2:11; 벤후 3:9; 요일 2:2; 4:14).
-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 대한 인간의 속박은 구약의 모세 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에게 죽음의 짐행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는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죄로부터 사신 바 되었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가까운 친척”이 되셨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섭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화목이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되었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우리 몸의 부활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이 포함된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앱 1:14; 4:30).

3:25

NASB	“하나님이 공적으로 드러내신”
NKJV	“하나님이 세우신”
NRSV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TEV	“하나님이 제공하신”
JB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목적을 드러내신 것을 의미한다(참조, 앱 1:9).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적 계획은 예수의 희생과 연관된다(참조, 사 53:10; 계 13:8). 9:11의 설명을 보라.

엔데의뉘마이(엔데의시스, 참조 3:25, 26)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로마서에서 여러 번 사용된다(참조, 2:15; 9:17, 23; 70 인역 출 9:16). 이것의 기본적 의미는 보여주다 혹은 나타내다

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 계획, 의를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이 문맥은 다음의 성경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1.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2.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3. 인간이 가진 필요에 대하여
4. 구속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이 문맥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단어나 구가 애매모호하고 혹은 여러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기도 하지만, 전체의 핵심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 문맥은 신약에서 신학적 북극성이다.



NASB	“그의 피 안에서 화목제물로서”
NKJV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는”
NRSV	“그의 피로써 속죄의 제물로서”
TEV	“그 결과 그의 피로써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되기 위하여”
JB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그의 생명을 희생하여”

헬라-로마 세계에서는 소원해진 신과의 교제를 갚을 치름으로써 회복한다는 개념을 이 단어가 나타내는데, 이러한 생각은 70 인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70 인역과 히 9:5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는 “속죄소”로 번역되었는데, 속죄의 날에 민족을 대신하여 속죄를 가져온 장소가 이곳이다(참조, 레 16 장).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심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구속적 태도를 확증한다. 좋은 논의가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214-224 쪽에 나온다. 이것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하도록 이 용어를 “화해의 희생” 또는 “화해의 능력으로”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의 피 안에서”는 하나님의 무죄한 양을 통한 대속적 희생을 히브리적으로 가리키는 방법이다(참조, 요 1:29).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 1-7 장과 16 장에 있는 속죄일의 이해가 중요하다. 피는 죄있는 자를 대신하는 죄없는 생명을 가리킨다(참조, 사 52:13-53:12).

■ “믿음으로” 여기에 다시 한 번(참조, 1:17; 3:22, 25, 26, 27, 28, 30)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또한 누구든지 누리는 개인적 혜택의 작용원리가 나온다.

이 구는 5 세기 경의 고대 대문자 사본인 A(또한 크리소스톰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와 12 세기의 대문자 사본인 MS(2127)에서 생략되고 있다. 이것은 그 외의 모든 고대 헬라어 사본에 들어있다. 어떤 사본에는 “믿음”이 정관사와 함께 나오고 어떤 사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계성서공회의 UBS³는 이 구의 포함에 B(약간 미심쩍음) 등급을 준다.

■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말씀에 대해 진실하셔야만 한다(참조, 말 3:6). 구약에서 죄를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참조, 갤 18:4, 20). 하나님은 죄를 사면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했다(참조, 출 23:7).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커서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사람이 되셨고 율법을 이루시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사랑과 공의가 예수 안에서 만난다(참조, 26 절).



NASB, NKJV,	
NRSV	“전에 지은 죄를 그가 간파하심으로”
TEV	“이전에 그는 오래 참으셨고 백성의 죄를 간파하심으로”
NJB	“죄를 처벌하지 않으신 이전에”

“간파하다”라는 용어는 **파레시스**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었고 70 인역에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헬라 교부들과 제롬은 이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를 “빛진 것의 용서”로 보았다(참조, 물론과 밀리간, 493쪽). 그러나 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동사 파리에미**의 의미는 “옆으로 지나가게 하다” 혹은 “편히 쉬다”를 뜻한다(참조, 뉴 11:42).

따라서 생기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을 고대하시면서 과거에 죄를 용서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을 아시고 죄를 간파하신 것인가? 그 결과는 똑 같다.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대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혜의 행동이었고(참조, 행 17:30; 롬 4:15; 5:13) 또한 현재와 미래의 행동이다(참조, 26절).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고 또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인간의 반역을 해결하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제책으로 받으신다.

3:26 25절에서 “의”는 어원적으로 26절에 있는 “의로우심” “의롭다 하시는 자”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신자의 삶에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셨지만(참조, 고후 5:21) 신자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닮은 삶을 따라야 한다(참조, 롬 8:29).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27-30

²⁷ 그런즉 사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²⁸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²⁹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³⁰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27 “그런즉 사랑할 데가 어디냐” “사랑”이 관사와 함께 사용된 점은 유대인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다(참조, 2:17, 23). 복음은 겸손함이다. 타락한 인간(유대인과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엡 2:8-9). 2:17의 특별주제: 사랑을 보라.

■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용어(ἄλλο[밖으로]와 κλείω[닫다])는 여기와 갈 4:17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잠자 버리다”이다.

■ “믿음의 법” 펠 31:31-34에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고/믿고/믿음(피스티스)을 갖는 것에 기초한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둘 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의로운)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옛 언약은 외적인 법으로써, 새 언약은 새 마음으로써(참조, 갤 36:26-27). 그 목적은 같다!

3:28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은 3:21-26의 요약이요 4-8장의 윤곽을 미리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딤후 1:9; 딤 3:5).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써 거저 누리는 선물이다(참조, 3:24; 5:15, 17; 6:23; 엡 2:8-9). 그러나 성숙은 “모든 값을 치루는” 순종의 삶이요 봉사요 예배이다(참조, 갈 5:6; 엡 2:10; 빌 2:12; 또한 1:5의 설명을 보라).

3:29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창 1:26; 5:1; 9:6). 창 3:15에 있는 구속적 약속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는 세상을 택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참조, 창 12:31; 출 19:4-6; 요 3:16).

이 절은 3:9 과 같이 네로의 칙령으로 로마를 떠났었을 로마교회의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결과로 그 자리를 대신한 믿는 이방인 지도자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9-11 장도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3:30

NASB	“하나님은 진정 한 분이시기에”
NKJV	“한 하나님만 계시기에”
NRSV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TEV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JB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기에”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만일 유일신 주의가 참되고 이 절이 그러한 내용이라면(참조, 출 8:10; 9:14; 신 4:35, 39; 6:4; 삼상 2:2; 삼하 7:22; 22:32; 왕상 8:23; 시 86:8, 10; 사 43:11; 44:6, 8; 45:6-7, 14, 18, 21-22; 46:5, 9; 렘 2:11; 5:7; 10:6; 16:20),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 . . 의롭다 하실 하나님” “의롭다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의”와 같은 어근에서 왔다.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다(참조, 롬 9:30-32). 구원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은 믿음과 회개이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 1:5 의 설명을 보라). 이 점은 유대인과 헬라인 양자에게 사실이다.

■ “믿음으로 말미암아 . . .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문장 사이에 평행이 분명히 나타난다. 전치사 에와 디어는 여기서 동의어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무 구별이 없다.

개역개정 3:31

³¹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31

NASB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NKJV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무효화하느냐”
NRSV	“그런즉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던져 버리느냐”
TEV	“이것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느냐”
JB	“믿음이 율법을 의미없게 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냐”

신약은 구약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시한다:

1. 이것은 영감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참조, 마 5:17-19; 롬 7:12, 14, 16)
2. 이것은 낡았고 지나갔다(참조, 히 8:13).

바울은 “무효로하다”를 25 회 이상 사용한다. 이것은 “무효로하고 쓸모없게 하다,” “힘없게 하다,” “영향이 없게 하다”로 번역되었다. 3:3 의 특별주제를 보라.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관리인(참조, 갈 3:23)이요 몽학선생(참조, 갈 3:24)이었지만 영생을 줄 수는 없었다(참조, 갈 2:16, 19; 3:19).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었다(참조, 갈 3:13; 골 2:14). 모세의 율법은 계시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가 했던 역할인 도덕적 시험으로서 작용했다.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불확실하다:

1. 유대교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실의 제도
2. 이방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 지나가는 어떤 단계(갈라디아서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3.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준(참조, 롬 1:18-3:20; 7:7-25; 갈 3:1-29).

▣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앞에 나온 구에 비추어 볼 때, 이 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1.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도덕적 안내가 된다
2.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교리를 입증한다, 3:21; 4:3(창 15:6; 시 32:1-2, 10-11)
3. 율법의 약함(인간의 반역, 참조, 롬 7 장; 갈 3 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만족되었다, 8:3-4
4. 계시의 목적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율법은 법적인 의를 얻은 이후에는 참된 의 또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인도한다. 13:9의 특별주제: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보라.

놀라운 역설은 다음과 같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지만, 이것이 무효화 됨으로 인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취하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5:2의 특별주제: 서다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당신 자신의 말로 로마서 3:21-31의 개요를 말하라.
2. 왜 하나님은 과거에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는가(25 절)?
3. 구약의 신자는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3:25)?
4.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어떻게 확증하는가(3:31)?

로마서 4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아브라함의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4:1-12	4:1-4 다윗이 같은 진리를 즐거워 함 4:5-8	4:1-8	4:1-8	4:1-8 할례 이전에 의롭게 됨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의롭게 됨		
4:9-12	4:9-12	4:9-12	4:9-12	4:9-12
믿음으로 실현된 약속	믿음으로 허락된 약속	아브라함의 참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님
4:13-25	4:13-25 4:16-25	4:13-15 4:16-25	4:13-15 4:16-25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믿음 4:18-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바울의 충격적인 신학이 3:21-31에 나와 있다. 즉 타락한 인간이 모세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는 선언이다. 바울은 이제 이것이 어떤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님을(참조, 3:21b)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구약에서 들음으로 증명하고 있다(참조, 6-8절)
- 나. 로마서 4장은 모세의 율법인 창세기-신명기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뒷받침 할 증거를 제시한다. 이것의 요약이 3:21-31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글을 인용한 것은 신학적 무게를 가지는데 특히 유대인의 국가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은 더욱 그러하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여겨졌다(참조, 삼하 7장). 로마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긴장은 이러한 논의를 유발한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네로(그는 유대인의 모든 종교예식을 금함)에 의해 로마를 떠나도록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방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처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지도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 다. 로마서 4장은 타락한 인간이 항상 그들이 가진 영적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낸다(창 15:6; 롬 4:3). 여러 면에서 새 언약(복음)은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참조, 램 31:31-34; 갤 36:22-38).
- 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길은 족장이나 이스라엘 국가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들어 그의 신학적 논의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가 시작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1-8

¹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²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³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⁴일하는 자에게는 그 삶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⁵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⁶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⁷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⁸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4:1 “그런즉 . . .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다(참조, 16-18절). 그의 원래 이름은 “높임을 받은 아버지”를 뜻한다.

여기에 신랄한 비난으로 불리는 문학적 기교가 사용된다(참조, 4:1; 6:1; 7:7; 8:31; 9:14, 30). 아브라함(창 11:27-25:11)을 예로 드는 이유는 (1) 유대인들이 그러한 공로를 자신들의 인종적 출처에 두었기(마 3:9; 요 8:33, 37, 39) (2) 그의 개인적 믿음이 언약의 형태를 구체화하기 때문에(창 15:6) (3) 그의 믿음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보다 앞서기(출 19-20장) 혹은 (4) 거짓 교사들(즉, 유대주의자, 참조, 갈라디아서)이 그를 사용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평기 때문이다.

▣ “육신”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4:2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유형 문장(참조, A. T. 로벗슨, 단어의 그림, 제 4 권, 350 쪽)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상 거짓이지만 신학적 관점을 뒤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조건절의 제 1유형 문장의 뚜렷한 예이다(참조, 14 절).

요셉 A 퍼츠마이어, 앵커 바이블, 제 33 권, 372 쪽,는 이것이 혼합형 조건절 문장으로서 첫 부분은 제 2형(사실과 반대됨)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 1형이라고 말한다.

▣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정반대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4:4)이 가능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의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구약은 저주와 사형선고가 되었다(참조, 갈 3:13; 골 2:14).

유대인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살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기대했고 그것을 지켰다고 믿는다(참조, 집회서 44:20; 쥐빌리 6:19; 15:1-2).

▣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주제는 바울의 글에서 종종 나온다. 그가 바인새인이었던 배경은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도록 했다(참조, 3:27; 고전 1:29; 앱 2:8-9). 2:17 의 특별주제: 자랑을 보라.

4:3

NASB, NKJV,

NRSV, TEV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JB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두매”

이것은 창 15:6 의 인용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 장에서 3 번 사용하여(참조, 4:3, 9, 22), 바울이 신학적으로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구약에서 “믿음”이란 용어는 충성, 충실, 신실함을 뜻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심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확실하다 또는 안정적이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문, 에무나)에서 왔다. 구원얻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진리의 체계)요 의지적 현신(결단)이며 도덕적 삶(삶의 양식)이며 우선적으로 관계적이다(그 분을 영접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래의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아들을 낳고 후손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임을 강조해야만 한다(참조, 창 12:2; 15:2-5; 17:4-8; 18:14).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했다. 그는 이 약속에 대해 여전히 의심과 문제를 가졌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받으셨다. 비록 그의 믿음이 겨자씨 크기만큼 일지라도(참조, 마 17:20),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약속에 응답한 흠 있는 인간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4:3, 4, 5, 6, 8, 9, 10, 22, 23, 24

NASB, NRSV “그것이 그에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NKJV “그것이 그에게 들려졌느니라”

TEV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에”

JB “이 믿음이 고려되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여기다”(로기조미야)는 회계상의 용어로서 “어떤 사람의 계정에 옮기다 혹은 예금하다”이다(참조, 70인역 창 15:6; 레 7:18; 17:4). 이와 같은 진리가 고후 5:21 과 갈 3:6에서 아름답게 소개된다. 창 15:6 과 시 32:2 이 둘 다 “여기다”라는 회계 용어를 사용하기에 바울이 이 둘을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합된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랍비들의 해석학적 원리였다.

구약의 70인역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 용어라기보다는 회계기록과 관련된 용어로서 단 7:10, 12:1 의 “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책과 관련된 이러한 은유(하나님의 기억)로는

1. 행위 또는 기억의 책(참조, 시 56:8; 139:16; 사 65:6; 말 3:16; 계 20:12-13)

2. 생명책(참조, 출 32:32; 시 69:28; 사 4:3; 단 12:1; 놀 10:20; 벌 4:3; 히 12:23; 계 3:5; 13:8; 17:8; 20:15; 21:27)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책은 “생명책”이다.

4:3, 5, 6, 9, 10, 11, 13, 22, 25 “의로” 이것은 구약의 용어인 “측량용 갈대”(싸닥)을 반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사용한 건축 은유였다. 하나님은 곧으시지만 모든 인간은 굽어있다. 신약에서 이것은 지위적 법적(법정의) 의미로서, 경건한 삶의 특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대를 나타낸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참조, 8:28-29; 갈 4:19)이다.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4:5 믿음의 본질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각자의 행위나 공로에 대한 궁극적 의존을 버리고 응답함에 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거나 바른 관계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속을 받은 것이다(참조, 앱 2:8-9 &10;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는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 칭의는 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 “믿는”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믿음(피스티스[명사], 피스튜오[동사], 피스토스[형용사])

- 가.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히 11:1, 6).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설교의 주제였다(참조, 막 1:15). 새언약의 두 가지 요구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다(참조, 1:15; 행 3:16, 19; 20:21).
- 나. 이 단어의 어원
1.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충성, 충실성, 혹은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며,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2. 이것은 히브리어(에문, 에무나)로서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을 뜻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진리의 내용), 도덕적 삶(생활양식), 그분에 대한 우선적이고 개인적(그를 환영함)이며 의지적인 헌신(결단)을 말한다.
- 다. 구약에서의 용법
-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아들을 낳고 후손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창 12:2; 15:2-5; 17:4-8; 18:1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에 응답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나 걸렸던 약속에 대해 그는 아직 의심과 어려움을 가졌다. 하나님은 흔히 있는 인간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위해 기꺼이 일하신다(참조, 마 17:20).
- 라. 신약에서의 용법
-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튜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명사형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된다. 요 2:23-25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들은 요 8:31-59과 행 8:13, 18-24에 나온다. 성경적인 믿음은

초기 단계에 나타내는 응답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 31-32).

마.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애**/이스 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 18; 4:39; 6:40; 7:5, 31, 39, 48; 8:30; 9:36; 10:42; 11:45, 48; 17:37, 42; 마 18:6; 행 10:43; 빌 1:29; 벤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 26; 12:44, 46; 14:1, 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 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 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 24; 9:33; 10:11; 딤전 1:16; 벤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객,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 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 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 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NASB, NKJV

“그의 믿음”

NRSV

“이 같은 믿음”

TEV, NJB

“그것은 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라 태도에 따른 것이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70 인역 시 106:31에서 비느하스에 대해 사용되는데, 이것은 민 25:11-13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기는 것은 비느하스의 행동에 기초한다. 하지만 창 15:6에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은 3절(창 15:6)에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분명히 평행을 이룬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 “다윗”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었듯이, 죄 많은 다윗도 그랬다(참조, 시 32 편과 51 편). 하나님(구약)과 그의 아들(신약)을 믿는 타락한 인간(창 3 장)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

4:6 “일한 것이 없이” 바울은 이 구를 그가 인용하는 구약의 구절(참조, 시 32:1-2) 바로 앞에 둘으로써 이 내용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인격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

4:7-8 이것은 시 32:1-2의 인용이다. 7 절에 있는 두 동사인 “사함을 받다”와 “가리어짐을 받다”는 모두 부정과거 수동이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8 절에 포함된 강력한 이중 부정은 전가하심과 여기심과 계산에 넣음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실”을 뜻한다. 세 동사가 나타나는 순서를 주목하라: 모두 죄의 면제를 뜻한다.

4:7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시 32:1의 인용이다. “덮는”은 이스라엘의 예배인 제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심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야 밖으로 두신다(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491쪽). 이와 같은 개념이 “덮는”(카풀)을 가리키는 다른 히브리 단어에서 속죄(덮는)의 날의 의식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는 “속죄소”에 둔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다. 사람의 죄를 지우거나 없애다라는 표현은 이와 관련이 있는 성경의 은유에 속한다.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시 32:2의 인용이다. 이것은 부정적 의미에서 “여기다,” “전가하다” 또는 다른 이의 계정에 두다”를 뜻한다. 하나님은 신자의 영적 계좌에 죄를 두시지 않는다(이중 부정); 하나님은 의를 두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특성, 선물, 선언에 기초한 것이지, 인간의 공로나 성취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개역개정 4:9-12

⁹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¹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¹¹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¹²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4:9-12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위해 할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이 논의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 것이다(참조, 갈라디아서와 행 15 장의 예루살렘 회의).

랍비적 석의를 훈련받은 바울은 창 15:6과 시 32:2에 같은 동사(히브리어와 헬라어 양 쪽 다)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 이 점은 이 구절들을 신학적 목적을 위해 하나로 묶게 했을 것이다.

4:9 9 절의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을 예상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인해 이방인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 창 15:6이 다시 한 번 인용된다.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 전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4:10-11 “할례의 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셨다(창 17:9-14).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에게해의 섬에서 온 헬라 배경의 블레셋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년에서 성년으로 되는 의식이었다.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언약의 구성원임을 뜻하는 종교적 상징으로서 난지 8 일 되는 날 남자들에게 행했다.

이 절에서 “표”와 “인”은 서로 평행을 이루며, 또한 둘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킨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보이는 표였다. “믿음의 의의”라는 소유격 구는 13 절에서 반복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는 열쇠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4:11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쓰여졌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1) 자신들의 인종적 계보(참조, 마 3:9; 요 8:33, 37, 39)를 신뢰하고 (2)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의 언약(구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후기에 쓰여지고 탈무드로 불리는)을 해석하면서 강조한 행함을 신뢰하는 것에 민감했다. 따라서 그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 참조, 갈 3:29)의 모본으로 삼았다.

■ “인”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인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9:4 과 14:1 과 또한 22:4 에 나온다. 사탄의 인은 13:16; 14:9; 20:4에서 언급된다. 인은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고대의 방법이었다

1. 진리(참조, 요 3:33)
2. 주인임(참조, 요 6:27; 딤후 2:19; 계 7:2-3)
3. 안전 또는 보호(참조, 창 4:15; 마 27:66; 롬 15:28; 고후 1:22; 앱 1:13; 4:30)
4. 이것은 또한 선물로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재에 대한 표식일 것이다(참조, 롬 4:11; 고전 9:2).

이 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탄의 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탄의 백성을 구별짓는다. 계시록에서 “환란”(즉, 슬립시스)는 항상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팝박하는 것을 나타내고, 진노/노(즉, 오르게 또는 투모스)는 항상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돌아시키기 위함을 나타낸다. 심판의 이러한 긍정적 목적은 신 27-28 장에 있는 언약의 저주/축복에서 나타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구는 야웨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참조, 출 3:14; 시 42:2; 84:2; 마 16:16). 이와 같은 언어 유희가 “주께서 살아계심을”이라는 성경의 맹세에서 자주 사용된다.

4:12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것은 한 대열로 군대가 행진함을 가리키는 군사용어(스토이/캐오)이다 (참조, 행 21:24; 갈 5:25; 6:16; 빌 3:16). 바울은 이 절에서 믿는 유대인들(“할례의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중 관사(토이스)의 사용때문에 이 두 번째 것(“자취를 따르는”)에 삶의 양식인 믿음의 개념(현재 중간태[디포] 분사)을 추가하여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원은 계속적인 관계이지 한 번의 결심이나 의지적 행위가 아니다.

개역개정 4:13-15

¹³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¹⁴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¹⁵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 . . 하신 언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셨다(참조, 창 12:1-3; 15:1-6; 17:1-8; 22:17-18). 구약은 땅(팔레스타인)에 초점을 두지만 신약은 “후손”(메시아이신 예수, 참조, 갈 3:16, 19)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후손”은 믿는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갈 3:29).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에 있어서 기초를 이룬다(참조, 갈 3:14, 17, 18, 19, 21, 22, 29; 4:28; 히 5:13-18).

■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 우주적 선언은 창 12:3; 18:18; 22:18 과 출 19:5-6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부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참조, 창 1:26-27; 3:15)!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전 세계에 대한 계시의 도구였다. 이것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참조, 마 6:10).

■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모세의 율법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구는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어 문장에서 앞에 나온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름을(참조, 3:21-31)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은혜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율법의 폐기를 가져왔다(참조, 히 8:7, 13). 13:9의 특별주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보라.

4:14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논리적 논쟁을 위해 이 놀랄만한 진술을 한다. 이것은 수사적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의 좋은 예이다. 그는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고, 이것의 명백한 오류를 나타내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참조, 2절).

할례의 외적 표를 가진 유대 민족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상속자가 되었다.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참된 표이다(참조, 2:28-29).



NASB, NKJV	“믿음은 헛것이 되고”
NRSV	“믿음은 무효가 되고”
TEV	“사람의 믿음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뜻하고”
JB	“믿음은 의미없이 되고”

이것은 케노오의 현재 수동 직설법으로서, “비어 있다,” “기초없는 것을 보인다,” 혹은 “거짓되게 한다”라는 강한 뜻으로 상황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이다(참조, 고전 1:17). 바울은 이 용어를 고전 1:17; 9:15; 고후 9:3; 빌 2:7에서 사용한다.



NASB	“약속은 무효가 되었느니라”
NKJV	“약속은 아무 영향을 갖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NRSV	“약속은 쓸모없이 되었느니라”
TEV	“하나님의 약속은 가치 없이 되었느니라”
JB	“약속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되었느니라”

이것도 현재 수동 직설법으로서, “비게 하다,” “철폐하다,” “끌내다,” 혹은 “파괴하다 또는 없애다”라는 강한 뜻으로 상황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이다. 바울은 이 용어를 롬 3:3, 31; 6:6; 7:2, 6; 고전 2:6; 13:8; 15:24, 26; 고후 3:7; 갈 5:4; 살후 2:8에서 사용한다. 이 절에 명백한 평행이 있다. 구원에는 두 길이 없다. 은혜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무효가 되고 쓸모없게 했다! 3:3의 특별주제: 무효로하다와 쓸모없게 하다를 보라.

4:15 “율법...율법” 헬라어에서 처음 단어는 관사를 가지나 두 번째 것은 없다. 헬라어 관사의 유무에 너무 많은 주목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여기의 경우에는 바울이 이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일부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신뢰했던 모세의 율법과 이것의 구술 전통 (2) 법에 대한 일반적 개념. 광의의 의미는 행위에 근거하여 윤리적 혹은 종교적 의식에 따른 여러 저러한 문화적 조문을 따라 삶으로써 자신이 신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여기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방인들을 포함할 것이다.

■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술이다(참조, 3:20; 갈 3:10-13; 골 2:14). 모세의 율법은 결코 구원의 길이 되지 않았다(참조, 갈 3:23-29). 이 점은 어떤 유대인(혹은 율법주의자)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진리이었겠지만, 바울의 논쟁에서 그 기초를 이룬다.

13:9의 특별주제를 보라.

■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각자가 가진 빛에 따라 그들의 책임을 물으신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듣지도 못한 모세의 율법에 의해 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연계시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참조, 1:19-20; 2:14-15).

이 진리는 여기에 있는 바울의 논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모세의 율법이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기 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법을 기록하지 않으셨다(참조, 3:20, 25; 4:15; 5:13, 20; 7:5, 7-8; 행 17:30; 고전 15:56).

개역개정 4:16-25

¹⁶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¹⁷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¹⁸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¹⁹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²⁰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²¹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²²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²³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²⁴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²⁵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16 이것은 바울이 14 절에서 시작한 논쟁의 아름다운 요약이다: (1) 인간은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해 (3) 믿음을 사용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 (4)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전형이었다.

■ “굳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보증

이것은 헬라어 *βεβαιωσις*로서 3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분명하고 확실한 것 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참조, 롬 4:16; 고후 1:7; 히 2:20; 3:6, 14; 6:19; 벤후 1:10, 10).
2. 어떤 것의 진실됨을 나타내거나 확립할 수 있는 과정(참조, 롬 15:8; 히 2:2, 참조, 로우와 니다, 헬라어-영어 신약사전, 제 1 권, 340, 377, 670 쪽).
3. 파피루스 사본에서 이것은 법적 보증을 가리키는 전문용어가 되었다(참조, 물론과 밀리간, 헬라어 신약의 어휘, 107-108 쪽).

이것은 14 절과 반대되는 내용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 “모든 . . . 모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킨다(유대인과 이방인).

4:17-23 바울은 다시 한 번 아브라함을 언급하여 다음의 우선순위를 말한다: (1) 하나님께서 약속(언약)을 시작하시는 은혜 (2) 사람들에게 시작하는 믿음과 더불어 계속적인 믿음의 응답(언약)이 요구된다. (1:5의 설명을 보라). 언약에는 항상 쌍방의 행위가 관련이 있다.

4:17 “기록된 바 . . .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것은 창 17:5의 인용이다. 70 인역에는 “이방인들”로 되어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녀를 구속하기를 항상 원하셨다(참조, 창 3:15). 아브람의 새 이름인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를 뜻한다.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이 육체를 따라 된 후손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된 후손을 포함하는 것임을 안다.

▣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맥에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를 낳는 성적능력을 가리킨다(참조, 19 절).

▣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문맥에서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임신한 것을 가리키지만, 더불어 믿음의 중요성을 나타낸다(참조, 히 11:1).

4:18

NASB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믿었으니”
NKJV	“희망이 없는 사람이 바라면서 믿었으니”
NRSV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그가 믿었으니”
TEV	“아브라함은 심지어 그가 희망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NJB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그가 바라고 믿었으니”

12:12에 “소망”에 대한 특별주제가 나온다. 이 용어는 광범위한 어원적 범위를 갖는다. 해롤드 K. 물론, *개정된 헬라어 분석 사전*, 133쪽,에서 여러 용법을 제시한다.

1. 기본 의미, 희망(참조, 롬 5:4; 행 24:15)
2. 희망의 대상(참조, 롬 8:24; 갈 5:5)
3. 저자 또는 원천(참조, 골 1:27; 딤전 1:1)
4. 신뢰, 확신(참조, 벤전 1:21)
5. 보증받는 안전(참조, 행 2:26; 롬 8:20)

이 문맥에서 소망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람의 능력과 힘에 대해 갖는 소망(참조, 19-21 절) 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소망(참조, 17 절).



NASB, NKJV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NRSV	“네 후손이 수가 그렇게 많으리라”
TEV	“네 후손이 많으리라”
JB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것은 창 15:5의 인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한다(참조, 19-22절). 이삭의 출생이 다음과 같았음을 기억하라

1. 약속을 주신 지 13년 후에 됨
2. 아브라함이 사라를 다른 이에게 주려고 한 후에(두 번, 참조, 창 12:10-19; 20:1-7)
3.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하녀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후에(참조, 창 16:1-16)
4. 사라(참조, 창 18:12)와 아브라함(참조, 창 17:17)이 약속을 인해 웃은 후에.

그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원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땅한 대상(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4:20 아브라함은 처음에 사라로부터 아들을 갖게 된다는 약속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일지라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믿음을 받으시고 이를 사용하시는 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똑같은 동사, 디아크리노를 예수께서 마 21:21; 막 11:23에서 사용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육체적 이유에 기인한 온갖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20절에 있는 두 동사는 다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암시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힘을 주시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3:23의 특별주제를 보라.

4:21

NASB	“온전히 확실히 하여”
NKJV, NRSV	“온전히 확신하여”
TEV	“절대적으로 분명한”
NJB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서 어떤 일(참조, 놀 1:1; 골 4:12)이나 어떤 사람(참조, 4:21; 14:5)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나타낸다. 골 2:2와 살전 1:5에서는 완전한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명사가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능력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사람으로하여금 믿음으로 행하게 한다!

■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것은 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으로서, 과거의 어떤 행동이 절정에 이르렀고 어떠한 상태로 된 것을 나타낸다.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있지(참조, 16:25; 앱 3:20; 유 24절)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참조, 사 55:11).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참조, 사 55:11)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신다(창 12:1-3; 15:6, 12-21; 갤 36:22-36).

4:22 이것은 창 15:6(참조, 3절)의 암시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를 죄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가에 대한 바울의 논증에서 신학적 핵심을 이루는 요점이다.

4:23-25 이 절들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그 진행을 주목하라.

1. 아브라함을 위해, 23절

2. 모든 믿는 자를 위해, 24 절
3.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24 절
4.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 주신 바 되고(참조, 요 3:16),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칭의)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25 절

4:24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참된 자손이 따라야 할 본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후손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다(4:5의 특별주제를 보라). 새 언약의 신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후손”이라는 용어는 단수이며 복수이다(한 아들, 한 백성).

■ “살리신”에 대하여는 8:11의 설명을 보라.

4:25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은 “별하도록 사람을 내어 줌”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25 절은 70 인역 사 53:11-12에서 취한 놀라운 기독론적 진술이다.

■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 절의 두 절이 평행을 이룬다(같은 전치사와 두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 프랑크 스택의 번역(신약 신학, 97쪽)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 말할 것이 많다. 이 해석은 바울이 사용하는 “의롭게 하다”가 갖는 두 가지 면과 관련이 있다: (1) 법정(법률적) 위치 (2)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로마서의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2. 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드는가?
3. 다음의 중요 단어들을 바울이 사용하는 의미(당신의 정의가 아니라)로 정의하라
 - ㄱ. “의”
 - ㄴ. “여기다”
 - ㄷ. “믿음”
 - ㄹ. “약속”
4. 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는가(9-12 절)?
5. 13 절과 16 절에서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로마서 5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칭의의 결과 5:1-11	고난 중에 믿음의 승리 5:1-5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5:6-11	칭의의 결과 5:1-5 5:6-11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5:1-5 5:6-11	믿음이 구원을 보장한다 5:1-11
아담과 그리스도 5:12-14	아담 안의 죽음, 그리스도 안의 생명 5:12-21	아담과 그리스도, 유사성과 비교 5:12-14	아담과 그리스도 5:12-14b 5:14c-17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5:12-14
5:15-21		5:15-17 5:18-21	5:18-19 5:20-21	5:15-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헬라어 성경에서 1-11 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은 바울의 핵심개념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발전시키고 있다(참조, 3:21-4:25).

나. 1-11 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5 절	6-8 절	9-11 절
구원의 유익	구원의 기초	미래적 구원의 확실성
청의의 주관적 경경	청의의 객관적 사실	미래적 청의의 확실성
청의	점진적인 성화	영화
인류학	신학	종말론

- 다. 12-21 절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에 대한 논의이다(참조, 고전 15:21-22, 45-49; 빌 2:6-8). 이것은 두 신학적 개념인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적인 죄의식의 개념 모두를 강조한다. 아담 안에서 인류(또한 피조물)가 범죄하였음을 바울이 말하는데 이것은 매우 독특하며 또한 랍비들의 견해와 다르다. 한편 육체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랍비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가깝다. 이 점은 바울이 감동으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운 진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대치하고 있음을 보인다(참조, 행 22:3).

창 3 장에 기초한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의 원죄에 대한 교리는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교리는 인간이 죄있는 상태로 출생함을 주장한다(전적 타락). 이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구절로 종종 구약의 시 51:5; 58:3; 롬 15:14; 25:4 이 사용된다. 한편 인간이 점진적으로 도덕적 영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운명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신학적 주장은 펠라기우스와 아르메니우스에 의해 정립되었다. 신 1:39; 사 7:15; 온 4:11; 요 9:41; 15:22, 24; 행 17:30; 롬 4:15 가 이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의 요지는 어린이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무죄하다는 것이다(랍비들은 남자는 13 세가 여자는 12 세를 이러한 나이라고 보았다).

두 가지 주장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있다. 즉 본래적인 악한 경향과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나이에 대한 견해 양자가 모두 옳다! 악은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죄에 대한 향해 가는 악이기도 하다(삶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 인간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참조, 창 6:5, 11-12, 13; 롬 3:9-18, 23) 언제 그것이 시작되는가가 중요하다. 즉 출생시 부터인가 아니면 후에 살아가면서 인가?

- 라. 12 절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제시되었다
-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 이유는 모든 이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펠라기우스)
 - 아담의 죄는 모든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 모두가 죽는다(18-19 절, 어거스틴)
 - 사실상 원죄와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를 함께 취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마. 바울은 12 절에서 “이와 같이”를 사용하여 비교를 나타내는데 그 내용이 18 절까지 이어진다. 13-17 절은 삽입구로서 바울의 글에 나타나는 커다란 특징이다.
- 바. 바울이 1:18-8:39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논증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각 부분을 적합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단락에 비추어 보아야만 한다.
- 사. 마틴 루터는 5 장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이 장의 뛰어난 본문에 비견할 만한 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1

¹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²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³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이로다 ⁵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1 “그러므로” 이 단어는 종종 (1) 지금까지의 신학적 논증을 요약한 것 (2) 이러한 신학적 제시에 기초한 결론 (3) 새로운 진리의 제시(참조, 5:1; 8:1; 12:1)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 내용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헬라어 문장에서 앞 부분에 놓여 있다(1-2 절). 1-11 절에 시간적 순서가 나타난다: (1) 1-5 절에서는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은혜의 경험 (2) 6-8 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3) 9-11 절에서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 문맥적 통찰에 있는 개요의 나항을 보라.

“의롭게 하다”(디카이오오)는 구약에서 “똑 바른 선” 혹은 “측량하는 갈대”였다. 이 용어는 은유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사용되었다. 1:17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은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다(참조, 레 24:22의 70 인역; 마 5:48의 신학적 내용).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제사인 대속적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법정의) 지위를 가졌다(5:2 절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신자가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사면과 같은 것을 받았음을 뜻한다. 다른 이가 죄의 값을 치르셨다(참조, 고후 5:21). 믿는 자들은 용서 받았다고 선언되었다(참조, 9, 10 절).

■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다(참조, 2 절; 롬 4:1 이하). 믿음은 믿는자의 헌신이나 결심의 정도나 그 강도에 초점이 있지 않고(참조, 마 17:20),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초점이 있다(참조, 앱 2:8-9). 구약에서 “믿음”을 가리키는 용어는 원래 안정적으로 서있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충성되고 의지할 만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의 충성됨이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의 초점이 있다. 4:5의 특별주제: 믿음을 보라.

■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헬라어 사본에 많은 변이가 나타난다. 이 동사는 현재 능동 가정법(에코-멘)이거나 혹은 현재 능동 직설법(에코멘)이다. 1, 2, 3 절에 이러한 문법적 애매함이 나타난다. 고대 헬라어 사본들은 가정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A*, B*, C, D 사본). 만일 이 동사가 가정법이라면 “우가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자” 혹은 “평화를 누리기를 계속하라”의 뜻으로 번역된다. 만일 이것이 직설법이라면 “우리가 화평을 가졌다”로 번역될 것이다. 1-2 절의 문맥은 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이미 가졌고 누리고 있는 것의 선언이다. 따라서 이 동사는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우리가 화평을 가졌다”의 의미일 것이다. 세계성서공회의 헬라어 성경(USB⁴)은 이것에 “A” 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많은 고대 헬라어 사본은 한 사람이 본문을 읽고 여러 사람이 이를 듣고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은 종종 혼동을 일으켰다. 여기의 경우는 문맥과 작문의 특성과 저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에 기초하여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해야하는 경우에 속한다.

■ “화평”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평화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부서진 것을 하나로 묶다”를 의미한다(참조, 요 14:27; 16:33; 빌 4:7). 신약에서 평화에 대해 말할 때 3 가지 의미가 있다:

1.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목적격으로서(참조, 골 1:20)
2.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자라는 주격으로서(참조, 요 14:27; 16:33; 빌 4:7)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의 새 몸으로 연합시켰다는 점에서(참조, 앱 2:14-17; 골 3:15).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나타나야만 한다.

뉴만과 니다의 책, *번역가들을 위한 바울의 로마서 핸드북*, 92 쪽에서 “평화”에 대한 좋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에서 평화라는 용어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행복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 내용이 될 정도로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단어가 갖는 심원한 의미로 인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여기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신 사실에 기초하여 형성된 하나님과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를 일컫기 위해 사용된다”(92 쪽).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참조, 요 10:7-8; 14:6; 딤전 2:5).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와 관련하여서는 1:4 의 설명을 보라.

5:2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행위가 완료되어 이제는 어떤 상태에 이른 것을 나타낸다. “들어감”이란 용어는 글자대로는 “접근” 또는 “입장”(프로사고개, 참조 앱 2:18; 3:12)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1) 왕을 개인적으로 알현하는 것 혹은 (2)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 표현은 헬라어 사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참조, [¶]², C 와 일부 고대 라틴 역본, 벌게이트, 시리아역, 콥տ 역). 다른 그룹의 사본은 “믿음으로”에 전치사를 추가하고 있다(참조, [¶]¹, A 와 일부 벌게이트 역). 그러나 대문자 사본인 B, D, F, G 는 모두 이것을 생략하고 있다. 서기관들이 5:1 과 4:16 (2 회), 19, 20 절이 병행구절을 이루도록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믿음으로”는 바울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이다!

■ “이 은혜에” 이 용어(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앱 2:4-9). 이것은 죄인인 인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참조, 8 절).

■ “우리가... 서 있는”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 사용된 또 다른 경우이다; 글자적으로는 “우리가 서 있고 또 계속해서 서 있는”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신학적 자리와 믿음 안에 거할 것에 대한 신자의 헌신을 반영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참조, 고전 15:1)과 인간의 자유의지(참조, 앱 6:11, 13, 14)의 신학적 역설을 하나로 엮는다.

특별주제: 서다(히스테미)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용어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나타낸다

1. 세우다

- ㄱ. 구약의 율법, 롬 3:31
- ㄴ. 사람의 의로움, 롬 10:3
- ㄷ. 새 언약, 히 10:9
- ㄹ. 비난, 고후 13:1
- ㅁ. 하나님의 진리, 딤후 2:19

2. 영적으로 견디다

- ㄱ. 마귀, 앱 6:11
- ㄴ. 심판 날, 계 6:17

3. 자신의 자리에 서서 견디다

- ㄱ. 군사적 은유, 앱 6:14
- ㄴ. 사회적 은유, 롬 14:4

4. 진리의 입장, 요 8:44

5. 은혜의 자리

- ㄱ. 롬 5:2
- ㄴ. 고전 15:1
- ㄷ. 벤전 5:12

6. 믿음의 자리

- ㄱ. 롬 11:20
- ㄴ. 고전 7:37
- ㄷ. 고전 15:1
- ㄹ. 고후 1:24

7. 거만함의 자리, 고전 10:12

이 용어는 언약의 은혜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나타내며 또한 신자가 믿음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두 가지 모두 성경적 진리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만 한다!

▣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의 문법적인 형태는 (1) 현재 중간태 직설법, “우리가 즐거워한다” 혹은 (2) 현재 중간태 (디포) 가정법, “우리가 즐거워하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학자들의 의견은 이런 가능성을 놓고 나뉘어져 있다. 만일 1 절에 있는 “우리가 누린다”를 직설법으로 취한다면 3 절까지 해석을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자랑하는”(NRSV, JB)이다. 2: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자는 자기 자신을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3:27)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인해 즐거워 하는 것이다(참조, 렘 9:23-24). 같은 헬라어 어근이 3, 11 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 “바라고” 바울은 종종 여러 가지 다른 경우지만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 4:18 의 설명을 보라. 종종 이 용어는 신자의 믿음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이 용어는 영광, 영생, 궁극적인 구원, 재림 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지만 그 때는 미래적이고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용어는 종종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타난다(참조, 고전 13:13; 갈 5:5-6; 앱 4:2-5; 살전 1:3; 5:8).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목록은 다음에 제시되고 있다.

1. 재림, 갈 5:5; 앱 1:18; 딤 2:13
2.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딤전 1:1
3. 믿는 자는 하나님께 서게 되어있다, 골 1:22-23; 살전 2:19
4. 하늘에 쌓아 둔 소망, 골 1:5
5. 궁금적인 구원, 살전 4:13
6. 하나님의 영광, 롬 5:2; 고후 3:12; 골 1:27
7. 구원의 확신, 살전 5:8-9
8. 영생, 딤 1:2; 3:7
9.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결과, 롬 5:2-5
10. 모든 피조물의 구속, 롬 8:20-22
11. 하나님의 호칭, 롬 15:13
12. 양자됨의 성취, 롬 8:23-25
13.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구약의 안내, 롬 15:4

▣ “하나님의 영광”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개인적 인재하심에 대한 구약의 관용어이다. 이 용어는 부활의 날에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신자가 서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고후 5:21). 이것은 종종 “영화”라는 신학적 용어로 불린다(참조, 9-10 절; 8:30). 신자들은 예수를 닮은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벤후 1:4). 3:23 의 특별주제: 영광을 보라.

5:3

NASB	“다만 이뿐 아니라”
NKJV	“다만 그것뿐 아니라”
NRSV	“다만 그것뿐 아니라”
TEV	-생략함-
NJB	“그것뿐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일련의 용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참조, 5:3, 11; 8:23; 9:10; 고후 8:19).

▣

NASB	“우리가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NKJV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NRSV	“우리가 고통을 자랑하나니”
TEV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NJB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중에도 즐거워하자”

만일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미워 할 것이다(참조, 마 10:22; 24:9; 요 15:18-21).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가 고난받으심을 인해 성숙하게 되셨다(참조, 히 5:8). 고난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의를 이룬다(참조, 8:17-19; 행 14:22; 약 1:2-4; 벤전 4:12-19).

▣ “앎이로다” 이것은 “오이다”의 완료 분사이다. 이 단어는 형태로는 완료이지만 현재시제의 기능을 갖는다. 믿는 자들이 고난과 관련하여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닌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심지어 박해에 직면하여서도 그렇다(참조, 빌 4:4; 살전 5:16, 18).

5:1 “환란”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환란

이 용어(슬립시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바울과 요한의 신학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I 바울의 용법(이것은 예수님의 용법을 반영하고 있다)

가. 타락한 세상과 관련된 문제, 고통, 악

1. 마 13:21
2. 롬 5:3
3. 고전 7:28
4. 고후 7:4
5. 엡 3:13

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문제, 고통, 악

1. 롬 5:3; 8:35; 12:12
2. 고후 1:4, 8; 6:4; 7:4; 8:2, 13
3. 엡 3:13
4. 빌 4:14
5. 살전 1:6
6. 살후 1:4

다. 마지막 때의 문제, 고통, 악

1. 마 24:21, 29
2. 막 13:19, 24
3. 살후 1:6-9

II 요한의 용법

가. 요한은 계시록에서 슬립시스와 오르게 혹은 쉬모스(진노)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슬립시스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행하는 일을 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1. 슬립시스 - 계 1:9; 2:9-10, 22; 7:14
2. 오르게 - 계 6:16-17; 11:18; 16:19; 19:15
3. 쉬모스 - 계 12:12; 14:18, 10, 19; 15:2, 7; 16:1; 18:3

나. 요한은 또한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 요 16:33.

5:3, 4 “인내” 이 용어는 “자원함,” “능동적임,” “견고함,” “인내”를 뜻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하여 갖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인내를 가리킨다. 8:25의 특별주제를 보라.

5:4

NASB “입증된 성품”

NKJV, NRSV “성품”

TEV “하나님의 인정하심”

NJB “점검된 성품”

창 23:16; 왕상 10:18; 대상 28:18의 70인역 본문에서 이 용어는 금속의 순도와 순전함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참조, 고후 2:9; 8:2; 9:13; 13:3; 빌 2:22; 딤후 2:15; 약 1:12).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항상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참조, 히 12:10-11)! 2:18의 특별주제: 시험함을 보라.

5:5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으니”이다. 이 동사는 종종 율 2:28-29을 나타내는 성령의 일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참조, 행 2:17, 18, 33; 10:45; 딤 3:6).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격의 구문은 문법적으로는 (1)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혹은 (2)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참조, 고후 5:14)을 말할 수 있다. 문맥상 2 항만이 적합한 해석이다.

▣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수동태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더 많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의 한 쪽이다(참조, 8:9). 성령을 주신 것은 새 시대(참조, 율 2:28-29)와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갤 36:22-32)의 표징이 되었다.

▣ 이 문단에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나옴을 주목하라.

1. 하나님, 1, 2, 5, 8, 10 절
2. 예수님, 1, 6, 8, 9, 10 절
3. 성령님, 5 절

8:11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개역개정 5:6-11

⁶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⁷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⁸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⁹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¹⁰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¹¹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6

NASB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NKJV	“우리가 아직 힘 없을 때에”
NRSV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TEV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NJB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동사는 현재 분사이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범죄한 아담의 상태를 가리킨다. 인간은 죄에 대해 무능하다. 대명사 “우리”는 6 절 하반절에 있는 “경건치 않은 자,” 8 절의 “죄인,” 10 절의 “원수”를 설명하고 이 설명적인 명사들과 평행을 이룬다. 6 절과 8 절은 신학적으로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

NASB, NRSV	“적합한 때에”
NKJV	“알맞은 때에”
TEV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NJB	“그가 정해 놓으신 순간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1)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했던 로마제국의 평화시대 (2) 헬라어로 인해 타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3) 헬라와 로마의 신들이 쇠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갈급하고 기대를 갖도록 한 점(참조, 막 1:15; 갈 4:4; 액 1:10; 딤 1:3)을 나타낸다.

신학적으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행하신 일이었다(참조, 뉴 22:22; 행 2:23; 3:18; 4:28; 앱 1:11).

5:6, 8, 10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하나의 통일된 사건으로 본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지 않은 빚을 위해 지불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참조, 갈 3:13; 요일 4:10).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울의 글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하기 위해 여러 용어와 구를 사용한다:

1. “피”(참조, 3:25; 5:9; 고전 11:25, 27; 앱 1:7; 2:13; 골 1:20)
2. “자신을 버리셨다”(참조, 앱 5:2, 25)
3. “구출하셨다”(참조, 롬 4:25; 8:32)
4. “희생”(참조, 고전 5:7)
5. “죽으셨다”(참조, 롬 5:6; 8:34; 14:9, 15; 고전 8:11; 15:3; 고후 5:15; 갈 5:21; 살전 4:14; 5:10)
6. “십자가”(참조, 고전 1:17-18; 갈 5:11; 6:12-14; 앱 2:16; 빌 2:8; 골 1:20; 2:14)
7. “십자가에 죽으심”(참조, 고전 1:23; 2:2; 고후 13:4; 갈 3:1)

이 문맥에서 전치사 휘페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대표, “우리를 대신하여”
2. 대치, “우리 대신에”

일반적으로 소유격과 함께 사용된 휘페르의 기본 의미는 “~를 대신해서”이다(라우와 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연히 생긴 어떤 유리한 내용을 표현한다(신약 신학의 새 국제사전, 제 1권, 1196쪽).

한편, 휘페르는 안티의 의미를 갖는데 후자는 “~대신에”를 뜻하는 말로서 신학적으로는 대속적인 속죄를 가리킨다(참조, 막 10:45; 요 11:50; 18:14; 고후 5:14; 딤전 2:6). M. J. 모리(NIDOTTE, 제 3권, 1197쪽)는 질문하기를 “그런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안티 해몬을 위해 죽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가(딤전 2:6은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근접한 내용이다-안티뤼트론 휘페르 판톤)? 그 이유는 아마도 전치사 휘페르는 안티와 달리 대표성과 대신함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M. R. 빈센트, 단어 연구 제 2권,는 말하기를

“대신하여의 뜻을 지닌 휘페르가 대신에라는 뜻을 가진 안티와 항상 같은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전통적인 저자들은 그 뜻이 서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의 경우는 불분명하여 그러한 증거로 여겨질 수 없다. 전치사는 장소를 나타내어 죽은 자 위에로 되어 있다. 이들 본문의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휘페르는 안티의 개념에 근접한 것임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대신에는 주로 교리적 근거에서 주장된다.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의 유익을 위하여, ~을 위하여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본문인 갈 3:13; 롬 14:15; 벤전 3:18에서 이 단어의 참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휘페르가 대신하여라는 특별한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전치사—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를 강조한다는 점과 또한 이것은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에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신하여라는 뜻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오직 추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692쪽).

5:7 이 절은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반면에 8 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NASB, NKJV,

TEV
NRSV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이 용어는 노아와 육이 의인이고 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있던 종교적인 규범을 준수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5:8 “하나님께서 . . .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참조, 3:5이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셨다(참조, 8:3, 32; 고후 5:19).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이지 않고 행동지향적(참조, 요 3:16; 요일 4:10)이며 항상 일정하다.

5:9 “더욱”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의 하나이다(참조, 10, 15, 17절). 만일 믿는 자들이 아직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신 것이다(참조, 5:10; 8:22).

▣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로서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된 일임을 나타낸다. 바울은 1절의 진리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의롭게 된”(9절)과 “화목하게 된”(10-11절은 평행을 이룬다).

▣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죽음을 가리킨다(참조, 3:5; 막 10:45; 고후 5:21). 이렇듯 무흠한 생명이 죄있는 자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개념은 레 1-7장에 연결되며 아마도 출 12장(유월절 양)과도 연결된다. 이것은 사 53:4-6에서 예수님께 신학적으로 적용되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개념이 기독론적 의미로 발전되었다. 히브리서는 여러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사실상 연결시키고 있다.

▣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미래 수동 직설법(참조, 10절)이다. 이것은 “영화”(참조, 2절; 8:30; 요일 3:2)로 불리는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일컫는다.

신약은 동사의 모든 시제를 사용하여 구원을 설명한다:

1. 완료된 행위(**부정과거**), 행 15:11; 롬 8:24; 딤후 1:9; 딸 3:5
2. 현재의 상태에 결과가 남아 있는 과거의 행위(**완료**), 앱 2:5, 8
3. 점진적인 과정(**현재**), 고전 1:18; 15:2; 고후 2:15; 살전 4:14; 벤전 3:21
4. 미래에 일어날 완성(**미래**), 롬 5:9, 10; 10:9

10:13의 특별주제를 보라. 구원은 최초의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어느 날 완성될 관계로서 진행된다. 이 개념은 종종 세 가지 신학 용어로써 설명된다: 칭의로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성화로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 영화로서 “죄의 실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신약은 성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신학자들은 “위치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말하고 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이 경건한 삶과 연결되는 것은 신비롭다!

▣ “진노하심에서” 이것은 종말론적 문맥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크고 값없이 주시고 공로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또한 죄와 반역에 대하여는 정반대로 대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죄 용서의 길을 제공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노에 놓여 있는 것이다(참조, 1:18-3:20). 이것은 의인법적 표현으로서 실제를 나타낸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히 10:31).

5:10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피조물인 인류는 원수가 되었다! 사람(참조, 창 3:5)과 사탄(참조,

사 14:14;겔 28:2, 12-17)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즉 독립하려는 욕망, 지배하려는 욕망,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문제이다.

■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과 부정과거 수동 분사로 되어 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동사는 원래 “교환하다”를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의와 바꾸셨다(참조, 사 53:4-6). 평화가 회복되었다(참조, 1 절)!

■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복음은 (1) 하나님의 사랑 (2) 그리스도의 사역 (3) 성령의 탄식하심 (4) 개인적인 믿음/회개의 응답에 기초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다른 방법이 없다(참조, 요 14:6).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성품에 기초한다!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함이 거저 누리는 구원의 증거가 됨은 역설적이다(참조,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신약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일로 말한다. 여기서 미래라 함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성된 구원을 일컫는다. 9 절의 설명과 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용어는 조에이다. 이 용어는 요한의 글에서 항상 부활의 생명, 영생, 또는 왕국에서 누릴 생명을 가리킨다. 바울 또한 이것을 이러한 신학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문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신자가 용서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같이 커다란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행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생명”은 (1) 예수의 부활(참조, 8:34; 고전 15 장) (2) 예수님의 중보사역(참조, 8:34; 히 7:25; 요일 2:1) 혹은 (3)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심(참조, 롬 8:29; 갈 4:19)을 가리킬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으심은 주께서 영광 받으신 것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됨을 누리는 근거를 이룬다고 바울은 확신한다.

5:11 “그뿐 아니라” 3 절의 설명을 보라.

■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2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이 문맥에서 “즐거워 하다”(자랑하다)가 세 번째 사용된 곳이다.

1.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 한다, 2 절
2.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한다, 3 절
3. 화목됨 안에서 즐거워 한다, 11 절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은 2:17 과 23 절에 나온다!

■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완료된 행동을 나타낸다. 신자가 화목함을 누리는 것은 10 절과 고후 5:18-21; 앱 2:16-22; 골 1:19-23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문맥에서 “화목”은 신학적으로 “칭의”와 동의어를 이룬다.

개역개정 5:12-14

¹²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¹³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¹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5:12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곳에 사용된다(참조, 5:1; 8:1; 12:1). 해석을 위한 질문은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는가이다. 이 단어는 바울이 논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방법일 수 있다. 분명히 이 단어는 창세기와 연결되며, 아마도 롬 1:18-32의 내용을 말할 것이다.

■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2 절에 나오는 세 동사가 모두 부정과거 시제이다.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왔다(참조, 고전 15:22). 성경은 원죄만 강조하지 않는다. 죄는 천사들의 영역에서도 일어났다(참조, 창 3 장과 계 12:7-9).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다(참조, 사 14:12-27; 갤 28:12-19; 롬 4:18; 마 25:41; 뉘 10:18; 요 12:31; 계 12:7-9).

아담의 죄는 두 가지 면에 대한 것이다: (1) 특별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참조, 창 2:16-17) (2) 자기 중심적 교만(참조, 창 3:5-6). 롬 1:18-32에서 시작한 창 3 장에 대한 암시는 여기서 계속되고 있다.

바울과 랍비들의 견해를 분명히 구분짓는 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신학이다. 랍비들은 창 3 장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반면에 모든 사람 안에 두 가지 “경향”(옛체르)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랍비들의 가르침으로서 유명한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있다. 가장 잘 먹이는 쪽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다. 바울은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커다란 장벽으로 보았다. 바울은 조직신학자는 아니었다(참조, 제임스 스튜어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여러 가지 원죄를 말한다: (1) 아담의 범죄 (2) 사탄의 유혹 (3) 인간의 계속적인 반역.

아담과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대비와 평행으로 나타냄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한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다.

1. 아담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
2.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람이셨다.

이 두 가지 진리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성경을 확증한다. “한 사람” 혹은 “그 한 사람”이 반복됨을 유념하라. 이러한 언급으로 아담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이 문맥에서 11 번 사용되었다.

■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성경은 사망의 세 단계를 말한다: (1) 영적 죽음(참조, 창 2:17; 3:1-7; 엡 2:1); 육체의 죽음(참조, 창 5 장); (3) 영원한 죽음(참조, 계 2:11; 20:6, 14; 21:8).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아담의 영적 죽음으로서(참조, 창 3:14-19) 이것은 모든 인류의 육체적 죽음을 가져왔다(참조, 창세기 5 장).

■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문단의 주요 골자는 죄(참조, 16-19 절; 고전 15:22; 갈 1:10)와 죽음의 보편성이다.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공동으로 죄를 지었다(즉, 죄된 상태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경향을 가졌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왕상 8:46; 대하 6:36; 시 14:1-2; 130:3; 143:2; 잠 20:9; 전 7:20; 사 9:17; 53:6; 롬 3:9-19, 23; 5:18; 11:32; 갈 3:22; 요일 1:8-10).

한편 한 가지 행동이 사망을 가져왔고(아담) 또 한 행동이 생명을 가져왔음을(예수)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으므로 사람이 중요한 관점인 “상실됨”과 “칭의”의 면에서 응답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음에 있어서 인간은 의지적으로 관련을 가진다! 그들은 죄를 선택하기를 계속하든지 혹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의지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므로”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는 종종 논란이 된다. 바울은 고후 5:4; 빌 3:12; 4:10에서 “~이므로”的 의미로 옛 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모두 죄에 가담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기를 선택한다. 모든 이가 자연계시를 거부함으로써 이것을 선택하지만 (참조, 1:18-3:20), 어떤 이는 특별계시를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선택을 한다.

5:13-14 이와 같은 진리를 롬 4:15 과 행 17:30에서 말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인간은 자신들에게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 절은 전적으로 특별계시(구약, 예수님, 신약)에 대한 내용이지 자연계시(시편 19편; 롬 1:18-23; 2:11-16)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NKJV 역은 12절이 긴 삽입구(참조, 13-17절)에 의해 18-21절의 결론으로부터 구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5:14

NASB, NKJV,

JB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NRSV “사망이 지배력을 행사하였나니”

TEV “사망이 다스렸나니”

사망이 왕으로서 다스렸다(참조, 17, 21절). 이렇듯 사망과 죄를 전제군주로 의인화한 것은 이 장과 6장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은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드러낸다. 17절과 21절에서는 은혜가 의인화되었다. 은혜가 다스린다! 사람은 죽음이든지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구약에 나타난 두 길). 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계명을 범했는데 하와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범죄한 것은 아니었다.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무에 대해 주신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전해들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모세 때까지 아담의 반역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명령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신학적 문맥을 같이하는 롬 1:18-32은 말하기를 그들이 창조 때부터 그들이 가진 빛에 비추어 볼 때 범죄한 것이고 따라서 반역/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선언한다. 아담의 죄된 경향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전파되었다.

▣

NASB, NKJV,

NRSV “오실 자의 모형이다”

TEV “아담은 오실 자의 모습이었다”

JB “아담은 오실 자를 미리 나타냈다”

이 표현은 아담-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낸다(참조, 고전 15:21-22, 45-49; 빌 2:6-8). 두 쪽 다 계보와 족보에서 처음 사람으로 나타난다(참조, 고전 15:45-49). 아담은 신약에서 “모형”으로 특별히 지칭된 구약의 유일한 인물이다. 6:17의 특별제목: 모형(튜포스)를 보라.

개역개정 5:15-17

¹⁵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¹⁶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 아니라 ¹⁷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5:15-19 이것은 평행구절을 사용하며 계속되는 논점을 다루고 있다. NASB, NRSV, TEV는 문단을 18 절에서 나누고 있다. 그러나 UBS⁴, NKJV, JB는 이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번역한다.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해석에 있어서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길이 됨을 기억하라. 15 절 19 절에 있는 “많은”이라는 용어가 12 절과 18 절에 있는 “모든”과 동의어를 이름을 주목하라. 이러한 점이 사 53:11-12 과 6 절에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용어에 기초하여 어떤 신학적 견해(칼빈의 예정됨 대 예정되지 않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5:15 “은사” 이 문맥에는 “선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나온다—카리스마, 15, 16 절(6:23)와 도레아/도라마, 15, 16, 17 절(3:24 의 설명을 보라)—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동의어를 이룬다. 이것은 진실로 구원에 관련된 복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참조, 3:24; 6:23; 앱 2:8, 9).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이것은 17 절과 평행을 이룬다.

■ “넘쳤느니라” 15: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5:16 “정죄 . . . 의롭다 하심” 이 둘은 다 법정용어이다. 종종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법정을 배경으로 전해진다. 바울은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롬 8:1, 31-34).

5:17 “만일” 이것도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아담의 범죄는 참으로 모든 사람의 사망을 가져왔다.

■ “더욱 . . . 넘치게 받는 자들은” 18-19 절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 구절은 롬 1-8 장의 문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내용으로서 보편 구원론(모든 이가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구절로 사용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시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17 절 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아담이 행한 한 번의 반역은 모든 사람의 전체적인 반역을 가져왔다. 한 번의 죄된 행동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의로운 희생은 많은 사람이 공동적으로 받은 죄의 영향뿐 아니라 각자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가져 온 “더욱 넘치게”가 강조되고 있다(참조, 9, 10, 15, 17). 은혜가 넘친다!

5:17, 18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 . .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시며 범죄한 모든 사람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참조, 고전 1:30). 이 평행구절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죄있는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난다 또는 (2) 이 표현은 “영원한 생명”과 동의어를 이룬다. 문맥은 (1) 항을 지지한다. 의에 대한 단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함

그리스도와 다스린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리는 더 커다란 주제의 일부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구약의 개념의 연장이다(참조, 삼상 8:7).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참조, 창 49:10)이며 이새의 후손(참조, 삼하 7 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기둥을 이룬다. 왕국이 그 분 안에서 전적으로 도래했다(참조, 마 10:7; 11:12; 12:28; 막 1:15; 뉴 10:9, 11; 11:20; 16:16; 17:20-21).

그러나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다(종말론적). 왕국이 나타났지만 최종적인 단계의 것은 아니었다(참조, 마 6:10; 8:11; 16:28; 22:1-14; 26:29; 뉴 9:27; 11:2; 13:29; 14:10-24; 22:16, 18). 예수님은 처음엔 고난받는 종(참조, 사 52:13-53:12)으로서 겸손하게(참조, 습 9:9) 오셨지만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마 2:2; 21:5; 27:11-14). “다스림”的 개념은 참으로 이러한 “왕국”신학의 일부분을 이룬다. 하나님은 왕국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눅 12:32 을 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은 고려할 여러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른 질문을 제기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왕국”을 주신 것을 말하는 구절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가(참조, 마 5:3, 10; 뉴 12:32)?
2. 예수님께서 1세기의 유대적 배경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한 내용인가(참조, 마 19:28; 뉴 22:28-30)?
3. 위의 경우와 대조되거나 혹은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가(참조, 롬 5:17; 고전 4:8)?
4. 어떻게 고난은 다스림과 관계가 있는가(참조, 롬 8:17; 딤전 2:11-12; 벤전 4:13; 계 1:9)?
5.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 ㄱ. 지상의, 5:10
 - ㄴ. 천년왕국의, 20:5, 6
 - ㄷ. 영원한, 2:26; 3:21; 22:5; 단 7:14, 18, 27

개역개정 5:18-21

¹⁸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¹⁹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²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²¹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5:18

NASB “그럴지라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NKJV “그럴지라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이에게 왔느니라”

NRSV “그런즉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TEV “이같이 한 의로운 행위가 모든 이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JB “그런즉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그들을 의롭다 하느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보편 구원론)을 말하지 않는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과 전후의 문맥을 떠나서 이 절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예수의 삶/죽으심/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말한다. 인류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취하신다(참조, 요 6:44, 65).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을 정해놓으셨다(참조, 막 1:15; 요 1:12;

롬 10:9-13). 하나님의 제안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참조, 딤전 2:4, 6; 벤후 3:9; 요일 2:2), 죄악이 불가해한 점은 이 제안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아니요”라고 답한다는 점에 있다.

“의의 행위”는 (1)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의 삶과 성부의 계시나 혹은 (2) 죄악된 인류를 대신하여 그가 죽음을 당하신 것을 특별히 가리킨다. 한 사람의 삶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쳤듯이(유대인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참조, 수 7 장) 한 사람의 죄없는 삶 또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서로 평행을 이루지만 똑 같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예수의 삶에 의해 오직 가능성에 있어서만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즉 칭의의 선물을 받는 믿는 자들만 그렇다. 예수의 행동은 과거나 현재에 혹은 미래에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인간의 죄에 영향을 미친다!

5:18-19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 . .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 .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 . .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두 절은 “많은” 사람이 제외되는 것에서 아니라 포함되는 것으로 평행을 이룬다. 이러한 평행은 사 53:6 “모든”과 53:11, 12 “많은”에서 나타난다. “많은”이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제안을 제한하기 위한 의미로 취해서는 안된다(칼빈의 선택 받은 자 대 선택받지 못한 자).

두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이 동사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낸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하여 범죄하였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 . .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바울은 구약의 신학적 개념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참조, 수 7 장의 아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참조, 창 3 장).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반역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참조, 8:18-25). 같은 세계가 아니다. 인간은 같지 않다. 죽음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의 마지막이 되었다(참조, 창 5 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행한 순종의 한 행동은 (1) 새 시대 (2) 새 백성 (3) 새 언약을 가져왔다. 이렇게 대표하는 신학은 “아담-그리스도 모형론”으로 불린다(참조, 빌 2:6). 예수는 두 번째 아님이시다.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새 시작이시다.

■ “의인이 되리라”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5:20

NASB “그리고 범죄가 더 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

NKJV “더욱이 범죄가 더 많게 하려 율법이 들어왔다”

NRSV “그러나 율법이 들어왔고, 그 결과 범죄가 늘었다”

TEV “잘못함을 더 많게 하려 율법이 소개되었다”

JB “율법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범죄의 기회를 더하게 하려 함이었다”

율법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범죄한 인류에게 자신들의 필요와 도움이 없음을 보여(참조, 앱 2:1-3)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함이었다(참조, 3:20; 4:15; 7:5; 갈 3:19, 23-26).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은 죄악되다!

■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이 단락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이다. 죄가 무섭고 팽배해있지만, 은혜가 넘치고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영향을 뛰어 넘는다. 이 내용은 제 1 세기의 연약한 교회를 격려하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였다(참조, 5:9-11; 8:31-39; 요일 5:4). 이것은 죄를 마음껏 짓도록 하는 증서가 아니다! 1:30에 있는 특별주제: 바울의 휘페르 합성어의 용법을 보라.

5:21 “죄”와 “은혜” 둘 다 왕으로서 의인화되었다. 죄는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힘으로 다스렸다(14, 17 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이에 대한 신자의 개인적인 믿음과 회개함으로 복음에 응답함을 통해 전가된 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참조, 5:17; 둔후 2:12; 계 22:5). 이것은 지상에서 혹은 천년 왕국에서의 다스림으로 나타날 것이다(참조, 계 5:9-10; 20 장). 성경은 또한 왕국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함으로써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참조, 마 5:3, 10; 뉴 12:32; 앱 2:5-6). 5:17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돋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의 “의”를 정의하라.
2. “위치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소유”的 신학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우리는 은혜를 따라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참조, 앱 2:8-9)?
4.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는가?
5.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또는 구원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6.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가?
7. 이 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화목하게 된”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가?
8. 왜 하나님은 수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죄에 대해 내가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가(참조, 12-21 절)?
9. 죄가 아담에서 모세 사이의 기간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13-14 절)?
10. “모든”과 “많은”은 서로 동의어를 이루는가(18-19 절. 사 53:6, 11-12)?

로마서 6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죄에 대하여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삶	죄에 대하여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	침례(세례)
6:1-11	6:1-14	6:1-4 6:5-11	6:1-4 6:5-11	6:1-7 6:8-11
				거룩함,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함
6:12-14		6:12-14	6:12-14	6:12-14
의의 종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됨	두 종류의 종	의의 종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다
6:15-23	6:15-23	6:15-19	6:15-19	6:15-19
				죄의 보상과 거룩함의 보상
		6:20-23	6:20-23	6:20-2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롬 6:1-8:39 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다루는 하나의 사상적 단위(문학 단위)를 이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격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쳐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3:31-5:21).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6장은 1절과 15절에서 제시된 질문에 기초한다. 1절은 5:20과 관계가 있는 반면 15절은 6:14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것은 생활습관으로서의 죄(현재 시제)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것은 개별적인 죄의 행위(부정과거 시제)와 관련이 있다. 1-14절이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가 갖는 자유를 다루는 반면에, 15-23절은 이전에 죄를—전적으로, 완전하게, 전심으로 섬겼듯이—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신자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나. 칭의의 두 면

1. 위치(의롭게) 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을 때 전가됨, 3:21-5:21)

2.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감

ㄱ. 6:1-8:39은 이 진리를 신학적으로 표현함

ㄴ. 12:1-15:13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함(6:4의 특별주제를 보라)

다. 주석가들은 종종 칭의와 지위적 성화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따로 떼어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붙들려 한다. 사실상 이 둘은 동시적으로 은혜에 따른 행동이다(지위적, 고전 1:30; 6:11). 둘의 원리는 동일하다—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예수의 삶과 죽으심 안에서 드러났다(참조, 앱 2:8-9).

라. 이 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잠재적인 완전한 성숙함에 대해 가르친다(죄없음, 참조, 요일 3:6, 9; 5:18). 7장과 요일 1:8-2:1은 신자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죄의 실재를 나타낸다.

바울이 말하는 용서함의 관점에 대해 일어나는 많은 종류의 갈등은 도덕적 주제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은 새로 회심한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의 견해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삼았고 또 그렇게 삼으려 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1, 15절; 벤후 3:15-16). 바울은 외적 법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추종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믿었다. 사실상 이것은 옛 언약(참조, 신 27-28장)과 새 언약(참조, 렘 31:31-34;겔 36:26-27)의 차이점이다.

마. 침례(세례)는 칭의/성화의 영적 실체를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로마서에서 쌍둥이 교리인 지위적 성화(칭의)와 경험적 성화(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가르침은 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장사지낸바 된 것(4절)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6절)과 평행을 이룬다.

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흑과 죄를 이기기 위한 열쇠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라. 그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라.

당신은 죄로부터 놓임을 받았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2.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지위를 생각하라/고려하라.

3.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을 섬기고/순종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고/순종한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 삶이다. 구원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작하셨고 이것의 능력을 공급하신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처음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5. 죄 주위에서 얼씬거리지 않는다. 죄를 죄로 여기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도망치라. 당신 자신을 유흑의 자리에 있게 하지 말라.

6. 죄는 고쳐질 수 있는 중독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과 노력, 의지적 힘을 요구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1-7

¹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²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³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⁵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⁶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⁷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6:1

NASB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짓기를 계속 해야겠느냐”
 NKJV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여야 하겠는가”
 NRSV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여야만 하겠느냐”
 TEV “하나님의 은혜가 많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
 JB “은혜가 더 넓은 범위를 갖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죄에 남아 있어야만 함을 이것이 뜻하는가”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거하여야 하는가” 혹은 죄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5:20을 살펴보게 한다. 바울은 가정적으로 반대자(통렬한 비난)를 설정하여 은혜를 오용할 가능성의 문제(참조, 요일 3:6, 9; 5:18)를 다룬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반역적인 삶을 마음껏 살도록 면허증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다.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하는 바울의 복음(참조, 3:24; 5:15, 17; 6:23)은 의의 삶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게한다. 어떻게 거쳐 주시는 선물이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게 하는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참조, 마 7:24-27; 뉘 8:21; 11:28; 요 13:17; 롬 2:13; 약 1:22-25; 2:14-26).

이 점에 있어서 F. F. 브루스의 책 *바울: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사도*에서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는 중생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옛 질서에 대해 그들이 죽었음을 나타내고 따라서 침례(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행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로서 마치 해방된 노예가 이전 주인에게 계속 종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으며 (참조, 롬 6:1-4, 15-23) 혹은 과부가 ‘그녀의 남편의 법’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281-82쪽(참조, 롬 7:1-6).

제임스 S. 스테워트의 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서 그는 기록하기를: “모든 면에 대한 사도의 생각을 표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로마서 6장에 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였다는 것은 신자가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는 교훈을 가슴과 양심에 새겨지도록 커다란 열정과 노력으로 말한다.” 187-88쪽.

6:2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희구법 형태로서 소원이나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문법적 법이나 양태이다. 이것은 바울이 가정적으로 설정한 반대자에게 대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오해와 은혜의 남용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놀람이나 경악을 나타낸다(참조, 3:4, 6).

■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뜻이다. 단수형인 “죄”는 이 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롬 5:12-21; 고전 15:21-22). 바울은 종종 죽음의 개념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예수께 대한 신자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낸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다.

■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글자대로는 “걷다”이다. 이 은유는 믿음의 삶(참조, 앱 4:1; 5:2, 15)이나 죄의 삶(참조, 4절)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신자들은 죄 안에서 행복할 수 없다!

6:3-4 “세례를 받은 줄을 . . . 장사되었나니” 두 동사가 다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이 문법적 형태는 외부의 사람, 여기서는 성령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된 행위를 강조한다. 이 문맥에서 이 둘은 평행을 이룬다.

특별주제: 침례(세례)

쿠티스 보간의 사도행전 28 쪽에 흥미로운 각주가 있다.

“헬라어에서 ‘침례(세례)받다’는 3 인칭 명령으로 되어있고, ‘회개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2 인칭 명령으로 되어있다. 보다 직접적인 2 인칭 명령이 아닌 보다 덜 직접적인 3 인칭으로 ‘침례(세례)받다’를 표현한 점은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점은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3:2)과 예수님(참조, 4:17)의 설교에서 강조점을 드러낸다. 회개는 영적 열쇠로 침례(세례)는 이러한 영적 변화의 외적표현으로 보인다. 신약에는 침례(세례)받지 않은 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초대교회에서 침례(세례)는 바로 믿음의 공적 고백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적 표현의 방법이었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회개는 언급되고 있지만 침례(세례)는 언급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3:19; 뉴 24:17). 침례(세례)는 예수님의 세우신 모본이었다(참조, 마 3:13-18). 예수님은 침례(세례)를 명하셨다(참조, 마 28:19).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세례)가 필요한가 하는 현대인의 질문은 신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모든 신자는 침례(세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성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구원은 믿음의 영역이지, 특정한 장소, 특정한 표현, 특정한 예식의 영역이 아니다!

▣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에이스(안으로)의 용법은 마 28:19에 있는 대위임과 평행을 이룬다. 거기서는 새 신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에이스(안으로) 침례(세례)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전치사는 고전 12:13에서 신자가 성령으로 침례(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 에이스는 11절에 있는 엔(그리스도 안에서)과 동의어를 이룬다. 후자는 신자를 뜻하는 말로서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다. 이러한 전치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러한 친밀한 연합, 이러한 교제의 영역을 나타낸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참조, 6절; 8:17), 부활하심(참조, 5절), 순종하심, 그의 왕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다!

▣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 . .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에 잠기는 침례(세례)는 죽음과 장사를 나타낸다(참조, 5장과 골 2:12).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은유로서 침례(세례)를 사용하셨다(참조, 막 10:38-39; 뉴 12:50). 여기서 강조점은 침례(세례)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새롭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받으신 침례(세례), 그의 성품, 그의 희생, 그의 사명에 함께 한다. 죄는 신자들에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6:4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에서 바울은 여러 개의 원(함께)이 있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이다(예, 앱 2:5-6).

1. ψυ + ταφτο = 함께 장사되다, 4절; 골 2:12; 또한 8절의 설명을 보라
2. ψυ + σταυρο = 함께 심기다, 5절
3. ψυ + αζο = 함께 존재하다, 8절; 딤후 2:11(또한 함께 죽다와 함께 다스리다가 있다)

▣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예상되는 구원의 결과는 성화이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 새 생명은 구원의 결과이다(참조,

16, 19 절; 앱 2:8-9, 10; 약 2:14-26). 이것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이거나 혹은 저거나의 질문이 아니라 순차적인 내용이다.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롬 4 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깊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행 20:23; 26:18
롬 15:16
고전 1:2-3; 6:11
살후 2:13
히 2:11; 10:10, 14; 13:12
벧전 1:1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롬 6:19
고후 7:1
살전 3:13; 4:3-4, 7; 5:23
딤전 2:15
딤후 2:21
히 12:14
벧전 1:15-16

▣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 문맥에서 성부께서 성자의 말과 사역을 받으시고 또한 확증하신 것이 두 가지 큰 사건에서 나타난다.

1.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2.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성부의 우편에 계신 것

▣ “아버지의 영광” “영광”에 대하여는 3:23의 특별주제를 보라. “아버지”에 대하여는 1:7의 특별주제를 보라.

6: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독자가 믿는 자들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함께 연합되었고 계속해서 함께 연합된” 또는 “함께 심겨졌고 계속해서 함께 심겨진”의 뜻을 가진다. 이 진리는 신학적으로 요 15 장의 “거합”과 일치한다. 만일 신자가 예수의 죽으심에 함께 했다면(참조, 갈 2:19-20; 골 2:20; 3:3-5), 신학적으로 그들은 그의 부활하신 삶에 함께 해야만 한다(참조, 10 절).

죽음을 가리키는 침례(세례)의 은유는 다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 우리는 옛 생활, 옛 언약에 대해 죽었다 (2) 우리는 성령과 새 언약에 대해 살았다.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는 따라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세례)요한의 것과 다르다. 침례(세례)는 초대교회에서 새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기회였다. 초기의 침례(세례)식에서 침례(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나는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내용을 반복하였다(참조, 롬 10:9-13). 이러한 공적 선언은 이미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식적이고 예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침례(세례)는 죄의 용서, 구원, 혹은 성령의 내재하심을 받는 작동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공적 시인과 고백을 하는 길이었다(참조, 행 2:38). 그렇지만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명하셨고(참조, 마 28:19-20) 이것의 예를 보이셨으며(참조, 마 3 장; 막 1 장; 농 3 장), 이것은 또한 사도들의 설교에서 한 부분을 이루었고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6:6

NASB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을 알거니와”
NKJV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을 알거니와”
NRSV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안다”
TEV	“우리가 이것을 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JB	“우리의 이전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으로서 “우리의 옛 사람이 성령에 의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뜻한다. 이 진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신자는 죄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참조, 갈 2:20; 6:14). 인간의 타락한 옛 사람(아담의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참조, 7 절; 앱 4:22, 골 3:9). 신자로서 우리는 지금 아담이 처음에 그랬듯이 죄에 대해 선택을 해야한다.



NASB, NKJV	“우리 죄의 몸이 죽게 하려 함이니”
NRSV	“죄의 몸이 망하게 하려”
TEV	“죄된 자아의 능력이 망하게 하려”
JB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

바울은 “몸”(소마)이라는 단어와 함께 소유격이 쓰이는 구의 형태를 여럿 사용한다.

1. 죄의 몸, 롬 6:6
2. 이 죽음의 몸, 롬 7:24
3. 육체의 몸, 골 2:11

바울은 죄와 반역으로 특징되는 현 세대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삶에 대해 말한다. 예수의 부활의 몸은 의의 새 시대에 가질 몸이다(참조, 고후 5:17). 육체를 가진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헬라의 철학)이 아니라 죄와 반역이 문제를 일으킨다. 몸은 악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삶을 가르친다(참조, 고전 15 장). 그러나 육체의 몸은 유혹과 죄와 자아의 전쟁터이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이다. “죽게 한다”는 표현은 “망하게 하다”가 아니라 “활동적이지 않게 한다” “힘이 없게 한다” 혹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로서 25 회 이상 사용되었다. 3: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우리의 육체적 몸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만 이것은 계속적인 영적 갈등의 싸움터이기도 하다(참조, 12-13 절; 5:12-21; 12:1-2).

6:7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죽고 또한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난 자는”을 뜻한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들은 죄의 종됨과 아담의 범죄로부터 물려받은 자아로에서 벗어났고 계속해서 벗어난다(참조 7:1-6).

이곳에서 “벗어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곳에서는 앞쪽의 장에서 나타나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은”으로 번역된다(ASV). 이 문맥에서 “벗어나”는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행 13:39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됨). 사전의 뜻이나 혹은 미리 정의된 의미가 아니라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함을 기억하라. 단어는 오직 문장에서 의미를 가지고 문장은 오직 문단에서 의미를 가진다.

개역개정 6:8-11

⁸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⁹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¹⁰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¹¹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신자의 침례(세례)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낸다.

▣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문맥은 “지금 여기서”的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참조, 요일 1:7) 전적으로 미래의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5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을 말하며 8 절은 우리가 그의 생명에 참여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나타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면서도 현재 여기서의 관점을 갖는다. 거저 받은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6:9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6:4 을 보라,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활동했음을 확인한다: (1) 성령(참조, 롬 8:11); (2) 성자(참조, 요 2:19-22; 10:17-18); 또한 아주 빈번하게 (3) 성부(참조, 행 2:34, 32; 3:15, 26; 4:10; 5:30; 10:40; 13:30, 33, 34, 37; 17:31; 롬 6:4, 9). 성부의 행동은 성부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가르침을 인정하여 받으셨음을 뜻한다. 이것은 사도들이 초기에 행한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 1:2 의 특별주제: 캐리그마를 보라.



NASB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NKJV, NRSV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TEV	“사망이 다시 그를 다스리지 못할 줄을”
NJB	“사망이 그에게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줄을”

동사 퀴리유오 는 “주인,” “지배자,” “남편,” 또는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에서 온 단어이다. 예수님은 이제 사망에 대해 주님이시다(참조, 계 1:18). 예수님은 처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부수신 분이시다(참조, 고전 15 장)!

6:10 “” 이 절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사셨고 죄를 결코 짓지 않으셨지만 죄악된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참조, 히 10:10). 예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대속적인 죽음은 율법의 요구와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모두 무효화시켰다(참조, 갈 3:13; 골 2:13-14).

▣ “단번에” 이 문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한번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죄로 인해 죽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히브리서 역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한 번의 희생 죽음의 궁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단번에 행해진 구원과 용서는 영원토록 유효하다(참조, “한 번”[에화팍스], 7:27; 9:12; 10:10 과 “단번에”[하팍스], 6:4; 9:7, 26, 27, 28; 10:2; 12:26, 27). 이것은 성취된 희생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이다.

▣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0 절 상반절에 있는 두 부정과거는 10 절 하반절에 있는 두 현재 능동 직설법과 대조를 이룬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복음은 죄의 용서(칭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성화)을 가진다. 신자들은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신 지속적인 명령이고 항상 행할 것에 대한 명령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지식이다. “여기라”(참조, 4:4, 9)는 회계상의 용어로서 “주의하여 이것을 더하라”는 뜻이며 따라서 이 지식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다. 1-11 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를 말하는 반면에 12-13 절은 주 안에서 결을 것(점진적인 성화)을 강조한다. 4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6:12-14

¹²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¹³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¹⁴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범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된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지배하다”라는 용어는 5:17-21과 6:23과 관련이 된다. 바울은 여러 신학적 용어를 의인화하고 있다: (1) 사망이 왕으로서 다스린다(참조, 5:14, 17; 6:23) (2)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린다(참조, 5:21) (3) 죄가 왕으로서 다스린다(참조, 6:12, 14).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이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능력을 가졌다! 개인과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비극은 신자가 은혜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죄를 택할 때이다.

6:13 “너희 지체를 . . .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된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죄의 가능성은 나타낸다(참조, 7:1 이하; 요일 1:8-2:1). 그러나 죄의 요구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성에 의해 줄어든다, 1-11 절.

■ “불의의 무기로” 이 용어는 “군인의 무기”를 지칭한다. 우리의 육체적 몸은 유혹의 전쟁터이다 (참조, 12-13 절; 12:1-2; 고전 6:20; 빌 1:20). 우리의 삶은 공적으로 복음을 나타낸다.

■ “너희 지체를 . . .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행동의 결단을 촉구한다(참조, 12:1). 신자들은 이러한 결단을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하지만 삶을 살아 가면서 이러한 결단을 줄곧 해야만 한다.

이 절에 나타나는 평행을 주목하라.

1. 같은 동사와 명령의 사용

2. 전쟁의 은유

 ㄱ. 불의의 병기

 ㄴ. 의의 병기

3. 신자들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듣지 아니면 하나님께 듣지 어느 한 쪽에 드리게 된다
이 절은 신자들에게 계속적인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미래 능동 직설법이며(참조, 시 19:13) 명령의 역할을 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죄가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신자들을 주장할 수 없다(참조, 9 절; 요 16:33).

개역개정 6:15-19

¹⁵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¹⁶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¹⁷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¹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¹⁹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6:15 이 두 번째 질문(통렬한 비난)은 6:1과 매우 비슷하다. 둘 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다른 질문에 답을 한다. 1절은 은혜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하는 증서가 아님을 말하고 15절은 모든 죄의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싸우고 저항해야 함을 말한다. 동시에 신자는 이전에 죄를 섬기던 열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참조, 6:14).



NASB, NKJV,

TEV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NRSV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되리요”

JB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

윌리엄 역과 필립 역은 둘 다 이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을 1절에서처럼 현재능동 가정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관점이 아니다. 다른 번역본을 주목하라 (1) KJV, ASV, NIV –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2) 세기 번역 – “우리가 죄의 행위를 해야 하리요?” (3) RSV – “우리는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느뇨? 이 질문은 헬라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며 “그렇다”라는 답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신랄한 비난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절은 거짓된 신학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의 특징적인 표현인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로 답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복음은 많은 거짓 교사에 의해 오해받고 오용되었다.

6:16 질문은 “네”라는 반응을 기대한다. 인간은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사람을 섬긴다. 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가?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는 그가 누구를 섬기는지 보여준다(참조, 갈 6:7-8).

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종종 돌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의 글은 그의 기도에서 흘러 나오고 그의 기도는 복음에 대한 그의 지식에서 흘러 나온다. 7:25의 특별주제: 하나님께 드린 바울의 기도, 찬송, 감사를 보라.

■ “너희가... 이더니...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다”라는 동사의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의 상태(죄의 종)를 설명하는데 그들의 반역의 상태가 멈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부정과거 시제가 뒤따르는 구조이다.

■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문맥에서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칭의를 가리킨다. 칭의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반드시 이끈다. “교훈”이라는 용어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복음을 가리킨다.

■ “마음” 1:24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NASB	“너희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형태”
NKJV	“너희에게 전해진 교리의 형태”
NRSV, NIV	“너희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형태”
TEV	“너희가 받은 가르침에서 발견되는 진리”
NJB	“너희에게 소개한 가르침의 형식”

특별주제: 형식(튀포스)

튀포스가 여러 용법을 가지기에 어려움이 있다.

1. 물론과 밀리간, 신약 헬라어의 어휘, 645 쪽
 - ㄱ. 모형
 - ㄴ. 계획
 - ㄷ. 글을 쓰는 양식 또는 방법
 - ㄹ. 선언 또는 칙령
 - ㅁ. 선고 또는 결정
 - ㅂ. 병고침을 위해 신에게 드리는 공물로서의 인간 육체의 형태
 - ㅅ.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문장에서 사용한 동사
2. 로우와 니다, 헬라어-영어 사전, 제 2권, 249 쪽
 - ㄱ. 흉터(참조, 요 20:25)
 - ㄴ. 형상(참조, 행 7:43)
 - ㄷ. 모델(참조, 히 8:5)
 - ㄹ. 모범(참조, 고전 10:6; 빌 3:17)
 - ㅁ. 원형(참조, 롬 5:14)
 - ㅂ. 종류(참조, 행 23:25)
 - ㅅ. 내용(참조, 행 23:25)
3. 해롤드 K 물론, 개정된 분석적 헬라어 사전, 411 쪽
 - ㄱ. 일격, 인상, 표시(참조, 요 20:25)
 - ㄴ. 묘사
 - ㄷ. 형상(참조, 행 7:43)
 - ㄹ. 구조식, 계획(참조, 롬 6:17)
 - ㅁ. 형식, 목적(참조, 행 23:25)
 - ㅂ. 모양, 복사물(참조, 고전 10:6)
 - ㅅ. 고대된 모양, 종류(참조, 롬 5:14; 고전 10:11)
 - ㅇ. 모델의 형식(참조, 행 7:44; 히 8:5)
 - ㅈ. 도덕 양식(참조, 빌 3:17; 살전 1:7; 살후 3:9; 딤전 4:12; 벤전 5:3)

이 문맥에서 1 항이 가장 적합하다. 복음은 교리적이며 동시에 삶의 양식에 연관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쳐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요구한다!

6: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복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믿는 자들은 죄의 형별(칭의)과 죄의 폭군적 지배(성화, 참조, 7 절과 22 절)로부터 해방되었다.

▣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으로서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를 뜻한다.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참조, 14, 19, 22 절; 7:4; 8:2)! 거쳐 주시는 은혜의 목적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칭의는 법적 선언인

동시에 개인의 의를 촉진시키는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다른 이들을 돋도록 하시기 원하신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들은 바 지역교회의 문제(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질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바울은 갈 3:15에서 이 표현을 롬 3:5에서 일찌기 사용하고 있다.

19 절은 16 절과 평행을 이룬다. 바울은 강조를 위해 그의 신학적 요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종에 대한 은유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1 세기에 특히 로마에서 노예제도는 악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의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

■ “육신”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칭의의 목적이다(참조, 22절). 신약은 이 용어를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신학적 의미로 사용한다: (1) 지위적인 성화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칭의와 더불어 받는 하나님의 선물(객관적 면에서)이다(참조, 행 26:18; 고전 1:2; 6:11; 앱 5:26-27; 살전 5:23; 살후 2:13; 히 10:10; 13:12; 벤전 1:2) 또한 (2) 점진적인 성화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숙함을 닮도록 변화시키신다(주관적인 면에서), 참조, 고후 7:1; 살전 4:3, 7; 딤전 2:15; 딤후 2:21; 히 12:10, 14). 6:4의 특별주제: 칭의를 보라.

이것은 선물이요 또한 명령이다! 이것은 지위(객관적)이고 행동(주관적)이다! 이것은 직설법(설명)이며 명령법(명령)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오지만 끝에 이르러서야 성숙하게 된다(참조, 빌 1:6; 2:12-13).

개역개정 6:20-23

²⁰온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²¹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²²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²³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20-21 이것은 18 절과 19 절의 반대되는 내용이다. 신자는 오직 한 명의 주인만 섬길 수 있다(참조, 놀 16:13).

6:22-23 이 절들은 사람이 섬기는 자로부터 받는 삶에 대해 논리적 접근을 한다. 죄에 대한 이 논의와 결국 은혜에 초점을 맞춘 신자의 삶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협력함으로 첫 번째 선물이며, 그 다음에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의 협력을 통해 누리게 된다. 두 가지 선물을 믿음과 회개함으로 받는다.

6:22 “너희가 . . .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과일”인데, 이것은 21 절에서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22 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를 말한다. 즉각적인 열매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인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참조, 요일 3:2). 만일 즉각적인 열매가 없다면(변화된 삶, 참조, 약 2 장) 궁극적인 열매는 법적으로 의문시 된다(영원한 삶, 참조 마 7 장). “뿌리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

6:23 이것은 전체 장의 요약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택할 내용을 제시한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한다—죄와 사망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쳐 받는 은혜와 영생. 이것은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길”과 매우 비슷하다(시 1 편; 잠 4 장; 10-19 장; 마 7:13-14).

■ “죄의 삶은 사망이요” 죄는 (1) 노예의 주인 (2) 군대의 장성 또는 (3) 임금을 지불하는 왕으로의 인화되었다(참조, 3:9; 5:21; 6:9, 14, 17).

■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카리스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카리스, 참조, 3:24; 5:15, 16, 17; 앱 2:8-9)에서 나왔다. 3:24의 설명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돋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어떻게 선행이 구원과 관계되는가(참조, 앱 2:8-9, 10)?
2. 신자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죄는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참조, 요일 3:6, 9)?
3. 이 장은 “죄 없는 완전함”을 가르치는가?
4. 6 장은 5 장, 7 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5. 왜 여기서 침례(세례)를 다루는가?
6.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왜?
7. 동사의 현재 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14 절과 부정과거 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5-23 절은 무엇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가?

로마서 7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결혼의 유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결혼의 유주	결혼의 예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의해 묶이지 않음
7:1-6	7:1-6	7:1-3 7:4-6	7:1-6	7:1-6
죄에 거함의 문제	율법에서 죄가 갖는 유리한 입장	율법과 죄	율법과 죄	죄의 기능
7:7-12	7:7-12	7:7-12	7:7-11	7:7-8 7:9-11
	율법은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함		7:12-13	7:12-13
7:13-25	7:13-25	7:13 내적 갈등 7:14-20 7:21-25a	사람 안에 있는 갈등 7:14-20 7:21-25a	보상받는 분투 7:14-20 7:21-23 7:24-25a
		7:25b	7:25b	7:25b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6 절의 문맥적 통찰

- 가. 7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1) 6장의 이해에 근거하여, 특히 12-14절(또한 3:20, 21-31; 4:13-16; 5:20)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2) 또한 9-11장에 나타난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와의 긴장과 관련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의 정확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1.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율법주의
 2. 모세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두 번째 자리로 놓는 유대주의적 강조점
 3.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오해
 4.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한 오해
 5.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의 의식이 멈추게 됨으로 인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믿는 이방인 지도자들에 대한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 많은 유대인 신자들 또한 떠나갔을 것이다.
- 나. 그리스도인의 옛 사람에 대한 관계를 6장에서 회화적으로 나타낸 것을 로마서 7:1-6에서 계속 이어간다. 다음과 같은 은유가 사용된다
1. 죽음으로 노예에서 벗어나 다른 주인에게 속함(6장)
 2. 죽음으로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남(7장)
- 다. 6장과 7장은 문학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6장은 “죄”에 대한 신자의 관계를 다루고 7장은 “율법”에 대한 신자의 관계를 다룬다. 노예에서 벗어남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죽음의 유추(6:12-23)는 죽음으로 결혼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됨을 말하는 유추(7:1-16)와 평행을 이룬다.

6장	7장
6:1 “죄”	7:1 “법”
6:2 “죄에 대해 죽음”	7:4 “율법에 대해 죽음”
6:4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에 행하기 위하여”	7:6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기 위하여”
6:7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됨”	7:6 “우리가 얹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6:18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7:3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나이그렌의 *로마서 주석*에서 가져옴, 칼 C. 라스무센 역, 268쪽)

- 라. 율법과 그 조항은 사형선고문이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있다(참조, 롬 6:14; 7:4; 갈 3:13; 앱 2:15; 골 2:14). 율법은 저주였다.
- 마. 7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4 가지 주요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1.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자서전적 이해)
 2.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다(대표, 크리소스톰)
 3. 바울은 아담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몹수에티아의 데오도르)
 4. 바울은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바. 여러 면에서 로마서 7장은 창세기 3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까지라도 반역으로 떨어짐을 보인다. 지식은 타락한 인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새 마음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새 언약, 참조, 렘 31:31-34;겔 36:26-27). 이 경우에도 계속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7:1-3

¹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²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³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7:1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1) 오직 유대인 신자만 (2)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갈등 (3) 모든 인류에 관계된 의미로서 광의의 법(참조, 2:14-15) 혹은 (4) 새로 믿어 구약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 배우는(교리문답) 이방인 신자.

▣ “법” 이것은 이 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참조, 1, 2, 4, 5, 6절 및 기타). 그러나 바울은 이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바울의 논의는 6:14에 의해 축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제시는 6장의 구조와 평행을 이룬다. 문맥적 통찰의 다향을 보라.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갖는 관계 및 율법에 대하여는 3:21-31과 4:13-16에서도 다루었다.



NASB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줄”
NKJV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줄”
NRSV	“그 법이 사람의 생애 동안만 그를 얹매는 줄”
TEV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다스린다”
JB	“그 법이 사람의 생애 동안만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줄”

이것은 문자적으로 “주인으로서 그것을 지배하다”(퀴리유오, 참조, 6:9:14)이다. 모세의 율법은 커다란 축복인 동시에(참조, 시 19; 119편) 엄청난 저주였다(참조, 갈 3:13; 앱 2:15; 골 2:14). 육체적 죽음으로 유행에 대한 의무가 해제된다. 이것은 신자의 죽음이 죄에 대해 갖는 관계를 다루기 위해 6장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은유이다.

7:2 “남편 있는 여인이” 이것은 1-6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주요한 예이다. 6장에서 죽음으로 사람이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됨을 그는 다룬다. 여기서는 결혼과 이에 따른 의무에 초점이 있다. 이 예는 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과부가 재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남편이 죽어야만 가능한데 반해, 바울의 유추에서는 신자가 죽는 자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기 때문이다.

▣ “벗어나느니라” 이것은 6:6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동사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소용없게 하다,” 또는 “폐지하다”를 뜻한다. 6:6에서 이 단어가 부정과거 수동이지만 여기서는 완료 수동으로서 “벗어났고 계속 벗어났다”는 뜻을 가진다. 3:3의 특별주제를 보라.

7:3 “음녀라” 이 내용은 신 24:1-4(특별히 “어떤 수치되는 일”)에 대하여 유대 랍비들의 삼마이 학파와 헬렐 학파 사이에 가진 논란과 관련이 있다. 헬렐 학파는 자유주의적 그룹으로서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허용했다.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 그룹으로서 간음이나 혹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유에서만 이혼을 허용했다(참조, 마 5:32; 19:9).

개역개정 7:4-6

⁴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⁵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⁶이제는 우리가 얹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목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4 “너희도 . . .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이 문단의 주요 주제이다(또한 6 장에서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음을 말하는 6 장의 유추와 관련이 있다(참조, 고후 5:14-15; 갈 2:20). 성령의 새 시대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참조, 고후 5:17).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학적 개념(참조, 고전 12:12, 27)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6:3-11과 같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몸을 가리킨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신자들은 침례(세례)를 통해 그와 동일시 됨으로서 주와 함께 죽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죽음이었다(참조, 고후 5:14-15; 갈 2:20).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가지신 생명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도록 자유롭게 하셨다.

■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6 장 특히 6:22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신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께 자신을 묶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계속되는 결혼의 유추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죽으셨듯이 이제 그들도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고후 5:13-14; 갈 2:20).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았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로운 영적 삶으로 살리심을 받았다(참조, 롬 6:22; 앱 2:5-6).

7:5

NASB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NKJV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NRSV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TEV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따라 살 때에는”
JB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절은 4 절과 대조를 이룬다. 6 절과 같이 4 절은 신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5 절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는 삶의 “열매”를 설명한다(갈 5:18-24). 율법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만(7-9 절; 갈 3:23-25) 이를 이겨낼 힘을 공급할 수 없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자의 타락하고, 범죄한 본성을 가리킨다(참조, 6:19). 바울은 사魯스를 두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1) 죄된 본성(옛 사람) (2) 육체(참조, 1:3; 4:1; 9:3, 5). 여기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롬 1:3; 4:1; 9:3, 5; 갈 2:20을 보라. 육체/몸(사魯스/소마)는 그 자체나 그 안의 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마음(누스)과 같이 싸움터로서 이 세대의 악의 힘과 성령이 서로 대결하는 장소이다. 바울은 헬라의 저작을 따라서가 아니라 70인역과 일치하게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어떤 규정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반역적인 기질은 창 3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율법은 범위를 설정해 주었다(참조, 7-8절). 이러한 범위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이 규정들을 속박과 제한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죄악되고 독립적인 영이 조장되었다. 한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율법, 참조, 12-13절), 인간이 스스로 해나가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다.

7:6 “이제는” 뉴맨과 니다,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번역가의 핸드북,는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5절과 6절에 있는 평행을 주목하여 보는 것과 또한 이 절들을 뒤따르고 있는 내용과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5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7:7-25과 평행을 이룬다; 6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현재 경험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 말하는데 이 내용은 8:1-11과 평행을 이룬다”(130쪽).

▣ “벗어났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5절의 명령 중간태 직설법과 대조를 이룬다. 신자들은 율법에 의해 드러난 대로 죄에 의해 계속적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다. 같은 단어가 2절에서 남편이 죽은 여자에게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 “우리가 얹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서 미완료 수동 직설법이 뒤따라 오는 구조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1) 구약의 저주와 (2) 그들의 죄악된 자아로부터 신자들을 해방하여 놓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하신 뜻에 대한 반역, 타락한 성품, 개인의 죄, 초자연적 유혹에 의해 계속해서 묶여 있었다(참조, 앱 2:2-3)!

▣ “새로운 것... 묵은 것” 영적으로 새로운 이 길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렘 31:31-34; 갤 36:22-32). 바울은 헬라어 용어인 “새”(카이노스-카이노테스)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새 생명, 롬 6:4
2. 새 영, 롬 7:6
3. 새 언약, 고전 11:2; 고후 3:6
4.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7; 갈 6:15
5. 새 사람, 앱 2:15; 4:24

모세의 율법에 적용하고 있는 용어인 “묵은 것”은 “완전히 닳아 빠진”을 뜻한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듯이(참조, 8:7과 13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다.



NASB, NKJV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하여”

NRSV “이러므로 우리는 옛 종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 생명으로 섬긴다”

TEV “그러나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JB “새 영적 방법으로 자유롭게 섬기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영의 새로움으로”이다. 이것이 중생한 인간의 영을 말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대문자로 표시하여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령은 롬 8장에서 처음으로 불명료하게 언급된다(15회). 롬 1:4, 9; 2:29; 7:6; 8:15; 11:8; 12:11; 고전 2:11; 4:21; 5:3, 4, 5; 7:34; 14:15, 16, 32; 16:18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복음으로 거듭나고 활기있게 된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다.

바울서신에서 “육체”와 “영”은 종종 생각과 삶에서 두 가지로 대별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대조된다(참조, 7:14; 8:4; 갈 3:3; 5:16, 17, 25; 6:8). 하나님 없이 사는 육신적 삶은 “육체”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영” 혹은 “거룩한 영”으로 나타낸다. 성령의 내주하심(참조, 8:9, 11)은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는다(지위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로마서 7:7-25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롬 7:7-25은 인간의 실재를 보여준다. 구원을 받은 자와 끊어버려진 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선과 악의 긴장을 경험한다. 해석학적 질문은 “바울은 이 본문이 어떻게 이해되기를 의도했는가?”이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1:18-6:23과 8:1-39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어떤 이는 이 내용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따라서 바울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의 틀로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은 “자서전 이론”으로 불린다. 바울은 고전 13:1-3에서 “나”를 비인칭적 의미로 사용했다. 이러한 비인칭적 “나”는 유대인 랍비들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만일 이러한 관점이 사실이라면, 이 본문은 인류가 무흠함에서 죄의 자각을 통해 구원에 이름을 뜻할 것이다(8장), “대표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신자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심각하게 씨름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리킨다고 본다. 24절의 가슴을 찢는 외침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나타낸다. 7-13절에서는 **부정과거와 미완료 동사 시제**가, 14-25절에서는 **현재와 완료형 동사시제**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바울이 무흠함에서 죄의자각으로, 청의와 긴장이 가득찬 성화의 길로 가는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고 보는 “자서전 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아우토스이고, “나 자신,” 참조, 25절).
- 두 가지 다 맞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7-13절과 25b절에서 바울은 자서전적으로 말하고 있고, 14-25a절에서는 구속받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자신이 경험한 죄에 대한 내적 갈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체 본문이 회심 이전에 유대교에 열심인 종교가로서의 바울의 배경을 나타내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바울의 경험은 매우 독특한 그만의 경험이었다.
- 나.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고 또한 계속해서 이를 이룰 것이다(참조, 7:7, 12, 14, 22, 25). 율법은 평화나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서 바울의 역설적인 생각과 표현에 대해 말한다:
- “당신은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여 자신의 사상과 교리적 체계를 이루는 사람을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핵심적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를 기대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저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로 사용한 어떤 단어가 줄곧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바울에게서 찾는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 그의 용어는 제한적이지 않고 매우 융통성이 있다.... 그가 ‘율법이 거룩하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참조, 롬 7:12-13)고 말할 때 이 용어는 그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참조, 갈 3:13)’를 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노모스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26쪽).
- 다. “14-25절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자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룸에 있어서 살펴 볼 본문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구원받지 못한 자
 - ㄱ. 이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던 초대 교부들의 해석이었다
 - ㄴ. 아래의 귀절은 이 견해를 지지한다
 - (1) “육신에 속하여,” 14절
 - (2) “죄 아래 팔렸도다,” 14절
 - (3)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18절
 - (4)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23절

- (5)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4 절
- ㄷ. 6 장의 직접적인 문맥은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이다. 8 장은 “그러므로 이제”로 시작한다.
 - ㄹ. 이 문맥이 마칠 때까지 성령이나 그리스도께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25 절).
2. 구원받은 자
- ㄱ. 이것은 어거스틴, 칼빈, 또한 개혁의 전통에 따른 해석이다
 - ㄴ. 다음의 구절이 이 견해를 지지한다
 - (1)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14 절
 - (2)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6 절
 - (3)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 . .,” 19 절
 - (4)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 절
 - ㄷ.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7 장은 성화를 다루는 부분이다.
 - ㄹ. 7-13 절에서 사용되는 미완료와 부정과거 시제는 14-24 절에서 현재 시제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바뀌는데, 이 점은 바울의 삶에서 다르고 또한 새로운 부분을 암시한다(즉, 회심).
- 라. 신자가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쓸수록 그는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경험한다. 이 역설은 이 문맥과 또한 바울의 삶(또한 이 면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에게)에 잘 들어 맞는다.
- 헨리 트웰스가 쓴 루터교 찬송가의 한 절이다:
- “오 주님 아무도 완전한 휴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로부터 다 자유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이 당신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많은 잘못을 속으로 느끼면서.” (저자의 이름과 찬송의 제목은 알려져 있지 않음)

개역개정 7:7-12

⁷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⁸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⁹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¹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¹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¹²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다시 신랄한 비난으로 돌아오고 있다(참조, 6:1, 15; 7:1, 13).

▣ “율법이 죄냐” 계시가 지닌 한 가지 역설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서 타락한 인류를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율법의 거룩함과 선함을 거울로써 사용하셨다는 점이다(참조, 12-13 절; 갈 3 장). 또한 놀랍게도 율법은 칭의가 아닌 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거짓된 주장을 거부하기 위해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이다(참조, 13 절; 3:4, 6, 31; 6:2, 15; 9:14; 11:1, 11; 갈 2:17; 3:21).

▣ “(오히려)” 로마서에서 바울은 강한 대조를 사용하여 자신의 논점을 밝히고 있다(참조, 3:4, 6, 31; 6:2, 15; 7:13; 9:14; 11:1, 11).

▣ “내가” 당신의 성경에서 7-25 절의 문맥에서 “나,” “나의,” “나를” 등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경우를 모두 표시하라. 당신이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40 회 이상 사용되었다.

▣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개인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로서 역할을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3:20; 4:65; 5:20; 갈 3:14-29, 특히 24 절). 율법을 한 번 범하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였고, 따라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참조, 10 절과 약 2:10)!

▣ “율법이 . . .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다.” 바울은 죄를 자각하고 있었다. 이곳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문법적 내용이 사용된 유일한 경우이다. 바울은 이것을 갈 1:10; 3:21; 고전 2:8; 5:10; 11:31; 고후 12:11에서 사용한다.

▣ “탐내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마지막 명령을 인용한 것이다(참조, 출 20:17; 신 5:21). 이 마지막 계명의 초점은 적절한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모든 것의 핵심을 이룬다(참조, 마 5-7 장). 율법은 종종 “계명”으로 불린다(참조, 8, 9, 11, 12, 13 절). “탐내다”는 “~에 마음을 두다” 혹은 “강하게 바라다”를 뜻한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선물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에게 더욱 더 많이”가 그들이 원하는 바다! 자아는 흉악한 전제군주이다! 13:8-9에서 출 10:17에 대한 설명을 보라.

7:8

NASB, NKJV	“기회를 타서”
NRSV	“기회를 불잡아서”
TEV	“기회를 발견해서”
JB	“기회를 이용하여”

이것은 군사용어로서 전투에 있어서 해안 교두보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8 절과 11 절). 이 문맥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경우를 다룬다(참조, 9, 11 절). 죄는 군대장관이 이끄는 전투로서 그려진다(참조, 11, 17 절; 6:12, 14, 16).

▣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다(참조, 롬 4:15; 5:13; 고전 15:56). 이 구에서 동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독자가 동사를 채워 넣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현재 시제로 채운다면 보편적인 원리를 의미하게 된다. 만일 부정과거 시제로 채워 넣는다면 바울의 삶을 특정적으로 의미하게 된다.

7:9 “내가 살았더니”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무흡한 나이의 어린이 또는 (2) 복음의 진리가 그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헌신적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참조, 행 23:1; 빌 3:6; 딤후 1:3). 첫 번째 견해는 7 장의 해석을 “자서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7 장의 해석을 “대표 이론”으로 하는 것이다.

▣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인간의 반역적인 영은 금지에 의해 활성화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아중심적 교만을 자극한다(참조, 창 2:16-17; 3:1-6). 5:21; 7:8, 11, 17, 20에서 보듯이 죄가 어떻게 개인적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7: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아마도 래 18:5의 약속을 가리키거나 혹은 롬 2:13을 가리킨다. 율법이 이루어 질 수 없는 내용을 약속한 것은 율법이 죄악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약하고 반역적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사형선언이 되었다(참조, 갈 3:13; 앱 2:15; 골 2:14).

7:11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두 동사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 되어있다. 속였다는 용어는 창 3:13의 70 인역(LXX)에서 하와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한다(참조, 롬 16:18; 고전 3:18; 고후 11:3; 살전 2:3; 딤전 2:14). 아담과 하와는 탐욕의 문제도 갖고 있었다(참조, 고후 11:3; 딤전 2:14).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었고 바울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었다(1:18-3:20).

7:12 이것은 바울이 율법의 선함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6 장의 “죄”와 7 장의 “법”에서 보여지듯이 바울이 사용하는 평행 구조는 로마교회의 율법지향적 유대인 신자들(14:1-15:13의 약한자)을 틀림없이 당혹하게 했을 것이다.

개역개정 7:13

¹³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7:13

NASB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NKJV “죄가 죄로 나타나기 위하여 ... 매우 죄 되게 하려 함이라”
NRSV “죄가 죄로 보여지기 위하여 ... 측량할 수 없는 죄”
TEV “이것의 본질이 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JB “이것의 본색이 죄임을 보이기 위하여 ... 이것의 죄된 능력을 모두 행사할 수 있었다”

죄의 악한 성격은 이것이 모세의 율법(참조, 시 19; 119)처럼 어떤 좋고 온전하고 경건한 것을 취하여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변형시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참조, 앱 2:15; 골 2:14).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선물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행한다!

두 헌(목적)절을 주목하라.

▣ “심히 죄 되게” 1:30에 있는 특별주제: 바울의 휘페르 합성어 용법을 보라.

개역개정 7:14-20

¹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¹⁵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¹⁶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¹⁷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¹⁸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¹⁹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²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7:14 “율법은 신령한 줄”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다.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참조, 12 절과 16b 절).

▣ “나는 육신에 속하여” 바울은 이 용어를 (1) 육체적 몸을 가리키는 중립적 의미로(참조, 1:3; 2:28; 4:1; 9:3, 5) (2) 아담 안에서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참조, 5 절).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나는 죄의 속박으로 팔렸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 죄가 또 다시 의인화되었는데, 여기서는 노예의 주인으로 나타난다. 수동태의 주어가 불확실하다. 사탄, 죄, 바울, 혹은 하나님을 가리킬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을 가리키는 주요 용어는 “속량하다”나 “구속하다”이다(또한 이 단어들의 동의어). 이것은 원래 “되사다”(또한 이 단어의 동의어. 3:24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의 정 반대되는 개념은 이곳에서 사용된 “~의 손 안에 팔리다”이다(참조, 삽 4:2; 10:7; 삼상 12:9).

7:15-24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성품”(참조, 벤후 1:4)을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성품도 함께 갖고 있다(참조, 갈 5:17). 잠재적으로는 죄가 비활동적이게 되었지만(참조, 롬 6:6), 인간의 경험은 7 장의 내용을 따른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젊은 개와 흰 개가 있다고 한다. 사람이 가장 잘 먹이는 쪽이 가장 큰 몸집을 갖는다.

내가 이 절을 읽으면서 나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두 성품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할 때 그가 가졌던 고통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된다. 신자들이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의 유혹에 복종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종종 강력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젊은 놀랍지만 사실이다. 성숙함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매일 갖는 긴장 가득한 교제이며 매일 악과 투쟁하는 삶이다.

7:16, 20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은 육신이 악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성령 사이의 전쟁터임을 말하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육신을 포함하여 모든 물질이 악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의 이원론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헬라인들은 영적 문제를 물질적 요인의 틓으로 돌렸다. 바울은 영적 갈등을 이러한 용어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죄를 의인화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인간 본성에 악이 침입한 기회로 보았다. “육체”라는 용어는 바울의 글에서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도덕적으로 중립인 육신적 몸(참조, 1:3; 2:28; 4:1; 9:3, 5) (2) 아담으로부터 전해 받은 타락한 죄성(참조, 5 절).

7:20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가 매우 분명하게 인간의 죄를 보여주지만 사탄을 16:20에 가서야 언급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사탄에게 돌릴 수 없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 죄는 왕, 전제군주, 노예의 주인으로 의인화된다. 죄는 유혹하고 끼어 우리로 하나님께 대해 독립적이게 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한다. 바울이 인간의 선택과 관련하여 죄를 의인화시키는 것은 창 4:7을 반영한다.

바울은 “거한다”라는 용어를 이 장에서 여러 번 사용한다(참조, 17, 18, 20 절). 죄의 성품은 구원받을 때에 망가지거나 제거되지 않았고 단지 잠정적으로 비활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죄가 계속적으로 힘을 잃으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에 의존한다(참조, 8:9, 11). 하나님은 의인화(문학적으로)된 개인적(사탄과 귀신) 악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신자에게 공급하였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과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효과적인 억제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자가 매일 내리는 결정의 처음이요 시작으로서 매일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성령(롬 8장), 영적 무장(엡 6:11), 계시(엡 6:17), 기도(엡 6:18).

전투가 격렬하지만(로마서 7장) 이 전투를 이겼다(로마서 8장).

개역개정 7:21-25

²¹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²²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²³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²⁴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²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22 “하나님의 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1) 자연의 증거(참조, 롬 1:19-20; 시 19:1-6) (2) 내면의 도덕적 양심(참조, 롬 2:14-15)
(3) 사회적 규범 또는 이 같은 여러 가지를 말한다.



NASB	“속사람 안에서”
NKJV	“내면의 사람에 의하면”
NRSV, NJB	“나의 가장 깊은 자아”
TEV	“나의 속사람”

바울은 겉사람(육체적)과 속사람(영적)을 고후 4:16에서 대조하고 있다. 이 문맥에서 이 구는
바울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확증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부분을 가리킨다.

1. “율법은 신령하다,” 7:14
2.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7:15
3.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7:16
4. “원함은 내게 있으나,” 7:18
5. “내가 원하는 바 선,” 7:19
6.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7:19
7.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 7:20
8.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 7:21
9.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7:22
10. “내 마음의 법,” 7:23
11.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7:25

7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신자는 성령을 필요로
한다(8장)!

7:23 6:2; 8:2; 7:23 사이에 분명한 대조가 나타난다. 이 절은 바울이 사용하는 법(노모스)의 의미가
(1) 죄의 법(참조, 21, 25절) (2) 하나님의 법(참조, 22, 25절)을 가리킴을 명백히 보여준다. 앞에
있는 4, 5, 6, 7, 9, 12절에서 바울은 이 용어를 구약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다. 바울은
조직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법”이라는 개념을 놓고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간에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죄를 정의하는 것으로서
타락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범주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이러한 범주는 구약의 계시를 포함함은 물론
모든 도덕적 지침인 자연계시(참조, 시 19편, 롬 1:13-3:31) 혹은 사회적 관습과 기준도 포함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장악하려는 존재로서 반역가이다!

7:24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진술인가? 혹자는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이 장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다. 다른 이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이 믿는 자의 삶에 복음이 가져오는 갈등인 “이미와 아직”을 말한다고 본다. 종말론적 성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성숙한 신자는 이 간격을 보다 정확하게 느낀다.



NASB	“이 사망의 몸”
NKJV, NRSV	“사망의 이 몸”
TEV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이 몸”
NJB	“죽을 이 몸”

육체와 정신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혹은 그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 위에서 살며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것들은 “매우 좋았다”(참조, 창 1:31). 그러나 창세기 3 장은 인류의 운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상태가 아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죄는 좋은 것을 자기 중심적인 악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몸과 마음은 유혹과 죄의 전쟁터가 되었다. 바울은 전쟁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그는 새 시대, 새 몸, 하나님과의 새 교제를 고대하고 있다(참조, 8:23).

7:25 이것은 요약적 부분이며 또한 8 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로의 전환부분이다. 그러나 8 장 5-11 절에서 같은 긴장이 보인다.

해석가들은 누구와 관련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를 물어야한다.

1. 자기자신 또한 유대교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
2. 모든 그리스도인
3. 인류의 본으로서의 아담
4.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의 지식,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기를 실패함 개인적으로 나는 1 항(7-13, 25b 절) 과 2 항(14-25a)을 함께 취한다. 롬 7:7-25 에 대한 문맥적 통찰을 보라. 7 장에 나타난 고통과 번민은 8 장과 짹을 이루며 또한 8 장의 커다란 진리에 의해 추월당한다!

▣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

바울은 찬송의 사람이다. 그는 구약을 잘 알았다. 시편의 처음 4 부분(즉, 권)은 송영으로 마친다(참조, 시 41:13; 72:19; 89:52; 106:48). 그는 여러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인다.

1. 그의 편지의 서두
 - ㄱ. 시작하는 축복기도 또는 인사(참조, 롬 1:7; 고전 1:3; 고후 1:2)
 - ㄴ. 시작하는 축복(율로개토스, 참조, 고후 1:3-4; 엡 1:3-14)
2. 짧은 찬송의 분출
 - ㄱ. 롬 1:25; 9:5
 - ㄴ. 고후 11:31
3. 송영, 특징적 용어를 사용함 (1) 독사(즉, 영광) (2) “영원히”
 - ㄱ. 롬 11:36; 16:25-27
 - ㄴ. 엡 3:20-21
 - ㄷ. 벌 4:20
 - ㄹ. 딤전 1:17
 - ㅁ. 딤후 4:18

4. 감사(즉, 유카리스테오)
 - ㄱ. 편지의 시작(참조, 롬 1:8; 고전 1:4; 고후 1:11; 앱 1:16; 빌 1:3; 골 1:3, 12; 살전 1:2; 살후 1:3; 몬 4; 딤전 1:12; 딤후 1:3)
 - ㄴ. 감사하도록 요청함(참조, 앱 5:4, 20; 빌 4:5; 골 3:15, 17; 4:2; 살전 5:18)
5. 짧은 감사의 분출
 - ㄱ. 롬 6:17; 7:25
 - ㄴ. 고전 15:57
 - ㄷ. 고후 2:14; 8:16; 9:15
 - ㄹ. 살전 2:13
 - ㅁ. 살후 2:13
6. 끝맺는 축복기도
 - ㄱ. 롬 16:20, 24(?)
 - ㄴ. 고전 16:23-24
 - ㄷ. 고후 13:14
 - ㄹ. 갈 6:18
 - ㅁ. 앱 6:24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의 글은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한다. 그의 글의 중간부분에 찬송과 감사가 다시 나온다. 그의 글의 결론부분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리기를 잊지 않는다. 바울의 글은 기도 찬송 감사로 호흡한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자신을 알았으며 또한 복음을 알았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6 장은 어떻게 7 장과 연결되는가?
2.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신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참조, 고후 3:1-11; 히 8:7, 13)
3. 6 장과 7 장에서 우리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는 두 예는 무엇인가?
4.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5. 롬 7:7-25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서전 이론과 대표이론의 차이점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라.
6. 로마서 7 장은 잃어버려진 자에 대한 설명인가 미성숙한 신자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신자에 대한 설명인가?

로마서 8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성령 안의 삶 8:1-11	거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8:1-11	하나님의 구원행위 8:1-4	성령 안의 삶 8:1-8	성령의 삶 8:1-4
		육신에 있는 삶과 성령 안에 있는 삶 8:5-8 8:9-11		8:5-11 8:9-11
		성령과 입양 8:12-17		8:12-13 하나님의 자녀 8:14-17
나타날 영광 8:18-25	고통에서 영광으로 8:18-30	성취될 소망 8:18-25	미래의 영광 8:18-25	우리의 운명인 영광 8:18-25
		인간의 약함이 계속됨 8:26-30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에 함께 하도록 부르심 8:26-27 8:26-27
		8:28-30	8:28-30	8:28-30
하나님의 사랑 8:31-39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8:31-39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 8:31-39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8:31-39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 8:31-34 8:35-37 8:38-3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1:8에서 바울이 시작한 논쟁의 정점을 이룬다. 이것은 “정죄함이 없음”(법적 입장)으로 시작하여 “분리됨이 없음”(개인적 교제)로 끝맺는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칭의에서 성화를 거쳐 영화로 향한다(참조, 29-30 절).
- 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신자들에게 주심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전개이다(참조, 요한이요 14:12-31; 16:7-16에서 제시한 내용). 성령은 14 절에 있는 **수동태**의 주어로서 타락한 인간의 삶에 복음이 활동적으로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성령은 그들과 거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또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시작하실 것이다. 8 장은 영, **프뉴마**,이라는 용어를 21 회 이상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7 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3-6 장에서도 나오지 않고, 다만 1-2 장에서 3 번 사용되었다).
- 다. 삶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개인적 세계관), 두 가지 생활양식, 두 우선권, 사람이 따르는 두 길(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여기서는 육체와 영으로 나온다. 하나는 죽음으로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이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지혜문학(참조, 시 1 편, 잠 4:10-19)에서 “두 길”로 불린다. 영생, 성령이 이끄는 삶은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다(즉, 육체를 따라 사는 것 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 신학적 문맥(참조, 롬 1-8 장)에서 사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사탄은 롬 16:20에 가서야 언급된다. 아담의 타락한 성품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타락한 인간이 초자연적 유혹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의 평계(즉, “악마가 나로하여금 이것을 하게 했다!”)를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이 장은 개요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자주 사용되는 형태로 진리의 여러 모습을 서로 엮어 사상을 문맥적 단락없이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마. 12-17 절은 신자에게 굳은 믿음의 확신에 대해 말한다
1.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형성된 바뀌어진 세계관과 생활양식이다.
 2.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 가족적 사랑의 감정으로 바뀐 점이다
 3.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됨을 내적으로 확증해주시는 점이다.
 4. 네 번째는 이러한 확신이 이 타락한 세상의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도 여전히 확실하다는 점이다.
- 바. 31-39 절은 법정의 장면으로서 구약 예언서의 전형적인 문학적 방법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사탄은 검사이며, 예수께서는 변호사(보혜사)이시고, 천사들은 이를 지켜보는 청중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정죄를 받고 있다.
1. 법적 용어
 - ㄱ. 우리에 대항하여(31 절)
 - ㄴ. 정죄(33 절)
 - ㄷ. 의롭다 하심(33 절)
 - ㄹ. 정죄함(34 절)

- ㅁ. 중보하여 간구함(34 절)
- 2. 정죄, “누가”(31, 33, 34[3회], 35 절)
-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심(32, 34b 절)
- 4.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음
 - ㄱ. 세상적 환경(35 절)
 - ㄴ. 구약에서 시 44:22를 인용함(36 절)
 - ㄷ. 승리(37, 39 절)
 - ㄹ. 초자연적 환경 또는 초자연적 대상(37-39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8:1-8

¹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²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³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⁴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⁵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⁶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⁷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굽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⁸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1

NASB	“그러므로 이제”
NKJV, NRSV	“그러므로 이제”
TEV	“~이”
JB	“그 이유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전의 문맥과 연결 시킨다. 어떤 이는 이것이 7:24-25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 이보다 더 거슬러가 3:21-7:25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 “없나니” 헬라어 문장에서 “없나니”가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참조, 1-3 절)와 성령을 따라 걷는 자(참조, 4-11 절)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여기에 새 언약의 두 측면이 나타난다: (1)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다 (2) 언약에서 요구하는 바 삶의 양식이 있다. 칭의는 객관적(직설법)이고 동시에 주관적(명령법)이다. 이것은 상태인 동시에 삶의 양식이다.

▣ “정죄” 이 카타크리마는 70 인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신 27:26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저주를 반영한다. 이것은 법정에서 법적으로 칭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바울서신에서 드물게 사용되었으며(참조, 5:16, 18)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흄정역은 1 절에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덧 붙이고 있다. 이 표현은 많은 고대 헬라어 사본에 있어서 1 절에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성서공회(UBS⁴)역은 이러한 생략에 대해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이것은 4 절에 나온다.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는 1 절에는 아주 부적합하지만 4 절에는 완벽하게 들어 맞는다. 1-3 절은 위치적인 성화(직설법)를 다루고, 4-11 절은 경험적인 성화 혹은 그리스도를 닮아감(명령법)을 다루고 있다. 윌리엄 R. 뉴웰의 한 절씩 본로마서의 289 쪽에 있는 각주를 주목하라. (무디, 1938년).

“개정 번역(RV)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생략함에 있어서 옳다. 흄정역의 번역 아래 300년 동안 많은 수의 매우 정확하고 가장 좋은 고대 헬라어 사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진실되고 경건한 사람들이 꼼꼼하면서도 결실있는 수고를 통해 사본을 복사함에 있어서 생긴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인식하듯이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 같은 피조물이 쉽게 우상숭배에 빠져 이것을 섬기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4 가지 이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구로 끝맺어야 한다: (1) 헬라어 사본들은 전체적으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문장을 1 절에 갖고 있지 않는다,-대부분 이 문장을 4 절에 포함하고 있다 (2) 영적 분별에 의해서도 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1 절에 추가되는 단어들은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우리의 결음에 의존함을 소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서신서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음에 달려있게 된다. (3) 이 문장은 4 절의 끝에 위치함이 적절하다-그곳은 신자의 행함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정죄로부터 그가 안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흄정역에서 1 절 끝에 오는 이 문장은 첨가된 부분(어떤 사본에서는 본문 밖의 공백에 기록됨)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알레프, A, B, C, D, F, G; A, D(corr.) 등 대문자사본과 좋은 훌림체 고대 사본(올즈하우젠, 메이어, 알포드, J. R. B., 다비의 개요에 대한 좋은 논의, 앞의 인용문)에서 생략되어 있고 또한 다른 본문에서도 보여지듯이 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추가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모습을 갖는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 인역을 신약이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번역되고 그것이 여전히 권위를 갖게 하신 일이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남겨 주신 사본에 대해 자신의 평생을 쏟아 봇는 심원한 연구를 하게 하신 것과 또한 그들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놀랍도록 완전한 사본을 전하여 주게 하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학자들을 “현대주의자”(혹은 이 전에 “고등비평가”)로 불리는 교만한 사람들과 철저히 그리고 영원히 구별해야 한다. 후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깊은 겸손함으로 찾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지만 하는가를 다루었다(289쪽).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특징적인 구(즉, 공간적 장소)로서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개인적 관계”와 같은 뜻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섬겼고, 그 분 안에서 즐거워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메시지이며 또한 영접해야 할 인격이시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는 살 힘을 얻었다. 그가 예수를 경험한 것이 예수님께 대한 신학적 고찰에 앞서 일어났다. 그는 주님께 대해 공격적으로 행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지 골방에서 체험한 신비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그 분을 섬기는 것이다. 성숙한 기독교는 메시지요, 인격이신 주님이며, 또한 생활양식이다! (1:5의 설명을 보라)

8:2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은 (1) 죄의 법(참조, 롬 7:10, 23, 25)과 하나님의 새 법(참조, 롬 7:6, 22, 25)의 대조 (2) “사랑의 법”(참조, 약 1:25; 2:8, 12) 대 “모세의 율법”(참조, 7:6-12) (3) 옛 시대 대 새 시대 혹은 (4) 옛 언약 대 새 언약(참조, 램 31:31-34; 신약의 히브리서)를 가리킬 것이다.

이러한 대조의 방법은 다음을 다룬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대 죄와 사망의 법, 2 절
2. 육체를 따라 대 성령을 따라, 4-5 절
3. 육체의 일 대 성령의 일, 5 절
4. 육체의 일에 마음을 둠 대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둠, 5 절
5. 육체에 대한 마음 자세 대 성령께 대한 마음 자세, 6 절

6. 육체 안에서 대 성령 안에서, 9 절
7. 몸은 죽었다 대 영이 살았다, 10 절
8.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대 너희는 살게 된다, 13 절
9. 종의 영이 아니라 대 양자의 영, 15 절



NASB, NRSV, JB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NKJV, TEV “나를 해방시켰음이라”

2-3 절은 6 장의 신학적 메시지이다. 고대 헬라어 본문에는 여러 개의 다른 인칭대명사가 나온다; A, D, K, P 사본에는 “나를”이 나오고 B, F, G에는 “너희”가 사용되었다. “우리를”은 후기의 대문자 사본인 ψ에 나온다. UBS⁴ 편집자는 “너희”에 “B”(거의 분명함)라는 등급을 준다. UBS³는 이 단어에 “D”(매우 애매함)이라는 등급을 주었다.

뉴맹과 니다, 번역가를 위한 바울의 로마서 핸드북,는 “UBS 헬라어 본문이 ‘나를’에 ‘C’등급을 주어 이 단어의 원문성에 대하여 커다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145-146쪽).

대명사 “우리를” “너희를” 혹은 “나를/우리가”와 관련된 문제는 헬라어로 된 바울의 서신 본문에서 자주 일어난다.

8:3 율법이 . . . 할 수 없는 그것을 모세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인간은 약하고 죄있다(참조, 7:12, 16). 여기의 동사는 실제로는 할 수 없음을 말하는 형용사로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함”을 나타내지만(참조, 히 6:4, 18; 10:4; 11:6) “힘 없이”를 의미할 수도 있다(참조, 행 14:8; 롬 15:1). 율법은 구해 낼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정죄, 죽음, 저주를 제공할 뿐이다!

■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것은 바울이 7 장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논지이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죄있고 타락하였고 반역적인 인간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바울은 창세기 3 장의 결과를 강조했다.

■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 . . 자기 아들을 . . . 보내어**” 타락한 인간이 옛 언약을 따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갤 36:22-36)을 따라 행하셨다(참조, 사 53; 요 3:16). 하나님은 외적 요구조건 대신에 내적인 성령과 새 마음을 공급하셨다. 이 새 언약은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언약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기대한다.

■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와 같은 진리가 빌 7:2:7-8에서 진술된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그러나 죄성을 갖지 않으셨다, 참조, 빌 2:7-8; 히 7:26). 그는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참조, 히 4:15). 그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와 같은 개념이 고후 5:21과 벤전 2:24에서 언급된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참조, 사 53:4-6, 10-12; 막 10:45). 예수님의 무죄한(비난할 여지가 없는) 삶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되었다(참조, 요 1:29).

■ “**육신에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죽으심은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강조하고 인간이 가진 죄성의 문제를 다루심이지 죄의 한 가지 행동을 위함(모세의 율법이 그러했듯이)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적 목적을 성취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참조, 행 2:23; 3:18; 4:28; 13:29). 그는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다(참조, 요 13:15; 벤전 2:21).

8:4 이 절은 아마도 새 언약을 가리킨다(참조, 렘 31:33 & 갤 36:26-27). 이 절은 우리와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면을 다룬다. 첫 째로, 예수께서 옛 언약의 요구사항을 성취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 이 의가 개인의 공로를 떠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신자에게 맑겨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 혹은 지위적인 성화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점진적인 성화”로 부린다. 기독교는 권리(구원의 선물)와 책임(그리스도를 닮아감, 참조, 6:13)을 함께 가진 새 언약의 종교이다. 비극적이게도 어떤 신자들은 육체를 따라 부적절한 삶을 살고 있다(참조, 고전 3:1-3).

■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와 같은 대조가 갈 5:16-25에 나온다. 법적 의로움은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의에 의해 수반되어야 한다. 새 언약에 따른 새 심장과 새 마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결과이다. 영생은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 드러난다!

8:5 바울은 5-8 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삶과 “성령” 안에 있는 삶을 대비시킨다, (“육체를 따른 행동,” 참조, 갈 5:19-21을 “성령의 열매,” 참조, 5:22-25와 비교함).

8:6 “생각은” 유대인들은 눈과 귀가 영혼의 창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죄는 생각 속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생각처럼 비뀐다(참조, 롬 12:1-2; 빌 4:8)!

바울은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의도”(옛제르쓰)에 대한 랍비들의 전통적 생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바울은 타락한 피조물에게 선한 의도가 있지 않고, 회심에서 그것이 온다고 보았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내적 갈등을 시작하신는 분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었다(참조, 요 16:7-14).

■ “생명” 이것은 영생과 새 시대의 생명을 가리킨다.

■ “평안” 이 용어는 원래 “부숴진 것을 함께 묶기”라는 뜻이다(참조, 요 14:27; 16:33; 빌 4:7). 5:1의 특별주제: 평화를 보라 신약에서 평화를 말하는 3 가지 방법이 있다:

1.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객관적 진리(참조, 골 1:20)
2.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우리의 주관적 느낌(참조, 요 14:27; 16:33; 빌 4:7)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몸으로 연합시키심(참조, 앱 2:14-17; 골 3:15).

8:7-11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여러 면으로 설명한다: (1)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임, 7 절 (2)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음, 7 절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 8 절 (4) 영적으로 죽어 영원히 죽는 결과를 갖게 됨, 10-11 절. 같은 내용이 롬 5:6, 8, 10에 있음을 보라.

8:7

NASB, NRSV

“육신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이 되나니”

NKJV

“육체적 생각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나니”

TEV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NJB

“무질서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나니”

이 구가 6 절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내용과 또한 5 절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평행을 이룸에 주목하라.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생각(세계관)과 생활양식 둘 다를 말함을 주목하라(참조, 7:5).

■ “이는 . . . 할 수도 없음이라”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타락한 인간이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다(참조, 사 53:6; 벤전 2:24-25). 하나님께서 항상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참조, 요 6:44, 65).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울은 이 구를 두 가지로 사용한다: (1) 육신의 몸(참조, 롬 1:3, 2:28; 4:1; 9:3, 5) (2)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인간의 노력(참조, 롬 7:5; 8:4-5). 여기서는 2 항의 뜻을 가진다. 이것은 믿지 않고 반역적인 자들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8:9-11

⁹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¹⁰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¹¹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9 “만일” 9, 10, 11, 13(2 회), 17(2 회)에 조건절이 연속해서 나온다. 모두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있는 그의 독자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정하고 있다(참조, 9a 절).

▣ “그리스도의 영” 사람들은 성령을 갖고 있고 따라서 신자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을 갖고 있지 않아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자 이든지 어느 한편에 속한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없고, 주님도 우리를 더욱 원하신다!

9a 절의 “성령”, 9b 절의 “하나님의 영”, 9c 절의 “그리스도의 영”은 모두 동의어이다.

특별주제: 예수와 성령

성령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 사이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캠벨 몰간은 성령님의 가장 좋은 이름은 “또 다른 예수”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자와 성령의 사역과 호칭을 서로 비교하여 놓은 개요이다

1. 성령을 “예수의 영” 혹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일컬음(참조, 롬 8:9; 고후 3:17; 갈 4:6; 벤전 1:11).
2. 두 위격이 같은 용어로 불리워 짐
 - ㄱ. “진리”
 - 1) 예수(요 14:6)
 - 2) 성령(요 14:17; 16:13)
 - ㄴ. “대언자”
 - 1) 예수(요일 2:1)
 - 2) 성령(요 14:16, 26; 15:26; 16:7)
 - ㄷ. “거룩한 자”
 - 1) 예수(눅 1:35, 4:34)
 - 2) 성령(눅 1:35)
3. 두 위격이 다 신자 안에 거하심
 - ㄱ. 예수(마 28:20; 요 14:20, 23; 15:4-5; 롬 8:10; 고후 13:5; 갈 2:20; 앱 3:17; 골 1:27)
 - ㄴ. 성령(요 14:16-17; 롬 8:9, 11; 고전 3:16; 6:19; 딤후 1:14)
 - ㄷ. 또한 성부까지도(요 14:23; 고후 6:16)

8:10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복수형이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내주하시는 성자/성령을 가리킨다(참조, 요 14:16-17; 골 1:27). 사람들은 성자/성령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어느 한 편에 속한다(참조, 요일 5:12).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은 신학적으로 “성령 안”과 같은 의미이다.

■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담의 죄와 타락한 세계와 개인적인 반역을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어 있다(참조, 5:12-21). 죄는 항상 정해진 길로 달려 간다. 영적 죽음(참조, 창세기 3 장; 앱 2:1)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 온다(참조, 창세기 5 장; 히 9:27). 신자는 성령의 새 시대(참조, 올 2:28-29; 행 2:16)와 죄와 반역의 옛 시대(참조, 21, 35 절) 사이에 산다.

■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영”이 인간의 영(참조, NASB, ASV, NIV, 윌리암스, 예루살렘 성경)인가 혹은 성령(참조, KJV, TEV, REB, 칼 바르트, C. K. 바렛, 존 머레이, 에베렛 해리슨)인가에 대해 번역가와 주석가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이 간략한 구를 큰 문맥에서 볼 때 우리의 이해가 넓어진다.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들조차도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하여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참조, 앱 2:4-6).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이미와 아직”的 긴장이다.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시간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 “의”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8:11 “만일” 9 절의 설명을 보라.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삼위일체의 어느 위격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은 분명히 맞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삼위일체의 삼위가 모두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

1. 성령, 요 14:16-17; 롬 8:11; 고전 3:16; 6:19; 딤후 1:14
2. 성자, 마 28:20; 요 14:20, 23; 15:4-5; 롬 8:10; 고후 13:5; 갈 2:20; 앱 3:17; 골 1:27
3. 성부, 요 14:23; 고후 6:16

이 구는 신약에서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이 구속의 일에 관여하심을 밝히는 아주 명확한 내용을 제공한다.

1.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참조, 행 2:24; 3:15; 4:10; 5:30; 10:40; 13:30, 33, 34, 37; 17:31; 롬 6:4, 9; 8:11; 10:9; 고전 6:14; 고후 4:14; 갈 1:1; 앱 1:20; 골 2:12; 살전 1:10)
2.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참조, 요 2:19-22; 10:17-18)
3.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참조, 롬 8:11)

이와 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강조는 9-11 절에서 나타난다.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틀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1. 복음서
 - ㄱ.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 ㄴ. 요한복음 14:26
2. 사도행전 – 행 2:32-33, 38-39

3. 바울

- ㄱ. 로마서 1:4-5; 5:1, 5; 8:1-4, 8-10
- ㄴ. 고린도전서 2:8-10; 12:4-6
- ㄷ. 고린도후서 1:21; 13:14
- ㄹ. 갈라디아서 4:4-6
- ㅁ. 에베소서 1:3-14, 17; 2:18; 3:14-17; 4:4-6
- ㅂ. 데살로니가전서 1:2-5
- ㅅ. 데살로니가후서 2:13
- ㅇ. 디도서 3:4-6

4. 베드로 – 베드로전서 1:2

5. 유다 – 유다서 20-21 절

삼위일체는 구약에서 암시되고 있다

1.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 ㄱ.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가진다.

ㄴ.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2.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ㄱ. 창세기 16:7-13; 22:11-15; 31:11, 13; 48:15-16

ㄴ. 출애굽기 3:2, 4; 13:21; 14:19

ㄷ. 사사기 2:1; 6:22-23; 13:3-22

ㄹ. 스가랴 3:1-2

3.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겔 37:13-14

4.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야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5.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6. 사 48:16; 61:1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에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_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이 쓴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3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참조, 고전 15:1 이하; 고후 4:14). 기독교는 신자들이 영원토록 몸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참조, 요일 3:2).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참조, 23 절).

개역개정 8:12-17

¹²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쥐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¹³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¹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¹⁵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¹⁶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¹⁷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8:12 “그러므로” 바울은 1-11 절에서 제시한 내용의 의미를 계속해서 다룬다.

▣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이다(참조, 14:1-15:13). 이것은 1-11 절에서 다룬 성화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다. 성화는 위치적(직설법) 면과 진행적(명령) 면들을 다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신자가 아직 옛 타락한 성품과 투쟁을 해야만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참조, 로마서 7 장). 한 번 하여야 할 선택(최초의 믿음)과 계속해서 해야 할 선택(생활양식으로서의 믿음)이 있다!

8:13 “만일” 9, 10, 11, 13(2 회), 17(2 회)절에는 조건절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있는 자신의 독자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 절에 있는 두 동사가 다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현재시제이다. 성경은 죽음을 (1) 영적 죽음(참조, 창 2:17; 3:1-7; 앱 2:1) (2) 육체적 죽음(참조, 창 5 장) (3) 영원한 죽음(참조, 계 2:11; 20:6, 14; 21:8)의 세 단계로 말한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담의 영적 죽음인데(참조, 창 3:14-19) 이것은 인류에게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다(참조, 창 5 장).

아담의 죄는 인간의 경험에 죽음을 가져왔다(참조, 5:12-21). 우리 각자가 의지적 선택으로 죄에 참여한다. 만일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택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죽일 것이다(참조, 계 20:6, 14, “둘째 사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와 자아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된다(참조, 롬 6 장).

▣ “영으로 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신자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그들이 살아 가는 모습으로 확인되거나 드러난다(참조, 신약의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신자가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참조, 14 절).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한다(참조, 앱 5:17-18).

이 문맥에서 “몸의 행실”은 이전에 살던 죄악된 옛 세상에서의 삶을 말한다. 이것은 몸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8:23) 성령의 내주하심(새 시대)과 죄와 갈등함(옛 시대)의 대조이다.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것은 현재 수동 분사로서 성령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뜻한다.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 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다(참조, 29 절). 기독교에는 한 번의 결단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계속적인 제자도이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 시기, 사역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활동이다.

■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복수형 구는 구약에서 천사들을 말하거나 간혹 사람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단수형은 아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에게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용어는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킨다. 14 절에서는 헬라어 휘오 이(아들들)가 16 절에서는 테크나(어린이)가 사용되었다.

8:15 “영” 이 절은 10 절과 같이 모호하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인간의 새 영을 가리키거나 혹은 성령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내용이 16 절에 나오고 있다.

성령께서 믿는 각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의 서신에서 이러한 문법적 구조가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

1. 여기의 “종의 영이 아님,” “양자의 영,” 15 절
2. “겸손의 영,” 고전 4:21
3. “믿음의 영(충성됨),” 고후 4:13
4. “지혜와 계시의 영,” 앱 1:17

여러 곳에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프뉴마를 사용한다(참조, 고전 2:11; 5:3, 14; 7:34; 16:8; 골 2:5). 이 문맥에서 10 절과 15 절은 이러한 용법에 잘 들어맞는다.

■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옛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함이다. 새 사람의 특징은 14-17에서 설명한다.

■ “양자” 로마법은 양자 삼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였지만 한 번 양자가 된 후에는 이것은 영속적인 것이 되었다(참조, 갈 4:4-6). 이 은유는 신자의 안전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지지한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할 수 있었지만 양자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즐겨 사용한 가족과 관련이 있는 은유이다(참조, 15, 23 절). 요한과 바울은 이와 관련이 있는 가족의 은유로서 “거듭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요 3:3; 벤전 1:3, 23).

■ “아빠” 이 아람어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집에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였다(영어의 “대디” 혹은 “파파”). 예수님과 사도들은 아람어를 말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굳센 믿음과 가족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참조, 막 14:36; 갈 4:6).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한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소원하셨음을 정말 놀랍지 아니한가! 1:7의 특별주제: 아버지를 보라.

8:16 “성령이 친히” 성령은 헬라어에서 중성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흄정역은 이것을 “성령 그 자체가”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은 슬퍼하실 수 있다(참조, 앱 4:30; 살전 5:19). 따라서 “그 자신이” 더 좋은 번역이다.

■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3 절에서 다루었듯이 믿음의 확신은 신자의 변화된 삶과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삶으로 나타난다(참조, 신약의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믿음의 확신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무서워 함을 가족적 사랑으로 대신하신 일이다. RSV 와 NRSV역에서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 외칠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자신이시다”(참조, 갈 4:6). 이것은 신자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확신이 옴을 뜻한다.

성령께서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이다.

1. 죄에 대한 죄의식

2.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소원
3. 하나님의 가족과 있으려는 소원
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5.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짐
6.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적인 구제를 하려는 마음을 가짐

회심할 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내적인 마음의 갈망이 있다.

구원의 확신은 교파적인 쟁점으로 바뀌었다:

1.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부인하고, “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확신을 두게 한다
2. 존 칼빈(개혁 전통)은 확신을 선택(예정)에 두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심판의 날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3. 요한 웨슬리(감리교 전통)는 완전한 사랑(알고 있는 죄를 넘는 사랑)에 확신을 두고 있다.
4. 많은 침례교인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성경의 약속에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경향이 있다(그렇지만 경고와 권고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신약의 역설적 제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

1.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언제라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지나친 강조
2.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지나친 강조.

히브리서 6 장은 “한 번 나갔다면 항상 나가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인간의 노력(선행)은 신자가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도록 돋지 않는다(참조, 갈 3:1-14).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참조, 앱 2:10).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일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신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의 증거이다.

확신은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확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에 기초한다:

1. 성부의 사랑과 자비하심
2. 성자께서 완성하신 희생사역
3.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간청하여 이끄시고 회개하는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심.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는 변화된 세계관이요 변화된 마음이며 변화된 삶의 양식과 변화된 소망이다! 구원의 확신은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증거(즉, 열매, 참조, 마 7:15-23; 13:20-22; 요 15 장)없이 과거에 있었던 감정에 따른 결심에 기초할 수 없다. 구원이나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확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하여 삶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으로 계속된다. 이것은 바뀌었고 바뀌어가는 믿음의 삶이다!

▣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신의 또 다른 합성어이다. 성령은 신자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바울은 이 합성어를 2:15; 8:16; 9:1에서 사용한다.

8:17 “만일” 일련의 조건절 문장이 9, 10, 11, 13(2 회), 17(2 회)절에 나온다. 이들은 모두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자신의 독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정하고 있다.

▣ 이 절에 “함께 참여하는”의 뜻을 가진 신의 합성어가 3 가지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이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22 절(2 회), 26, 28 절에는 더 많은 신의 합성어가 더 많이 나온다. 앱 2:5-6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신합성어를 3 가지 사용한다.

▣ “상속자” 이것은 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또 하나의 가족 은유이다(참조, 4:13-14; 9:8; 갈 3:29).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신자의 유업

성경은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해 함께 상속자 된 신자들이 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한다(참조, 롬 8:17; 갈 4:7)

1. 왕국(참조, 마 25:34; 고전 6:9-10; 15:50)
2. 영생(참조, 마 19:29)
3. 하나님의 약속(참조, 히 6:12)
4.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보호(참조, 벤전 1:4; 5:10).



NASB, NKJV	“만일 참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NRSV	“만일, 사실상,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TEV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한다면”
JB	“그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다(참조, 마 5:10-12; 요 15:18-21; 16:1-2; 17:14; 행 14:22; 롬 5:3-4; 8:17; 고후 4:16-18; 빌 1:29; 살전 3:3; 딥후 3:12; 약 1:2-4; 벤전 4:12-19). 예수는 그 모본을 세우셨다(참조, 히 5:8). 이 장의 남은 부분은 이 주제를 발전시킨다.

▣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요한의 글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할 때마다 주님은 이것을 “영광을 받는 것”으로 불렀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신자들은 지위적으로 또한 종종 경험적으로 예수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동참한다(참조, 롬 6 장). 5:17-18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기를 보라.

개역개정 8:18-25

¹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¹⁹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²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²¹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²²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²³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²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²⁵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8:18 “생각하건대”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것을 더하다”이다. 이것은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를 계속해서 다룬다. 이것은 회계 용어로서 주의 깊게 결론에 도달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이다(2:3의 설명을 보라). 신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이해한 영적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 “고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김에 따르는 고난에 대하여 고전 4:9-12; 고후 4:7-12; 6:4-10; 11:24-27; 히 11:35-38에서 알게 된다.

▣ “현재의” 유대인은 세계의 역사가 현재의 악한 시대와 앞으로 올 의의 시대로 구분된다고 믿었다(참조, 마 12:32; 막 10:30). 구약은 이 의의 새 시대를 세우기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은 구세주(성육신)로 두 번째는 주님(재림)으로 두 번 오시는 것은 두 시대가 겹치게 하였다. 신자는 하나님의 왕국이 갖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산다. 12:2의 특별주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보라.

▣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표현은 구약의 무게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무거운 것은 가치있다. “비교할 수”라는 것은 상업적 용어로서 “무게가 나갈 수 있는 만큼 아주 많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에서 “영광” 또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왔는데 금같은 물건처럼 가치있다는 의미이다. 3:23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바울서신에서 “영광”이라는 용어는 종말론적 경향을 갖는다. 이것은 다시 오시는 영광스럽고 높으신 그리스도의 광채와 능력을 가리킨다(참조, 골 3:4). 3:23의 특별주제: 영광을 보라.

▣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수동(디포)태는 하나님 혹은 성령께서 행하실 것을 가리킨다(참조, 20절).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이 삶을 산다(참조, 24절 & 고전 2:9; 13:12; 고후 5:7 & 히 11:1).

8: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목을 길게 빼어 지평선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으로 피조세계가 의인화 되었다.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가 반역할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참조, 창 3:17-19). 모든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구속받을 것이다(반역적인 천사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격리시킬 예비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참조, 부르스 콜리와 쿠르티스 보한, 로마서, 95쪽, 각주 46항).

특별주제: 자연 자원

I 서론

- 가.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배경 혹은 무대이다.
- 나. 이것은 타락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참조, 창 3:17; 6:1 이하; 롬 8:18-20). 이것은 또한 종말적인 구속에 함께 할 것이다(참조, 사 11:6-9; 롬 8:20-22; 계 21-22장).
- 다. 죄악되고 타락한 인류는 이기적인 유기로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다음은 에드워드 카핀터가 쓴 웨스트민스터 정경에서 옮겨 왔다.

“... 인간이 자기 주위의 우주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행한 끊임없는 공격—즉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은 그가 오염시킨 공기에 대한 공격; 그가 악취나게 한 자연적인 물질; 그가 독을 퍼지게 한 흙; 이 탐욕스런 파괴가 후에 미칠 결과를 보지 못하고 부주의하여 쓰러뜨린 산림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협력이 없이 조금씩 행해졌다. 자연의 균형에 대하여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갖는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 라. 우리가 사는 지구를 오염시키고 착취한 결과를 우리가 거둘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된 더 심각한 결과를 우리의 후손이 거두게 될 것이다

II 성경의 자료

가. 구약

1. 창 1-3장
 - ㄱ. 창조는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장이다(참조, 창 1:1-25)
 - ㄴ. 창조는 선하고(참조, 창 1:4, 10, 12, 18, 21, 25) 또한 매우 좋은 것이다(참조, 창 1:31).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함을 의미한다(참조, 시 19:1-16).
 - ㄷ. 인간은 창조의 결정적인 목적이다(참조, 창 1:26-27).
 - ㄹ.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배(히브리어, “밟기”)하도록 되어 있었다(참조, 창 1:28-30; 시 8:3-8; 히 2:6-8). 하나님은 창조주/유지자/

- 구원자/ 창조의 주인이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신다(참조, 출 19:5; 육 37-41 장; 시 24:1-2; 95:3-5; 102:25; 115:15; 121:2; 124:8; 134:3; 146:6; 사 37:16).
- 口.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직은 창 2:15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참조, 레 25:23; 대상 29:14).
 - 2.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동물을 사랑하신다.
 - ㄱ. 동물을 적절히 다룰 것에 관한 모세의 법
 - ㄴ. 리워야단을 물 속에서 놀게 하시는 야웨(참조, 시 104:26)
 - ㄷ. 하나님은 동물들을 보살피신다(참조, 요 4:11)
 - ㄹ. 자연의 종말론적 출현(참조, 사 11:6-9; 계 21-22 장)
 - 3. 자연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ㄱ. 시 19:1-6
 - ㄴ. 시 29:1-9
 - ㄷ. 육 37-41 장
 - 4.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 ㄱ. 신 27-28 장; 왕상 17 장
 - ㄴ. 선지자들을 통하여
- 나. 신약
1.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의 창조주만 계실 뿐이다(엘로힘, 창 1:1; 성령, 창 1:2; 예수님, 신약).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다.
 - ㄱ. 행 17:24
 - ㄴ. 히 11:3
 - ㄷ. 계 4:11
 2.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셨다
 - ㄱ. 요 1:3, 10
 - ㄴ. 고전 8:6
 - ㄷ. 골 1:16
 - ㄹ. 히 1:2
 3.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신다
 - ㄱ. 마 6:26, 28-30,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 ㄴ. 마 10:29, 참새
 4. 바울은 모든 인간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즉, 자연 계시, 참조, 롬 1:19-20; 계 21-22 장).

III. 결론

- 가.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속해 있다!
- 나. 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남용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도 남용했다.
- 다. 자연의 질서는 일시적이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벧후 3:7).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를 다음의 역사적 단계로 옮기고 계신다. 죄는 자신의 길로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창조는 회복될 것이다(참조, 롬 8:18-25).

▣ “나타나는 것이니” 이 용어는 드러내거나 알려주기 위해 “커튼을 잡아 당기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이름이기도 하다. 재림은 계시나 오심으로 종종 말해진다(참조, 고전 1:7-8; 베전 1:13).

▣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은 가족에 대한 일반적 은유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참조, 8:14, 16). 이 은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나타낸다(참조, 요 1:18; 3:16, 18; 히 1:2; 3:6; 5:8; 7:28; 요일 4:9).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참조, 호 11:1), 왕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참조, 삼하 7장). 이 개념은 신약의 마 5:9에서 맨 처음 언급된다(또한 참조, 요 1:12; 고후 6:18; 갈 3:26; 요일 3:1, 10; 계 21:7).

8:20

NASB, NKJV,

NRSV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TEV

“피조물이 정죄받아 쓸모없이 된 것은”

NJB

“피조물이 그 목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피조물 쪽에서 한 어떤 잘못을
인함이 아니었다”

이것을 “허무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 70 인역에서 이것을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의미없음, 가치없음, 쓸모없음, 거짓 신(우상들), 공허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소용없게 되었지만(참조, 창 3:17-19),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타락함으로 인한 저주를 제하실 것이다(참조, 계 22:3).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다!

▣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주어로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가리킨다(참조, NASB, NKJV, TEV).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이유에서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

1. 인간의 반역을 인하여

2. 인류가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참조, 신명기 27-29장)

이 의도적인 허무함은 단지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일어난다. 구속받은 인간은 미래에 목적이 있는 물질(몸과 세상)을 갖는다.

하나님은 아담이 반역할 것을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고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류와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어느 날 이루어 질 세상이 전혀 아니다(참조, 베후 3:10; 계 21:1-3). 5:2의 “소망”에 대한 설명을 보라.

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자연은 영원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참조, 사 11:6-10). 하늘은 재 창조된 지구로 돌아 온다(참조, 마 5:18; 24:35; 베후 3:10; 계 21:1). 미래에 애텐의 축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갖는 교제, 인간과 동물들의 관계, 인간과 지구의 교제로! 성경은 동산의 배경에서 가진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의 교제와 조화로 시작하고(참조, 창 1-2장) 비슷한 모습으로 마친다(참조, 계시록 21-22장).

▣ “썩어짐” 1:23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신자들은 14 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16 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17 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린다. 18 절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영광이 신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한다. 이제 19 절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조세계가 그들의 종말론적 영광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참조, 21 절).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 특히 인간에게 일어나는 회복은 창조의 원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할 것이다—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탄식하며”는 바울이 신 합성어를 사용한 또 다른 경우이다. 그는 이러한 여러 합성어를 만들어 사용했음이 틀림없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한 황폐함을 인해 슬퍼한다는 내용인 렘 12:4, 11(참조, 신 27-29 장)을 암시하고 있다.

▣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유대인 사회에서 이 개념은 종종 “새 시대의 출산을 위한 고통”으로 불린다(참조, 막 13:8). 의의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은 문제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타락한 행성의 도덕적 영적 조건은 더욱 나쁘게 될 것이다(참조, 살후 2:1-12; 계시록 5-18 장에 있는 일곱 인, 나팔, 접시).

이 문맥에서 3 종류의 “탄식”이 나온다: (1) 피조물(22 절); (2) 신자들(23 절); (3) 중보자이신 성령(26 절), 세 탄식은 모두 창세기 3장을 인함이다(16 절에 이 은유가 나온다).

8:23 “우리 . . . 우리까지도 . . . 우리” 인칭대명사는 강조를 나타내며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용어는 현대 헬라어로는 “약혼반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고후 1:22의 “성령의 인,” 고후 5:5; 앱 1:14의 “성령의 맹세”와 같은 내용이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앞으로 올 추수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것은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듯이 성령은 새 시대의 첫 열매이다(참조, 고전 15:20).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료로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하늘의 기쁨을 지금부터 일부 경험한다. 이것은 유대인의 두 시대가 서로 겹치는 긴장인 “이미”이면서 “아직”을 말한다. 신자들은 하늘의 시민이며 또한 땅 위에 사는 자들이다!

▣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것은 유대인의 두 시대가 겹치는 “이미”와 “아직”的 변증법적 긴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왕국은 나타났지만 아직 그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신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죽어가고 있다(참조, 고후 5:2-4).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를 범하고 있다(로마서 7 장).

▣ “양자 될 것 . . . 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됨은 구원을 말하기 위해 바울이 즐겨 사용한 가족의 은유이다(참조, 15 절). 신자들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처음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다. 신자들은 부활의 날이 이르기 까지는 완전하게 구원받지 않았다(참조, 30 절 &요일 3:2).

“양자”라는 용어는 몇 헬라어 사본에서 생략되어 나타난다(참조, P⁴⁶, D, F, G 사본과 일부 옛 라틴역). 그러나 이것은 κ, A, B, C, 일부 옛 라틴역, 벌게이트역, 시리아역, 콥틱역, 아르메니안역에 들어있다. UBS⁴는 이러한 포함에 대해 “A”(확실함)라는 등급을 주고 있다.

▣ “우리 몸의 속량” 이 용어는 “되 사다”를 뜻한다. 이 개념은 구약에서 종된 자를 그 친척(고엘)이 자유하게 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노예된 타락한 인류를 구출하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그 값으로 성육신하신 죄 없으신 생명이 치루어졌다. 3:24의 특별주제를 보라.

기독교는 유대교(참조, 롬 14:14-15; 19:25-26; 단 12:2)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영원히 육체(비록 유인원을 가리키지 않지만, 참조, 고전 15:35-49)를 가지게 될 것을 주장한다. 신자의 영적 몸은 새 시대의 삶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될 것이다.

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23 절이 우리의 미래적 구원을 말하듯이 24 절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과거에 얻은 구원을 가리킨다. 신약은 구원을 말하기 위해 여러 동사의 여러 시제를 사용한다.

1. **부정과거**, 행 15:11(롬 8:24; 딤후 1:9; 딤 3:5; 또한 롬 13:11은 **부정과거를 미래형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2. **완료형**, 앱 2:5, 8
3. **현재**, 고전 1:18; 15:2; 고후 2:15; 베전 3:21; 4:18
4. **미래**, (동사의 시제나 문맥적 관계에 있어서), 롬 5:9, 10; 10:9; 고전 3:15; 빌 1:18; 살전 5:8-9; 히 1:14; 9:28.

따라서 구원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에 따른 삶의 양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어느 날 눈에 보이게 완성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8:25 “소망”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소망

바울은 이 용어를 종종 관련된 뜻을 갖는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종종 이것은 신자의 믿음이 완성될 것과 관계된다(즉, 딤전 1:1). 이것은 영광, 영생, 궁극적 구원, 재림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완성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그 시간적 요소는 미래적이고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종종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있다(참조, 고전 13:13; 살전 1:3; 살후 2:16). 바울이 사용하는 일부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림, 갈 5:5; 앱 1:18; 4:4; 딤 2:13
2.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딤전 1:1
3.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임, 골 1:22-23; 살전 2:19
4. 소망을 하늘에 쌓다, 골 1:4
5. 복음을 믿음, 골 1:23; 살전 2:19
6. 궁극적 구원, 골 1:5; 살전 4:13; 5:8
7. 하나님의 영광, 롬 5:2; 고후 3:12; 골 1:27
8. 그리스도에 의한 이방인의 구원, 골 1:27
9. 구원의 확신, 살전 5:8
10. 영생, 딤 1:2; 3:7
11.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롬 5:2-5
12. 모든 피조물의 구속, 롬 8:20-22
13. 양자됨으로 완성됨, 롬 8:23-25
14. 하나님의 칭호, 롬 15:13
15.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 고후 1:7
16.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안내로서의 구약, 롬 15:4

▣ “참음으로” 휘포모네라는 이 용어는 5:3과 15:4-5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신자의 구원은 성숙함의 과정을 겪으며 어느 날 완성될 것이다. 오래참음(참조, 계 2:8, 11, 17, 26; 3:5, 12, 21; 21:7)은 침례교인들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언제라도 구원”이라는 것에 성경적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 진리는 변증법적으로 긴장이 가득찬 짹으로 제시된다.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있는 이 성경적 교리는 그것이 전형적으로 동양의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쌍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성경적이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그 반대 쪽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설명을 보라.

1.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초의 결심인가 아니면 제자도에 대한 전 생애의 헌신인가?
2.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인간이 믿고 회개하는 반응인가?
3.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는가? 아니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견인의 주제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의견이 분분했다. 분명하게 상충되는 신약의 본문을 인해 문제가 생겼다.

1. 확신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요 6:37; 10:28-29)
 - ㄴ. 바울의 진술(롬 8:35-39; 앱 1:13; 2:5, 8-9; 빌 1:6; 2:13; 살전 3:3; 딤후 1:12; 4:18)
 - ㄷ. 베드로의 진술(벧전 1:4-5)
2. 인내의 필요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마 10:22; 13:1-9, 24-30; 24:13; 막 13:13; 요 8:31; 15:4-10; 계 2:7, 17, 20; 3:5, 12, 21)
 - ㄴ. 바울의 진술(롬 11:22; 고전 15:2; 고후 13:5; 갈 1:6; 3:4; 5:4; 6:9; 빌 2:12; 3:18-20; 골 1:23)
 - ㄷ.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 (2:1; 3:6, 14; 4:14; 6:11)
 - ㄹ. 요한의 진술(요일 2:6; 요이 9)
 - ㅁ. 성부의 진술(계 21:7)

성경적 구원은 주권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시작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참조, 요 6:44, 65).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써 처음 시작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일하신다. 이것은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락한 창조물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나님은 길을 주셨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랑과 공급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캘빈주의가 아닌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읽기 원한다면 다음을 보라

1. 대일 무디, 진리의 말씀, 어드만스, 1981 (348-365쪽)
2. 하워드 마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 베다니 펠로우쉽, 1969
3. 로버트 쟁크,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웨스트코트, 1961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말한다: (1) 열매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을 갖는 확신 (2) 사역과 개인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 하는 것. 문제는 잘못된 그룹의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취하고 한정된 성경본문 위에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개역개정 8:26-27

²⁶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²⁷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26 “이와 같이” 이것은 성령의 중보사역을 23-25 절에 있는 “탄식하며 기다림”과 연결시킨다.

■ “성령도... 도우시나니”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이것은 산(참조, 28 절)과 안티가 함께 합성된 경우이다. 이것은 “붙잡다”로 번역함이 가장 좋다. 이 용어는 이곳과 뉴 10:40에서만 사용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신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사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그는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신다(참조, 34 절; 요일 2:1). 성령은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신다(참조, 요 16:8-15). 한편 “어떤 사람을 붙잡다”를 뜻하는 “돕다”라는 용어는 신자도 성령의 도우심(간구)을 누림에 있어서 한 부분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자들은 자신들의 타락을 인해 탄식하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위한 간구에서 탄식하신다. 성령은 구속받은 자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참조, 27, 34 절; 히 9:24; 요일 2:1). 이 간구는 신자로 기도하게 힘을 공급한다(참조, 15 절; 갈 4:6). 이 본문은 이 문맥에서 방언을 말하는 영적 은사를 가리키지 않고, 성령께서 신자들을 대신하여 성부께 간구하심을 말한다.

■ “간구” 1:30 의 특별주제: 바울의 휘페르 합성어 용법을 보라.

8:27 “마음을 살피시는 이”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삼상 2:7; 16:7; 왕상 8:39; 대상 28:9; 대하 6:30; 시 7:9; 44:21; 잠 15:11; 20:27; 21:2; 렘 11:20; 17:9-10; 20:12; 뉴 16:15; 행 1:24; 15:8).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아시며 또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참조, 시 139 편).

■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사역은 요 16:2-15에서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간구이다.

“성도”라는 용어는 빌 4:21을 제외하고는 항상 복수형으로 되어있다. 거기서도 이 단어는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각 신자는 새 성전을 구성한다. 이것은 서구(미국)의 개인주의적 경향에 대해 신학적 균형이 필요함을 말한다. 1:7의 특별주제: 성도를 보라.

특별주제: 성령의 인격

이것은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성령”의 인격이다(이 호칭이 사용된 첫 경우가 아니다, 참조, 5:5; 9:1; 14:17; 15:13, 16).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즉, 루아흐)은 야웨의 목적을 성취하는 힘이었지만 이것이 인격적이심을 말하는 암시가 없다(즉, 구약의 일신주의).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의 인격과 위격은 밝히 나타난다.

1. 성령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범할 수 있다(참조, 마 12:31; 막 3:29)
2. 성령께서 가르치신다(참조, 뉴 12:12; 요 14:26)
3. 성령께서 증거하신다(참조, 요 15:26)

4. 성령께서 유죄를 선고하시고, 인도하신다(참조, 요 16:7-15)
5. 성령께서 “그분” (즉, 호스)으로 불리신다(참조, 앱 1:14)
6.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 있다(참조, 앱 4:30)
7. 성령께서 소멸되실 수 있다(참조, 살전 5:19)

삼위일체를 말하는 본문도 세 인격에 대해 증거한다

1. 마 28:19
2. 고후 13:14
3. 벤전 1:2

성령은 인간의 활동과 관계하신다.

1. 행 15:28
2. 롬 8:26
3. 고전 12:11
4. 앱 4:30
5. 살전 5:15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예수께서는 항상 성령을 갖고 계셨다. 그의 침례(세례)는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누가는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새 장을 준비한다. 예수는 여전히 초점에 있다. 성령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편이시며, 성부의 사랑과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사람을 회복하심은 목적이다!

개역개정 8:28-30

²⁸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²⁹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³⁰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28 “모든 것이” 고대 헬라어 대문자 사본인 A와 B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키신다”가 들어 있다.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의 주어로 되어 있다. 28 절의 주어가 “성령”(참조, 27 절과 NEB 와 REB)이 되는 것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이절은 “17-18 절의 “고난”과 23 절의 “탄식함”과 관련이 있다. 신자에게는 행운, 운명,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신”의 합성어이기도 하다(참조, 26 절). 따라서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모든 일을 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계속하다”이다. 이것은 악과 고난의 세상에서 어려운 개념이다(이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유용한 책은 웬함과 한나 훗홀 스미스가 저술한 하나님의 선하심,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다). 이곳의 “선”은 29 절에서 “그의 아들의 형상에 맞는 것”으로 정의된다. 번영 명성 혹은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두 현재 능동 분사가 나온다. 두 조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자로 하여금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참조, 15 절). 인간의 자유(“사랑”)와 하나님의 주권(“부르심”)을 다시 주목하라.

8:29-30 이 절에 있는 동사는 모두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이 동사들은 시간 이전의 때부터 시간 이후의 때까지 이르는 하나의 연결사슬을 형성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가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개별적이 아닌 연합적 문맥이다. 영화의 마지막 행위는 여전히 미래적이지만 이 문맥에서 이것은 성취된 사건으로 진술된다.

8:29 “미리 아신” 바울은 이 용어를 두 번 사용하는데 이곳과 11:2에서이다. 11:2에서 이것은 역사 이전에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한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용어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참조, 창 4:1; 렌 1:5).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에 들어있다(참조, 29-30 절). 이 용어는 예정하심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지하심은 선택의 근거가 아님을 명백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선택은 타락한 인간이 미래에 나타낼 반응에 근거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행 26:5; 벤전 1:2, 20; 벤후 3:17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심”(프로기노스코) 혹은 “예정하다”(프로오리조)는 둘 다 전치사 “미리”(프로)와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리 알다,” “미리 범위를 정하다,” 또는 “미리 구별하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신약에서 예정에 대한 명확한 본문은 롬 8:28-30; 엡 1:3-14; 롬 9 장에 나온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강조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철저히 주관하신다. 적절한 때에 실행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미리 정해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독단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미리 아심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징인 사랑, 궁휼, 거저 주시는 은혜에 기초한다.

우리는 우리의 서구적(미국의) 개인주의나 우리의 복음적 열정이 이 놀라운 진리를 채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어거스틴 대 펠레기우스 또는 칼빈주의 대 알메니안주의 사이의 역사적 신학적 갈등으로 양극화시키는 것에 대해 경계하여야만 한다.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궁휼을 제한하기 위한 교리도 아니며 이들 중 어떤 것을 복음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도 교리도 아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세계관을 형성함을 통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신다(참조, 요 3:16; 딤전 2:4; 벤후 3:9).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그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참조, 롬 8:31-39)? 예정은 삶을 보는 두 방법 중 하나를 형성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현재로서 보신다. 인간은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관점과 정신적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 사이에 어떤 모순도 없다. 이것은 언약적 구조이다. 이것은 변증법적 긴장을 갖고 제시된 성경적 진리의 또 다른 예이다. 성경의 교리는 대개 다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종종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진리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짹 사이의 한 부분에서 균형을 갖는다. 우리는 진리의 어느 한 쪽만을 취함으로 그 긴장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어떤 진리라도 그것을 따로 떼어내어 다루어서는 안된다.

택하심의 목적은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참조, 엡 1:4; 2:10)! 우리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되기 위해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른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이다!

▣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 본문에서 주요한 진리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목적이다(참조, 갈 4:19; 엡 4:13). 거룩함은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하기 위함이다(참조, 엡 1:4). 창조 시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 5:1, 3; 9:6)은 회복되어져야 한다(참조, 골 3:10). 8:21의 설명과 1:6의 특별주제: 부르심을 보라.

▣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89:27에서 “맏아들”은 메시아의 칭호이다. 구약에서 장자는 뛰어남과 특권을 가졌다. 이 용어는 골 1:15에서 창조에 있어서 예수의 뛰어나심을 말하기 위해, 골 1:18과 계 1:5에서는 부활에 있어서 예수의 뛰어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본문에서 신자들은 주를 통하여 그의 뛰어나심으로 인도된다!

이 용어는 예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 족속의 머리되시고 무리 가운데 으뜸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요 성부께서 주시는 축복을 믿음의 가족에게 전하는 통로되심을 가리킨다(참조, 5:12-21)!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장자

“장자”(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1. 이것의 구약적 배경은 가족의 장자가 갖는 뛰어남을 가리킨다(참조, 시 89:27; 뉴 2:7; 롬 8:29; 히 11:28)
2. 골 1:15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창조의 처음이 되심을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잠 8:22-31에 대한 암시나 혹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말할 것이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5-16; 히 1:2)
3. 골 1:18; 고전 15:20(또한 이곳)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장자됨을 가리킨다
4.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었다(참조, 시 89:27; 히 1:6; 12:23). 이것은 예수의 중요성과 그의 중심되심과 관련된 여러 모습을 묶어 제시하는 칭호였다. 이 문맥에서 3 항과 4 항의 설명이 잘 맞는다.

8:30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영광”으로 설명된다. 이 용어는 “무거운”을 뜻하는 상업적 어근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금과 같이 귀한 것을 뜻한다. 3:23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29-30 절에 열거된 일련의 여러 단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신다. 그 마지막 단계는 “영화”이다. 이것은 신자의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입고(참조, 고전 15:50-58)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또한 서로 연합되는 부활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참조, 살전 4:13-18; 요일 3:2).

개역개정 8:31-39

³¹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³²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³³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³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³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³⁶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³⁷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³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³⁹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것은 그가 통렬한 비난의 형태로 제시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즐겨 사용한 구이다(참조, 3:5; 4:1; 6:1; 7:7; 9:14, 30). 이 질문은 이미 제시한

진리와 관련이 있다. 이 질문이 얼마만큼 거슬러 올라가 말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는 불확실하다. 이것이 3:21-31 혹은 8:1 혹은 8:18을 가리킬 수 있다. 8:1에 있는 “그러므로”와 문맥을 고려할 때 8:18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놀랍게도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 34, 35 절에서 “누가”라는 대명사가 반복된다. 이것은 사탄(16:20에 이를 때까지 이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을 가리킨다. 31-39 절에 이르는 이 문맥은 구약 예언서에서 사용된 문학적 기교인 법정사건(참조, 미 1 & 6 장)의 형태를 사용한다. 야웨는 영적 음란함을 인해 그의 백성을 법정에 세우신다. 이것은 사 50:8-9에 대한 암시이다.

법적 용어를 주목하라: “대적하다” 31 절; “고발하다” 33 절; “의롭다 하다” 33 절; “정죄하다” 34 절; “위하여 간구하다” 34 절.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리스도는 변호하는 변호사이시다. 사탄은 고소하는 검사이다(그러나 그가 잠잠히 있다). 천사들은 판찰자로서 법정을 채우고 있다(참조, 고전 4:9; 앱 2:7; 3:10).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신자를 이제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덜 귀한 것을 주시지도 않으신다(참조, 요 3:16; 롬 5:8). 징벌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개념이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이 최고의 선물은 창 22:12, 16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영된다. 랍비들은 이 구약의 본문을 아브라함의 씨를 위한 대속적인 속죄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했다.

■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참조, 뉘 2:10-11; 요 3:16; 4:42; 11:51; 딤전 4:10; 요일 2:2; 4:14). 이것은 5:12-21에 있는 아담-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반영한다. 예수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이제 “믿고 영접하는” 문제가 되었다.

■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동사는 헬라어 어근에서 은혜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 “모든 것”은 17 절을 가리킨다. 3:24의 설명을 보라.

8:33-34 “고발하리요 . . . 의롭다 하신 . . . 정죄하리요 . . . 간구하시는” 이것은 모두 법적 용이이다. 31-39 절은 하늘에 있는 법정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은 50:8-9에 대한 암시일 수 있다.

8:33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다(바르트). 이 진리에 대한 신약의 명확하고 충분한 본문은 앱 1:3-4과 롬 9:14-26이다. 모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성부께서 예수를 택하셨다.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아니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이다!

특별주제: 선택/예정과 신학적 균형의 필요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 13)은 성경적 긴장에 대한 좋은 예를 나타낸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는 앱 1:4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 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 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의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으로서)을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과 아울러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8:34 이 절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여러 면을 열거한다: (1) 그가 죽으셨다 (2)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3)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4) 그가 신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신 사건이었다(참조, 이사야 53 장; 막 10:45; 고전 5:21). 예수의 부활은 성부께서 성자의 사역을 받으셨음을 보이고 또한 박해와 죽음에 직면하여 소망을 준다. 예수께서 성부의 우편에서 가지시는 영광과 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들로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한다.

▣ “하나님 우편” 이것은 신인동형적 은유이다. 하나님은 육체적 몸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은유는 권력, 권위, 뛰어남의 자리를 말한다.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참조, 앱 1:20; 골 3:1) 바울은 34 절에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신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빌 2:6 이하; 딤전 3:16).

▣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듯이(26-27 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참조, 히 4:4-16; 7:25). 여기서 사용한 용어인 “파라클레스”는 요 14:16에서 성령께 대해 사용되었고 요일 2:1에서는 성자께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다(참조, 사 53:12).

8:35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주격 소유격 혹은 목적격 소유격이다. 이것은 (1) 신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2) 그리스도께 대한 신자의 사랑을 뜻한다. 문맥상(또한 고후 5:14) 1 항이 더 잘 맞는데 이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자의 사랑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확실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구와 관련하여 헬라어 사본에 한 가지 변이가 나타난다. 한 고대 헬라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참조, A사본)으로 되어 있다. 한 고대 사본은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나타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참조, B사본). UBS⁴편집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A”(확실함)등급을 주고 있다. 이것은 C, D, F, G 사본과 대부분의 고대 라틴역 별게이트역 폐쉬타에 나타난다.

■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겪게 되지만 이런 문제들이나 악한 세력이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5:3의 특별주제: 환란을 보라.

8:36 이것은 시 44:22의 인용이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 달라고 요청받는다.

8:37

NASB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KJV	“한편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자 이상이니라”
NRSV	“아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자 이상이니라”
TEV	“아니다, 이 모든 일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가지느니라”
JB	“이 모든 일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시험이니라”

이것은 “정복자”라는 용어가 강화된 형태이다. 바울이 이 용어(휘페르 + 니카오)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정복하는 양”이라는 혼합된 뜻을 갖는 놀라운 은유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복자가 된다(참조, 요 16:33; 요일 2:13-14; 4:4; 5:4). 1:30의 특별주제: 바울이 사용한 휘페르 합성어를 보라.

■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대명사는 성부 혹은 성자를 가리킨다.

8:38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내가 확신하고 계속해서 확신하노니”라는 의미이다.

■ “천사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을 천사들이 시기하여 그들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은 구원이 적대적인 천사들의 영역을 통해 얻어진 영적 암호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참조, 골로새서, 에베소서).

죠지 엘론 라드는 그의 책 *신약신학*에서 바울이 천사에 대해 사용한 용어들을 잘 요약해서 제시한다:

“바울은 선한 천사 와 악한 천사, 사탄과 귀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천사적 영의 계급을 제시한다. 그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정사’[아르케], 고전 15:24; 앱 1:21; 골 2:10

‘정사들’[아르카이]; RSV, “원리들”, 앱 3:10; 6:12; 골 1:16; 2:15; 롬 8:38

‘권세’[액수시아], 고전 15:24; 앱 1:21; 골 2:10

‘권세들’[액수시아이]; RSV, “권세들”, 앱 3:10; 6:12; 골 1:16; 2:15

‘능력’[다이나미스], 고전 15:24; 앱 1:21

‘능력들’[다이나메이스], 롬 8:38

‘보좌들’[스로노이], 골 1:16

‘주’[퀴리오테스; RSV, “지배자”], 앱 1:21

‘주들’[퀴리오텐스], 골 1:16
‘이 어두움의 세상 지배자,’ 앱 6:12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군대),’ 앱 6:12
‘어두움의 권세들,’ 골 1:13
‘언급된 모든 이름,’ 앱 1:21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들,’ 빌 2:10 (401 쪽).

구약의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신약의 악마와 연결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많은 이들은 이 둘이 같은 존재라고 여긴다. 한편 유대인의 묵시문학은 악마가 창세기 6 장에 있는 반 천사요 반 인간인 네필립의 영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몸은 홍수로 멸망하였기에 그들은 몸을 갖기 원한다! 이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이다. 성경은 우리가 묻는 기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의 목적은 인간의 구속이지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이것은 (1) 이 세대의 악한 천사적 힘 혹은 악마의 힘(참조, 앱 2:2; 6:12; 고전 15:24; 골 1:16) 혹은 (2) 아마도 타락한 세계의 비인간적 구조(종교, 정부, 교육, 의료 등)로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적이게 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핸드리커스 벌코프, 권세자들과 능력들). 13:1의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아르케

“지배”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어떤 것의 “시작” 혹은 “기원”을 의미한다.

1. 창조된 질서의 시작(참조, 요 1:1; 요일 1:1)
2. 복음의 시작(참조, 막 1:1; 빌 4:15)
3. 처음 목격자들(참조, 뉴 1:2)
4. 표적의 시작(기적, 참조, 요 2:11)
5. 권세의 시작(참조, 히 5:12)
6. 확신/신뢰의 시작(참조, 히 3:14)

이것은 “다스림” 혹은 “권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인간 정부의 관리
 - ㄱ. 뉴 12:11
 - ㄴ. 뉴 20:20
 - ㄷ. 롬 13:3; 딛 3:1
2. 천사적 권세자
 - ㄱ. 롬 8:38
 - ㄴ. 고전 15:24
 - ㄷ. 앱 1:21; 3:10; 6:10
 - ㄹ. 골 1:16; 2:10, 15

거짓 교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경멸했다. 그들은 무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천사, 공공적 권세와 교회의 지도력보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욕구를 더 앞세웠다.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용어는 별이 천고와 천저에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들이라고 믿은데서 온 말이다(점성학). 후에 이 용어들은 영지주의로 불리는 이단이 애온 혹은 거룩한 신과 죄악된 물질을 조성한 열등한 신 사이의 천사적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종류의 피조물”(헵테로스)이다. 문맥에서 이것은 천사적 권세자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른 종류로서 다른 것을 말하는

혜테로스와 같은 종류로서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알로스를 두 헬라어 전치사를 구별하여 말하는 것은 코이네 헬라어에서는 이미 사라진 일이었는데 이 문맥에서는 아직 어떤 구별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확신의 진술인가! 이 장은 정죄로 시작하지 않고 구별로 끊맺지 않는다. 아무도 신자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의 응답(참조, 3:21-31)과 계속적인 응답을 할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참조, 4-8 장). 성령이 열쇠이시다. 하지만 언약에 따른 조건적인 응답이 요청된다. 순종과 인내가 요구되듯이 회개와 믿음이 요구된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돋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8 장은 7 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2. 만일 정죄가 없다면 죄는 신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이신가 아니면 예수신가(9 절)?
4. 자연은 인간의 죄를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19-22 절) 자연은 하늘의 한 부분을 이룰 것인가(참조, 사 11:6-10)?
5. 성령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26-27 절)? 이것은 “방언을 말함”을 가리키는가?
6. 성경은 이 같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가(28 절)? “선”을 정의하라(29 절).
7. 왜 성화는 30 절에 있는 신학적 사건의 연속에서 떨어져 있는가?
8. 왜 31-39 은 법정 장면을 나타내는가?
9. 34 절에서 예수께 대하여 말씀하는 4 가지 내용을 말하라.

로마서 9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문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특권
9:1-5	9:1-5	9:1-5	9:1-5	9:1-5
	이스라엘의 거부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실패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
9:6-13	9:6-13	9:6-13	9:6-9 9:10-13	9:6-13
	이스라엘의 거부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권리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9:14-18	9:14-29	9:14-18	9:14-18	9:14-18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하나님의 분노와 자비	
9:19-29		9:19-26	9:19-21 9:22-29	9:19-21 9:22-24
				모든 것이 구약에서 미리 말하여 짐 9:25-29
		9:27-29		
이스라엘과 복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믿음으로 인한 참된 의	이스라엘과 복음	
9:30-10:4	9:30-10:4	9:30-10:4	9:30-10:4	9:30-10: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9-11 장과 1-8 장의 관계

- 가. 이 문학적 문맥과 1-8 장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 제목으로서 신학적으로 괄호 안에 있다.
 - ㄱ. 8:39 과 9:1 사이에 커다란 대조가 나타나고 또한 논리적인 연결이 결여되었다.
 - ㄴ. 이것은 로마 교회에 실제 있었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아마 교회에서 점점 증대하는 이방인 지도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ㄷ. 이스라엘(또한 율법)에 관련하여 바울의 설교에 대한 오해와 이방인에 대한 그의 사도직(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따라서 바울이 이 주제를 이 부분에서 다룬다.
 2. 이것은 바울의 복음제시에서 절정이며 논리적인 결론을 이룬다.
 - ㄱ.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가 없다”는 약속으로 8장을 결론짓는다. 언약백성의 불신앙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 ㄴ. 로마서 9-11 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관련하여 복음의 역설적인 면에 답을 하고 있다!
 - ㄷ. 바울은 그의 편지 전반에 걸쳐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참조, 1:3, 17; 3:21, 31; 4:1 이하).
 - ㄹ.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 진실하시다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어떠한가? 그 모든 약속은 최소되었고 무효한가?
- 나. 이 문맥적 단락의 개요를 여러 방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추정적인 반대자를 바울이 세움으로(신랄한 반박)
 - ㄱ. 9:6
 - ㄴ. 9:14
 - ㄷ. 9:19
 - ㄹ. 9:30
 - ㅁ. 11:1
 - ㅂ. 11:11
 2. 로마서 9-11 장은 하나님의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장 절의 구분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후에 추가된 것이다). 이 단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해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적어도 3 가지 주요 주제에 따른 구분이 나타난다.
 - ㄱ. 9:1-29(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둠)
 - ㄴ. 9: 30-10:21(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둠)
 - ㄷ. 11: 1-32(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영원한 구속적 목적)
 3. 주요 주제에 의해: 로마서의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문단 구분은 토마스 넬슨 출판사의 NKJV 의 것이 좋다
 - 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 9:1-5
 - 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함, 9:6-13
 - ㄷ.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함, 9:14-29
 - ㄹ.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9:30-33
 - ㅁ. 이스라엘과 복음, 10:1-13
 - ㅂ.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다, 10:14-21
 - ㅅ. 모든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 아님, 11:1-10
 - ㅇ. 이스라엘의 거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님, 11:11-36

- 다. 이 부분은 마음으로부터의 제시(논리적 개요)이며 가슴 속으로부터 나오는 외침이다. 이러한 열정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인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짐을 말하는 호 11:1-4, 8-9 을 생각나게 한다.
- 여러 면에서 7 장에 있는 고통과 율법의 선함은 9-10 장과 평행을 이룬다. 두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 생명 대신에 죽음을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인해 바울의 가슴은 찢어졌다!
- 라. 바울이 9-11 장에서 25 곳 이상 구약을 인용하는 점은 그가 4 장에서 하였듯이 현재의 경험에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직면한 역설적인 상황을 나타내고자 함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된 후손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심지어 과거에도 그랬다(참조, 행 7 장; 르 9 장).
- 마. 이 본문은 앱 11:3-14 과 같이 모든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다룬다. 얼뜻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의 개인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선택과 영별을 정하시고 타락이 일어나게 허용하셨다는 칼빈주의). 그러나 나는 그 강조점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다고 본다(참조, 창 3:15; 행 2:23; 3:18; 4:28; 13:29).

제롬 성경 주석, 제 2권, “신약,” 요셉 A 휘쓰마이어와 레이몬드 E. 브라운은 말하기를:

“바울의 관점이 공동체에 대한 것임을 처음부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개인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것이 것이 아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개인의 영광에 대한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318쪽).

9 장의 문맥에 대한 고찰

- 가. 얼마나 커다란 태도의 변화가 8 장과 9 장 사이에 나타나는지!
- 나. 이 문학적 단위(9-11 장)는 신학적으로 (1) 구원의 기초 (2)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목적 (3)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 대 야웨의 신실하심 (4) 예수의 구속에 모든 인류를 포함시킴을 다룬다.
- 다. 9 장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즉, 다른 존재, 앱 1:3-14). 한편 10 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분명하게 또한 반복해서 말한다(참조, “모든 이” 4절; “누구든지” 11, 13절; “모든” 12절[2회]). 바울은 결코 이 신학적 긴장을 조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양쪽 다 사실이다! 성경 교리의 대부분은 역설적이거나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된다.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대 반펠라기우스 주의와 알메니안주의 양쪽 다 진리와 잘못의 요소를 갖고 있다. 교리적 차이와 관련된 성경의 긴장은 이미 자신이 가진 해석적 틀에 성경을 밀어 넣는 성경인용방법과 그러한 교리적 이성적 신학적 구조를 취하게 한다!
- 라. 9:30-33 은 9 장의 요약이며 10 장의 주제이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9:1-5

^{1, 2}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중언하노니 ³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9:1-2 1절과 2절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이다. 바울은 그들(로마에 있는 교회)이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알려 준다: (1) 그와 그리스도의 연합, 1절 (2)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의 양심, 1절 (3)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 속의 깊은 감정, 2절.

9: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은 종종 이러한 진술을 한다(참조, 고후 11:10; 갈 1:20; 딤전 2:7).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해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한다(참조, 롬 1:9; 고후 1:23; 11:31; 빌 1:8; 살전 2:5, 10). 이것은 그가 가르침과 설교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방법이었다.



NASB, NKJV	“성령 안에서 나를 증언하노니”
NRSV	“성령에 의해 이것을 확증하노니”
TEV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
JB	“성령과 더불어 나를 떠맡노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부르심과 명령을 받았다고 믿었다(참조, 행 9:1-22; 갈 1:1). 그는 사도였고 또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했다(참조, 고전 7:25, 40). 그는 믿지 않고 고집스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의 슬픔을 가졌다(참조, 2절). 그들은 매우 많은 특권을 가졌다(참조, 4-5절).

9:3

NASB, NKJV,	
NRSV	“내가 원할 수 있다면 . . .”
TEV	“그들을 위해 내가 원할 수 있다면”
JB	“나는 원했을 것이다 . . .”

3절에서 바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만일 자신이 제외되는 것이 그들이 포함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게 되기 바란다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졌다. 이 절은 이같이 강하고 강조적인 문법 구문(미완료 중간태 직설법이 아우토스와 애고, 또한 현재형 부정사와 함께 쓰임)으로 되어 있다. 이 기도에 나타난 강조와 부담은 출 32:30-35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와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소원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갈 4:20에 있는 미완료 시제의 용법과 비슷하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중보기도

I 서론

- 가. 기도는 예수님의 모범을 인해 중요하다
 1. 개인 기도, 막 1:35; 뉘 3:21; 6:12; 9:29; 22:29-46
 2. 성전청결, 마 21:13; 막 11:17; 뉘 19:46
 3. 주기도문, 마 6:5-13; 뉘 11:2-4
- 나. 기도는 인격적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명백하게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행하시기 원하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 다.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영역에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제한하고 계신다(참조, 약 4:2).
- 라. 기도의 주된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및 그 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 마. 기도의 범위는 신자와 관계된 어떤 일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 한번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각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거듭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다.
- 바. 기도는 여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1.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
 - 2. 하나님의 임재, 교제, 공급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림
 - 3. 과거와 현재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
 - 4.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나 원하는 것을 간구함
 - 5.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 성부 앞에 중보함
- 사. 중보기도는 신비하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변화, 응답, 혹은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II. 성경에서의 경우

- 가. 구약
 - 1. 중보기도의 몇 가지 예
 - ㄱ.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함, 창 18:22 이하
 - ㄴ.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
 - (1) 출애굽기 5:22-23
 - (2) 출애굽기 32:31 이하
 - (3) 신명기 5:5
 - (4) 신명기 9:18, 25 이하
 - ㄷ.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
 - (1) 사무엘상 7:5-6, 8-9
 - (2) 사무엘상 12:16-23
 - (3) 사무엘상 15:11
 - ㄹ. 다윗이 자기 아기를 위해 기도함, 사무엘하 12:16-18
 - 2.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 이사야 59:16
 - 3. 알고 있으면서 자백하지 않은 죄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64:7
- 나. 신약
 - 1. 성부와 성령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예수님
 - (1) 로마서 8:34
 - (2) 히브리서 7:25
 - (3) 요한일서 2:1
 - ㄴ. 성령님, 로마서 8:26-27
 - 2. 바울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9:1 이하
- (2) 로마서 10:1
- ㄴ. 교회들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1:9
 - (2) 에베소서 1:16
 - (3) 빌립보서 1:3-4, 9
 - (4) 골로새서 1:3, 9
 - (5) 데살로니가전서 1:2-3
 - (6) 데살로니가후서 1:11
 - (7) 디모데후서 1:3
 - (8) 빌레몬서 4 절
- ㄷ.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함
 - (1) 로마서 15:30
 - (2) 고린도후서 1:11
 - (3) 에베소서 6:19
 - (4) 골로새서 4:3
 - (5) 데살로니가전서 5:25
 - (6) 데살로니가후서 3:1
- 2.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서로를 위한 기도
 - (1) 에베소서 6:18
 - (2) 디모데전서 2:1
 - (3) 야고보서 5:16
 - ㄴ. 특별한 그룹을 위한 기도
 - (1) 우리의 원수들, 마태복음 5:44
 - (2) 다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2:2
 - (3) 병자, 약 5:13-16
 - (4)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 요한일서 5:16
 - ㄷ.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1

III.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 가. 그리스도와 성령께 대한 우리의 관계
 - 1. 그 안에 거함, 요한복음 15:7
 - 2. 그의 이름으로, 요 14:13, 14; 15:16; 16:23-24
 - 3.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18; 유다서 20 절
 - 4.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6:10; 요한일서 3:22; 5:14-15
- 나. 동기
 - 1. 흔들리지 않음, 마태복음 21:22; 야고보서 1:6-7
 - 2. 겸손함과 회개, 누가복음 18:9-14
 - 3. 잘못 구함, 야고보서 4:3
 - 4. 이기적임, 야고보서 4:2-3
- 다. 다른 측면
 - 1. 인내
 - ㄱ. 농 18:1-8
 - ㄴ. 골로새서 4:2

- ㄷ. 야고보서 5:16
- 2. 계속 구함
 - ㄱ. 마태복음 7:7-8
 - ㄴ. 누가복음 11:5-13
 - ㄷ. 야고보서 1:5
- 3. 가정에서의 불화, 베드로전서 3:7
- 4. 알고 있는 죄가 없음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 ㄹ. 이사야 64:7

IV. 신학적 결론

- 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얼마나 중대한 의무요 책임인가!
- 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성부는 간절히 기다리신다.
- 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친구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NASB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지라도”
NKJV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NRSV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TEV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지라도”
JB	“기꺼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거룩함”이라는 어원의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따로 구별하다이다. 이와 같은 개념이 “저주”에 관련이 있다.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 긍정적인 경험(참조, 레 27:28; 뉴 21:5)이나 혹은 부정적인 경험(참조, 수 6-7 장; 롬 9:3)을 뜻할 수 있다.

특별주제: 저주(아나세마)

히브리어에 “저주”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다. 헤腥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물건을 뜻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참조, 70 인역 레 27:28 의 아나세마), 대개는 멸망을 뜻했다(참조, 신 7:26; 수 6:17-18; 17:12). 이것은 “거룩한 전쟁”的 개념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인들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리고는 “처음 열매”로서 그 첫 번째 경우였다.

신약에서 아나세마와 또한 이와 관련이 있는 형태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혹은 예물(참조, 뉴 21:5)
2. 죽음의 맹세(참조, 행 23:14)
3. 저주와 맹세(참조, 막 14:71)
4. 예수와 관련된 저주 양식(참조 고전 12:3)
5. 하나님의 심판 혹은 멸망을 어떤 이나 어떤 것에 하기(참조, 롬 9:3; 고전 16:22; 갈 1:8-9).

9:4-5 이것은 명사절의 연속으로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도식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한다. 그들의 불신앙은 이러한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비난을 받는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다(참조, 둑 12:48)!

9:4 “이스라엘 사람”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구약의 언약적 이름이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참조, 창 32:28). 이것은 유대인의 국가를 가리키는 집합적인 칭호가 되었다. 이것의 어원론적 의미는 “엘(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내시기를”이며, 야곱이 속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구약에서 “아들”的 복수형은 대개 천사들을 가리키고(참조, 육 1:6; 2:1; 38:7; 단 3:25; 시 29:1; 89:6-7), 단수형은 다음의 경우를 가리킨다

1.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2. 국가(참조, 출 4:22, 23; 신 14:1; 호 11:1)
3. 메시아(참조, 시 2:7)
4.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참조, 신 32:5; 시 73:15; 갤 2:1; 호 1:10. 창 6:2 은 불분명한데 이것은 어느 한 쪽을 가리킬 수 있다). 신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

바울이 구원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은유는 “양자됨”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것은 “거듭남”이었다. 이들은 모두 가족과 관계된 은유이다. 이것은 유대적인 은유가 아니라 로마의 은유이다.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됨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적 과정이었다. 그가 일단 양자가 된 후에는 양자로 삼은 아버지가 그를 법적으로 버리거나 죽일 수 없는 새 사람으로 여겨졌다.

■ “영광과” 이것의 히브리어 어근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며 가치있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였다. 여기서 이것은 (1)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내산에서 계시하심(참조, 출 19:18-19) 혹은 (2) 광야 방랑시기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영광의 쉐키나구름(참조, 출 40:34-38)을 가리킨다. 야웨는 자신을 독특하게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다. 야웨의 임재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났다(참조, 왕상 8:10-11; 갤 1:28). 3:23의 특별주제를 보라.

■ “언약들과”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B, D에는 “언약”이 단수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 C, 일부 옛 라틴역, 벨게이트역, 콥티역은 복수형으로 되어있다. UBS⁴는 복수형에 “B”(거의 확실함) 등급을 준다. 한편 복수형은 구약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언약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 율법을 주신 내용이 다음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가리킬 것이다. 그 언약은 바울이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했고(참조, 4:1-25; 갈 3:16-17) 여러 번 반복되며(참조, 창 12, 15, 17 장) 각 족장에게 주신 언약이다.

특별주제: 언약

구약의 용어 **베르**, 언약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히브리어에는 없다. 이것을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의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긴장을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한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반응을 요구한다

1. 믿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만 했다(참조, 창세기 2 장)
2.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또한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만 했다(참조, 창세기 12, 15 장)
3. 믿음으로 노아는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 동물들을 모아야만 했다(참조, 창세기 6-9 장)
4.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함께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난다. 이 긴장 관계는겔 18 장과 겸 36:27-37(야웨의 행동)을 비교할 때 분명해 진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점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의 회복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렘 31:31-34의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이 되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방법은 달라졌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문제는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한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받아 주심을 직설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며 또한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로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앱 2:8-10). 경건한 삶은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

■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이것은 (1)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참조, 출애굽기 19-20 장)과 다윗이 성전예배를 발전시킨 것 혹은 (2) 광야 방랑 시기의 성막(참조 출애굽기 25-40 장과 레위기)을 가리킬 것이다.

■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자신의 미래 계획을 드러내셨다(참조, 1:2; 행 13:32; 딤 1:2; 히 1:1).

“언약들”이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에 “약속들”은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참조, 5 절, 예, 창 3:15; 49:10; 신 18:15, 18-19; 삼하 7 장; 시 16:10; 118:22; 사 7:14; 9:6; 11:1-5; 단 7:13, 27; 미가 5:2-5a; 속 2:6-13; 6:12-13; 9:9; 11:12).

이 약속들(언약들)은 무조건적이며 또한 조건적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한 무조건적이지만(참조, 창 15:12-21), 인간의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는 조건적이다(참조, 창 15:6 와 롬 4 장). 이스라엘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9:5 “조상들도” 이것은 창세기 12-50 장에 나오는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킨다(참조, 롬 11:28; 신 7:8; 10:15).

▣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 메시아(참조 1:3)의 육신적 혈통을 말한다(참조, 10:6).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헬라어 번역이다. 구약에서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1) 이스라엘의 왕 (2)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3)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행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은 이 세 종류의 직임을 모두 완성하셨다(참조, 히 1:2-3). 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시이다(참조, 사 7:14; 9:6; 미 5:2-5a; 골 1:13-20).



NASB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NKJV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NRSV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메시아가 오신다”

TEV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그들의 종족에 속하신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십시오”

JB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문법적으로 이것은 성부에 대한 송영(TEV)이 될 수 있지만 문맥은 바울이 예수의 신성을 확인함을 지지한다. 바울은 예수께 대해 세오스라는 용어를 자주는 아니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행 20:28; 딤 2:13; 빌 2:6). 초대교회의 모든 교부들은 이 본문이 예수께 대한 것으로 해석했다.

▣ “만물 위에 계셔서” 이것도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께 대한 설명적인 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마 28:19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과 골 1:15-20에 있는 바울의 진술을 반영한다. 위엄이 있는 이 구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세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세대들로”라는 헬라어의 관용적 구이다(참조, 뉴 1:33; 롬 1:25; 11:36; 갈 1:5; 딤 전 1:17). 이것은 관련이 있는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1) “세대로”(참조, 마 21:19[막 11:14]; 뉴 1:55; 요 6:5, 58; 8:35; 12:34; 13:8; 14:16; 고후 9:9) 혹은 (2) “세대들의 세대의”(참조, 앱 3:21). 이 관용적 표현이 “영원히”를 말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대들”이라는 용어는 복수형으로서 “장엄의 복수형”이라고 불린 랍비적 문법구조에 따라 의미상의 강조를 나타내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 “무흠한 세대,” “사악한 세대,” “오는 세대,” 또는 “의의 세대”를 가리키는 면에서 여러 “세대들”이 될 수 있다.

▣ “아멘” 1:25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9:6-13

⁶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⁷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⁸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⁹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¹⁰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¹¹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¹²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¹³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9:6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맥에서 이 구는 구약의 언약적 약속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실하다(참조, 민 23:19; 사 40:8; 55:11; 59:21).



NASB, NKJV

TEV, JB “실패하다”

NRSV “결과가 없다”

이 용어(액필도)는 70 인역에서 어떤 것(참조, 사 6:13)이나 어떤 사람(참조, 사 14:12)이 넘어지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어떤 것이 영속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태(그러나 이 부분은 부정되고 있다)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하여는 위의 설명을 보라.



NASB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NKJV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NRSV “이스라엘이 참으로 다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요”

TEV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JB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역설적 문장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의 성경적 의미가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 (1)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참조, 창 32:22-32) (2)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참조, TEV 혹은) (3)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뜻하는 이스라엘(참조, 갈 6:16; 베전 2:8, 9; 계 1:6) 대자연적 이스라엘(참조, 3-6 절). 오직 아브라함의 일부 자손만 약속의 자녀였다(참조, 7 절). 유대인들도 그들의 형통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결코 갖지 못하고(참조, 7 절) 그들의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참조, 2:28-29; 4:1 이하; 요 8:31-59; 갈 3:7-9; 4:23). 이스라엘은 믿는 남은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참조, 9:27; 11:5).

6 절은 일련의 여러 반대 경우를 시작한다(참조, 9:14, 19, 30; 11:1). 이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통렬한 비난의 계속이다. 이것은 가정적으로 반대자를 세워놓고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이다(참조, 말 1:2, 6, 7[2회], 12, 13; 2:14, 17[2회]; 3:7, 13, 14).

9:7 이 절의 하반절은 창세기 21:12d의 인용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따른 자녀는 아니었다(참조, 창 12:1-3; 15:1-11; 17:1-21; 18:1-15; 갈 4:23). 이것은 8-9 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10-11 절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구분함을 보여 준다.

9:8 여기서 바울은 “육체”를 후손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참조, 1:3; 4:1; 9:3, 5). 그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9:3의 유대인들)을 아브라함(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뢰할 자들)의 영적인 자녀(약속의 자녀)와 대조한다. 이것은 8:4-11에 있는 타락한 인류 대 구속받은 인류에 대한 대조와 같은 것이 아니다.

9:9 이것은 창세기 18:10, 14의 인용이다. 약속의 자녀(“씨”)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인해 사라에게서 올 것이다. 이것은 결국 메시아의 출생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삭은 13년 전에 창 12:1-3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특별한 성취였다.

9:10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는 아기를 못낳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임신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계보를 통해 언약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 이를 주관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나타나는 다른 측면은 참 메시아 계보의 진행이 족장들의 장자(문화적으로 기대되듯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열쇠이다(참조, 11-12 절).

9:11-12 11-12 절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창 25:19-34에서 취하였다. 이 예는 하나님의 선택(참조 16절)이 (1) 인간의 계보나 (2) 인간의 공로나 업적(참조, 16절)에 따른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은 새 언약(참조, 램 31:31-34; 겸 36:22-36)인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메시아는 선택된 씨로부터 오실 것이지만 그는 모든 이(믿음을 사용하는 자, 참조, 2:28-29; 4:3, 22-25; 10장)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9:11 “목적” 이것은 프로와 티세미의 합성어로서 여러 의미를 갖는다.

1. 롬 3:25에서
 - ㄱ. 공적으로 정함
 - ㄴ. 화해의 선물
2. 미리 계획함
 - ㄱ. 바울이, 롬 1:13
 - ㄴ. 하나님이, 앱 1:9

명사형(프로테시스)은 이 문맥에서 “미리 세우다”를 뜻한다

1. 성전의 진설병에 사용됨, 마 12:4; 막 2:26; 뉘 6:4
2.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속적 목적에 사용됨, 롬 8:28; 9:11; 앱 1:5, 11; 3:10; 딤후 1:9; 3:10

바울은 전치사 프로(앞에)가 있는 여러 합성어를 로마서 8-9장과 에베소서 1장에서 사용한다

1. 프로기노스코(미리 앓), 롬 8:29
2. 프로오리조(미리 계획하다), 롬 8:29(엡 1:5, 11), 30(엡 1:9)
3. 프로테시스(미리 정한 목적), 롬 9:11
4. 프로에토이마조(앞서 미리 말해 두다), 롬 9:23
5. 프로레고(이전에 말한), 롬 9:29
6. 프로엘피조(미리 소망한), 앱 1:12.

9:12 이것은 에서와 야곱에 관하여 창 25:23에 있는 예언의 인용이다. 이것은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을 속임에 있어서 리브가와 야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언을 따라 행한 것임을 보인다!

9:13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말 1:2-3의 인용이다. “미워하다”는 비교를 말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 이것은 영어로는 거칠게 보인다. 그러나 창 29:31-33; 신 21:15; 마 10:37-38; 뉘 14:26; 요 12:25을 비교하라. “사랑하다”와 “미워하다”라는 신인동형적 용어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와 약속에 하나님께서 헌신하심을 나타낸다. 야곱은 창 25:23의 예언에 기초한 약속의 아들이었다. 에서는 말 1:2-3에서 에돔 국가(에서의 후손)를 가리킨다.

개역개정 9:14-18

¹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¹⁵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¹⁶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¹⁷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¹⁸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종종 이러한 통렬한 비난의 형태를 사용했다(참조, 3:5; 4:1; 6:1; 7:7; 8:31; 9:14, 19, 30).

▣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만일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면(참조, 19 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선택의 신비이다.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인간(반역적인 인류)에게 행함에 있어서 자유로우시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권세를 휘두르는데 있지 않고 궁휼하심(15 절의 설명을 보라)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미래에 취할 선택과 행동을 미리 아심에 기초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만일 그것에 기초한다면 개인이 하는 선택과 행동과 공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궁극적인 기초가 되고 말 것이다(참조, 16 절. 베전 1:2). 이러한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가진 의인의 변영에 대한 견해이다(참조, 신 17-28 장; 육기와 시 73 편).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없는 자를 믿음을 통하여(행위가 아닌, 참조, 5:8) 축복하시려고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시지만 (1) 궁휼하심과 (2) 약속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을 축소하기를 선택하셨다.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지만, 응답은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택하심을 뒤 따르며 그것을 궁극적으로 확인한다.

▣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희구법의 형태로서 바울이 종종 신랄한 비난을 위해 자신의 세운 반대자의 질문을 강조하여 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참조, 3:4, 6, 31; 6:2, 15; 7:7, 13; 11:1, 11 또한 고전 6:15; 갈 2:17; 3:21; 6:14).

9:15 이것은 출 33:19의 인용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신다. 모세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공로가 없었다(참조, 출 33:20). 그는 살인했다(참조, 출 2:11-15). 하나님께서 궁휼하심으로 택하신다는 것이 핵심이다(참조, 16, 18-23; 11:30, 31, 32).

9:15-16 “궁휼” 70 인역에서 특별한 히브리어 용어로서 “견실한 언약적 충성”의 의미를 갖는 헤세드를 번역하기 위해 이 헬라어 단어(에레오스, 참조, 15, 16, 18, 23 절; 11:30, 31, 32)를 사용하였다(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식 사고를 가진 자들로서 거리에서 사용하던 헬라어로 기록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궁휼과 선택은 개인에 대한 것임은 물론 복수형이고 공동체적(아랍[이스마엘]이 아니라 유대인[이삭], 에돔[에서]이 아니라 이스라엘[야곱], 또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참조, 24 절)이다. 이 진리는 예정의 교리(우주적 구속)의 신비를 이해함에 있어 한 열쇠이다. 9-11 장의 문맥에 있는 또 다른 열쇠는 하나님의 변치않는 성품—궁휼하심(참조, 9:15, 16, 18, 23; 11:30, 31, 32)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궁휼하심은 선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칠 것이다. 한 사람이 믿음의 문을 모든 이에게 열었다(참조, 5:18-19).

9:17-18 17 절은 출 9:16의 강력한 우주적 진리의 인용이고, 18 절은 인용문의 결론을 이룬다. 바로는 마음을 강퍅케 했다고 출 8:15, 32; 9:34에서 말한다. 하나님은 출 4:21; 7:3; 9:12; 10:20, 27; 11:10에서 그의 마음을 강퍅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 예는 하나님의 주권(참조, 18 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바로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 완고한 개성을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다(참조, 18 절).

또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의 목적은 구속을 위함임을 주목하라; 이것은 그 범위에 있어서 포함하는 성격을 가진다. 다음의 목적이 의도되었다:

1.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이집트의 자연신과 동물신에 대하여, 창세기 1 장이 바벨론의 별 신들에 대한 것이듯이)
2. 하나님을 이집트에 드러내시고 그 결과 모든 땅에 드러내시기 위하여(참조, 17 절).

서양(미국)의 사상은 개인에 강조점을 두지만 동양의 사상은 공동체 전체의 필요에 강조점을 둔다. 하나님은 자신을 빙궁한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믿지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참조, 11 장). 이 문맥에서 한 사람의 권리란 전체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줄어든다. 구약에서 공동체의 예를 또한 기억하라:

1. 육의 처음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인해 죽음(참조, 육 1-2 장)
2. 아간의 죄를 인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음(참조, 수 7 장)
3. 다윗과 뱃세바 사이의 첫 아이가 다윗의 죄를 인해 죽음(참조, 삼하 12:15).

우리는 모두 다른 이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은 신약의 롬 5:12-21에서 볼 수 있다.

개역개정 9:19-26

¹⁹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²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²¹ 토기장이가 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²²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²³ 또한 영광 반기로 예비하신 바 궁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²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²⁵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²⁶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9:19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결과를 낳는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한다(참조, 대하 20:6; 육 9:12; 시 135:6; 단 4:35). 신랄한 비난이 계속된다. 논리적으로 볼 때 바울의 신랄한 비난을 확인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고 개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장의 서론 B의 1 항을 보라. 하나님의 뜻은 두 단계에서 보아야 한다. 첫 째는 타락한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이다(참조, 창 3:15). 이 계획은 인간 각자가 하는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써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다는 점이다(참조, 출 3:7-9 과 10 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되었다(긍정적으로는 모세, 부정적으로는 바로).

9:20-21 이 이미지는 사 29:16; 45:9-13; 64:8 과 램 18:1-12에서 가져 왔다. 하나님에 대한 토기장이 은유는 종종 그가 창조자이심을, 인간이 흙에서 온 것임을 나타낸다(참조, 창 2:7). 바울은 세 질문을 더 사용함으로써 창조자의 주권을 철저히 납득시킨다—처음 두 개는 20 절에 세 번째 질문은 21 절에 있다.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의 긍정적 선택인 모세와 부정적 선택인 바로에 대한 유추를 다룬다. 이와 같은 대조는 (1) 이삭 - 이스마엘, 8-9 절 (2) 야곱 - 에서, 10-12 절 (3) 이스라엘 국가와 에돔 국가, 13 절,에 나타난다. 이 같은 유추가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의 현 상태를 바울이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하나님의 긍정적 선택은 믿는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표현된다(24-29 & 30-33 절)!

9:22 “만일” 이것은 부분적인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하지만 문법적 결론은 나타나지 않는다. 22-24 절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이다. 22 절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임이시다. 그는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비의 하나님임이시다. 모든 인간은 사형에 해당한다(참조, 1:18-3:21). 정의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선적으로 자비이지 진노가 아니다(참조, 신 5:9-10; 7:9; 호 11:8-9). 그의 선택은 구속을 위함이다(참조, 갤 36:22-23). 그는 범죄한 인간을 오래 참으신다(참조, 갤 18 장). 그는 자신의 구속적 목적을 위해 악까지도 사용하신다! (예, 사탄, 바로, 엔돌의 여자 사신술가, 앗시리아, 느부갓네살, 고레스, 11 장에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NASB	“그의 진노를 나타내기 원하사”
NKJV	“그의 진노를 보이기 원하사”
NRSV	“그의 진노를 보이기 바라사”
TEV	“그의 노를 보이기 원하셔서”
JB	“그의 노를 보이는 것이 준비되사”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그의 능력(참조, 22 절)과 그의 영광의 부요(참조, 23 절)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항상 구속적 목적을 갖는다(강파한 불신앙과 죄의 최종 격리인 계헬나를 제외하고는).

▣ “진노의 그릇” 이 용어는 20 절과 21 절의 흙에 대한 바울의 은유를 계속 이어받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지 않는 자를 명백히 가리킨다.



NASB, NKJV	“준비된”
NRSV	“만들어진”
TEV	“운명이 정해진”
NJB	“계획된”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 단어는 파피루스에서 완전히 숙명을 위해 준비된 물건을 가리킨다. 반역하는 불신자는 정의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 그 결과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고 포괄적인 구속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불신자들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M. R. 빈센트, 단어 연구, 제 2권,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심을 가리키지 않고, 형용사적 의미에서 멸망을 위해 준비되고 익었음을 뜻한다. 분사는 이미 형성된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데, 어떻게 그 형성이 이루어졌는가는 말하지 않고 있다” (716 쪽).

▣ “멸망” 3:3 의 특별주제를 보라.

9:23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와 같은 진리가 롬 8:29-30 와 앱 1:4, 11 에 나온다. 이 장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완전히 주장하심에 대하여 일절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이 위대한 진리를 약화하거나 술책을 쓰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의 창조와 관련있는 방법으로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창 9:8-17 과 15:12-21 에 있는 어떤 구약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인간의 반응이 전혀 관련이 없지만, 다른 언약들은 인간의 반응에 조건적이다(즉, 에덴, 노아, 모세, 다윗).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무도 이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개인이 그 계획에 참여하도록 허락하기를 택하셨다. 이 참여의 기회는 하나님의 주권(로마서 9 장)과 인간의 자유의지(로마서 10 장) 사이에 신학적 긴장을 이룬다.

한 가지 성경의 강조점을 취하여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동양인이 진리를 변증법적 혹은 긴장이 가득한 쌍으로 제시하기에 교리들에 긴장이 있다. 반드시 다른 교리와의 관계에서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진리는 진리들의 모자이크이다.

여기에 정말 신비가 있다! 바울은 불신자들이 진노(22 절)를 위해 준비되었고(**카타프티조**) 신자들은 영광(23 절)을 위해 준비되었다(**프로에토이마조**)는 논리적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이 유일한 요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이를 위한 자비하심에 근거하는데 어떤 이들이 그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인가? 인류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가(참조, 9:30-10:21)? 양쪽 다 과장되었다(어거스틴 - 펠라기우스). 언약 개념은 나에게 두 쪽을 하나로 묶고 강조점을 하나님께 두게 한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예, 요 6:44, 65).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품은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양심적인 모든 인간을 향하신다(참조, 창 1:26, 27). 나는 이 문맥을 갖고 써왔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지만, 한편으로는 흑백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의 초점은 유대인의 불신앙인데, 이것은 이방인의 포함(11 장)을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유일한 본문은 아니다!

■ “영광” 3:23 의 설명을 보라.

9:24 이 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넓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에 근거하여 인간에 대한 자비를 보이셨다. 창 3:14 의 약속은 모든 인류와 관련이 있다(왜냐하면 12 장까지 유대인이 나오지 않는다). 창 12:3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인류와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된 왕국으로 부르신 것은 모든 인류와 관계가 있다(참조, 출 19:5-6)!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신비이지만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참조, 앵 2:11-3:13; 갈 3:28; 골 3:11).

바울이 24 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일련의 구약 인용으로 예시될 것이다(25-29 절).

1. 25 절, 호 2:23
2. 26 절, 호 1:10b
3. 27 절, 사 10:22 또한/또는 호 1:10a
4. 28 절, 사 10:23
5. 29 절, 사 1:9

9:25-26 이 문맥에서 이 본문은 70 인역 호 2:23 과 1:10에서 가져온 내용으로서 북쪽의 10 지파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그들은 교회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보았다(참조, 고후 6:16; 디 2:14; 벤전 2:5-9). 이 경우 호세아의 본문은 믿음없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는 북쪽의 10 지파를 회복시키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상숭배를 하는 이교도(이방인)까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포함시키실 것이라는 증거로 보았다.

개역개정 9:27-29

²⁷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²⁸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²⁹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9:27

NASB, NKJV

NRSV, NJB “비록”

TEV “할 지라도”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예언과 가정법)으로서 가능성 있는 행동을 말한다.

9:27-28 이것은 70 인역 사 10:22-23의 느슨한 인용이다. 공인본문은 70 인역 사 10:23에서 결론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헬라 사본인 P⁴⁶, K, A, B에 이것의 결여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필사가에 의한 후기 첨가임을 나타낸다. UBS⁴는 이것의 생략에 “확실함”이라는 등급을 준다.

■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결실을 가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참조, 창 15:5; 22:17; 26:4).

■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사로잡혀 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에 의해 다시 돌아오게 될 사람을 가리킨다. 바울은 이 용어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가진 유대인과/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특별주제: 남은 자, 세 의미

구약의 “신실한 남은 자”는 예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다(주로 8 세기 선지자와 예레미야). 이것은 세 의미로 사용된다:

1. 포로에서 살아 남은 자(예, 사 10:20-23; 17:4-6; 37:31-32; 렘 42:15, 19; 44:12, 14, 28; 암 1:8)
2. 야웨께 신실하게 남은 자(예, 사 4:1-5; 11:11, 16; 28:5; 율 2:32; 암 5:14-15; 미 2:12-13; 4:6-7; 5:7-9; 7:18-20)
3. 종말적인 새롭게 하심과 새 창조의 일 부분을 이루는 자(예, 암 9:11-15)

이 문맥에서 하나님은 일부(충성스러운 열심을 가진)의 남은 자(포로의 생존자)만 유다에 돌아오게 선택하신다. 우리가 이 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기인한 주제가 반복된다(6 절).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공급, 돌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사람의 수를 줄이신다(예, 기드온, 샷 6-7 장).

9:29 이것은 70 인역 사 1:9 의 인용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죄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 “만군의 주” 이것은 야웨께 대한 구약의 호칭으로서 보통 “만군의 주”로 번역된다(참조, 약 5:4). 문맥에 따라 이것은 군사적 의미인 “하늘의 군대의 장”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기도하고(참조, 수 5:13-15), 혹은 행정적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천체를 바벨론의 다신교적 별신으로서 보는 문맥에서 “하늘의 별들의 주”를 뜻한다. 별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그것들은 사건을 주장하지도 이를 이루지도 못한다(참조, 창 1:16; 시 8:3; 147:4; 사 40:26).



NASB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NKJV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NRSV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TEV	“우리에게 약간의 후손을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NJB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생존자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사 1:9 의 히브리 본문은 “남은 자”이지만 70 인역은 이것을 “씨”로 번역한다(NKJV).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항상 (1) 믿는 남은 자 혹은 (2) 메시아의 계보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이 많은 수의 사람에게 전하도록 그들을 남기셨다.

▣ “소돔... 고모라” 28 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 이 절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두 이방 도시를 언급한다(창 19, 24-26).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관용어가 되었다(참조, 신 29:34; 사 13:19; 렘 20:16; 49:18; 50:40; 암 4:11).

개역개정 9:30-33

³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곤
믿음에서 난 의요 ³¹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³²어찌 그러하나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둘에 부딪쳤느니라 ³³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9:30-31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의 목적에 대한 놀라운 결론이다. 30-33 절은 9 장의 요약이며 10 장의 서론이다.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취하시고 조건을 정해 놓으신다. 개인들은 각자가 회개와 믿음, 순종, 인내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1) 하나님의 주권 (2) 메시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3) 개인의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인가? 그렇다!

“따르다”를 위해서는 14:19의 설명을 보라.

■ “의”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9:32 “행위를” 공인본문은 “율법의”를 첨가하고 있다. 이것은 후기 필사가의 추가이다. 바울은 종종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참조, 3:20, 28; 갈 2:16; 3:2, 5, 10). 그러나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N*, A, B, F, G는 이것을 이 절에서 생략하고 있다. UBS⁴는 짧은 본문에 “B”(거의 확실함)의 등급을 준다.

하나님의 의의 열쇠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타락한 인간이 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참조, 3:21-31).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받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참조, 33 절; 요 1:12; 3:16; 롬 4:1 이하; 10:9-13; 앱 2:8-9). 이것은 신실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유대인들(또한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누리지 못한 바로 그 진리이다!

조지 엘든 래드는 그의 책 *신약신학*에서 좋은 지적을 한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종종 유대 랍비였던 바울 자신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접근이었거나 혹은 율법 아래 있던 1 세기 유대인의 전형적인 생각이었다. 한편 바울의 사상은 그의 영적 자서전적 고백이거나 혹은 1 세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특징의 설명도 아니었다고 보아야만 한다. 오히려 크리스챤 사상가가 의의 두 가지 길인 율법주의와 믿음에 대해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495 쪽).

9:33 이것은 사 28:16을 8:14과 연결시켜 인용한 것이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28:16a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8:14b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28:16b

이 절들을 이렇게(랍비들의 방법) 연결시킴으로써 그는 사 28:16의 의미를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꾼다. 바울은 구약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작하고 있다.

1. 그는 어떤 번역을 취할지를 선택한다(70인역, 맛소라 본문, 또는 자신의 번역)
2. 그는 그 내용이 가르키는 대상을 선택한다(포로로 잡혀간 자에서 이방인으로)
3. 그는 본문을 연결시킨다
4. 그는 야웨께 적용되는 호칭과 대명사를 바꾸어 예수께 적용시킨다

■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 28:16b의 인용이다. 이 인용은 롬 10:11에 나오고 롬 2:32과 유사한 내용이 롬 10:13에 나온다. 구원의 열쇠는 (1) 대상(모퉁이 돌)과 (2) 각자의 개인적 영접(그를 믿음)이다. 4:5의 특별주제: 믿다를 보라.

■ “바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호칭이었지만(참조, 시 18:1-2, 31, 46; 신 32:18; 삼상 2:2; 시 28:1; 31:3; 42:9; 71:3; 78:35) 이것은 메시아의 호칭이 되었다(참조, 창 49:24; 시 118:22; 사 8:14; 28:16; 단 2:34-35, 44-45; 마 21:42-44).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메시아)의 중요 내용이 오해되었고 거부받았다(참조, 고전 1:23).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목적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적 요구사항도 오해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셨고(참조, 사 8:14; 뉴 2:34),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초석이 되셨다(참조, 사 28:16; 베전 2:6-10).

특별주제: 모퉁이 돌

I 구약의 용법

- 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 좋은 기초를 이루는 물질인 돌이라는 개념은 야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시 18:1).
- 나.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발전되었다(참조, 창 49:24; 시 118:22; 사 28:16).
- 다.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야웨의 심판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8:14; 단 2:34-35; 44-45).
- 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은유로 발전했다.
 - 1. 처음 놓이는 기초석으로서 안전하며 또한 그 위에 놓이는 건물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모퉁이 돌”로 불렸다
 - 2. 이것은 또한 벽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얹은 돌을 가리킬 수도 있다(참조, 습 4:7; 앱 2:20, 21). 이것은 히브리어 로쉬(즉, 머리)에서 온 “머릿돌”로 불린다.
 - 3. 이것은 “열쇠 돌”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치형 문의 중앙에 위치하며 벽 전체의 무게를 견딘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 시 118편에서 여러 번 인용했다(참조, 마 21:41-46; 막 12:10-11; 뉘 20:17)
- 나. 바울은 시 118편을 야웨께서 믿음이 없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것과 연결한다(참조, 롬 9:33)
- 다. 바울은 “머릿돌”的 개념을 앱 2:20-22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한다
- 라. 베드로는 이 개념을 벤전 2:1-10에서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고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즉, 신자들은 성전(참조, 고전 6:19)으로서 그 위에 지어졌다(예수는 새 성전이시다, 참조, 막 14:58; 마 12:6; 요 2:19-20).

III 신학적 진술

- 가. 야웨는 다윗/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참조, 왕상 9:1-9)!
- 나. 랍비들의 유대교는 형식과 의식을 강조했지만 믿음의 개인적 측면은 소홀히 했다(이 말은 전체가 다 그랬다는 말은 아니다; 경건한 랍비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매일 인격적이고 경건한 교제를 하기 바라신다(참조, 창 1:26-27). 뉘 20:17-18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
- 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기 위해 성전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개인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은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이다.
- 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존재에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새 성전)를 따라 지어진/형성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
- 마. 예수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 믿음의 머릿돌(즉,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럼에도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그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돋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9장(예정)은 10장(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무엇이 9:1-29의 주요 주제인가?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언약을 어기셨는가?
4. 이스라엘 국가가 가졌던 특권을 열거하라(9:4-5).
5.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는가? 왜 그러했는가 혹은 왜 그렇지 못했는가(9:6)?
6.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7. “자비하심”은 어떻게 예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가(참조, 15, 16, 18, 23절; 11:30-32)?

로마서 10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이스라엘과 복음	이스라엘이 복음을 필요로하다	참 의는 믿음으로 이다	이스라엘과 복음	거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심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실패하다
9:30-10:4	9:30-10:4 10:1-13	9:30-10:4	9:30-10:4	10:1-4
모든 이를 위한 구원			구원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10:5-13		10:5-13	10:5-13	10:5-13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다		모세의 증거
10:14-21	10:14-21	10:14-17 10:18-21	10:14-17 10:18-21	10:14-17 10:18-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0 장은 이스라엘이 야웨의 은혜로운 구원의 제공에 응답할 기회에 초점을 둔다. 9 장은 세상을 선택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즉, 언약적 순종)을 거부했음을 논의했다.

- 나.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의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캐리그마(즉, 선포된 것)로 알려진 사도적 설교의 특징이다. 1:2의 특별주제: 캐리그마를 보라.
- 다. 9:30-10:4 의 중심진리는
1.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2.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결여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했다
 3. 율법은 의를 줄 수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참조, 3:21-31)
- 라. 부르스 콜리와 쿠티스 보한은 연구 안내 주석, 로마서, 존더반사, 115-116쪽에서 유대인의 죄에 대한 유용한 개요를 제시한다
1. 종교적 교만, 10:2a
 2. 영적 소경됨, 10:2b, 3a
 3. 자기 의, 10:3b
 4. 굽히지 않는 완고함, 10:4a
- 나는 또한 그들이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10장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하는 설명을 좋아한다. “선택은십자가의 선포에서 일어난다(참조, 살전 1:4-10).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9:6-29)을 변호하는 본문을 바울 서신의 가장 위대한 선교적 본문(10:1-21)이 어떻게 뒤 따르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복음 선포의 가장 큰 명령은 선포를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선택의 목적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114쪽).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0:1

¹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²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³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⁴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0:1 “형제들아” 이것은 바울이 새 주제를 소개할 때 종종 사용하는 용어이다(참조, 1:13; 7:1, 4; 8:12).

▣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의 기도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예정과 상반되는 놀라운 내용이다! 9:3의 특별주제: 중보기도를 보라.

헬라어 사본에 차이가 “그들을 위하여”에 나타난다. 공인본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로 바꾸었다. 그러나 사본적 증거는 “그들을 위하여”를 지지한다(P⁴⁶, K*, B, C, D*, F, G 사본). UBS⁴는 이것에 “A”(확실함) 등급을 준다.

10:2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진실됨과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참조, 3-4절).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다(참조, 행 9:1; 갈 1:14; 빌 3:6)!

10:2-3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알다”(2 절, 에피기노스코)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역할을 한다: (1) 유대인들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헬라어로 “알다”의 의미) 또는 (2)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갖는 관계를 갖지 못했다(히브리어의 “알다”라는 의미, 참조, 창 4:1; 렘 1:5).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여야 할 필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16, 18, 19 절) 그들이 교만, 거만, 배타적 태도를 갖게 하는 인간의 행위로 믿음을 대신했다 (3a 절).

10:3 “하나님의 의” 9-11 장의 문맥에서 이 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롬 4 장)을 가리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성령께서 범죄한 인간을 이끄사 회개와 믿음으로 하는 응답 및 계속적인 순종과 인내로 이끄심에 기초한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구약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다(참조, 신 4:23-6:3, 17, 24-25). 그들이 깨닫지 못한 점은 믿음과 회개가 똑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참조, 신 5:29-30; 6:5).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행하심은 그들의 의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임을 분명히 말씀한다(참조, 9:6, 7, 13, 24, 27; 10:12-22; 갤 36:22-38). 가나안들이 쫓겨난 것 조차도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를 인함이었다(참조, 9:4-6; 창 15:16).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지만 이것은 중간태로 번역되었다(참조, TEV). 중간태의 기능을 코이네 헬라어에서 수동태가 차지했다. 문맥이 결정짓는 요소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복종하다”로서 일련의 명령을 나타내는 군사용어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수고하여 가지려 했지만 이것은 선물이었다(참조, 3:24; 5:15; 6:23; 앱 2:8-9). 바울은 이 진리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분명히 알았다.

특별주제: 복종(회포붓소)

칠십인 역은 10 가지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를 번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명령하다” 또는 “명령의 권리”이다. 이것을 70 인역이 사용한다.

1.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참조, 레 10:1; 온 2:1; 4:6-8)
2. 모세가 명령하다(참조, 출 3:6; 신 27:1)
3. 왕이 명령하다(참조, 대하 31:13)

행 10:48에서 한 사도가 명령함에서 보듯이 신약에서 이 의미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신약에서 새로운 의미가 발전되고 있다.

1. 자발적인 면이 발전된다(종종 중간태)
2.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는 행동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함에서 볼 수 있다(참조, 뉘 2:51)
3. 신자들이 문화적 면에 따름으로써 적대적인 영향을 복음이 받지 않도록 복종한다
 - ㄱ. 모든 신자들(참조, 앱 5:21)
 - ㄴ. 믿는 아내들(참조, 골 3:18; 앱 5:22-24; 딘 2:5; 벤전 3:1)
 - ㄷ. 신자들이 이교 정부에게(참조, 롬 13:1-7; 벤전 2:13)

신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왕국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한다.

교회는 이 용어를 아가파오와 같이 왕국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했다. 이 용어는 명령에 기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과 메시아와의 새로운 관계에 기초하여 자기를 버리는 의미에서 새로운 고상함을 나타낸다. 신자들은 전체의 이익과 또한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을 위해 순종하고 복종한다.

10:4

NASB, NKJV,

NRSV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TEV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으로 가져가시니라”

JB

“그러나 지금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에 이르니라”

이 진술은 5:17-48과 같은 맥락이다. 율법의 목적, 목표 또는 끝(테로스)은 구원이 아니라 정죄였고, 또한 그 목적은 계속된다(참조, 갈 3:24-25). 이 제목에 대한 전형적인 신약 본문은 갈 3:1-29이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맥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구약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함에 있어서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참조, 롬 15:4; 고전 10:6, 11),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이것은 쓸모없고 죽은 것이었다(참조, 히 8:13). 이것은 옛 시대에 대한 은유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복음은 성령의 새 시대이다. 율법의 시대는 다 지났다! 13:9의 특별주제: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보라.



NASB, NKJV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NRSV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TEV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하여”

NJB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9-11 장은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한다. 9장에서 매우 강하게 진술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10장에서 모든 이로 믿도록 부르시는 것과 긴장을 이루는 것으로 취해야 한다(참조, 4, 9, 11, 13절; 3:22; 4:11, 16).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적인 목적의 보편성은 창 3:15에서 진술되었고 또한 창 12:3과 출 19:5-6에서 강하게 암시한다.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실 계획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과 그가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실은 모든 이에게 우주적 구원 초청을 제공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움없이는 이에 응답할 수 없음은 신비이다(참조, 요 6:44, 65).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예!”이다(참조, 요 3:16; 4:42; 요일 2:2; 4:14; 딤전 2:4; 벤후 3:9). 죄, 타락, 사탄이 사로잡음으로 인해 어떤 이는 “아니오”라고 답한다.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유대인들은 응답했지만 어떤 이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어떤 이방인들은 반응을 보였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믿다”(피스튜오)는 영어에서 세 가지 용어로 해석된다: “believe”(믿다), “faith”(믿음), “trust”(신뢰). 이것은 현재형으로서 계속적인 믿음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어떤 사실(신학, 역사적 세부사항, 복음의 정보)의 인식을 뜻하지 않는다. 신약은 언약이다; 하나님은 의제를 정하시고 필요한 반응을 촉발시키신다. 하지만 각 사람이 최초의 믿음과 회개와 및 계속적인 믿음과 회개로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 순종과 인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사역이 목적이다!

특별주제: 구원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동사 시제

구원은 산물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마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을 했을 뿐이다! 이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거나 혹은 천국행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성장하는 삶이다.

완성된 행동으로서의 구원(부정과거)

- 행 15:11
- 롬 8:24

- 딤후 1:9
- 딤 3:5
- 롬 13:11(부정과거형이 미래형과 함께 사용됨)

상태로서의 구원(완료)

- 앱 2:5, 8

계속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현재)

- 고전 1:18; 15:2
- 고후 2:15

미래에 완성될 구원(동사의 미래시제 또는 문맥)

- 롬 5:9, 10; 10:9, 13
- 고전 3:15; 5:5
- 빌 1:28; 살전 5:8-9
- 히 1:14; 9:28
- (마 10:22; 24:13; 막 13:13에 내포됨)

개역개정 10:5-13

⁵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⁶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⁷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⁸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⁹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¹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¹¹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¹²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¹³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5 이 절은 레 18:5에 대한 암시이다. 이 약속은 확실하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이다(참조, 루 10:28; 갈 3:12). 문제는 롬 3:9, 10-18, 19, 23; 5:18; 11:32이 그 실상을 말하는 점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는다(참조, 창 2:17; 신 30:18; 갤 18:4, 20). 이 옛 언약의 길은 닫혀졌다. 이것은 사형 선고요 저주이다(참조, 7:10; 갈 3:13; 골 2:14).

10:6-8 이것은 70 인역 신 30:11-14에 대한 암시로서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것을 변형시킨다. 이 본문은 원래 모세가 율법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예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에 적용되고 있다(참조, 9 절; 앱 4:9-10). 바울의 요점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참조, 신 3:15-20). 이것은 쉽고 사용 가능하다; 이것은 모든 이를 위한 것으로서 모세의 율법 조항과 매우 다르다.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바울은 앞에서 “죄”와 “은혜”를 의인화했고 지금은 “믿음으로 인한 의”를 의인화한다. 이것을 6, 7, 8 절에 있는 구약 인용문을 사용하여 말한다.

▣ “올라가겠느냐 . . . 내려가겠느냐” 인간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를 위해 그를 공개적으로 보내셨다. 인간이 찾는 노력은 불필요하다.

▣ “마음” 마음은 성찰하는 자아를 말한다. 1: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10: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9 절은 믿음의 메시지의 내용(호 터)이다.

▣ “시인” 이 합성어, 호모로게오,는 문자적으로 “말하다”와 “같은 것”으로서 “공적으로 동의하다”(크게 말하여 다른 이들이 듣게 하다)를 뜻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적 시인은 매우 중요하다(참조, 마 10:32; 뉘 12:8; 요 9:22; 12:42; 딤전 6:12; 요일 2:23; 4:15). 초대교회에서 공적 시인을 하는 방법은 침례(세례)였다. 예비된 사람은 “나는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는다”라는 양식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이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고백

- 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가 고백과 시인의 의미로 쓰였다 (호모레케오와 엑소모로게오). 야고보서에 이 합성어가 쓰였는데, 같다는 의미의 호모, 말하다는 의미의 레고, 밖으로라는 의미의 엑스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기본의미는 같은 것을 말하다 혹은 동의하다이다. 덧붙여진 말 엑스는 공적 시인을 뜻한다.
- 나. 영어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1. 찬송
 2. 동의
 3. 선언
 4. 인정
 5. 고백
- 다. 위의 단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찬송하기(하나님)
 2. 죄를 인정하기
-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있음을 인간이 자각함에서 이 두 가지가 발전했을 것이다. 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두 쪽을 다 깨닫는 것이 된다.
- 라.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의 사용은
1. 약속하기(참조, 마 14:7; 행 7:17)
 2. 동의를 나타내기(참조, 요 1:20; 뉘 22:6; 행 24:14; 히 11:13)
 3. 찬송하기(참조, 마 11:25; 뉘 10:21; 롬 14:11; 15:9)
 4. 시인하기
 - ㄱ. 사람을(참조, 마 10:32; 뉘 12:8; 요 9:22; 12:42; 롬 10:9; 빌 2:11; 요일 2:23; 계 3:5)
 - ㄴ. 진실을(참조, 행 23:8; 고후 11:13; 요일 4:2)
 5. 공적 선언을 하기(법적 의미가 종교적 확인으로 발전됨, 참조, 행 24:14; 딤전 6:13)
 - ㄱ.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참조, 딤전 6:12; 히 10:23)
 - ㄴ. 죄를 인정하는 경우(참조, 마 3:6; 행 19:18; 히 4:14; 약 5:16; 요일 1:9)



NASB	“예수를 주로”
NKJV	“주 예수”
NRSV, TEV, JB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고백과 침례(세례)식의 신학적 내용을 이룬다. “주”의 사용은 예수의 신성을 말하고(참조, 율 2:32; 행 2:32-33, 36; 빌 2:6-11) 이름인 “예수”는 그의 인성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한다(참조, 요일 4:1-6).

특별주제: 주의 이름

이것은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와 활동적 힘을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마술적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구는 자주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참조, 빌 2:11)

1. 침례(세례)에서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공언할 때(참조, 롬 10:9-13; 행 2:38; 8:12, 16; 10:48; 19:5; 22:16; 고전 1:13, 15; 약 2:7)
2. 귀신을 쫓아낼 때(참조, 마 7:22; 막 9:38; 뉘 9:49; 10:17; 행 19:13)
3. 병을 고칠 때(참조, 행 3:6, 16; 4:10; 9:34; 약 5:14)
4. 사역을 할 때(참조, 마 10:42; 18:5; 뉘 9:48)
5.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참조, 마 18:15-20)
6. 이방인에게 설교할 때(참조, 뉘 24:47; 행 9:15; 15:17; 롬 1:5)
7. 기도할 때(참조, 요 14:13-14; 15:2, 16; 16:23; 고전 1:2)
8. 기독교를 일컫는 방법으로(참조, 행 26:9; 고전 1:10; 딤후 2:19; 약 2:7; 벤전 4:14)

복음 선포자, 사역자, 돋는 자, 병고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인격, 예수의 힘, 예수의 공급하심 안에서—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 “네 마음에 믿으면” 이 표현은 시인하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따라서 믿음의 쌍둥이 측면을 제공한다. “믿다”(퍼스터스)라는 성경 용어는 (1) 개인적 신뢰(히브리어) (2) 지적 동의(헬라어) (3) 계속적인 의지적 헌신(참조, 신 30:20)과 관련이 있다.

“마음”은 구약에서 한 사람 전체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문맥에서 바울은 “입”과 “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8 절에서 인용한 신 30:14 의 내용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무모하고 성급한 주장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10:10 “의에 이르고”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젠가 하늘에서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예정에 대한 또 다른 강한 본문인 앱 1:3-14 은 4 절에서 이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신자들은 거룩함과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선택받았다! 택하심은 교리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이다(참조, 신 30:15-20).

10 절은 대위임(참조, 마 28:19-20)의 두 강조점인 구원(제자를 삼아)과 의(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반영한다. 이 같은 균형이 앱 2:8-9(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구원)과 “선한 일”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앱 2:10에서 발견된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는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다.

10:11 이것은 사 28:16 의 인용으로서 바울은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신 메시아를 믿음을 가리킨다(참조, 9:32-33). 로마서 9 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듯이 10 장은 모든 사람이 각각 그리스도께 응답해야 함을

장조한다. 이 보편적 제안의 모습은 4 절의 “누구나,” 11, 13 절의 “누구든지,” 12 절(2 회)의 “모든”으로 분명해진다! 이것은 9 장에 나타난 선택하심(예정)에 대한 강조에 신학적 균형을 가져온다.

▣ “그를 믿는”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가 전치사 에피와 사용된 경우이다(참조, 4:24; 9:33; 딤전 1:16). 믿는 것은 초기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구원얻는 바른 신학(복음 진리)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복음의 삶)을 낳는 개인적 관계(복음적 인격)이다. 진리와 삶을 분리시키는 값싼 믿음을 조심하라. 구원얻는 믿음은 인내하고 변화되는 삶을 가져 오는 믿음이다! 영생은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다! 4:5의 특별주제: 믿음을 보라.



NASB, TEV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NKJV, NRSV “부끄러움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JB “부끄러움을 당할 요소를 갖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믿다”) 사람은 되돌아 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 28:16의 인용으로서 바울이 9:33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 요절이다.

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것은 새 언약의 주된 강조점이다(참조, 롬 3:22, 29; 갈 3:28; 앱 2:11-3:13; 골 3:11). 한 분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잃어버려진 자신의 피조물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아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신다! 모든 이가 그 분께 나아올 수 있다!

복음의 보편적 성격(“모든”이 12 절에서 2 회 사용됨)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난다: (1)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 모두가 잃어버려졌다(참조, 3:9, 19, 22-23; 11:32) (2)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은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장애를 제거한다(참조, 율 2:28-29; 고전 12:13; 갈 3:28; 골 3:11).

▣ “부요하시도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는 “부요”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참조, 2:4; 9:23; 11:12[2 회], 33; 고전 1:5; 고후 8:9; 앱 1:7, 18; 2:7; 3:8, 16; 빌 4:19; 골 1:27; 2:2).

10:13 율 2:32에서 인용한 이 유명한 귀절은 바울의 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새 강조점을 갖는다: (1) 요엘서에서는 야웨의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베드로는 행 2:21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치하고 있다(또한 요 12:41과 사 6:9-10; 빌 2:9와 사 45:22-25; 롬 9:33과 사 8:13-14을 주목하라) (2) 요엘서는 “구원받은”이 육체적으로 구조를 받은 것인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뜻한다.

구약의 개념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환경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이 행 7:59; 9:14, 21; 22:16; 고전 1:2; 딤후 2:22에 나타난다. 1:6의 특별주제: 부르심을 입은을 보라.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

예수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신약이 사용하는 여러 헬라어 용어가 있다.

가. 신약의 용어

1. 나사렛 – 갈릴리에 있는 도시(참조, 뉘 1:26; 2:4, 39, 51; 4:16; 행 10:38). 이 도시는 당시의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후기의 비문에서 발견된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은 경의의 표현이 아니었다(참조, 요 1:46).

예수의 십자가 패에 쓰여진 이 장소 이름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나타낸다.

2. 나자레노스 – 지형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루 4:34; 24:19).
3. 나조라이오스 – 성읍을 가리킬 수 있으나 또한 히브리어로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에 대한 언어유적이일 수 있다(넷제르, 참조, 사 4:2; 11:1; 53:2; 렘 23:5; 33:15; 즉 3:8; 6:12). 누가는 이것을 18:37과 행 2:22; 3:6; 4:10; 6:14; 22:8; 24:5; 26:9에서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 나. 신약 밖에서의 역사적 용법. 이 지명은 역사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1. 이것은 유대인(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단 단체를 가리켰다.
 2.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행 24:5, 14; 28:22).
 3. 시리아(아람어를 쓰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교회에서 신자들을 뜻하는 용어였다.
 4.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재조직하였고 회당과 교회의 공식적인 분리를 선동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주 선언의 예는 베라きっ 28b-29a에서 “18 개의 축복”에 있는데, 여기서는 신자들을 “나자렛인들”로 부른다.
“나사렛인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 책에서 지워지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 저자의 견해
비록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용어의 철자가 매우 다양하게 있음에 나는 놀랐다. 그럼에도 (1)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와의 관계 때문에 (2)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3) 당시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도시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기에 나로 하여금 이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확실치 않다고 보게 한다. 또한 (4)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즉,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 이 단어들에 대해 충실히 참고문헌을 알기 위해서는 코린 브라운(편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제 2 권, 346 쪽을 보라.

개역개정 10:14-15

¹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¹⁵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0:14-15 구약의 인용문에 앞서 연속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결코 야웨의 사자나 사자들에게 응답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참조, 느헤미야 9 장; 사도행전 7 장).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선지자, 사도, 설교가, 교사, 복음전도자들)을 보내신다. 이들 사자들은 말씀이 필요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들을 은혜로 보내시고 계시듯이, 듣는 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반드시 적합한 자세로 응답해야만 한다. 바울은 사 52:7의 인용을 통해 이 견해를 굳게 제시하고 있다. 바울은 이 구약의 구절이 복음 설교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여러 요소를 갖는다: (1) 믿을 내용 (2) 영접해야 되는 분 (3)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계속적 반응 (4) 순종의 삶 (5) 인내(1:5의 설명을 보라).

10:15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대위임이다. 구원은 복음을 들음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온다. 설교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

개역개정 10:16-17

¹⁶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¹⁷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16 바울이 다시 한 번 구약 예언의 진술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메시지를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듯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사 53:1의 인용이지만 신학적으는 사 6:9-13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10:17 복음은 첫 째로 메시지이다(참조, 갈 3:2). 그러나 메시지는 인격적인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참조, 골 3:15-16).

▣ “그리스도의 말씀”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전파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다. 복음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주기 원하시는 내용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고대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1) P⁴⁶, κ*, B, C, D* 사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2) κ^c, A, D^c, K, P 사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처음 경우는 가장 일반적이지 않기에(참조, 골 3:16), 원본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이것은 본문비평의 한 가지 기본적 원리이다). UBS⁴는 이것에 “A”(확실함) 등급을 준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것이 사용되는 유일한 곳이다. 두 번째 경우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참조, 뉘 3:2; 요 3:34; 앱 6:17; 히 6:5; 11:3).

개역개정 10:18-21

¹⁸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¹⁹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²⁰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²¹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0:18 이 절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고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져야함을 주장한다(강조를 나타내는 헬라어의 이중 부정 표현). 문제는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있다!

바울은 시 19:4을 인용한다. 이 시편의 1-6 절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연계시를 가리킨다(참조, 로마서 1-2장). 바울은 (1) 우주적 증인(“온 땅으로”)과 (2) 피조물의 조용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서 복음 전포자(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회자, 교사, 참조, 앱 4:11)에 의한 특별계시(참조, 시 19:8-14)의 전달로 바꾼다. 주된 사상은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이 살던 시대에 알려진 세계에 전해졌다는 점이다(헬라-로마 세계). 바울은 랍비들의 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논증적 목적을 위해 구약의 원래 문맥을 바꾸고 있다. 바울이 구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특별하게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참조, 벤후 1:20-21). 오늘날의 신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한 해석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된다.

10:19-20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도 메시지를 들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초청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것은 19 절에서 신 32:21 을 인용하고 20-21 절에서 사 65:1-2 을 인용함으로써 밝혀 진다. 이방인들이 이렇듯 놀랍게 포함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다(참조, 11:11, 14).

10:21 이 진술은 70 인역 사 65:2 의 인용으로서 언약 백성이 야웨를 거부함에 대한 것이다(참조, 사 65:1-7).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다. 과거에 그들이 나타낸 불신실함은 개인은 물론 국가에 일시적인 심판을 가져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가져 올 것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은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결정적이라면 왜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 10:1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가? 왜 10:9-13은 인간이 응답해야 할 필요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2. 4 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치셨는가?”
3. 10:9-10에서 믿음과 관계된 요소를 열거하라.
4. 왜 바울은 이렇게 자주 구약을 인용하는가?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로마교회에 어떻게 관계되는가?
5. 11-13 절은 9 장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6. 14-15 절은 세계 선교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7. 10 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로마서 11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전체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은 아님	이스라엘의 거부가 최종적인 것이 아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의 남은 자
11:1-10	11:1-10	11:1-10	11:1-6 11:7-10	11:1-10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거부가 최종적인 것이 아님			미래에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임
11:11-12	11:11-36	11:11-12	11:11-12 이방인의 구원	11:11-15
11:13-16		11:13-16	11:13-15	유대인이 여전히 택한 백성임
11:17-24		감람나무의 은유	11:16-18	11:16-24
이스라엘의 회복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임	모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유대인의 회심
11:25-32		11:25-32	11:25-32	11:25-27 11:28-29 11:30-32
11:33-36		11:33-36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찬송함
			11:33-36	11:33-3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1 장은 선택과 복음의 역설적 관계를 계속해서 다룬다. 구약에서의 선택은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당신의 성구사전을 확인해 보라!). 어떤 면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신약) 섬기는 자(구약)가 되는 것 모두를 위해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은 공동체적인 것이며 또한 개인적인 일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는다(야곱/이스라엘 - 에서/에돔; 모세/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만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러한 긴장이 있다. 9-11 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타락한 인간의 반역을 강조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
- 선택은 누구를 배제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자께 응답하는 자에게 소망과 안전과 확신을 주는 기반이다.
- 나. 9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증거한다. 언약적 관계서 조차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10 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주장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신실하지 않음을 증거했기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의해 거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11 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신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할 것이다(참조, 신명기 8 장).
- 다. 현재와 같이 과거에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 믿지 않는 어떤 유대인들의 거부는 믿는 이방인들이 포함되게 했다. 이방인들이 포함됨으로써 (1)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이루는 것 혹은 (2) 하나님의 선택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만한 수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렇듯 이방인이 포함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일에 동기부여를 할 것이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1-6

¹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²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³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⁴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끓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⁵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⁶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11:1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은 “아니다”라는 답을 예상한다. 바울은 1b-10 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다. 이 단락은 반드시 바울의 이전 논의와 관계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9-11 장은 논의를 충족시키는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초기 헬라어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과 대문자 사본인 F와 G가 “백성” 대신에 “유업”을 사용하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것은 70 인역 시 94:14에서 왔을 것이다.

▣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가정적인 반대자가 하는 질문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징적인 방법이다(신랄한 비난, 참조,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바울은 믿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언급한다. 바울의 유대적 배경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빌 3:5을 보라.

11:2 “하나님이 . . .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은 시 94:14의 암시이다(참조, 신 31:6; 삼상 12:22; 왕상 6:13; 애 3:31-32). 이것은 1 절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이다.

▣ “그 미리 아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 8:29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4-6 절이 그려듯이 9 장으로 논점을 가지고 간다. 열쇠는 이스라엘의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시지 이스라엘의 행함을 인해 약속에 충실하신 것이 아니다(참조,겔 36:22-32).

▣ “성경이 . . . 가리켜 말한” 이것은 3 절에서 인용한 내용으로서 엘리야가 왕상 19:10에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것에 대한 언급이다.

11:1 “내가 나를 위하여 . . .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나를 위하여”는 맛소라 히브리 성경의 왕상 19:18에 있지 않다(바울은 맛소라 본문이나 70 인역에서 인용하지 않고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강조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왕상 19:18에서 충성스러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지 그들이 바울 숭배를 거부한 점에 있지 않다.

바울이 말하려는 점은 믿음이 없고 우상숭배를 하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조차 믿는 자의 작은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울의 시대에도 유대 민족의 믿는 남은 자들이 물론 있었다. 모든 시대에 일부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다. 바울은 이러한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인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5-6 절).

▣ “바알에게” 여기서 여성형 관사가 남성형 명사와 함께 쓰였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부끄러움”(보셋)이라는 여성형 히브리 단어에 사용된 모음을 이방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자음에 사용하여 그것들을 놀리기 위함이었다.

11:5-6 이 부분은 핵심적인 절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약의 일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내용이다. 자비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 연결고리를 이룬다(참조, 9:15, 16, 18; 11:30, 31, 32). 하나님의 은혜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인간의 믿음이 필요하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결코 기인하지 않는다(참조, 액 2:8-9; 딤후 1:9; 딘 3:5). 이러한 진리는 9-11 장에 걸쳐 있는 바울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된다(3:24의 설명을 보라, 참조, 6:23; 액 2:8-9).

▣ KJV는 6 절에 “그러나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면, 그때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를 추가하고 있다. 이 구는 대부분의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κ*, A, C, D, G 혹은 P 사본과 고대 라틴어 사본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κ^c, B 사본에만 다른 형태로 된 두 종류의 구가 나온다. UBS⁴는 이것의 생략에 “A”(확실함) 등급을 준다.

개역개정 11:7-10

⁷ 그런즉 어찌하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⁸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⁹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뒷과 거치는 것과 보옹이 되게 하시옵고 ¹⁰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7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것은 헬라어 문장에서 바울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맨 앞에 나온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구하여 종교적 예식, 혈통적 특권,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등 행위에 근거하여 이것을 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참조, 고전 1:29; 앱 2:9).



NASB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것을 얻었고”
NKJV	“그러나 선택된 자가 이것을 얻었고”
NRSV	“선택된 자가 이것을 얻었고”
TEV	“이것을 발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적은 규모의 사람들만 이었다”
JB	“오직 택하심을 입은 소수만”

이것은 구약의 “남은 자” 개념으로서 왕상 19:18에서 나오는 7,000명을 가리킨다. 열쇠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종, 혹은 종교성(6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참조, 앱 1:3-14).

▣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참조, 고후 3:14).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강팍하게 하셨다(참조, 8-10절)는 점이다. 악한 자가 우둔하게 한다(참조, 고후 4:4). “우둔함”(포로오)은 의학적 용어로서 못박힌 것처럼 단단함 혹은 소경됨을 뜻한다(참조, 롬 11:25; 고후 3:14; 앱 4:18). 이와 같은 용어가 딱 6:52에서 사도들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9:18에 나오는 은혜에서 멀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스클레루노)와는 다르다(참조, 히 3:8, 15; 4:7).

이 절은 매우 명확하며, 11:1-6의 요약을 이룬다. 택하심을 받은 어떤 이들은 믿었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어떤 이들은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절은 따로 떨어져 있어 신학적 구호를 나타내기 위해 기록한 절이 아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신학적 논쟁의 한 부분이다. 이 절에서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진리와 10장에 있는 우주적 초청 사이에 긴장이 있다. 여기에 신비가 있다. 진퇴양난의 국면이나 혹은 역설적 논리의 두 기둥에서 어느 한 쪽을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

11:8-10 이 절들은 사 29:10(8a), 신 29:4(8b) 절, 맛소라 본문이나 70인역에서 취하지 않음), 시 69:22-23(9-10절)의 인용이다. 이 내용은 사 6:9-13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을 참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응답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9:13, 15, 17에서 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우둔하게 하신다는 구약의 확증을 제시한다.

11:8

NASB, NKJV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감각한 영을 주셨다”
NRSV, JB	“하나님이 그들에게 굽힌 영을 주셨다”
TEV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과 심령을 둔하게 하셨다”

이 헬라어 단어(카타눅시스)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데 곤충이 물음으로 인해 너무 큰 자극을 받아 감각이 무디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11: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명령을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 뒤따르는 구조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할 반응 사이의 신비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자 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우둔하게 된다.

이 문맥에서 바울은 아담의 모든 자손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시기를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배제가 아니라 포함시키기 위한(참조, 액 2:11-3:13) 계획이다! 우둔하게 됨은 더 커다란 추수를 가져 온다!

개역개정 11:11-16

¹¹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¹²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¹³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¹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¹⁵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¹⁶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11:1과 같이 수사학적 표현이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적 논점을 다른 방법으로 계속하여 나간다. 1-10 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거부당한 것은 아니다; 11-24 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부는 영속적이지 않다;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이방인이 포함되었다.



NASB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NKJV, NRSV “그들이 걸려서 넘어졌느냐”

TEV “그들이 걸렸을 때 그들이 파괴되도록 실족하였느냐”

JB “유대인들이 영원히 넘어졌느냐 아니면 단지 걸린 것인가”

이 질문은 “아니요”라는 답을 예상한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영원한 상태는 아니다.



NASB “그들이 잘못으로”

NKJV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NRSV “그들의 걸림을 통해”

TEV “그들이 범죄했기에”

JB “그들의 넘어짐”

이 문맥에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참조, 12 절).

■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1 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진술인지(참조, 12 절; 행 13:46; 18:6; 22:21; 28:28)!

■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계획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1)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2)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개인적 믿음으로

회복시키심. 나는 개인적으로 2 항의 내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유대인의 부흥(참조, 습 12:10)을 말하든지 아니면 오늘날 메시아를 믿는 회당이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12-24 이 절들에서 유대인의 불신앙이 이방인의 믿음과 관계되는 10 개의 조건절이 계속된다. 12, 14, 15, 16, 17, 18, 21, 24 절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하고, 22, 23 절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11:12

NASB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크리요”
NKJV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NRSV	“하물며 그들의 가득 들어 올이 얼마나 더 의미함이리요”
TEV	“그렇다면 유대인의 완전한 수가 들어올 때 그 축복이 얼마나 더 크리요”
JB	“그때 그들 모두가 회심함으로 인한 유익이 얼마나 더 클지 생각하라”

이것에서 핵심에 있는 것은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용어의 해석이다. 이것은 (1) 유대인이 구원받음, 14b, 26a 절 혹은 (2) 선택받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최종적 숫자인가?

11: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9-11 장은 “왜 유대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 의해 거부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한편 왜 바울이 이 편지의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13-24, 25c 절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이의 문제였는지 혹은 믿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회당) 사이의 문제였는지는 불확실하다.

▣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바울은 독특하게 이방 세계를 향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다(참조, 행 9:15; 22:21; 26:17; 롬 1:5; 15:16; 갈 1:16; 2:7, 9; 딤전 2:7; 딤후 4:17).

▣

NASB, NKJV	“내 사역을 내가 뽑내노니”
NRSV	“내 사역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TEV	“내 일에 긍지를 가질 것이니”
JB	“또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내가 자랑하노니”

“뽑내다”라는 용어는 (1) 감사함 (2) 긍지 또는 아마도 (3) 어떤 것을 중시하다를 뜻할 수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바울은 (1)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였고 (2)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결국 그들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참조, 11, 14 절과 9:1-3 절).

11:14 “그들 중에서 열마를” 이것은 바울의 복음전도적 부르심이다. 그는 일부가 복음 설교에 응답하는 반면(참조, 고전 1:21)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을 알았다(참조, 고전 9:22). 이것은 선택의 신비이다(구약과 신약에서)!

11:15 선택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인류(코스모스)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유대인의 자기 의, 인종적 교만, 율법주의는 명확하게 믿음의 필요를 드러냈다(참조, 9:30-33).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야웨와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믿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는 열쇠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부가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의 사랑을 위한 여지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다!

■ “세상의 화목”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룬다. 이 용어는 카탸와 알랏소(변화시키다, 바꾸다, 변형시키다)에서 왔다. 이것은 적대감을 나눔에서 평화를 나누는 것을 가리키며, 따라서 호의의 회복을 말한다(참조, 롬 5:11; 11:15; 고후 5:18, 19). 하나님은 에덴에서의 교제를 회복할 길을 찾으신다. 죄가 그 교제를 망가뜨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들은 화목되었고 받아들여졌다(15 절과 평행). 인간이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11:16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민 15:17-21의 암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으로서 전체 수확이 하나님께 속함을 나타내는 구약의 첫 열매 개념과 비슷한 은유이다.

고대의 믿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국가 전체에 영향을 나타내었다(참조, 창 18:27-33; 고후 7:14). “첫 부분”의 은유는 “뿌리”(참조, 렘 11:16-17)와 평행을 이루고, 둘 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일컬으며 특히 구약의 족장들을 가리킨다(참조, 28 절).

개역개정 11:17-24

¹⁷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¹⁸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¹⁹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²⁰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쟁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²¹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²²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²³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²⁴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11:17 “만일” 11:12-24의 설명을 보라.

■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참조, 18, 19 절, “원 가지,” 21 절).

■ “돌감람나무” 이것은 복음 설교에 응답한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 “접붙임이 되어” 바울은 16 절에서 시작한 농업적 은유를 계속 사용한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있는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많은 소출을 가져오게 한다(참조, 24 절).

■ “참감람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다(참조, 24 절; 시 52:8; 128:3; 렘 11:16; 호 14:6).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구약의 두 번째 은유이다.

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현재 명령과 부정을 뜻하는 불변화사가 함께 쓰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이 절은 13, 20, 25 절과 함께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11:19-20 19 절은 또 다른 신랄한 비난(추정되는 반대자에 대한)이다.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거부되었는가를 설명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인함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참조, 창 3:15)과 그들의 믿음을 인해 포함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시기심을 일으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11, 14 절).

11:20

NASB	“그러나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NKJV	“그리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NRSV	“그러나 너는 믿음을 인하여서만 섰느니라”
TEV	“네가 믿으므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JB	“네가 여전히 굳건히 붙잡는다면, 이것은 오직 너의 믿음을 인함이니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10 개의 조건절이 있는 문맥에 위치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믿음으로써 이고 또한 믿음으로써 계속된다. 만일 믿음이 그친다면 우리가 서는 것도 그친다. 구원은 (1) 최초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2) 믿음에 있는 상태이고 (3)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며 (4) 믿음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 가운데 단지 한 가지만 강조하는 어떤 종류의 신학 체계도 주의하라. 10:4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시며 구원을 시작하는 분이시고 구원을 유지하는 분이시며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시지만, 언약의 형태를 따르신다. 하나님은 이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죄있는 인간이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계속해서 응답하도록 택하셨다.



NASB	“속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NKJV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NRSV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경외함을 가지라”
TEV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JB	“너를 자랑하기 보다 네가 두려워하게 하라”

이 두 문장은 다 현재 명령으로 되어있다. 처음 것은 부정 불변화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문제를 드러낸다. 21 절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언급된다.

11:21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배교하여 교만한 불신앙으로 야웨로부터 떠나 가고 꺾이어 졌듯이, 교회도 만일 교만한 자기 의를 인해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떠난다면 꺾이어질 것이다. 처음 믿음은 반드시 삶의 양식으로 된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한다(참조, 마 13:1-23; 막 4:1-12; 뉴 8:4-10). 교만을 계속해서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현재의 우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형제자매이다!

11:22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항상 역설적으로 보인다(참조, 사 55:8-11).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하신 일은 각 개인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았다.

▣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유형 문장이 현재 가정법과 함께 쓰인 경우이다. 이 구문은 믿는 이방인의 계속성을 조건적임을 뜻한다(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롬 9 장의 다른 면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해야만 한다(참조, 빌 2:12-13). 이것은 단체와 개인 양 쪽의 인내를 가리킨다(참조, 갈 6:9; 계 2:7, 17; 3:6, 13, 22). 이것은 성경에 있는 단체성과 개별성의 신비와 긴장을 나타낸다. 약속(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함)과 조건적 언약(인간의 반응에 기초함)이 함께 있다. 8:25 의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를 보라.

11:23 이 절은 22 절의 문법적 신학적 패턴을 따른다. 만일 유대인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그들이 포함될 것이다. 만일 이방인이 믿기를 멈춘다면 그들은 거부받을 것이다(참조, 20 절).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것과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것이 양 편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개역개정 11:25-32

²⁵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²⁶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²⁷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²⁸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²⁹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³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³¹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풀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³²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11:25 “형제들아 . . .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특징적인 관용어이다 (참조, 1:13; 고전 10:1; 12:1; 고후 1:8; 살전 4:13).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이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진실로 진실로”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바울은 새 주제를 다룸을 알려 주기 위해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한다.



NASB, NKJV,

NRSV

“신비”

TEV

“비밀스러운 진리”

JB

“이 모든 것의 감추인 이유”

특별주제: 신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의 구속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가지셨다(참조, 창 3 장). 이 계획에 대한 암시가 구약에서 나온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또한 예언서에 있는 우주적 본문들). 그러나 이러한 것의 모든 내용은 분명하지 않았다(참조, 고전 2:6-8). 예수님과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것은 훨씬 더 분명하게 되었다. 바울은 “신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구속적 계획을 전체적으로 일컫는다(참조, 고전 4:1; 엡 6:19; 골 4:3; 딤전 1:9). 그러나 그는 이것을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1. 이방인들을 포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분이 완악하게 된 것.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 온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처럼 예수를 유대인들이 영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다(참조, 롬 11:25-32).
2.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민족들에게 알려졌다(참조, 롬 16:25-27; 골 2:2).
3. 신자들은 재림의 때에 가지는 새 몸(참조, 고전 15:5-57; 살전 4:13-18).
4.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심(참조, 엡 1:8-11).
5.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후사가 됨(참조, 엡 2:11-3:13).
6.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가 결혼이라는 용어로 설명됨(참조, 엡 5:22-23).
7. 이방인들이 언약백성에 포함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주하사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을 가져 옴, 즉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6:5, 11-13; 8:21)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참조, 창 1:26-27; 5:1; 9:6; 골 1:26-28).

8.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참조, 살후 2:1-11).
9. 신비에 대한 초대 교회의 요약은 딤전 3:16에 나온다.

▣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에 로마 교회(들)에 있는 긴장에 대한 또 다른 암시가 나타난다(참조, 18 절).



NASB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
NKJV	“일부가 우둔하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
NRSV	“이스라엘의 일부에게 우둔하게 됨이 일어났다”
TEV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게 된 것이 영속적이지 않은 것”
JB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소경되었다”

이 진술은 11 장 전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일부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부분이 소경됨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로서(8-10 절) 모든 인류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참조, 창 12:3).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참조, 출 19:5-6). 이스라엘은 교만함과 불성실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주신 선교의 일을 실패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축복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원하셨다(참조, 신명기 27-29 장).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수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심판을 취하여 사용하사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속을 얻게 하시려던 원래의 계획을 이루신다(참조, 30-31 절; 갤 36:22-38).

▣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와 같은 용어(플레로마)가 12 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용된다. 두 절 다 하나님의 예지와 선택을 말한다. “~까지”는 이 이방인의 시기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것이다(참조, 뉘 21:24).

11:26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있다: (1)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킨다—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기에 있어서 대다수의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 (2)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 개념을 롬 2:28-29; 갈 6:16; 베전 2:5, 9; 계 1:6에서 사용한다. 12 절에 있는 “유대인의 충만함”과 25 절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평행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모든”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각 사람을 모두 뜻하는 의미가 아니다. 약속의 참 감람나무는 어느 날 완전케 될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것이 분명한데, 이는 오직 (1) 9-11 장의 문맥 (2) 26-27 절에 있는 구약의 인용문 (3) 28 절에 있는 분명한 진술에 이유에서 그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에 속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나아와야 한다(슥 12:10).

“우둔해 진”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응답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 본문이나 혹은 다른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미국인인 우리는 개인과 관계된 질문을 하도록 문화적 영향을 받지만 성경은 공동체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정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 “기록된 바” 이것은 70 인역 사 59:20-21(26 절)과 27:9(27 절)에서 취한 인용이다. 구원의 방법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하나이다(참조, 요 10:7-18; 11:25-29; 14:6).

11:27 27 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 27:9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1-11 절)을 전통적으로 여겨진 적(이방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초청(12-13 절)과 결합시킨다. 만일 이 회복이 문자적인 것을 말한다면 천년왕국이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이 비유적이라면 복음의 신비인 새 언약을 말할 것이다. 그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참조, 앱 2:11-3:13). 이것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구약의 어떤 예언은 새 언약적 교회에 적용된다. 심지어 인간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참조, 갤 36:22-36).

11:28 이 절은 선택의 쌍동이 측면을 나타낸다. (1) 구약에서 선택은 섬김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셨다 (2) 신약에서 선택은 복음과 및 영원한 구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구원이 항상 목적이 되었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것은 구약의 신자와 신약의 성도들에게 사실이다. 인간의 충성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되심이 열쇠이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열쇠이다. 선택은 축복을 위한 것이지 배제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것은 출 20:5-6과 신 5:9-10; 7:9에 있는 약속이다. 이전 세대가 가진 믿음을 인해 가족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신실한 족장들을 인하여 축복을 받았다(참조, 신 4:37; 7:8; 10:15). 메시아가 유다로 부터 오실 것은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다(참조, 삼하 7장). 그러나 “신실한”자들일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참조, 갤 36:22-36). 믿음—개인의 믿음과 가족적 믿음을 말하지만 완벽한 믿음은 아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며 또한 가족을 통해 이어져 갈 잠재력을 가진다(참조, 고전 7:8-16).

11:29

NASB, NKJV,

NRSV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TEV “하나님은 택하고 축복하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느니라”

JB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은사를 무르시거나 자신의 선택을 되돌리지 않으시느니라”

이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것(참조, 고린도전서 12장)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말한다. 선택은 선택적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국가의 소망이다(참조, 말 3:6)!

11:30-32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요약이다: (1)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지(9:15-16의 설명을 보라) 변덕스러운 결정에 기초하지 않는다. “자비”라는 용어가 이것의 확대된 문맥에서 4회 사용된다(참조, 9:15, 16, 18, 23). (2)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다(참조, 3:9, 19, 23; 5:11). (3) 하나님은 인류의 필요와 그들의 무능력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는 기회로 삼으신다(참조, 22절).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 문맥에서 “모든”은 12절과 25-26절에 비추어 이해해야만 한다.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제안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구속의 관점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다(참조, 5:12-21; 요 3:16). 오! 하나님, 이 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1:30과 31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예수를 믿는 영적 회심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방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극복되었듯이 유대인의 “불신앙”도 그렇게 극복될 것이다.

개역개정 11:33-36

³³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³⁴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³⁵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깊으심을 받겠느냐 ³⁶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1:33-36 이것은 바울이 즉흥적으로 드리는 놀라운 송영의 하나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암도되었다: 언약의 신실함, 언약에 포함됨, 언약의 절정.

11:3 “풍성함”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참조, 2:4; 9:23; 10:12; 11:12, 33; 엡 1:7, 8; 2:7; 3:8, 16; 빌 4:19; 골 1:27). 복음과 인간의 소망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자비하심으로 풍성하심에 있다(참조, 사 55:1-7).

▣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은 9-11 장에 있는 역설적 진리에 대한 적합한 송영이다(참조, 사 55:8-11).

11:34 이것은 70인역 사 40:13-14의 인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구출하신다는 내용이다. 고전 2:16에서 바울은 같은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호칭에 사용한다.

11:35 이것은 옵 35:7 혹은 41:11의 느슨한 인용이다.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구는 이 문맥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참조, 고전 11:12) 신약에서 이것과 매우 비슷한 본문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참조, 고전 8:6; 골 1:16; 히 2:10).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단언한다.

▣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독특한 내용이다. 이것은 (1) 때때로 성부를 가리키고(참조, 16:27; 엡 3:21; 빌 4:20; 벤전 4:11; 5:11; 유 25 절; 계 5:13; 7:12) (2) 때로는 성자를 가리킨다(참조, 딤전 1:17; 딤후 4:18; 벤후 3:18; 계 1:16). 3:23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아멘” 1:25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가?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지 않으셨다고 바울이 입증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3.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4. 유대인의 개념인 “남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2-5 절)?
5. 신약에서 “신비”라는 용어를 정의하라.
6. 11:26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어떻게 이 절이 9:6 과 관련이 있는가?
7.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17-24 절)?

로마서 12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 12:1-2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12:1-2	하나님께 드려진 삶 12:1-2	하나님을 섬기는 삶 12:1-2	영적 예배 12:1-2 겸손과 관용
12:3-8		12:3-8	12:3-8	12:3-8
그리스도인 삶의 규정 12:9-21	그리스도인 답게 행동함 12:9-21	권면		원수를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관용함 12:9-13 12:14-16 12:17-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8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로마서의 실제적인 영역을 다루는 부분의 시작이다(12:1-15:13).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위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이 있다. 바울은 지역 교회의 문제와 위기에 대해 언급한다. 로마서 1-8 장이 교리적으로 놀라운 요약이듯이 이 책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도 똑같이 강력하다.
- 나. 삶에 적용이 없는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참조, 마 7:24-27; 요 13:17; 롬 2:13; 약 1:22, 25; 2:14-26).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저 누리는

구원을 명확하게 가르친다. 하지만 거저 누리는 이 선물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구원을 거저로 주시지만, 이것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 다. 1-2 절은 실천적인 부분 전체에 대한 서론을 이룬다.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의 기초이다(즉, 8 장).
- 라. 3-8 절은 영적 은사를 논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참조, 신 6:4-5; 마 22:37)과 다른 이를 섬기는 일(참조, 레 19:18; 마 19:19)로 나타난다. 이러한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또한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를 강조한다(참조, 앱 4:1-10). 신자들은 획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애써야 한다. 우리가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참조, 고전 12:7, 11; 앱 4:11-13)!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2:1

¹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에게 빼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²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복음 진리를 제시할 때 중요한 전환을 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5:1 이하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요약하고; 8:1 이하에서 이것은 거룩하다고 여기심을 입은 신자들의 죄에 대한 관계를 요약하고; 12:1 이하에서 이것은 신자의 일상생활에서 칭의와 성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여 준다.

12:1

NASB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NKJV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NRSV, TEV	“내가 너희에게 호소하노니”
JB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 구는 부드러운 동시에 강력하다. 이것은 적합한 삶을 살라는 요청이다. 바울은 종종 이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12:1; 15:30; 16:17; 고전 1:10; 4:16; 16:15; 고후 2:8; 5:20; 6:1; 10:1; 12:8; 앱 4:1; 빌 4:2; 살전 4:10; 딥전 1:3; 롬 9-10 절).

▣ “형제들아” 바울은 종종 새 주제를 시작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70 인역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는 성품을 나타낸다(참조, 출 34:6). 여기서 이것은 1-11 장에서 다룬 교리의 진행을 가리킨다. 로마서에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대하심에 있어서 가지신 “자비”에 분명한 강조를 보인다(참조, 9:15, 16, 18, 23; 11:30, 31, 32; 12:8; 15:9).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거저로 제공되기에 신자들은 반드시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참조, 앱 2:8-9) 감사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앱 1:4; 2:10).

▣ “드리라” 이것은 **부정과거 부정사**이다. 이것은 이 문맥에서 사용된 제사와 관련된 여러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제물(1 절); 거룩한(1 절); 기뻐하시는(1 절). 이와 같은 개념이 6:13, 16, 19에서 표현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드리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특별히 주셨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반드시 본 받아야 한다(참조, 고후 4:14-15; 갈 2:20; 요일 3:16).

▣ “너희 몸을” 기독교는 육체적 몸이 악하다고 여긴 헬라의 철학과 매우 다르다. 육신은 유혹을 받는 짜움터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다. “몸”이라는 용어는 2 절의 “마음”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들이 이전에 죄에게 자신들을 드렸듯이(참조, 로마서 6 장) 자신의 존재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참조, 신 6:5; 고전 6:20).

▣ “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교도의 성전에서 죽은 제물을 드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참조, 6:13; 갈 2:20).

이것은 금욕주의(종교적 목적을 위해 육체를 가혹하게 다루는 것)와 구별되어야 한다. 육체를 가두고 벌하거나 혹은 독신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삶을 살 것을 여기서 말한다.

▣ “거룩한 제물” “거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함”이다. 이 문맥에서 이 용어의 초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신자가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주제: 거룩

I. 구약의 용법

- 가. 이 용어(카도쉬)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가나안어에서 나온 말일 수 있다. 이 단어의 어근(즉, 카드)의 일부가 “나누다”를 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함”(가나안 문화에서, 참조, 신 7:6; 14:2, 21; 26:19)을 뜻하는 일반적인 정의의 기원이다.
- 나. 이것은 제사를 위한 물건, 장소, 시간,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이 의미는 창세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 다. 예언서 이전 시기에는 나타났지만 강조되지 않았던 사람과 관련된 용법이 예언서(특히 이사야서 호세아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참조, 사 6:3).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의 백성은 거룩하다(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을 순종한다면).
- 라.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은 언약, 정의, 본질적 성품과 같은 신학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였고 반역적인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갈등이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글이 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112-113쪽에 있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의 사상을 가졌지만(누가만 제외하고는) 코이네 헬라어(즉, 70 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어휘에 영향을 끼친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었지 전통적 헬라어 문학, 사상, 또는 종교가 아니었다.
- 나.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참조, 뉴 1:35; 4:34; 행 3:14; 4:27, 30). 그는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다(참조, 행 3:14; 22:14).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거룩하시다

(참조, 요 8:46; 고후 5:21; 히 4:15; 7:26; 벤전 1:19; 2:22; 요일 3:5).

-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레 11:44-45; 19:2; 20:7, 26; 마 5:48; 벤전 1:16). 예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롬 8:28-29; 고후 3:18; 갈 4:19; 앱 1:4; 살전 3:13; 4:3; 벤전 1:15).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닮아 섬기도록 구원받았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은 구약에서 적합한 현물을 가리킨다(참조, 2 절). 사람에게 대해 사용할 때 이것은 “흠없는”의 개념과 비슷하다(참조, 창 6:9; 17:1; 신 18:13; 옵 1:1).



NASB	“이는 너희 예배의 영적 섬김이니라”
NKJV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NRSV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TEV	“이것은 너희가 드려야 하는 참 예배니라”
JB	“생각하는 존재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이 용어 [로기코스]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다”를 뜻하는 로기조마이에서 왔다(참조, 막 11:31; 고전 13:11; 빌 4:8). 이 문맥에서 이것은 이성적 혹은 합리적임을 뜻한다. 한편 이 용어는 벤전 2:2에서 보듯이 “영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핵심적인 의미는 죽은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 예식이나 죽은 예배와 대조되는 예배로서 사람의 진실된 자아로 드리는 양심의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다.

12:2 “본받지 말고” 이것은 현재 수동 명령(혹은 완료 중간태)이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출 것을 말한다. 2 절에는 빌 2:6-8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대조가 있다. 즉 변화하는 외적모습(스키마, 2:8)과 변화하지 않는 내적 본질(모폐, 2:6-7)의 대조이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타락한 세계 조직(반역하는 옛 세대)을 따라 변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닮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것(성령의 새 세대)을 권고받는다.

▣ “이 세대” 이것은 문자적으로 “세대”이다. 유대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참조, 갈 1:4; 고후 4:4; 앱 2:2)와 오는 세대(참조, 마 28:20; 히 1:3; 요일 2:15-17)의 두 세대로 구분했다. 신자들은 이 세대들이 놀랍게 겹침으로 인해 긴장이 가득한 때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을 인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임했지만 또한 앞으로 임할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서 사는 것이다.

특별주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새 날을 보았다(참조, 사 65:17; 66:22).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심지어 포로기 이후에도)을 인해 신구약 중간시기에 쓰여진 묵시문학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즉, 애녹 1서, 에스라 4서, 바룩 2서). 이 책들에는 두 세대가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과 오실 메시아(종종 강력한 전사)가 주장하는 다가올 의의 세대와 사탄이 주장하는 현재의 악한 세대.

이러한 신학적 영역(종말론)에 사상의 발전이 분명히 나타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점진적 계시”로 말한다. 신약은 두 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 우주적 실재를 제시한다(즉, 시간적 이중성):

<u>예수</u>	<u>바울</u>	<u>히브리서</u>
마태복음 12:32	로마서 12:2	1:2
마태복음 13:22&29	고전 1:20; 2:6, 8; 3:18	6:5
마가복음 10:30	고후 4:4	11:3
누가복음 16:8	갈라디아서 1:4	
누가복음 18:30	엡 1:21; 2:1, 7; 6:12	
누가복음 20:34-35	디모데전서 6:17	
	디모데후서 4:10	
	디도서 2:12	

신약의 신학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두 세대가 겹쳐지는데, 이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또 간과된 예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성육신은 새 세대가 도래함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께서 심판자와 정복자로 오심을 말하면서도 또한 그가 처음에 겸손하고 온유한(참조, 속 9:9) 고난받는 종(참조, 사 53 장)으로서 오실 것을 말한다. 구약이 예언하듯이 그는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계 19 장). 이렇듯 두 단계에 걸친 성취는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임했고(시작됨)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완전히 완성되지 않은)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 “변화를 받아” 신자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용어의 문법적 형태는 **현재 중간태 명령**으로서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계속하라,” 또는 **현재 수동 명령**으로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이다. 이것은 2a 절의 “본받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대조가겔 18:31(인간의 헌신과 행동)과 겸 36:26-27(하나님의 선물)에 나타난다. 둘 다 필요하다! 이 단어가 “변화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참조, 마 17:2)에서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예수의 참된 본질이 드러남을 가리킨다. 이러한 참된 신적 본질(참조, 벤후 1:3-4)은 모든 신자 안에 형성되어야 할 내용이다(참조, 고후 3:18; 엡 4:13).

■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크로노스)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카이노스)을 뜻하는 헬라어 어근에서 왔다. 유대인들은 보고 듣는 감각이 영혼의 창문이라고 여겼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대로 된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해 신자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참조, 엡 4:13, 23; 딤 3:5). 이러한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새로이 믿은 자의 마음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신자는 그들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실재를 바라본다. 새로 구속을 받고 성령에 의해 이끄심을 받는 마음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져온다!

특별주제: 새롭게 함(アナカイノ시스)

이 헬라어의 여러 형태(アナカイノ오, アナカイニ조)는 두 가지 기본 의미를 가진다.

1. “어떤 것이 새롭고 다른 것이 되게 하다(즉, 더 좋게)” – 롬 12:2; 골 3:10

2. “이전의 좋은 상태로 바꿔게 하다” – 고후 4:14; 히 6:4-6

(로우와 니다의 헬라어-영어 사전, 제 1권 157, 594 쪽에서 가져옴)

물론과 밀리간(헬라어 성경의 어휘)은 이 용어(즉, 아나카이노시스)가 바울서신보다 이를 시기의 헬라 문학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었을 것이다(34 쪽).

프랑크 스택은 신약신학에서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중생과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새롭게 됨’을 말하는 아나가이노시스는 행동을 표현하는 명사로서, 이것은 계속적인 새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동사형과 함께 신약에서 사용된다. 그 예로는 롬 12:2,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와 고후 4:16,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가 있다. 골 3:10은 ‘새 사람’을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설명한다. 따라서 ‘새 사람,’ ‘새 생명,’ ‘중생’ 혹은 ‘새롭게 됨’은 어떻게 표현되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행위와 계속적인 행위로 연결이 된다” (118쪽).

▣ “하나님의 ...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것은 현재 부정사이다. 이 단어(도키마조)는 “확인을 위해 시험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2:19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참조, 요 6:39-40)이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참조, 롬 8:28-29; 갈 4:19; 앱 1:4; 4:13, 15; 5:17-18).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다음에 기초한다.

1.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2. 성령의 내주하심(참조, 롬 8:14-16)
3. 신자의 삶이 바뀌었고 또 그것이 지속되는 것(참조, 야고보서 & 요한일서) “열매가 없으면 뿌리가 없는 것이다”(참조, 마 13:1-9, 19-23).

▣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뜻(셀레마)

요한복음

-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참조, 4:34; 5:30; 6:38)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것(참조, 6:39)
- 아들을 믿는 모든 자(참조, 6:29, 40)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응답받는 기도(참조, 9:31; 요일 5:14)

공관복음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참조, 마 7:21)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다(참조, 마 12:5; 막 3:35)
- 어떤 것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참조, 마 18:14; 딤전 2:4; 벤후 3:9)
- 갈보리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마 26:42; 뉘 22:42)

바울서신

- 모든 믿는 자들의 성숙과 봉사(참조, 롬 12:1-2)
-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참조, 1:4)
- 하나님의 뜻은 그의 구속 계획이었다(참조, 앱 1:5, 9, 11)
- 성령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사는 믿는 자들(참조, 앱 5:17)
-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믿는 자들(참조, 골 1:9)
-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골 4:12)
- 거룩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살전 4:3)
-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는 자들(참조, 살전 5:18)

베드로 서신

- 옳은 것을 행하는 믿는 자들과(즉,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 잠잠한 어리석은 자들(참조, 벤전 2:15)
- 고통 받는 믿는 자들(참조, 벤전 3:17; 4:19)
-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믿는 자들(참조, 벤전 4:2)

요한서신

- 영원히 사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2:17)
-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가 되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5:14)

▣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항목들은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참조, 빌 4:4-9).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이다 (참조, 마 5:48).

▣ “온전하신” 이 용어는 “성숙한, 주어진 과제를 이룰 수 있게 완전히 준비된, 잘 익은, 빠짐이 없는”을 뜻한다. 이것은 “죄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1) 부러졌던 팔이나 다리가 고쳐져서 쓸모있게 회복됨 (2)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수선이 되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쓸모있게 됨 (3) 병아리가 자라 시장에서 닭을 튀기는 사람에게 팔릴 수 있을 만큼 자람 (4) 배가 항해를 위해 정비됨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12:3-8

³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⁴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⁵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⁶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⁷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⁸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12:3 1-2 절은 “새 마음”的 필요를 강조한다. 3 절에서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4 중적인 언어유희가 있다. 존더반 연구 안내 주석, 로마서에서 부르스 콜리와 쿠르티스 보한은 이러한 관찰을 한다:

“과장된 생각 . . . 적절한 생각 . . . 목적이 있는 생각 . . . 정신이 바른 생각”(138쪽). 이 특징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 절은 11:13-24 과 같이 (1)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 혹은 (2) 바울이 만났던 거만하고 자기 과시적인 신자가 있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사실(그의 세 번째 선교여행의 말미에서)을 반영한다.

▣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즉,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 이 문맥에서 “은혜”는 영적인 은사와 관련이 있지(참조, 15:15; 고전 3:10; 15:10; 갈 2:9; 앱 3:7-8), 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롬 4 장). 이것은 바울의 회심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을 가리킨다 (참조, 행 9:15; 롬 1:1, 5; 갈 1:15-16; 2:7-8; 앱 3:1-2, 8; 딥전 2:7; 딥후 4:17).

▣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3 절의 경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것이지 지도자들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다.

■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1:30 의 특별주제: 바울의 휘페르 합성어 용법을 보라.

■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참조, 고전 12:11; 앱 4:7). 은사는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참조, 고전 12:7).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이 뽑내고 다니라는 공로 훈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섬김의 수건이다.

■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은 신자가 자신의 영적 은사에 따라 효과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을 가리킨다(참조, 6 절).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서 행해져야만 한다(참조, 9-12 절; 갈 5:22-23). 선물이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나누어 주신 예수의 사역이고, 열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효과적 사역을 위해 둘 다 필요하다.

12:4 이것은 바울의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유이다. 사람의 몸의 지체가 서로 의존적인 사실은 교회의 은사를 나타낸다(참조, 고전 12:12-27; 앱 1:23; 4:4, 12, 16; 5:30; 골 1:18, 24; 2:19). 기독교는 공동체적이며 개인적이다!

12:5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 절은 신자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가 갖는 긴장을 나타낸다. 사랑의 장인 고전 13 장은 은사의 다양성이 갖는 긴장을 다룬다(참조, 고전 12 장과 14 장). 그리스도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다!

12:6-8 이 절들은 헬라어에서 주된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두개의 분사로 한 문장을 이룬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3 인칭 명령형으로 번역된다, “우리가 사용합시다”

12:6 “은혜대로 . . . 은사가” “은사”(카리스마)와 “은혜”(카리스)는 “거저 준”이라는 의미를 갖는 같은 헬라어 어근에서 왔다. 3:24 의 설명을 보라.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 장, 로마서 12 장, 에베소서 4 장과 베드로전서 4 장에 그 항목이 나온다. 항목과 순서가 똑 같지 않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대표적인 것이지 모든 것을 다룬 것은 아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적 은사(들)를 알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 자료로서 이 문제에 대한 원리를 가장 잘 다룬 것은 IVP 출판사의 소책자인 폴 리틀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 신자가 효과적으로 섬길 영역을 아는데 활용된다. 신자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은사를 받고 어떤 종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 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중요하다.

■ “만일” 이것은 에이태(참조, 6, 7[2 회], 8 절)로서 “만일 . . . 만일” 혹은 “이든지 . . . 이든지”의 의미이다. 종종 현재 직설법이 뒤따라 온다(참조, 고전 12:26; 고후 1:6), 이 절에서는 동사가 뒤따라 오지 않는다(참조, 고전 3:22; 8:5; 고후 5:10). 따라서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 “예언”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된(영감된) 메시지라고 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성경(영감)을 기록했다. 신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였다. 이것은 또한 예고를 동반할 수 있다(참조, 행 11:27-28; 21:10-11). 새로운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신자가 행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고(참조, 고전 14:1, 39) 또한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고전 12:28; 14:29; 앱 4:11). 이와 같은 넓은 의미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고린도서에서 나타난다(참조, 고전 12:10, 12; 13:8; 14:1, 5, 29, 39).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

- I.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야웨로부터 받은 영감된 계시로 보는 랍비들의 견해와 같은 것이 아니다(참조, 행 3:18, 21; 롬 16:26). 선지자들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 가. 모세는 선지자로 불렸다(참조, 신 18:15-21).
 - 나. 역사서(여호수아 – 열왕기서[룻기는 제외])는 “전기 예언서”로 불렸다(참조, 행 3:24).
 -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선지자들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했다(참조, 이사야 – 말라기).
 - 라. 히브리 정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이다(참조, 마 5:17; 22:40; 뉴 16:16; 24:25, 27; 롬 3:21).
- II. 신약에서 이 개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 가. 구약의 선지자와 그들이 전한 영감받은 메시지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 5:12; 11:13; 13:14; 롬 1:2)
 - 나. 공동체에 대한 것보다 개인에게 준 메시지를 가리킨다(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11:9; 14:5; 21:26; 뉴 1:76)과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마 13:57; 21:11, 46; 뉴 4:24; 7:16; 13:33; 24:19).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으로 나타내었다(참조, 마 11:9; 12:41; 뉴 7:26)
 - 라. 신약에서 언급한 다른 선지자들
 1.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초기 삶(즉, 마리아의 기억)
 - ㄱ. 엘리사벳(참조, 뉴 1:41-42)
 - ㄴ. 사가랴(참조, 뉴 1:67-79)
 - ㄷ. 시므온(참조, 뉴 2:25-35)
 - ㄹ. 안나(참조, 뉴 2:36)
 2. 아이러니한 예고(참조, 가야바, 요 11:51)
 - 마.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가리킨다(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한 목록은 고전 12:28-29; 앱 4:11에 나온다)
 - 바.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은사로 언급된다(참조, 마 23:34; 행 13:1; 15:32; 롬 12:6; 고전 12:10, 28-29; 13:2; 앱 4:11). 어떤 때는 이것은 여자에게 사용되었다(참조, 뉴 2:36; 행 2:17; 21:9; 고전 11:4-5)
 - 사. 목시적 책인 계시록을 가리킨다(참조, 계 1:3; 22:7, 10, 18, 19)
- III. 신약의 선지자
- 가.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즉, 성경)과 같은 의미에서 영감받은 계시를 준 것이 아니었다. 행 6:7; 13:8; 14:22; 갈 1:23; 3:23; 6:10; 빌 1:27; 유다서 3, 20 절에서 사용된 “믿음”(즉, 완성된 복음이라는 의미)이라는 표현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가능하다.
이 개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완전한 표현이 사용된 유다서 3 절에서 분명하게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과 관련된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듯 “단번에”를 통해 나타난 강조는 신학적으로 영감을 신약 이후에 쓰여진 책이나 성경 이외의 책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신약의 기록으로 제한시키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신약에는 애매하고, 확실치 않고, 불분명한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믿음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에 잘 드러난다.

1.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택하사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 기록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이는 완벽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원과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정도이다(조명)

요점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성경 이외에 권위를 갖는 기록, 비전,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는 성경 저자들이 일치하고 있음에 반해 진실되고 경건한 신자들은 불일치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어떤 저자나 강사도 성경의 저자들이 누렸던 정도의 신적 인도함을 갖지 못한다.

- 나.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하다.
 1. 미래 사건의 예언(참조, 바울, 행 27:22; 아가보, 행 11:27-28; 21:10-11;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 행 20:23)
 2. 심판을 선언함(참조, 바울, 행 13:11; 28:25-28)
 3. 상징적 행동으로 생동감있게 묘사된 사건(참조, 아가보, 행 21:11)
- 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때는 예언적 방법으로 전했다(참조, 행 11:27-28; 20:23; 21:10-11). 하지만 이 방법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기본적으로 복음전함을 뜻한다(참조, 14:24, 39).
- 라.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각각의 새 상황, 문화, 시대에 적합한 실제적 적용을 하도록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다(참조, 고전 14:3).
- 마. 예언은 바울이 세운 초기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행해졌고(참조, 고전 11:4-5; 12:28, 29; 13:29; 14:1, 3, 4, 5, 6, 22, 24, 29, 31, 32, 37, 39; 엡 2:20; 3:5; 4:11; 살전 5:20), 디디캐(1세기 말이나 2세기 경에 쓰여진 책, 정확한 연대는 불확실함)와 2-3세기 북 아프리카에서 있던 몬타니즘에서 언급된다.

IV. 신약의 은사는 그쳐졌는가?

- 가. 이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은사의 목적을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은사는 초기에 행해진 복음 설교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교회가 잃어버려진 세상과 자신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함이었는가?
- 나. 이 대답을 위해서 교회사를 고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약성경 자체를 살펴볼 것인가? 신약에는 영적은사가 일시적이었다는 언급이 없다.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고전 13:8-13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오용하는 것이다.
- 다. 나는 교회사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은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말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편 나는 문화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어떤 구절은 명백히 다른 문화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예, 거룩한 입맞춤,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 등). 만일 문화가 본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왜 교회사는 안되는가?
- 라. 이것은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어떤 신자들은 은사가 “그쳤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해석적 문제와 같이 이 영역에서도 신자의 생각이 열쇠가 된다. 신약의 내용이 애매하고 문화적 영향을 나타낸다. 어떤 본문이 문화/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어떤 본문이 영원한 내용인지는 결정해야 할 어려운 사항이다(참조, 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4-19, 68-77 쪽). 이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롬 14:1-15:13 과 고전 8-10 장에 나오는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1. 각 신자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2. 다른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이해에 따라 겉도록 각 신자가 반드시 서로 허용해야만 한다. 성경의 영역에 반드시 관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
- 마.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자면,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하는 삶이지 완전한 신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확한 이해나 완전한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3 절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참조, 앱 4:7)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자가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큰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자가 갖는 태도, 동기, 힘과 관련된다. 신자의 사역들은 기본적으로 갈 5:22-23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속한다.

12:7

NASB	“혹 섬김이면”
NKJV, NRSV	“또는 사역이면, 이것을 우리의 사역에서 사용하자”
TEV	“혹 이것이 섬기는 일이면, 우리는 섬겨야 한다”
JB	“혹 행정이면, 그 때는 이것을 행정을 위해 사용하자”

현대의 번역이 각기 다른데 이는 이 헬라어(*διακονία*)에 정확히 일치하는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1) 실제적인 섬김 또는 (2) 행정을 뜻한다(참조, 행 6:1; 고전 12:5, 28). 해롤드 K 블톤의 개정된 헬라어 분석사전은 롬 12:7; 고전 12:5; 골 4:17; 딤후 4:5에 있는 이 단어를 “기능, 사역, 또는 지위”로 정의한다(92쪽). 문맥적 초점이 다른 신자를 돋는 것에 있다.

▣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은사(*διδασκο*)는 고전 12:28과 14:26에 나온다. 이것은 행 13:1에서는 선지자와 앱 4:11에서는 목회자와 관련이 있다. 초대교회는 이 일에 은사가 있는 자들을 어느 정도 겹쳐지는 것으로 보았다.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속하지만 그 강조점과 방법은 서로 다르다.

12:8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용어(*παρακαλέω*)는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참조, 딤전 4:13). 이것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기술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앱 4:15, 16에 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 . .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와 연결이 될 것이다.

▣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관대한/진실된(하프로테스)

이 용어(하프로테스)는 “관대한” 또는 “진실된”이라는 두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은유이다. 구약에서 눈의 은유는 두 가지로 동기를 뜻했다: (1) 악한 눈(인색한, 참조 신 15:9; 잠 23:6; 23:22) (2) 선한 눈(관대한, 참조, 잠 22:9). 예수님은 이러한 용법을 따랐다(참조, 마 6:22-23; 20:15). 바울은 이 용어를 두 의미로 사용한다: (1) “단순함, 진실함, 정결함”(참조, 고후 1:12; 11:3; 앱 6:5; 골 3:22) (2) “관대함”(참조, 롬 12:8; 고후 8:2; 9:11, 13).

▣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것은 순회 지도자나 혹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돋는 것을 말한다. 믿음 공동체는 교리적 설교와 사회적 돌봄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있을 뿐이다!

1-8 절에 있어서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당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1절)?
2. 모든 신자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3-8 절; 고전 12:7)? 만일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가?
3. 영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4. 성경은 은사의 모든 종류를 다 제시하는가?
5.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은사를 알 수 있는가?

9-21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에 대한 지침”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이다(참조, 마 5-7 장; 고전 13 장; 요일 3:18; 4:7-21).
- 나. 로마서 12 장은 고전 12-13 장에 있는 내용과 구조와 매우 비슷하다. 영적 은사에 대하여 다른 직후에 교만함에 대한 경고와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강조가 이어진다.
- 다. 이 문맥은 다음을 다룬다
1. 우리와 다른 신자의 관계(참조, 12:9-13). 이것은 또한 14:1-15:13 과 고전 8:11 이하; 10:23-33에서 자세하게 다뤄진다.
 2. 우리와 불신자와의 관계 또는 우리와 갈등이 있는 다른 신자와의 관계(참조, 12:14-21).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본문의 이러한 구분은 이러한 관계의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위적이다.
- 라. 이 본문에는 삶의 양식에 대한 지속적인 명령(현재 능동 명령, 참조, 4[3 회], 16, 20[2 회], 21[2 회]절과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현재 능동 분사가 17 회 나온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누리는 선물이지만, 이것을 일단 받은 후에는 모든 것을 지불하는 헌신과 그러한 삶이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참조, 뉴 6:46).

마. 또한 이 본문에는 명령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사용된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그 의미는 이미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이 형태는 14, 16(2회), 17, 19, 21 절에 나온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정해진 영역 밖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밖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바. 기독교는 “열린”것이어야 한다—열린 마음, 열린 손, 열린 가슴, 열린 문(참조, 약 2장).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2:9-13

⁹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¹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¹¹ 부지런하여 계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¹²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¹³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2: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코이네 헬라어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연결 단어(접속사)가 이 문맥의 헬라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 5장의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어의 문법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법 형태는 구에 있는 각 단어가 갖고 있는 진리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거짓”은 연극 용어로서 “가면 뒤에서 말하는”을 뜻한다. 사랑은 연극으로 하는 행동이거나 거짓된 것이어서는 안된다(참조, 고후 6:6).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신자의 분명한 특징이 된다(참조, 요 13:34-35; 15:12, 17; 요일 3:11, 18; 4:7-21).

▣ “악을 미워하고”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며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신자는 악에 놀라며 악에 항거해야 한다(참조, 살전 5:21-22). 종종 우리는 이 결과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인해 놀랄 뿐이다.



NASB, NKJV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NRSV “선한 것을 단단히 붙들라”

TEV “선한 것을 붙들라”

NJB “선한 것에 달라붙으라”

이것은 현재 수동(그러나 중간태의 의미임)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풀칠하여 붙이다”(참조, 70 인역 창 2:24; 행 8:29; 또한 빌 4:8; 살전 5:21-22).

12:10

NASB “형제애로 서로에게 헌신하라”

NKJV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라”

NRSV “친밀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TEV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라”

JB “형제들이 해야 하는 만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헬라어의 합성어(필레오 + 스톤지)로서 “형제애”와 “가족적 사랑”이 합쳐진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는다(참조, 살전 4:9).

이것은 일련의 여격이 강조를 위해 헬라어의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구조이다.



NASB	“존경함으로 서로 좋아하며”
NKJV	“존경하여 서로 좋아 하며”
NRSV	“서로 존경을 나타내기를 뛰어나게 하며”
TEV	“서로 존중하기를 열심히 하며”
JB	“서로 심원한 존경을 하며”

이것은 현재 중간태 (디포)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신자는 언약의 동반자인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참조, 앵 4:2; 벌 2:3).

12:11

NASB	“부지런함에 뒤로 쳐지지 말고”
NKJV	“부지런함에 쳐지지 말고”
NRSV	“열심을 내는 것에 쳐지지 말라”
TEV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JB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주를 위해 일하라”

참된 사랑은 커다란 힘을 가져 온다(참조, 갈 6:9).



NASB, NKJV	“영이 뜨거운”
NRSV	“영이 정열적인”
TEV	“완전히 헌신한 마음으로”
JB	“심령에 커다란 열심으로”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끓이다”이다. 이것은 중생한 인간의 심령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킨다(RSV, 참조, 행 18:25; 계 3:15-16).

■ “주를 섬기라”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이곳에 사본 간에 변이가 나타난다. 서방계열의 어떤 헬라어 사본(D*, 3, F, G)은 “주 안에서”(퀴리오스) 대신에 “때가 되면”(카이로스)으로 읽는다. 이러한 변이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적절한 때가 생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요 9:4; 앵 5:16).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퀴리오스를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읽어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가장 좋은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8, A, B에는 “주를 섬기며”로 되어 있다. UBS⁴는 “주”에 “A”(확실함) 등급을 준다.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소망”이라는 용어는 종종 재림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참조, 5:2). 이것은 무엇을 바란다는 의미(영어)에서의 소망이 아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어떤 분명한 사건을 가리키지만 시간적으로는 불분명한 것을 가리킨다. 4:18과 5:2의 설명을 보라.

■ “참으며”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이 용어는 “활동적임, 자원함, 견고한 인내”를 뜻한다.

■ “환난 중에” 5:3, 5에서와 같이 “소망”이 환난(쓰립시스)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다(참조, 마 5:10-16; 행 14:22; 롬 8:17 이하; 딤후 3:12; 벤전 4:12 이하). 우리는 이것을 구하거나 이것을 피해 도망가서는 안된다! 5:3의 특별주제: 환란을 보라.

▣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기도는 영적 훈련이며 또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식하는 은사이다. 신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자신을 제한시키기를 선택하셨다(참조, 행 1:14; 2:42; 6:4; 앱 6:18-19; 골 4:2). 이 사실은 기도에 놀라운 책임감이 따름을 말한다. 클린턴 아놀드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 43-44, 187-188 쪽을 보라.

12:13

NASB, NRSV	“성도들의 필요에 기여하며”
NKJV	“성도들의 필요에 공급하며”
TEV	“너의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에게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라”
JB	“가난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

헬라어 동사인 코이노네오는 “함께 교제하다”를 뜻한다. 이 용어는 바울에게 있어서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과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갈 6:6).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참조, 빌 3:8-10; 벤전 4:13)과 바울의 고난(참조, 빌 4:14)에 동참함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모든 수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함을 의미한다! 1:7의 특별주제: 성도를 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참조, 잠 3:27; 갈 6:10). 신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도울 수 있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참조, 고후 8:11-12; 앱 4:28).

특별주제: 코이노니아

“교제”(코이노니아)라는 용어의 의미는

1. 어떤 사람과의 가까운 사귐
 - ㄱ. 성자와(참조, 요일 1:6; 고전 1:9)
 - ㄴ. 성령과(참조, 고후 13:13; 빌 2:1)
 - ㄷ. 성부 및 성자와(참조, 요일 1:3)
 - ㄹ. 다른 언약적 형제/자매와(참조, 요일 1:7; 행 2:42; 갈 2:9; 롬 17 절)
2. 어떤 대상 또는 그룹과의 가까운 사귐
 - ㄱ. 복음과(참조, 빌 1:5; 롬 6 절)
 - ㄴ. 그리스도의 피와(참조, 고전 10:16)
 - ㄷ. 어두움과(참조, 고후 6:14)
 - ㄹ. 고난과(참조, 빌 3:10; 4:14; 벤전 4:13)
3. 관대함으로 주는 선물 또는 공헌(참조, 롬 12:13; 15:26; 고후 8:4; 9:13; 빌 4:15; 히 13:16)
4.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및 그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인간이 창조주께)에 의해 이루어진 수평적 관계(사람 대 사람)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와 기쁨을 강조한다. 동사의 시제는 이러한 공동체적 경험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과 또한 그것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참조, 1:3[2회], 6, 7). 기독교는 공동체적 삶이다!

▣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손대접하기를 추구하고”이다(14:19 의 설명을 보라, 참조, 딤전 3:2; 딤 1:8; 히 13:2; 벤전 4:9). 이 사역은 “여관”에 대한 나쁜 평판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순회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켰다.

개역개정 12:14-21

¹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¹⁵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¹⁶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¹⁷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¹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¹⁹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²¹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네가 속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²¹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이 절에서 갖는다. 우리는 “칭송”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 용어에서 얻었다(참조, 마 5:44; 뉴 6:28; 고전 4:12; 약 3:9-12; 벤전 3:9). P⁴⁶(체스터 베티 파피루스)과 B 사본(바티칸 사본)에서는 “너희”가 빠져 있어서 이 문장을 보다 함축적으로 또는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로 만든다. “박해하다”를 위해서는 14:9의 설명을 보라.

▣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기도할 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전 12:3에 있다). 이것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앱 4:29; 벤전 3:9).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의 두 현재 부정사는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이룬다. 신자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가족적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14-21의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믿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신자가 문화적 기회나 환경을 이용할 것을 의미할 수 있다.

12:16

NASB, NKJV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며”
NRSV	“서로 화합하여 살며”
TEV	“모든 이에게 같은 관심을 가지며”
JB	“동등한 친절로 모든 이를 대하여”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참조, 15:5; 고후 13:11; 빌 2:2). 16 절은 (1)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참조, 11:13-24) (2) 경제적 계층 간에 있는 오래된 갈등 (3) 다른 영적 은사 (4) 세대간의 전통과 개인적 취향에서 오는 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낮은”은 남성형이거나 중성형이다. 이 단어가 중성형이라면 “비천한 의무를 받아들이라”로, 남성형이라면 “가난한 자나 비천한 사람들과 교제하라”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잠 3:7; 사 5:21; 고전 10:12; 갈 6:3). 신자들은 상호 간에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해서도, 믿지 않는 공동체에 대하여 거만함을 가지고 행동해서도 안된다.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일을 살펴 곧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신자가 아니다(참조, 잠 20:22; 24:29; 마 5:38-48; 뉘 6:27; 살전 5:15; 벤전 3:9).

▣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참조, 고후 8:21; 살전 5:22; 딤전 3:7). 이것은 70 인역 잠 3:4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을 따돌리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된다(참조, 고전 9:19-23). 우리가 마음 속 깊이 갖고 있는 신념 조차도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 문장에 명령의 의미를 갖는 현재 능동 분사가 뒤따른다. 이 내용은 항상 신자가 선택할 영역은 아니지만, 문법적 형태는 종종 그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참조, 막 9:50; 고후 13:11; 살전 5:13).

12:19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일을 곧게 하실 것이다.

▣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영감된 성경을 일컫는 셈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영감을 가리키는 이 관용어와 평행을 이루는 표현은 “주께서 말씀하시되”(참조, 고전 14:21; 고후 6:17)이다. 이것은 신 32:35에서 가져온 인용이다.

12:20 “네 원수가”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원수가 올 것이다!

▣ “네가 솟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잠 25:21-22의 암시이다. 해석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적을 친구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절이라는 이 문화적 관용어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일 것이다. 이것은 뿌리뽑을 수 없는 악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취할 수 있는 길이다(참조, 마 5:44).
2.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솟불”은 명백히 드러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암브로시아스터, 어거스틴, 제롬)
3.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가리킨다고 오리겐과 크리소스톰은 보았다: 친절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더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한다(참조, 제롬의 성경주석, 제 2 권, 326 쪽).

위의 내용이 제시된 이론의 전부이다. 열쇠는 21 절에 나타난 바울의 요약적 진술에 있다.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현재 수동 명령**과 **현재 능동 명령**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확정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내야 한다. 쓴 마음은 영적 암이다. 신자들은 이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 “악” 이것은 **남성형**(그렇다면 악한 자를 가리킨다)이거나 **중성형**(그렇다면 일반적인 악)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애매한 경우에 속한다(참조, 마 5:37; 6:13; 13:19, 28; 요 17:15; 살후 3:3; 요일 2:13-14; 3:12; 5:18-19).

9-21 절에서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9-21 절에는 왜 그렇게 많은 **현재 명령형**이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사용되었는가?
2. 이 부분에 나오는 명령의 내용을 한 줄에 한 내용씩 모두 적어보라. 이 명령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과 관련이 있는 놀라운 목록이 된다!
3. 어떤 절의 내용이 믿는 신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하고 어떤 절의 내용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로마서 13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권세에 대한 순종	정부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인과 국가	국가의 관리에 대한 의무	관리에 대한 순종
13:1-7	13:1-7	13:1-7	13:1-5 13:6-7	13:1-7
형제의 사랑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서로에 대한 의무	사랑과 율법
13:8-10	13:8-10	13:8-10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	13:8-10	13:8-10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움	그리스도를 덧입음			빛의 자녀들
13:11-14	13:11-14	13:11-14	13:11-13 13:14	13:11-1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7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12 장의 내용이 주로 그리스도인과 그의 동료 신자에 대한 것(9-13 절)과 사회에 있는 다른 자들(14-21 절)에 대한 것이듯이, 13:1-7의 내용은 주로 그리스도인과 정부에 대한 관계를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 사이에 문맥적 구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하나로 이해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이분법적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신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들이다! 이 두장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는 12:18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신자들이 세상 정부에 대해 갖는 자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약에서 정부의 형태는 개인의 계보에서 발전되었다(참조, 창 4:16-22). 바벨탑(참조, 창 11 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다스리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하나님의 법률과 하나님이 정하신 목자(왕)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 개념은 인간의 죄를 인해 성공적이지 않았다. 마 22:21과 막 12:17에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이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놀랍다(비록 1-7 절과 11 절이 마 22:15-22, 39과 평행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정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적합한 역할이 있다. 세상 정부와 종교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관계하여야 할지에 대해 사도들은 종종 갈등을 경험했다. 이것은 인간 지도자들의 행동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됨을 보여준다. 바울은 정부에 의해 보호를 받기도 하고 펍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요한은 계시록에서는 정부를 커다란 음녀라고 말한다(참조, 계 17 장)!
- 성령에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양심에 정부가 거슬리거나 혹은 정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나라의 질서는 무질서를 막는다(참조, 살후 2:6-7).

- 다. 이와 같은 주제를 딘 3:1과 벤전 2:13-17에서 다루고 있다.
- 라. 유대교는 1 세기에 로마 정부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는 종교였다. 기독교는 여러 해 동안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다(참조, 행 18:12-16). 이 점은 초기에 여러 해 동안 행해진 선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도왔다. 사도행전의 기록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로마에 정치적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한편 로마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팍스 로마나)을 제공했는데, 이 점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했다(참조, 딘전 2:1-2).
- 마.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관리들과의 일에 비추어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강조된 형태로 되어있다.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갈등의 이유를 배경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1) 정부의 칙령(즉,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로마교회 안에 생긴 긴장. 이 일은 어떤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수도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참조, 행 18:2). 그들이 떠남으로 인해 유대인 신자들의 지도력이 강화되었다. (2) 로마에 있는 커다란 유대 사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로마에 생긴 긴장. 역사가 슈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의 생애 25.2에서 황제가 주후 49년에 수도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는데 “크레스투스”에 의해 폭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표기는 아마도 라틴어로 그리스도(크리스토스)를 발음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3:1-7

¹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²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³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⁴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⁵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⁶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⁷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13:1 “각 사람은 . . . 복종하라” 이것은 현재 수동 명령으로서 “계속해서 복종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조, 딤 3:1; 베전 2:13). “복종하다”는 지휘할 때 사용하는 끈을 가리키는 군사용어였다. 바울은 이 문맥에서 모든 신자에게 말하고 있다(참조, 앱 5:21).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이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복종은 오늘날 부정적 의미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것은 겸손을 가리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그 안에 우리의 위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1) 인간 부모에게 (참조, 뉴 2:51) (2) 하늘에 계신 성부께(참조, 고전 15:28)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예수님은 이 영역에서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비록 바울이 이 단어(엘수시아)를 천사적 능력, 특히 사탄적 능력을 가리키기 위해 다른 곳에서 사용했지만(참조, 8:38; 골 1:16; 2:10, 15; 앱 1:21; 3:10;; 6:12), 여기의 문맥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가리킨다(참조, 고전 2:6, 8; 딤 3:1; 베전 2:13). 성경은 인간 정부의 뒤에 천사들의 권세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니엘서 10 장과 70 인역 신 32:8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나누실 때에, 아담의 자손을 분리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효대로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나 다스리는 권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기능을 가진다(참조, 1b, 4a, 6 절).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인간 정부

I 서론

- 가. 정의 – 정부는 인간이 육신적 필요를 공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만든 인간의 기구이다.
- 나. 목적 – 하나님은 무정부 상태보다 질서가 있는 것을 원하셨다.
 1. 모세의 율법 특히 십계명은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예배와 삶에 균형을 가져다 준다.
 2. 비록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는 하늘의 본을 기대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은 정부의 어떤 형태나 구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성경적 진리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정부 체계에 살고 있든지 적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혁명이 아니라 전도와 사역이다.
- 다. 인간 정부의 기원
 1. 로마 천주교는 인간의 정부가 타락 이전부터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필요라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그는 말했고, 이 말의 의미는 정부가 “선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2. 개신교 특히 마틴 루터는 인간 정부가 타락에 따른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원 편”에 있는 것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루시는 방법은 악한 자가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3. 칼 막스는 소수의 엘리트가 대중을 주장하는 것이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종교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II. 성경의 자료

가. 구약

1. 이스라엘은 천국에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모본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야웨는 왕이셨다. 신정정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8:4-9).
2.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 ㄱ. 예레미야 27:6; 에스라 1:1
 - ㄴ. 역대하 36:22
 - ㄷ. 이사야 44:28
 - ㄹ. 다니엘 2:21
 - ㅁ. 다니엘 2:44
 - ㅂ. 다니엘 4:17, 25
 - ㅅ. 다니엘 5:28
3.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침략하고 정복하는 정부라도 복종하고 존중해야 한다:
 - ㄱ. 다니엘 1-4 장, 느부갓네살
 - ㄴ. 다니엘 5 장, 벨사살
 - ㄷ. 다니엘 6 장, 다리오
 - ㄹ. 에스라와 느헤미야
4.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ㄱ. 예레미야, 28:7
 - ㄴ. 미스나, 아롯 3:2

나. 신약

1. 예수님이 인간 정부를 존중하셨다
 - ㄱ. 마태복음 17:24-27; 성전세를 내심
 - ㄴ. 마태복음 22:15-22,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옹호하심으로 로마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심
 - ㄷ. 요한복음 19:11, 하나님께서 공공의 권위를 주신다
2. 바울이 인간 정부에 대해 말한 것
 - ㄱ. 로마서 13:1-7,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ㄴ. 디모데전서 2:1-3,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ㄷ. 디도서 3:1,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3. 베드로가 인간 정부에 대해 말한 것
 - ㄱ. 행 4:1-31; 5:29, 산헤드린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순종을 나타낸다)
 - ㄴ. 베드로전서 2:13-17,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4. 요한이 인간 정부에 대해 말한 것
 - ㄱ. 요한계시록 17 장,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인간 정부를 나타냄

III. 결론

- 가. 인간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은 “왕권 신수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부의 역할을 말한다. 정부의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더

낫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 나. 정부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적절히 나타내는 것은 신자의 종교적 의무이다.
- 다. 신자가 세금과 기도로 인간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다.
- 라. 인간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있다. 그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 마. 인간 정부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권위를 갖는다. 인간 정부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범위를 벗어날 때, 신자는 자신의 양심을 위해 이러한 정부의 권위를 거부해야만 한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장하듯이, 우리는 두 영역인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시민이다. 우리가 양 쪽에 책임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최종적인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 영역과 공동체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책임있는 삶을 산다.
- 바. 우리는 민주적인 체제 안에서 신자들이 행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가능하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실행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사. 사회적 변화는 반드시 개인의 회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에는 참되며 영속적이고 종말론적 희망이 없다. 인간의 모든 정부는 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고 또 사용하시는 도구이지만, 하나님께로 부터 떠나 있는 인간 조직의 죄악된 표현이다. 이러한 개념은 요한의 글에서 “세상”에 드러나 있다.



NASB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있는”
NKJV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있는”
NRSV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된”
TEV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바”
NJB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이것은 우회적 완료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권세 뒤에 계심을 주장한다(참조, 요 19:11). 이것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질서를 유지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이것은 어떤 특정 형태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에 대한 언급이다. 공공의 질서는 무질서 보다 더 좋은 것이다(참조, 6 절).

13:2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이것은 현재 중간태 분사이다. 이것은 세워져 있는 질서에 대한 개인의 습관적인 반역을 가리킨다. 문자적으로는 “반대 편에 자기 자신을 세우다”이다(참조, 행 18:6; 약 5:6). 막 12:17에서 예수님은 정부와 교회의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했다. 우리는 권세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행 5:25-32에서 보게 된다.

▣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과 완료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반역의 정착 혹은 반역을 실행에 옮김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질서를 주셨다(참조, 4, 6 절).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 거스르는 일이 된다. 말하려는 진정한 영적 진리는 권세에 대한 복종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치를 원한다!

▣ “심판을 자취하리라” 흄정역은 “저주”로 번역한다. 이 단어는 주후 1611년 이후부터 이 단어는 강화된 의미를 가졌다. 새흙정역은 이것을 “재판”으로 번역한다. 문맥에서 이것은 (1) 하나님의 심판

또는 (2) 공공적 처벌을 뜻한다(참조, 4 절). 그들은 권세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동으로 재판을 가져왔다(참조, 요 3:17-21).

13:3 벤전 2:14에 나오는 평행이 되는 설명을 보라.

▣ “권세” 8:38의 특별주제: 알케를 보라.

13: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정부의 권세자들이 공공에 대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신자는 자신의 개인적 보복을 하지 않도록 권고 받는다(참조, 12:17-19). 루터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악한 자가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3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NASB	“그것이 칼을 공연히 지니지 아니하니”
NKJV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
NRSV	“권세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
TEV	“그들의 권력자가 처벌하는 것이 사실이니”
NJB	“그들의 권세의 상징이 칼인 것이 공연한 것이 아니니”

“칼”(마카이라)은 사형의 집행시 사용하던 로마의 작은 칼을 가리킨다(참조, 행 12:2; 롬 8:35). 이 본문과 행 25:11은 신약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창 9:6은 구약의 관점을 분명히 밝힌다. 두려움은 무질서를 억지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 . . 보응하는 자니라” 보응하는 자(wdx코스)는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된다. 이것은 레 19:18의 앞 부분에도 사용되었다. 구약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사고로라도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이 “눈에는 눈”的 보응(피의 복수자)을 할 권리가 있었다. 바울이 구약의 관습을 공공 정부의 권세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13:5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두 가지 이유가 나온다: (1) 하나님 혹은 다스리고 있는 공공의 권세자로부터 받게 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2) 신자의 양심을 인해서.

▣ “양심을 따라” 히브리어의 “가슴”이 사람의 지식과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헬라어 용어의 “양심”에 대응하는 구약 용어를 찾을 수는 없다.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오감과 관련이 있는 양심을 가리켰다. 이 단어는 내적 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참조, 롬 2:15). 바울은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심문받을 때 2번 사용한다(즉, 23:1; 24:16). 그는 하나님께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무도 범한 것이 없음을 그의 양심에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했다(참조, 고전 4:4).

양심은 (1) 성경의 세계관과 (2) 내주하시는 성령과 (3) 하나님의 말씀 위에 형성된 삶의 지식에 의해 신자의 동기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자라감을 뜻한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

13: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형태로는 현재 능동 명령(참조, JB)이지만,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공공의 권세자에게 갖는 책임은 정부의 권세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한 예이다.

13:7

NASB	“모든 자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되 조세 . . . 관세 . . . 두려워하며 . . . 존경하라”
NKJV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 . . 관세 . . . 두려워하며 . . . 존경하라”

NRSV	“모든 자에게 주어야 할 것을 지불하되 조세... 관세...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TEV	“네가 그들에게 빚진 것을 주되 그들에게 너의 인세와 부동산 세를 지불하고 존경을 나타내고 그들을 모두 높이라”
JB	“정부의 모든 관리가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구하는 것을 지불하라—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두려움이든 존경이든”

이것은 두 종류의 정부 관리들을 가리킬 수 있다(참조, RSV).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역할을 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내고 관리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 더 적합한 설명이다(참조, 1, 4[2 회], 6; 마 22:15-22).

■ 두 용어인 “세금”과 “관세”는 여기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비록 TEV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만일 어원적(원래의 의미)으로 분석한다면, 처음 것은 피정복국가가 지불하는 세금을 말하고(참조, 뉴 20:22) 두 번째 것은 인세이다(참조, 마 17:25; 22:17, 19).

로마서 13:8-14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1-7 절을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7 절에 있는 “받을”이라는 주제는 8 절에서 이것이 다른 의미로 계속됨을 보인다. 신자들은 정부에 대해 의무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의무를 가진다.
- 나. 8-10 절은 통일된 사상을 나타내고 11-14 절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부분은 12 장에서 다른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계속해서 다룬다.
- 다. 바울이 구약의 십계명을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 도덕적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구약의 계속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성화), 구원(칭의, 참조, 갈라디아서 3 장)의 길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그의 윤리적 지침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자료의 것을 조합하고 있는 것 같다:
 - 1. 예수의 말씀
 - 2. 성령의 인도하심
 - 3. 구약
 - 4. 그가 받은 랍비적 훈련
 - 5. 헬라 사상가에 대한 그의 지식(특별히 스토퍼의 학파)
 이것은 “사랑의 법”을 특징짓는다—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섬김, 사람들을 섬김!
- 라. 11-14 절은 종말론(마지막 때)적 경향을 가진다. 어두움과 빛의 대조는 사해사본을 포함한 유대 문학의 특징이었다. 이것은 요한과 바울의 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이미” 대 “아직”의 긴장은 경건한 삶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다. “새 시대”(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곧 완성될 것이다. 이 본문은 살전 5:1-11과 매우 비슷하다.
- 마. 13-14 절은 주후 386년 여름에 어거스틴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온 내용이다. 그는 고백 8:29에서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읽을 수도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끝에 이르자 즉각적으로 매우 분명한 빛이 나의 가슴에 밀려와 의심의 모든 어두움을 쓸어갔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3:8-10

⁸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⁹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¹⁰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3:8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강조적 구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6-7 절). 재정적 빛은 항상 정서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메마르게 할 수 있다. 세속적으로 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지원이나 개인적으로 자선을 베풀 능력을 빼앗아 간다. 하지만 이 절은 “신용카드로 소비하지 말라”는 것을 뒤받침하는 본문으로 사용될 수 없다. 성경을 항상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조간신문이 아니다! 8-10 절은 우리가 (1) 언약적 관계에 있는 형제요(마 22:39-40; 요 13:34-35) (2) 이웃인(참조, 마 5:42; 갈 6:10) 다른 사람을 사랑함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것은 8-10 절의 핵심 사상이다(참조, 요 13:34; 15:12; 롬 12:10; 고전 13 장; 빌 2:3-4; 살전 4:9; 히 13:1; 벤후 1:7; 요일 3:11; 4:7, 11-12).

■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일회적이거나 계절마다 행하는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삶을 가리킨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헤템로스와 알로스(같은 종류에 속하는 다른 것)가 구별되지만, 여기의 “남”은 문자적으로는 “다른 종류에 속하는 다른 것”(헤템로스)이다. 문맥에서 이 단어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를 가진다. 곧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자신의 이웃을 가리킨다(눅 12:14-21; 10:25-37). 그러나 인용한 본문이 있는 데 19:18의 문맥에서는 언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형제로서 사랑해야 하고 잃어버려진 사람들은 잠재적인 형제로서 사랑해야 한다. 기독교는 가족공동체이다. 각 구성원이 전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살고 섬긴다(참조, 고전 12:7).



NASB, NKJV

NRSV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TEV

“율법을 순종했느니라”

JB

“너의 의무를 이행했느니라”

자주 사용되는 이 헬라어 동사(플레로오)는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로 번역할 수 있다. 로버트 한나(헬라어 신약을 위한 문법적 도움)는 A. T. 로벗슨의 말을 인용하여 이것을 “격언적 완료”(일반적 진리, 수신자가 잘 알고 있음을 가리킴)로 부른다(28쪽). 이것은 10 절에서 반복된다(참조, 갈 5:14; 6:2).

13:9 바울이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출 20:13-17 또는 신 5:17-21; 레 19:18)을 사용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앱 6:2-3에서 바울은 십계명의 한 계명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참조, 딤전 1:9-10). 이러한 구약의 본문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서로 간에 어떻게 행해야 마땅한지(참조, 롬 15:4; 고전 10:6, 11)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로마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양 쪽에 이 내용을 연관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이루었다”는 이 용어는 마 5:17에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기 보다는 사회적 규범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법을 가리킬 것이다 (참조, JB). 그러나 9 절에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뜻할 것이다. 사람이 규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써 율법을 이룰 수 있음을 주목하라!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

- 가. 이것은 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참조, 롬 7:12, 16)
- 나. 이것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이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 참조, 갈 3 장)
- 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여전히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바울은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종 구약을 인용한다)
- 라. 신자들이 구약을 통해 깨닫게 되지만(참조, 롬 4:23-24; 15:4; 고전 10:6, 11), 구약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참조, 행 15 장; 롬 4 장; 갈 3 장; 히브리서)
- 마. 이것은 새 언약에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죄를 드러낸다(참조, 갈 3:15-29)
 2. 구속받은 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침을 준다
 3. 그리스도인이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축복과 영원히 거함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신학적 내용의 범위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 바울이 가진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의 사상과 글에 나타난 역설적 모습에 대해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나타내게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교리의 체계를 구성하려는 사람을 당신은 기대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주된 개념을 표현하는 구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기를 당신은 기대할 것이다. 당신의 저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가 계속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신은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바울에게서 기대한다면 당신은 실망하고 말 것이다. 많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표현은 고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가 ‘법은 거룩하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한다’라고 기록했을 때(참조, 롬 7:12, 22),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참조, 갈 3:13)에서 보듯이 그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인 노모스의 다른 면을 말하는 것이다.” (26쪽).

특별주제: 출애굽기 20 장에 대한 설명

출애굽기 20:13, 살인

I. 문맥

- 가. 사회적 면에 대한 계명일지라도 참으로 종교적인 계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한 계명에 의해 드러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참된 초점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나. 모든 계명이 믿음 공동체를 반영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지한 것은 원래부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드러낸다.
이것의 적용은 인류의 다양성과 같이 광범위하다!

II. 중요한 단어 연구

가. “살인”

1. 이것은 생명을 취하다를 가리키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라사)이다. 구약에서는 46회만 나온다. 이것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 ㄱ. 하락, 165회 사용됨
 - ㄴ. 혀밀, 201회 사용됨
2. 이 용어(라사)는 원래의 제한적인 의미와 확대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ㄱ. 이것은 원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생명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고의로 취하는 것으로서, 종종 “친족 구속자” 또는 “고엘”과 관련된다. 이 용법은 법적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고의성을 가진다(참조, 민 35:30-34; 레 24:13-23). 사실상 “눈에는 눈”(참조, 창 9:5-6)의 보복은 보복을 제한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후에 도피성(신 4:41; 수 20:3)이 세워져 실수나 격정으로 언약적 사회구성원을 죽인 언약적 구성원이 피해자의 가족의 진노를 피해 도망할 수 있게 했다.
 - ㄴ. 후에 이 용어는 생명을 빼앗는 동기나 태도를 가리켰다. “고의성”은 가장 중요한 점이 되었다!(참조, 출 21:12-14; 민 35:11, 22; 신 28:24).
 - ㄷ. 이 구분은 이 명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문맥에서 오직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은 친족 구속자나 피의 복수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십계명을 말하는 후기의 본문인 호 4:2; 램 7:9에서 이 용어는 살인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법 자체만 말하지 않고 동기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이웃을 가리키는 말에서 동료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3. 이 용어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형제도나 전쟁과 관련이 없다.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나 거룩한 전쟁(그러나 이 일은 거룩하지 않은 전쟁이다!)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적이 결코 없다
4. 오늘날 우리 문화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계획된 살인”일 것이다.

III. 문맥적 통찰

- 가. 제 6 계명, 제 7 계명, 제 8 계명은 두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다. 매우 간단 명료한 내용이다.
- 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IV. 신약에서의 평행

가. 예수님

1. 예수께서 이 계명을 확장하신 사실(참조, 마 5:21-26)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준다.
2. 예수님은 명백하게 십계를 행동의 영역에서 동기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우리 자신이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이다.” 생각의 영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중요한 부분이다.

나. 요한

1. 요일 3:15, 미워함을 살인으로 여기는 개념이 여기에 나온다.
2. 마 5:21 이하와 요일 3:15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은 본질적으로 같다.

3. 요일 4:19-21 의 긍정적 측면을 보라.

V. 적용할 진리

- 가. 비록 계획하지 않고 살인한 자는 피의 복수자를 피해 도피성(참조, 민 35 장; 수 20 장)으로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갖혀 지내는 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범한 행동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
- 나. 이 절은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대인들이 자살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본문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 및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에 관하여 여전히 영적 원리를 제시한다.
- 다. 한편 이 본문은 오늘날 문제가 되는 (1) 사형제도 (2) 전쟁에 대해 결정적인 말을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신은 이 일들을 악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귀중성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이다.
- 라. 이 본문은 인간 생명의 귀중성과 존엄성에 대하여 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청지기이다. 개인 및 공동체에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학대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듯이,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남용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와 같이 말할 자유가 있고 또 말을 함으로써 구조도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다!

출애굽기 20:14, 간음

I. 문맥

- 가. 우리 이웃의 생명, 아내, 재산을 존중(참조, 렘 5:8)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중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70 인역에서는 같은 명령들이지만 다른 순서로 나타난다.
- 나. 신명기에 나타나는 평행은 이러한 고대의 진리를 우리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열쇠로 여겨졌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 라. 이 계명은 또한 우리의 성적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주장하심을 뜻한다.
- 마. 제 4 계명이 창 2:1-3 에 기초하듯이, 이 계명은 창 2:24 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II. 단어 연구

- 가. 이 본문에서 주요 용어는 “간통”이다. 이 용어를 고대 히브리 문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이 용어는 구약의 문맥에서 “간음”과 구분된다. 간통은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결혼한 자인 경우의 성적 관계를 말한다. “간음”은 두 쪽 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의 성적 관계를 뜻한다(참조, 잠 29:3; 31:3). 이러한 구분은 신약의 헬라어 용어에서 없어졌다.
 2. 성적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한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왜 결혼한 상태에 대해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매 50년마다(희년) 모든 땅은 각 지파의 원 주인에게 돌려졌다.
 3. 간통은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문화적으로 정죄받았다(참조,

- 창 12:10 이하; 26:7 이하; 39:9).
4. 간통은 다음의 사람들에 대한 죄로 여겨졌다:
 - ㄱ. 이웃 –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
 - ㄴ. 결혼 – 레위기 18:20
 - ㄷ. 하나님 – 창세기 20:1-13; 26:7-11
 5. 이것은 당사자를 둘 다 사형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 ㄱ. 레위기 20:10
 - ㄴ. 신명기 22:22-24
 - ㄷ. 에스겔 16:40(은유)
 - ㄹ. 강력한 경고가 잡언 1-9 장에 나온다

III. 신약과의 관계

- 가. 예수님은 레위기 19:18을 옛 계시의 요약으로 사용했다(참조, 루 10:27). 이 사실은 십계명이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음을 확증한다.
- 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28에서 그 명령을 강화시킨다. 그는 강조점을 행동보다는 동기에 두셨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영혼의 씨가 자라는 곳으로 보았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잠 23:7). 이 점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 이것은 목적이다!(참조, 갈 2:15-3:29).

IV. 오늘날에 적용하기

- 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동안 신실한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추는 결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장 잘 돋는다(말 2:14). 성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이 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돋는다.
- 나. 결혼생활의 안정과 충성된 삶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사회의 건강과 장수하는 삶을 가져오는 주요한 기둥이 된다.
- 다. 인간의 성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었다. 이에 대하여 주신 지침은 인간의 자유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약간의 경건한 지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정해놓으신 한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혜택과 행복을 가져온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더불어 성생활을 남용했지만, 이것은 아직도 사람 안에서 강한 추구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와 안내를 받아야만 하는 영역이다.
- 라. 우리는 성에 대해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여자와 남자)의 거룩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한 결과인 “나”에 대한 집중은 이 영역에서 매우 확인하다.

출애굽기 20:15, 도둑질

I. 일반적 사항

- 가. 십계명에 있는 다른 모든 조항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속적 면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언약적 동료를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일이다(참조, 요일 4:20-21; 2:7-11).
- 나. 이 계명은 언약 공동체의 교제를 유지하도록 돋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적 교제의 내용은 혼동에 빠져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은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 다. 다른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들이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우리의 타락한 욕구는 이러한 금지를 하는 배경이 된다(참조, 시 50:10-12).

II. 단어와 구의 연구

- 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단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십계명의 뒷부분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다.
- 나. 이 금지의 목적이 빠져있다. 이 부분을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앞에 나오는 두 계명이 커다란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문맥임.
 2. 적용할 수 있는 평행 구절이 바로 전후(출 21:16)에 있고 또한 멀리 떨어진 곳(신 24:7)에서도 나타남. 또한 창세기 37장을 보라.
- 다. 한편 짧은 문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이것은 영감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2. 이것은 금지의 범위를 넓힌다
 3. 평행 구절이 도둑질과 관련하여 전후 문맥에 있다 – 출애굽기 22:1 이하
 4. 예수님은 분명히 훔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인용하신다(참조, 마 19:18).
- 라. 도둑질은 고대의 다른 법전에서도 다루어지는데, 대개는 그 형벌로서 사형, 신체의 절단, 또는 30 배의 손해배상이 선언된다.
- 마. 이 진리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몇 평행 구절이 있다:
1. 레위기 19:1-18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 ㄱ. 우리가 사는 모습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성부의 가족적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참조, 18 절).
 - ㄴ. 하여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삶은 적합한 동기를 가짐으로 가능하다(참조, 17 절).
 - ㄷ.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동정하는 일(9-10, 13 절)은 우리의 이웃을 착취하지 않는 일만큼(11 절) 중요하다.
 2. 아모스 8:4-7 – 하나님은 착취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3. 미가 6:6-8 –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합당한 동기를 찾으신다. 왜 우리가 훔치지 말아야 하는가가 관심사이다!
 4. 출 22:1 이하 – 오늘날 우리가 강도짓에 대해 하는 논의에서 종종 빠트리는 진리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다! 죄는 항상 값을 치루어야 한다!

III. 적용할 진리

- 가. C. S. 루이스의 아내인 조이 데이빗맨은 십계명에 대하여 좋은 책을 썼다. 그녀는 이 계명을 “너희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번역했다. 이 점은 분명히 계명의 범위를 소유에 대한 것 이상으로 확대시킨다. 그녀는 “재산은 죄이거나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는 것도 새 마음에 의해서 해결된다. 앱 4:28. “가지려고만 하는” 옛 성품이 “나누어 주는” 새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놀랍다!
- 다. 우리가 언약의 동역자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경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이 진리는 십계명의 배경을 이룬다.

라. 현대인은 여러 방법으로 훔치고 있다!

토의할 질문

1. 현대인은 어떻게 훔치는가?
2. 보상하는 것은 회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이 절은 재산에 대한 자본주의적 견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출애굽기 20:17, 탐내다

I. 서론

- 가. 십계명의 마지막 다섯 계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제 6, 7, 8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외적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2. 제 9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말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3. 제 10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생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 나. 탐하는 행위는 탐내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이웃보다 탐내는 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이 계명이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 다. 많은 이들은 이 계명이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없고 오직 고대 이스라엘의 법 규정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본다. 이렇듯 생각의 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개념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면의 생각이 악한 행위의 원천이 된다고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참조, 잠 23:7; 약 1:14-15). 이 절도 행동을 낳는 생각과 연결이 되고 있다. 여러 본문은 “탐내는 것”에 뒤따르는 행동과 관련을 짓는다(참조, 신 7:25; 수 7:21; 미 2:2).
- 라. 만일 강조점이 처음 계명과 마지막 계명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계명에 중요성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 처음 계명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이중 강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나타난다, 마 6:33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참조, 19-32 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II. 단어와 구의 연구

- 가. 출애굽기 20:17과 신명기 5:21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1. 출애굽기 20 장에서는 “집” 혹은 남자의 재산이라는 큰 개념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명기 5 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진 목록으로서 따로 다루어 진다.
 2. 출애굽기 20 장의 본문에는 “손에 넣기를 욕망하다”를 뜻하는 “탐내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5 장에는 “탐내다”와 더불어 “욕망하다”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온다. “탐내다”는 갖기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지만, “욕망하다”는 태도에만 초점을 둔다.
 3. 또한 출애굽기 20 장은 광야 방랑 기간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록된 것이어서 소유하는 목록에 “땅”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신명기 5 장에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같은 명령을 재 진술하고 있다.
- 나. “탐하다”는 중립적 용어이다. 이것은 좋은 물건을 갖기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9:10; 고전 12:31).
- 다. 부적합한 욕망은 사탄,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가 타락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이다. 바울은 로마서 7:7-8에서 탐심과 관련한 자신의 갈등으로 고민했다. 탐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며 신뢰의 상실이다.
- 라. 신약의 여러 구절은 탐심에 대해 말한다:

1. 인간의 문제는 불만족과 탐욕에 있다(참조, 뉘 12:15; 딤전 6:8-10).
2. 탐심은 인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참조, 막 7:17-23; 고전 5:10; 웅 5:5; 골 3:5).

III. 적용할 진리

- 가. 탐하는 욕망과 불만족에 대한 답은 다음에 나온다:
 1. 사랑 – 롬 13:8-10
 2. 만족 – 히 13:5; 빌 4:11-13(또한 나눔, 빌 4:14)
- 나. 계명은 “멈추라”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을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 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1. 역대상 28:9
 2. 잠언 20:27
 3. 시편 139:1, 23
 4. 예레미야 17:10
 5. 로마서 8:27
 6. 요한계시록 8:27
- 라.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때 죄가 된다. 물건은 궁극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있다! 탐내는 것은 암암리에 언약적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의할 질문

1. 무엇이 탐하는 것인가?
2. 왜 현대인은 탐하는가?
3. 우리의 생각이 죄악된 것인가?
4.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5. 왜 출애굽기 20:17에 있는 계명은 신명기 5:21에 있는 계명과 약간 다른가?

▣ “(이것을 위해)” 이것은 십계 혹은 십계명을 가리킨다.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이 목록의 순서는 바티칸 사본으로 불리는 B 사본을 따른 것이다. 맷소라 히브리 본문의 출애굽기 20 장과 신명기 5 장의 내용은 서로 약간 다르다. 십계명의 후반부는 야웨께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에 기초하여 그들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룬다.

▣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다른 계명이 있다. 이 구는 “만일 십계명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면”을 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모든 모세의 율법 혹은 아마도 일반적 의미에서 “법”을 가리킬 것이다.

십계명이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 헬라어 사본의 전통에 차이가 나타난다. 유대교는 계명의 갯수를 말하고, 카톨릭과 기독교 또한 다른 갯수의 계명을 말한다. 굉장히 많은 수의 본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문의 의미는 이러한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것은 루 19:18의 인용이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다(참조, 마 5:43; 19:19; 22:39; 막 12:31; 놀 10:27). 예수님이 이것을 두 번째로 큰 계명 혹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부른다. 이것은 갈 5:14와 약 2:8에서도 인용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to 사랑할 것이다.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자들은 남을 사랑하고 용납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부분의 주요 진리는 명백하게 진술되고 있다—다른 사람을 사랑하라(참조,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절정을 이룬다(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러한 성격의 사랑 앞에는 “법”이 설 자리가 없다.

개역개정 13:11-14

¹¹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¹²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¹³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¹⁴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11

NASB

“이것을 하라”

NKJV

“또한 이것을 하라”

NRSV

“이것 외에”

TEV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한다”

NJB

“이외에”

이것은 뒤 따르는 내용(11-14절)과 앞에 나온 내용(9-10절)을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 시간을 가리키는 이 용어(카이로스)는 규칙적인 시간적 흐름(크로노스)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특별한 시기를 뜻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오실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간”에 대한 은유(종종 요한복음에서 사용됨)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 안에서 어떤 특별한 때(카이로스와 비슷함)를 가리킨다(참조, 3:26; 고전 7:29; 10:11; 약 5:8; 벤전 4:7; 벤후 3:9-13; 요일 2:18; 계 1:3; 22:10).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재림의 때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 “자다” 이 용어는 여기서 도덕적 영적으로 단정치 못함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앱 5:8-14; 살전 5:6). 단어들은 오직 특정한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획일적인 정의를 주의해야 한다. 모든 단어는 여러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의미의 영역).

▣ “우리의 구원이 . . . 가까웠음이라” 구원은 최초의 결단이요 과정이다. 10:14의 특별주제를 보라. 구원은 신자가 자신의 새 몸을 갖기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참조, 요일 3:2; 살전 4:13-18; 히 9:28; 벤전 1:5). 신학적으로 이것은 “영화”라고 불린다(롬 8:30). 주께서 신자의 생애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각 세대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참조, 루 21:28).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다(참조, 살전 4:15).

■ “처음 믿을 때보다” 기독교는 결심으로 시작하지만(즉각적 칭의와 성화), 반드시 경건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점진적인 성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마칠 것이다(영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이러한 최초의 결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3:12 “밤이 깊고” 이것은 이미 멸망하고 있고 대치되고 있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가리킨다(참조, 고전 7:29-31; 10:11; 약 5:8, 14; 요일 4:7; 요이 2:17-18; 계 1:3; 22:10). 1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을 말한다(참조, 벌 4:5; 약 5:9).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날에 있다. 주께서 영광스럽게 돌아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신자는 1 세기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됨을 인해 놀랐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대의 여명이 떠 올랐다.

■ “벗고 . . . 입자”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으로서 조건부의 설명을 제시한다. 이 의미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버리라 . . . 단번에 또는 결정적으로 입어라”이다. 칭의(회개와 믿음)와 성화(경건한 삶)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양 쪽이 다 활동적이다.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이 은유는 바울의 글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다. 신자들은 잠옷을 벗어 버리고 전투복을 입어야 한다(참조, 액 4:22-25; 골 3:10, 12, 14). 우리는 매일의 영적 전투를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참조, 액 6:10-18).

■ “빛의 갑옷” 이것은 아마도 사 59:17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신자들은 확실하게 의의 무장과 무기를 입어야 한다(참조, 고후 6:7; 10:4; 액 5:11, 13; 살전 5:8). 신자들이 (1) 하나님의 무장의 필요성을 깨닫고 (2)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고 (3) 그들의 매일의 삶과 생각에 이것을 개인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무장이 가능하다. 매일 영적 전투가 있다!

13:13 “단정히 행하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으로서, 문자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걷다”이다. 이것은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관용어이다. 바울은 이것을 33 회 이상 사용한다.

이 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두 용어로 이루어진 3 쌍으로 되어있다. 이 용어들은 의미상 어느 정도 겹쳐진다. 이 용어들은 동의어적 의미를 가진다. 1:28-32 의 특별주제: 덕목과 악을 보라.

이 용어들은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나타낼 것이다. 새로 믿은 이방인 신자들은 (1) 이교도의 부도덕한 예배 행위의 일부를 계속 행했거나 (2) 로마에서 유대인의 모든 의식을 금지한 네로의 칙령으로 로마를 떠났다가 돌아 온 유대인 신자의 지도자들에게 거만하게 행했을 것이다.

■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것은 이교도들의 술취한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는 성적 부도덕을 가리킨다. 육체의 죄에 대한 갈 5:21 의 목록에서도 이 용어들은 함께 나온다.

■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쌍은 첫 번째 쌍과 겹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용어는 신약에서 많이 사용된다(참조, 막 7:22; 고후 12:21; 갈 5:19; 액 4:19; 벤전 4:3; 벤후 2:7). 만일 첫 번째 쌍이 술취함에 대한 것이라면, 이 쌍은 성적 부도덕과 조절되지 않은 말초적 자극을 따라 사는 사회적 모습에 강조점을 둔다.

■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용어들은 사람 사이의 다툼에 대해 말한다(참조, 갈 5:20). 이것은 앞의 두 쌍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의 결과일 것이다. 만일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진 것이라면(참조, 고전 3:3; 골 3:8),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그쳐져야 할 이교도적 종교행위의

일부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 절은 신자의 삶과 대조되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경고의 내용일 것이다.

13:14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은유는 신자의 어깨를 이제 예수님의 왕복으로 덮는 것과 관련이 있다(지위적 성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침례(세례)복을 입는 것에 대한 암시로 본다. 이 옷의 은유는 12 절에서 처음 나온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새 지위를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지위를 인하여(참조, 앱 4:22, 24; 골 3:8), 자신의 삶에 새로운 삶의 양식에 따른 선택(점진적인 성화)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갈 3:27에서 이 진리는 사실의 진술인 **직설법**으로 되어있고, 여기서는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법(부정과거 중간태)**로 되어 있다.

직설법으로 된 진술과 **명령법** 사이의 긴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그 지위를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씨름 사이의 긴장을 나타낸다. 우리는 구원의 순간에 “성도”(거룩한 사람들)가 되었지만, “거룩하게 살라”고 권고를 받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거쳐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크게 외쳐지는 성경적 역설이다!

■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 명령이다. 이 문법 형태는 보통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로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삶을 살았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그들의 이교도적 예배 행위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을 것이다.

육신적 기독교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설명하기 어렵다. 신약의 저자들은 인간의 상태를 겸거나 훈 것으로 나타낸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상충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에 우리가 속하면서도, “아직은 아닌” 삶을 가리킨다.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별한다(고전 2:14-3:1):

1. 자연인(잃어버려진 사람), 2:14
2. 영적 사람(구원받은 사람), 3:1
3. 육적 사람(육신적 그리스도인 혹은 어린 그리스도인), 3:1

■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우리가 가진 아담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 계속되는 위험(참조, 롬 7장; 앱 2:3)과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능력과 소원을 예수께서 주심(참조, 롬 6장)을 바울은 잘 알았다. 이것은 계속되는 갈등이다(참조, 8:5-7; 요일 3:6-9).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정부에 대한 바울의 진술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이었는가?
2.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형태의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
3.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모든 내용에 복종해야 하는가?
4. 1 절은 왕권신수설을 지지하는가?
5. 바울은 신학적으로 새 터를 닦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 22:21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례가 있는 내용인가?
6.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전에 정당화 되었는가(참조, 행 5:25-32)?
7. 4 절은 사형제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8.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항상 옳은가(참조, 5 절)?
9. 8 절에 의하면 신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빚을 지면 안되는가?
10. 8 절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가?
11. 왜 바울은 십계명을 신약의 신자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가?
12. 왜 바울은 그런 사악한 죄를 신자와 관련하여 열거하는가?
13.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는가?”

로마서 14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너희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자유의 법	사랑은 다른 사람의 양심적 가책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양심에 가책을 받는 자에 대한 배려
14:1-12	14:1-13	14:1-4 14:5-6 14:7-9 14:10-12	14:1-4 14:5-12	14:1-12
너희 형제가 넘어지게 하지 말라	사랑의 법		너희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	
14:13-23	14:14-23	14:13-23	14:13-18 14:19-23	14:13-15 14:16-21 (14:22-15:6) 14:22-2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돋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12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의 역설적 관계에 대해 균형을 주려고 한다. 이 문단은 15:13 까지 연결된다.
- 나. 이 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로마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의 갈등일 것이다(또는 바울이 현재 고린도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회심 이전의 유대인은 율법주의적이었고 이방인은 부도덕한 경향을 가졌다. 이 장은 신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쓴 것임을 기억하라. 이 장은 육체적 신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참조, 고전 3:1). 가장 숭고한 동기를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두 쪽의 극단을 취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이 논의는 다른 사람의 흄을 꼬치꼬치 캐는 율법주의를 위한 면허증이 아니며 허세를 부리는 방탕한 삶을 위한 면허증도 아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음을 기억하라. 거기에는 당파를 짓는 영의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신자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 다. 신자들은 자신의 신학이나 윤리를 다른 모든 신자에게 대한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참조, 고후 10:12). 모든 신자는 자신이 가진 빛에 따라서 행해야 하지만, 자신이 가진 신학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만 한다. 신자들은 여전히 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성경, 논리와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람이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된다(참조, 고전 13:12)!
- 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태도와 동기는 다른 신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진정한 열쇠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가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참조, 10, 12 절; 고후 5:10).
- 마.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주이고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매우 충성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말했다. 성경의 진리는 종종 긴장이 가득한 역설로서 제시된다.
- 바. 어렵지만 중요한 이 주제는 로마서 14:1-15:13 의 전체 문맥 및 고린도전서 8-10 장과 골로새서 2:8-23 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사. 그러나 다원론이 신실한 신자들에게 나쁜 것은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각 신자는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각 사람이 자신이 가진 빛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항상 성령과 말씀에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 우리가 거울로 회미하게 보고 지내는 이 기간 동안(고전 12:8-13) 우리는 반드시 사랑(15 절)과 평화(17, 19 절) 가운데 행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통해 신앙을 고양시켜야 한다.
- 아.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바울이 사용하는 칭호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선입관을 갖게 한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신실한 신자들이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가진 틀에 맞추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야 한다!

자. 전체 논의를 다음과 같은 개요로 이해할 수 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셨기에 서로 용납하라(참조, 14:1, 3; 15:7)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재판장이시므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참조, 14:3-12)
3. 사랑은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참조, 14:13-23)
4.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고양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 너희의 권리를 내려 놓으라(참조, 15:1-13).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4:1-4

¹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²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³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⁴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4:1

NASB	“이제 받아 들이라”
NKJV	“받으라”
NRSV, TEV	“환영하라”
NJB	“환영을 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이다(참조, 15:1). 이것은 계속적인 명령으로서 주제를 강조한다.

인칭대명사 “너희”는 헬라어의 동사에 있지만, 영어에서는 함축적으로 나타나며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참조, 15:1). 이것은 로마교회에 두 그룹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1)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참조, 15:7-21)이나 (2) 개성이 다른 그룹을 가리킬 것이다. 전체 문맥은 참되고 신실한 신자와 관련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믿음이 강했고 일부는 믿음이 약했다. 믿음은 여기서 복음을 이해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새롭고 자유로운 적용이다.



NASB, NKJV	“믿음이 연약한 자를”
NRSV, TEV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JB	“만일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면”

이 구는 헬라어 본문에서 앞쪽에 또는 맨 앞에 위치하여 강조를 나타낸다. 문자적으로는 “믿음에서 걷다”이다. 현재시제는 삶의 행동양식에 나타나는 특징에 강조점을 둔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사고구조를 가리킨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을 따지는 그리스도인 형제는 이 장에서 3 가지로 설명된다: (1) 음식의 금지(참조, 14:2, 6, 21) (2) 특별한 날에 대한 강조(참조, 14:5-6) (3) 포도주의 금지(참조, 14:17, 21).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롬 15:1과 고전 8:9-13; 9:22에서 언급된다. 당신 자신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든 약한 그리스도인으로든 너무 빨리 규정짓기 않도록 조심하라. 종종 신자들은 어떤 영역에는 약하고 다른 영역에는 강하다.

갈 4:9-10 과 골 2:16-23에서 바울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 가진 태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 본문들은 거짓 교사의 태도와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 로마서에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양심을 가진 자들이 신실한 신자들이었다.

특별주제: 약함

여기에 대조가 나타난다. 거짓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증명서와 수사적 방법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약함”(아스쎄네오)의 가치를 알았다. 얼마나 자주 이 용어(혹은 이것의 여러 유형)가 고린도전후서에서 사용되는지를 주목하라.

자랑	약함
고린도전서 1:29, 31	고린도전서 1:25, 27
3:21	2:3
4:7	4:10
5:6	8:7, 9, 10, 11, 12
9:15, 16	9:22
고린도후서 1:12, 14	11:30
5:12(2회)	12:22
7:4, 14(2회)	15:43
8:24	고린도후서 10:10
9:2, 3	11:21, 29, 30
10:8, 13, 15, 16, 17	12:5, 9, 10(2회)
11:12, 16, 17, 18, 30	13:3, 4(2회), 9
12:1, 5, 6, 9	

바울은 약함의 개념을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1. 하나님의 약하심, 고전 1:25
2. 세상에서 약한 것, 고전 1:27
3. 바울의 약함과 두려움, 고전 2:3; 9:22; 고후 11:29, 30; 12:5
4. 바울과 그의 선교 팀, 고전 4:10; 고후 11:21
5. 약한 신자(참조, 롬 14:1-15:13), 고전 8:7, 9, 10, 11, 12; 9:22
6. 육체의 질병, 고전 11:30
7. 사람의 신체의 부분, 고전 12:22
8. 육신, 고전 15:43
9. 바울이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 혹은 그의 수사적 기술, 고후 10:10
10.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냄, 고후 12:9, 10; 13:4, 9
11.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고후 13:3
12. 그리스도의 육신, 고후 13:4



NASB	“그러나 그의 의견에 판단을 내리려는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NKJV	“그러나 미심쩍은 일에 대하여 논란을 하지 말고”
NRSV	“그러나 의견에 대해 다투려는 목적으로 말고”
TEV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 의견에 대해 그들과 논쟁을 말라”
JB	“논쟁을 시작하지 말고”

신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충분히 받아주어야 한다! 교제를 위한 기초로 요구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이지 강요된 일치가 아니다. 신자들은 모두 공사중이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각 사람을 성숙하게 빚으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한다. 하지만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4:2 이 절에서 언급되는 음식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위한 식사이다. 이러한 음식 문제는 두 가지 배경에서 왔을 것이다: (1) 유대인의 음식 규정(참조, 레위기 11 장) (2) 이교도의 우상에 바쳐진 고기(참조, 고린도전서 8-10 장). 예수님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다(참조, 마 15:10-20; 막 7:14-23). 이 진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10 장에서 고넬료와 관련된 환상을 보는 것에서 확인된다.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는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에주쎄네오)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업신여기다”는 문자적으로 “가볍게 하다,” “아무것도 아니게 하다,” 혹은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다”이다(참조, 14:10; 뉴 18:9; 고전 6:4; 16:11; 고후 10:10; 갈 4:14; 살전 5:20). 신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며 남을 얕잡아 보는 것에 경계 해야만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

■ “비판하다”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에게 동의 하지 않는 자신의 형제/자매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기를 멈추어야만 한다.

■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이다. 이와 같은 용어가 1 절에서는 “받으라”로 번역되었다. 신자들이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15:7)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문맥상 3 절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14:4 “너는 누구냐” 이것은 헬라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며 연약한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 “하인” 이것은 오이케테스라는 용어로서,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왔다. 따라서 이 단어는 집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을 가리킨다(참조, 뉴 16:18; 행 10:7; 롬 14:4; 벤전 2:18). 이것은 70 인역에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창 9:25; 27:37; 44:16, 33; 50:18). 신약에서는 둘로스가 노예나 종을 일컬기 위해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이 용어도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을 가리킨다.

여기서 바울의 논점은 각 신자가 그리스도의 노예/종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이시요 주님만이 훌로 그들에게 지시할 것이고 그들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참조, 고후 5:10).

■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이 문맥에서 바울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두 그룹의 사람에게 대한 것이다.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눈에서 가시를 빼어 내어야 된다(참조, 마 7:1-15).

■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다(참조, 5:1-2; 유 24-25 절). 이것은 또한 각 신자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참조, 고전 15:1-2). 5:2의 특별주제: 서다를 보라.

이 부분에 헬라어 사본의 변이가 나타난다. NKJV는 대문자 사본인 D, F, G, 048, 0150, 별게이트역을 따라 “하나님”(쎄오스)을 갖지만, P⁴⁶, ♀, B, C, P 사본은 “주”(큐리오스)를 갖고 있다. UBS⁴는 “주”에 “A”(확실함) 등급을 준다.

개역개정 14:5-9

⁵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⁶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⁷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⁸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⁹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4: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에 있어서 달력에 매우 민감하다(참조, 갈 4:10; 골 2:16-17). 모든 날이 똑같이 하나님께 속했다. 특별한 날이 없다. “세속적” 대 “거룩한”的 구별이 없다. 모든 날이 거룩하다!

▣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현재 수동 명령이다. 이것은 이 영역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열쇠가 된다. 신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확신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갖지만(참조, 23 절), 다른 모든 신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신학적 상자 안에 계시지 않는다. 내 신학은 하나님의 신학이 아닐 수 있다!

14:6 “주를 위하여” 이 여겨 구는 6 절에서 3 회 사용되었고 8 절에서는 2 회 사용되었다. 신실한 신자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은 “주를 위하여”(참조, 액 6:7; 골 3:23)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단지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따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14: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섬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참조, 8 절). 신자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커다란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해야만 한다(참조, 고전 10:24, 27-33). 그들은 다른 이들이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자라도록 허용해야 한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통일체를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강력한 말씀과 정죄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14:8 “만일” 이것은 두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신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주를 섬긴다(참조, 액 6:7; 골 3:23)!

14:9 “죽은 자와 산자의 주” 이 용어들의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는 아니다. 이 순서는 아마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영한다. 그는 이제 두 영역의 주재시다.

이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되고 다른 신자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제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종이다(참조, 로마서 6 장). 신자들은 자신들의 자아 중심적 욕구에 대해 죽음으로써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참조, 고후 5:14-15; 갈 2:20; 요일 3:16).

개역개정 14:10-12

¹⁰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¹¹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¹²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4:10 “네가”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앞에 나온다.

■ 10 절의 두 질문은 1-12 절의 초점을 이룬다. 3 절에 나오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다시 대조된다. 한 그룹은 “판단하고” 또 다른 그룹은 “업신여김”을 받았다. 두 태도가 다 “좋”에게 부적절하다!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죄하고” 또는 “경멸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다. 신자들이 재판관으로서 행하는 것은 (1)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고 (2) 때 이른 일이며 불완전한 행위이다.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와 같은 진리가 고전 5:10에 나타난다. 신자들은 그들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대해 주님께 설명을 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재판장으로 행하실 것이다(참조, 마 25:31-46).

NKJV는 “예수님의 재판석”으로 되어있다. KJV 역을 지지하는 헬라 사본들은 대문자 헬라 사본에 대한 이른 시기의 교정인 κ^2 , C²이다. κ , B, C, D, F, G 사본은 쎄오스로 되어 있다. 서기관들은 아마도 고후 5:10과 일치시키기 위해 헬라어 사본을 변경했을 것이다. 서기관들이 “양자론”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 생각에 반대하기 위해 이 절을 변경했을 수도 있다. 이 본문을 좀 더 정통주의에 가깝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본문의 변이가 여러 개 있다(참조, 발트 D. 엘만의 정통주의가 행한 성경의 변경,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993, 90-91쪽).

14:11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구약으로부터의 영감된 인용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관용구이다. 이것은 빌 2:10-11에서도 인용된 사 45:23에 대한 암시이다.

■ “내가 살았노니” 이것은 맹세를 나타내는 구조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와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야웨는 히브리어 동사 “~이다”의 원인을 나타내는 형태이다(참조, 출 3:14). 그는 항상 살아 계시며 홀로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하심으로 맹세하신다.

14:12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참조, 고후 5:10), 비판하는 형제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이다. 고대 헬라어 사본의 일부는 “하나님께”를 생략하고 있다. 이것은 문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변이는 10 절에 있는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로마서 14:13-23 의 문맥적 통찰

- 가.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의 주제는 1-12 절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에 이 주제는 기초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인이시요 재판장이시며 두 그룹의 사람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일들은 단지 이 일들이 그들의 과거, 그들의 인성, 그들의 부모, 그들의 개인적 취향, 그들의 경험 등을 인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 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 두 번째 논쟁의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 이 절들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사랑이다. 예수께서 신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듯이, 그들도 주께서 위해 죽으신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한다(참조, 고후 5:13-14; 요일 3:16).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적 동기를 이루는 사랑에 대한 이 강조는 13:8-10에서도 불신자에 대한 신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 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물질 세상이 깨끗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다. 신자들조차도 종종 죄의 책임을 자기 자신보다는 “물건”에 돌렸다(즉, 악마 녀석). 바울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거듭 밝힌다(참조, 14:14, 20; 고전 6:12; 10:25-26; 딥 전 4:4; 딸 1:15). 그의 진술은 막 7:18-23에 있는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으심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깨끗한 음식과 깨끗지 않은 음식을 행 10:15에서 사용되었다.
- 라.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강한 형제”에게 대한 내용이다. 바울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절반의 진리에 동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거나 교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덧붙인다(참조, 고전 6:12; 10:23). 강한 형제의 자유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를 황폐시킬 수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다.
- 마. 바울이 “약한 형제”가 “강한 형제”로 되는 영적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 논의의 전체적 관점은 은혜 안에서 자라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달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우선권에 있다. 신자들이 두 그룹 사이에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은 “옳거나” 그름”에 기초하기 보다 개인의 성격, 종교적 훈련,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경우가 더 많다. 신자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가슴의 영역에 속한다. 하나님은 양 쪽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4:13-23

¹³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¹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¹⁵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¹⁶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¹⁷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¹⁸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¹⁹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²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²¹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²²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²³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4:13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가정법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금지를 말한다. 이것은 16 절과 매우 비슷하다. “비판하다”라는 용어는 1-12 절에서 바울이 이미 5 번 사용했는데, 13-23 절에서 4 번을 더 사용한다.

특별주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판단해야 하는가?

이 주제는 두 가지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 신자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도록 권고받는다(참조, 마 7:1-5; 뉘 6:37, 42; 롬 2:1-11; 약 4:11-12). 한편 신자들은 지도자들을 평가하도록 권고받는다(참조, 마 7:6, 15-16; 고전 14:29; 살전 5:21; 딤전 3:1-13; 요일 4:1-6). 적절한 평가를 위한 기준은 유용할 것이다

1. 평가는 긍정적 인정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참조, 요일 4:1 – “시험하다”는 인정을 하기 위한 관점을 갖는다)
2. 평가는 겸손함과 온유로 행해져야 한다(참조, 갈 6:1)
3. 평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참조, 롬 14:1-23; 고전 8:1-13; 10:23-33)
4. 평가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지도자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다(참조, 딤전 3 장).

▣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부정사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내용이 21 절과 고전 8:9에 나온다.

“부딪칠 것”은 길에 놓여 있어서 사람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거칠 것”이란 용어는 문자적으로 동물을 잡는 몇몇 작동하게 하는 방아쇠 장치를 가리킨다.

기독교에는 공동체적 면이 있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이며 그들을 격려하는 자이며 그들의 친구이다. 믿음은 가족적인 것이다!

14:14

NASB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NKJV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알고 확신하노니”

NRSV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을 갖게 되노니”

TEV

“내가 주 예수와 연합함이 나를 확실하게 하노니”

JB

“이제 내가 주 예수를 위해 말함은 물론 내가 완전하게 잘 알게 된 것은”

이것은 오이다의 완료 능동형으로서 현재 시제의 의미를 가지며, 완료 수동 직설법과 함께 사용되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알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확신한다”의 뜻이다. 이것은 5b 절과 22-23 절에 있는 진리의 재진술이다. 신자들이 영적인 일을 아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갖는 교제에서 온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빛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와 같은 진리가 행 10:9-16에 예시된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한 것이다. 창조된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악하거나 혹은 그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참조, 20 절; 막 7:18-23; 고전 10:25-26; 딤전 4:4; 딘 1:15)!

▣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부정함을 뜻한다.

신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의해 자기의 행동을 평가해야만 한다(참조, 5, 22-23 절). 만일 그들이 어떤 주제나 행동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할 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 또한 특히 애매한 영역에서 그들은 다른 신자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참조, 14:1, 3, 4, 10, 13).

14: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권리가 아니라 사랑이, 자유가 아니라 책임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생활양식을 결정짓는다.

이것은 (1) 유대인의 음식 규정(참조, 레 11 장)이든지 (2)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참조, 고전 8-10 장)와 관련이 있다. 20 절은 이 진리를 매우 분명하게 표현한다.

▣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종종 “자유의 법”(참조, 약 1:25; 3:12)이나 “왕의 법”(참조, 약 2:8), 혹은 “그리스도의 법”(참조, 갈 6:2)으로 불린다. 새 언약에는 책임과 지침이 수반된다!



NASB, NKJV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NRSV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네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파멸하게 하지 말라”
TEV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을 네가 먹는 음식으로 파멸하게 하지 말라”
JB	“만일 네가 먹기 좋아하는 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어떤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분명히 너는 자유롭게 네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으로서 보통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매우 강한 구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멸망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것은 구원의 상실을 뜻하지 않고, 평화와 확신과 효과적 사역의 상실을 뜻한다.

“망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용어인 류페오스는 “비애, 슬픔, 아픔을 일으키다”이다(70 인역에서도 같다). 바울은 이 용어를 주로 고린도후서에서 사용한다(참조, 2:2, 4, 5; 6:10; 7:8, 9, 11).

망하게하다는 강하게 번역된 표현이다. 이것은 구원의 상실을 가리키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가책을 일으킴으로 인해 성령의 가책을 받게 함을 가리킨다. 만일 신자의 행동이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이다(참조, 23 절).

14:16

NASB	“너희에게 선한 것이 욕을 먹지 않게 하라”
NKJV, NRSV	“너희의 선한 것이 욕을 먹지 않게 하라”
TEV	“너희가 선하게 여기는 것이 나쁜 이름을 얻지 않게 하라”
JB	“너희는 너희의 특권을 불명예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수동 명령으로서 보통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자유는 쉽게 면허증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절에서 “선한 것”은 강한 형제의 행동을 가리킨다. 만일 강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자유로움을 따라 행하여 약한 신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면, “선한 것”은 악한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절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여야 하는가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 같다(참조, 18b 절). 이 동사는 “신성모독”(말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대개는 불신자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14:17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로마서에서 이 구가 사용된 유일한 경우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주제였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의 실재이며 또한 미래에 완성될 실재이다(참조, 마 6:10).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

구약에서 야웨는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상 8:7; 시 10:16; 24:7-9; 29:10; 44:4; 89:18; 95:3 사 43:15; 44:4, 6)과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참조, 시 2:6)로 여겨졌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주전 6-4년),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권세와 구속으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새언약, 참조, 램 31:31-34; 계 36:27-35). 침례(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다(참조, 마 3:2; 막 1:15). 예수님은 자신 안에 또 자신의 가르침 안에 왕국이 임재하심을 분명히 가르치셨다(참조, 마 4:17, 23; 9:35; 10:7; 11:11-12; 12:28; 16:19; 막 12:34; 뉴 10:9, 11; 11:20; 12:31-32; 16:16; 17:21). 그럼에도 왕국은 미래적이기도 하다(참조, 마 16:28; 24:14; 26:29; 막 9:1; 뉴 21:31; 22:16, 18).

공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평행을 이룸을 본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주된 주제인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로서 어느 날 온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마 6:10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구(하늘의 왕국)를 좋아하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서 신의 이름이 있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이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와 마치막 설교, 대부분의 비유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킨다! 요한이 이 구를 단지 두 번만(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번도 사용치 않음) 사용하는 것은 놀랍다. 요한의 복음에서 “영생”은 핵심용어로서 은유적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이 두 번 오심이 이 긴장을 야기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에—군사적, 재판적, 영광스런 오심—초점을 둔 반면, 신약은 그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와 습 9:9의 겸손한 왕으로서 처음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대인의 두 세대인 악한 세대와 의의 새 세대가 겹쳐진다. 예수는 지금 신자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것이다! 신자들은 “이미” 대 “아직”의 면을 갖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참조, 고든 D.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1-34쪽).

■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각 신자와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러한 내용은 안과 밖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다.

여기서 바울은 “의”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한다. 1:17의 특별주제를 보라. 대개 그는 이것을 전가된 의로서 신자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법적(법정)으로 선언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를 뜻한다(참조, 3:21-31; 4장). 죄 있는 인간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선물이며 목적이며, 직설법과 명령이며, 위치와 지위이며,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삶이다! 6:4의 특별주제를 보라.

14:18 신자들이 약한 신자들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섬김이다.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보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방법은 없다.

■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사역의 문을 열고 믿지 않는 공동체에 증거가 됨을 입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참조, 16절; 고후 8:21; 벤전 2:12).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강력한 증거가 된다.

14:19 “우리가 . . . 힘쓰나니” 디오코는 구약의 관용어로서 70 인역과 바울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열심으로 쫓다” 또는 “얻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다”를 뜻한다. 바울은 이 용어를 롬 9:31, 31; 12:13에서 사용하는데, 이곳에서는 “쫓다”的 의미이지만, 12:14에서는 신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4:12;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15:9; 고후 4:9; 갈 1:13, 23; 빌 3:6).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A, B, F. G. L, P 사본)이거나 **현재 능동 가정법**(C, D 사본)으로서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UBS⁴는 이것에 “D”(매우 곤란함) 등급을 준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 해야할 것들을 주목하라/

1. 손님 대접, 12:13
2.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움, 14:19
3. 사랑, 고전 14:1
4. 그리스도를 닮음, 빌 3:12, 14
5.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 살전 5:15
6.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딤전 6:11
7. 주님을 진실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과 평화, 딤후 2:22

▣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이것은 모든 면에서 신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시 34:14; 히 12:14). 사람의 개인적 자유와 신학적 이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안정과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참조, 15:2; 고전 6:12; 14:26; 앱 4:12). 15:2의 특별주제: 세우기를 보라.

14:20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강력한 합성 동사이다(카타 + 류오). 이것은 바울의 글에서 3회만 사용되었다(참조, 고후 5:1에서는 죽음을, 갈 2:18과 여기서는 파괴를 의미함). 문자적으로 “무너뜨리다”를 뜻하는 이 단어와 19절의 “세우다”사이에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둘 다 건축과 관련된 은유이다.

무엇이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사업”인가? 이것은 성숙을 가리키지 않고 “약한”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을 말한다. 이 문맥이나 혹은 고전 8-10장의 어디에서도 바울은 한 그룹의 사람이 강해지거나 변화되도록 다른 그룹의 사람이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 “**만물이 다 깨끗하되**” 14절의 설명을 보라.



NASB	“그러나 그것들은 먹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NKJV	“그러나 이것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NRSV	“그러나 네가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
TEV	“그러나 어떤 이가 죄에 떨어지게 할 것을 무엇이라도 먹는 것은 잘못이라”
JB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다른 이가 신앙을 버리게 한다면 악한 것이 된다”

이 절은 이 장의 중심진리이다(참조, 고전 10:25-26; 딤 1:15).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가리킨다(참조, 고전 8-10장). 고기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먹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약한 형제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게 된다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그/그녀의 개인적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심을 거슬리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된다.

많은 영어 번역은 이 문장을 “**강한 형제**”에게 연결시켜 그들이 먹음으로 약한 형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카톨릭의 번역인 NAB(새 영어 성경)는 다르게 본다. 즉 이 문장을 “**약한 형제**”에게 연결시켜서 “그러나 음식이 그의 양심을 거리끼게 할 때에 사람이 먹는 것은 잘못이다”로 번역한다. 문맥에서 처음 것이 더 잘 맞는다. 이 애매성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22-23절에서와 같이 양쪽을 다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4:21 이것은 “**강한 형제**”에 대한 말이다. 이것은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완전히 절제함**”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뒤받침하는 유일한 성경구절이다. 강한 신자들은 자신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요 진실된 구도자들(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만 한다. 이렇듯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많은 경우 문화적 지역적 혹은 교단적 이유에서 행해진다.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두 부정과거 능동 부정사로서 “결코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말라”의 의미이다. 어떤 이들은 이 부정과거를 단지 어떤 경우에만 적용하여 해석한다(참조, 고전 8-10 장). 분명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금할 수 없는 일이다.

14:22

- NASB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의 확신으로써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NKJV “네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NRSV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의 확신으로써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인해 자기를 정죄할 이유를 갖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TEV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네가 믿는 바를 지키라.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할 때에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는 그들은 복이 있도다”
- JB “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네 자신의 믿는 바를 굳게 잡으라—또 자신의 양심에 거스림 없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 있다고 여겨라”

이것은 신자가 반드시 자신이 가진 성경의 인도하심과 성경이 가르쳐주신 양심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함을 재확인한다(참조, 5 절). 그는 반드시 자신이 가진 빛에 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동료 신자의 믿음을 남용하기 위함은 아니다. 22 절은 “강한 형제”와 관련이 있고, 23 절은 “약한 형제”와 관련이 있다.

22 절은 사본적 변이로 시작한다. 이것은 질문(NKJV)일 수도 또한 진술(NASB, NRSV, TEV, JB)일 수도 있다.

■ “옳다” 2: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14: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것은 현재 중간태 분사이다. 이것은 3 절에 있는 지나치게 따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 “정죄되었나니” 이것은 카타 + 크리노의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1) “대조에 의해 죄있는 것에 놓임”(참조, 해롤드 K 물톤, 개정된 헬라어 분석 사전, 216 쪽) 또는 (2) “재판에 따라 정죄가 아니라 처벌을 받음”(참조, 롬 5:16, 18; 8:1[참조, 물톤과 밀리간, 헬라어 성경의 어휘, 328])을 뜻한다. 여기서는 사람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과 성령의 가책으로 따르는 고통을 가리킨다.

■ “(만일) 먹는” 이것은 조건절의 제 3유형이다.

■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애매한 성경의 영역에 있어서,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을 따라 행해야 한다—이것은 항상 성경과 성령께서 주시는 더 밝은 빛에 대해 열려 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성경의 불명료한 주제에 대해 성숙한 신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다.

■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16:25-27 의 송영이 14 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양 쪽에 다 나온다.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에는 이것이 15 장의 끝에 나온다. 로마서의 헬라 사본적 전본에는 이 송영이 6 곳의 장소에 나타난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세계성서공회가 출판한 부르스 M 맷츠커의 헬라어 신약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533-536쪽을 보라.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러 이론들의 간략한 요약이다: (1) 오리겐은 로마에 있는 초기의 이단인 말시온이 로마서의 마지막 두장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14 장에 있는 송영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2)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 보내기 위해 로마서의 1-14 장을 썼고 후에 같은 내용을 에베소에 보낼 필요(1-

16 장)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긴 개인적 인사(16 장)는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를 반영한다; (3) 16 장에 있는 인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 떠나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다; (4) 송영은 원래 있던 부분이 아니었고 서기관들에 의해 나중에 공예배에서 의식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덧붙여진 부분이었다.

M. R. 빈센트(단어 연구, 제 2 권)의 글은 흥미롭다.

“이러한 여러 이론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실은 현존하는 바울서신의 사본들(약 300 개의 사본이 있음)을 모두 대조하여 보았을 때 이 장들이 송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해져 내려 온 연결관계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750 쪽).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약한 형제”를 설명하라. 바울은 이들이 미성숙한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는가?
2.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깨끗하며” 도덕적으로 중립적인가(14, 20 절)?
4. 왜 고린도에서 음식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중요했는가(참조, 고전 8, 10 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음을 기억하라.
5. 이 장에서의 지식, 자유, 사랑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라.
6. 교회에서 무엇에 교제의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가?
7. 우리의 개인적 선택과 행동을 위한 기초는 무엇인가?
8.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9. 우리는 어떻게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규정할 수 있겠는가?
10.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두 쪽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 가능한가?

로마서 15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의 동료를 기쁘게 하라	다른 이의 짐을 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여야 한다	너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를 기쁘게 하라	(14:22-15:6)
15:1-6	15:1-6	15:1-6	15:1-6	
이방인을 위한 복음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같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연합을 호소함
15:7-13	15:7-13	15:7-13	15:7-12 15:13	15:7-12 15:13
바울의 선교적 위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이콘까지	개인적 사랑	바울이 담대하게 글을 쓰는 이유	후기
15:14-21	15:14-21	15:14-21	15:14-21	15:14-16 15:17-21
로마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계획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 함		로마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계획	바울의 계획
15:22-29	15:22-33	15:22-29	15:22-29	15:22-29
15:30-33		15:30-33	15:30-33	15:30-3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돋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3 절의 문맥적 통찰

- 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는 14 장에서부터 15:1-13 까지 계속된다.
- 나. 14:1-15:13 전체의 논점은 다음과 같은 개요를 가질 것이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참조, 14:1, 3; 15:7)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재판장이시기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참조, 14:3-12)
 3. 사랑이 개인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참조, 14:13-23)
 4. 다른 이를 세우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 놓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참조, 15:1-13)
- 다. 15:5-6 절은 14:1-15:13 전체 문맥의 3중적 목적을 나타낸다
1.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라
 2.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라
 3. 하나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된 찬송을 드리라
- 라. 이와 같은 신자의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적 책임 사이의 긴장이 고전 8-10 장에서 다루어 진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5:1-6

¹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²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³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⁴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⁵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⁶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15:1

NASB

“이제 강한 우리는 마땅히 힘이 없는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NKJV

“그러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양심의 가책을 담당하고”

NRSV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넘어짐을 참아주고”

TEV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가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을 도와주고”

JB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거리낌을 참아줄 의무를 갖고”

이것은 명령의 의미를 갖는 두 개의 현재 부정사이다. 15 장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14:1에서 시작한 논의의 계속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로마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성경적으로 애매한 영역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다시금 “강한” 그룹과 자신을 동일시 한다.

오늘날의 독자에게 있어서, “강한”과 “약한”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통칭하는 일은 그 그룹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인다.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다. 강한 그룹의 사람들은 규정이나 의식중심적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 금기사항을 피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였고, 완전히 헌신한 신자의 무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에 기초한 종교적 개념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이해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에서 행하던 옛 언약에 따른 실천을 고수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교도에서 개종한 자들은 그들의 옛 종교적(이교도의) 개념과 행습 가운데 일부를 붙드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들의 이러한 경향을 “죄”로 부르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러한 것이 그들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이 될 때만 이러한 것이 죄가 되었다(참조, 23 절).

“약한 자”(아두나데스, 힘이 없는, 참조, 롬 8:3)라는 용어는 14:1, 21에 있는 아스쎄네오(참조, 고전 8:7, 10, 11, 12; 9:22)와 다른 용어이다. 후자도 힘이 없는 것을 뜻한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불평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함께 “걸어야”함을 뜻한다. “담당하다”라는 용어도 요 19:17; 뉴 14:27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바울은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유주의적 힐렐 학파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훈련받았다.

▣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자기 중심적 삶은 분명히 미성숙함의 표식이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참조, 3 절; 빌 2:1-11)은 성숙함의 표식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한 자에게 말하고 있다(참조, 14:1, 14, 6, 21, 27). 이것은 그들이 교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약한 자들에게는 14:3, 20, 23; 15:5-6, 7에서 말하고 있다.

15: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것은 “이웃”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것은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분명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견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되고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고전 9:19-23; 10:24-33; 앱 4:1-16).

▣

NASB	“그의 덕을 위해”
NKJV	“덕으로 이끄는”
NRSV	“이웃을 세우는 선한 목적을 위해”
TEV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NJB	“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우라”

이것은 14 장의 주요 주제이다(참조, 14:16, 19). 또한 이것은 고전 10:23; 12:7; 14:26; 앱 4:29에서 언급된 영적 은사를 점검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동료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자라도록 도울 목적으로 강한 신자가 자신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요셉 A. 핏쓰마이어와 레이몬드 E. 브라운, 편저, 제롬 성경주석, 제 2 권은 이 절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이 구는 종종 자신의 그리스도인 이웃이 개인적으로 발전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그를 세우기 위해’(이웃)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종종 공동체적 의미로서 건물의 은유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적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참조, 고전 14:12; 앱 4:12; 롬 14:19)” (328 쪽).

특별주제: 세우다

바울은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용어와 이 단어의 다른 형태를 종종 사용한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집을 건축하다”이지만(참조, 마 7:24), 이것은 은유적인 용법을 가진다

1.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고전 3:9; 앱 2:21; 4:16

2. 건물을 이루다
 - ㄱ. 약한 형제, 롬 15:1
 - ㄴ. 이웃, 롬 15:2
 - ㄷ. 서로, 앱 4:29; 살전 5:11
 - ㄹ. 사역을 위해 성도를, 앱 4:11
3. 다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건물을 이루거나 세운다
 - ㄱ. 사랑으로, 고전 8:1; 앱 4:16
 - 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고전 10:23-24
 - ㄷ. 의심을 버림으로, 딤전 1:4
 - ㄹ. 예배에서 말하는 사람의 수를 줄임으로(노래하는 자, 교사, 선지자, 방언 말하는 자와 해석자), 고전 14:3-4, 12
4. 모든 것이 다음을 세워야 한다
 - ㄱ. 바울의 권위, 고후 10:8; 12:19; 13:10
 - ㄴ. 롬 14:19; 고전 14:26에 있는 요약적 진술

15:3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고 본이시다. 이 진리는 5 절; 빌 2:1-11; 벤전 2:21; 요일 3:16에서도 강조된다.

▣ “기록된 바는” 이것은 현재 수동 직설법으로서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이것은 시 69:9과 7 절의 인용이다. 구약의 인용 이외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추가함으로써(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참조, 빌 2:5-8), 바울은 초대 교회에서 권위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한다(참조, 뉴맨과 니다,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번역가의 헨드북, 271쪽).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우리가 따를 본이다(참조, 요일 3:16).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은 신약의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참조, 롬 4:23-24; 15:4; 고전 9:10; 10:6, 11). 이것은 새 언약적 신자에게도 상관이 있다(참조, 딤후 2:15; 3:16-17).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계속성이 있지만 또한 불연속성도 있다.

▣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이에 반응하는 신자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는가를 주목하라. 믿음과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참조, 5 절).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및 주께서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한 희망에 확신을 가져온다.

▣ “소망을 가지게 합이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일찌기 4 절에서 언급한 행동에 달려있음을 뜻한다. 신약에서 “소망”은 종종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재림을 가리킨다(참조, 롬 8:30; 요일 3:2). 영어 단어에 나타나는 의미의 불명료함이 헬라어 용어에는 없다. 재림은 확실하지 않은 어떤 때에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다.

바울은 종종 이 용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의미를 갖는다. 종종 이것은 신자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또한 영과, 영생, 궁극적인 구원, 재림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완성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시간적 요소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속한다. 이것은 종종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있다(참조, 고전 13:13; 살전 1:3; 살후 2:16). 바울이 사용하는 용법의 부분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재림, 갈 5:5; 앱 1:18; 4:4; 딤 2:13
2.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다, 딤전 1:1
3. 복음을 믿음, 골 1:23
4. 궁극적 구원, 골 1:5; 살전 4:13; 5:8

5. 하나님의 영광, 롬 5:2; 고후 3:12; 골 1:27
6. 구원의 확신, 살전 5:8
7. 영생, 딛 1:2; 3:7
8. 모든 피조물의 구속, 롬 8:20
9. 믿음, 롬 8:23-25; 15:4
10. 하나님의 칭호, 롬 15:13
11.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 고후 1:7

15:5 “하나님이 . . . 하여 주사”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부정과거 능동 희구법으로서, 바람이나 기도를 나타낸다. 바울의 기도인 5-6 절에는 두 간구가 들어 있다: (1) 한 마음이 되는 것(참조, 12:16; 고후 13:11; 빌 2:20) (2)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참조, 6, 7, 9 절).

▣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설명적인 칭호이다(참조, 15:13; 고전 1:3).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성경을 통해 신자들에게 온다(참조, 4 절). 8:25의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를 보라.

15: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완전한 칭호이다(참조, 고후 1:3; 앱 1:3; 베전 1:3). 이 분은 철학적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5-6 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두 칭호가 있음을 주목하라: (1)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2)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8:25의 특별주제인 인내와 1:7의 특별주제인 성부를 보라.

개역개정 15:7-13

⁷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⁸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⁹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¹⁰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¹¹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¹²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¹³소망의 하나님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7

NASB, TEV	“서로 용납하라”
NKJV	“서로 받으라”
NRSV	“서로 환영하라”
JB	“서로 같은 우호적 방법으로 대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이다. 신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받으셨음을 인해 서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진리가 14:1에서 발견된다. 한편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심에 대한 일련의 구약 성경구절을 이끌고 있다(참조, 9-12 절). 이것은 로마교회에 있던 갈등을 반영할 것이다.

기독교는 신자들이 서로 자신을 주는 삶으로 특징지어 진다(참조, 1:12; 12:5, 10, 16; 13:8; 14:13, 19; 15:5, 7, 14; 16:16).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 같이”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에 대한 신자의 행동의 동기와 힘이 드러난다(참조, 14:3). (1) 주인과 재판장이신 그리스도(1-12 절)와 (2)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써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13-23 절)께 14 장의 초점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다. 우리도 다른 이를 받아 주어야만 한다!

▣ “하나님께 영광을” 3:23 의 설명을 보라.

15:8 “그리스도께서 ...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이었다(참조, 마 15:24). 이것은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갈등에 초점을둔다.



NASB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NKJV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인하시고”

NRSV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가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여”

TEV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의 약속들이 이루어 지게 하시고”

JB

“그 결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언약적 약속으로 주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참조, 4:16). 한편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킬 수 있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사 2:2-4; 56:7; 66:18-24).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은 복음의 신비이다(참조, 액 2:11-3:13).

신약의 메시지는 구약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었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큰 사명은 (1)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소망의 완성 (2)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는 일(참조, 롬 3:29-30; 9:30; 10:11-12, 16-20; 11:25, 32; 16:25; 액 2:11-3:21)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방에 드러내고 또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복음적 사명에 실패했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우주적 사역(참조, 마 28:19-20; 요 3:16)을 이루도록 영적 새 이스라엘(참조, 갈 6:16)에게 능력을 주신다.

▣ “견고하게 하시고” 4: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15:9-12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들어 있었음을 말하는 일련의 구약 인용이다(참조, 10:16-20). 이것은 시 18:49 혹은 삼하 22:50; 신 32:43; 시 117:1; 사 11:1, 10 의 일련의 구약 인용이다. 히브리 정경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용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오경, 선지서, 성문서.

15:9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로마서의 예정론(참조, 9:15, 16, 18, 23)과 이방인의 참여(참조, 11:30, 31, 32; 15:9)에 있어서 신학적 열쇠를 이룬다. 믿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참조, 롬 9 장)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변치않으시는 성품(참조, 출 34:6; 느 9:17; 시 103:8, 4; 올 2:13)과 메시아를 주심에 대한 약속(참조, 사 11:1, 10)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5:13 “소망의 하나님” 이것은 14:1에서 시작된 문학적 단위를 끝맺는 송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된 또 하나의 놀라운 칭호이다—소망의 하나님.

▣ “모든 기쁨과 평강을 ...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절은 부정과거 능동 희구법으로서, 로마에 있는 신자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나타낸다. “모든”이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5:1-2; 14:17).



NASB, NKJV

NRSV

“믿음 안에서”

TEV

“그를 너희가 믿음으로”

JB

“너희의 믿음 안에서”

이것은 현재 능동 부정사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누리는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 이러한 삶은 각자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처음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응답이다.

▣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넘치고 또 넘치게”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는 페르시오의 현재 능동 부정사이다.

특별주제: 많이 있다(페르시오)

바울은 이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

1.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의 영광에 풍성하게 되었다, 롬 3:7
2.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사가 넘쳤다, 롬 5:15
3. 신자들이 소망에 풍성하다, 롬 15:13
4. 신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지 못한다, 고전 8:8
5. 신자들이 교회를 풍성히 세운다, 고전 14:12
6. 신자들이 주님의 일에 풍성하다, 고전 15:58
7.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에 함께 한다, 고후 1:5
8. 의의 사역이 영광 안에서 넘친다, 고후 3:9
9. 신자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친다, 고후 4:15
10. 신자의 넘치는 기쁨, 고후 8:2
11. 신자가 모든 것에 풍성하다(믿음, 선언, 지식, 진지함, 사랑),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도 넘치게 함, 고후 8:7
12. 모든 은혜가 신자에게 넘친다, 고후 9:8
13.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넘치는 감사, 고후 9:12
14.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신자 위에 넘친다, 앱 1:8
15. 신자의 사랑이 넘치고 더욱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빌 1:9
16.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 대한 신뢰가 넘친다, 빌 1:26
17. 풍성히 가짐, 빌 4:12, 18
18. 신자의 감사가 넘쳐 남, 골 2:7
19. 서로에 대한 신자의 사랑이 커지고 넘친다, 살전 3:12
20. 경건한 삶의 양식이 풍성해짐, 살전 4:1
21. 동료 신자에 대한 사랑이 풍성함, 살전 4:10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고 더욱 넘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와 같이 신자가 자신의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넘치고 더욱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행함이 필요하다!

▣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이 새 시대에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그분 없이는 어느 것도 영속하는 가치나 효력을 갖지 못한다(참조, 15:19; 고전 2:4; 살전 1:5). 8:9 과 8:11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로마서 14:1-15:13의 중심진리는 무엇인가?
2. 왜 바울은 9-12 절에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가? 그 성경구절들은 어떠한 큰 진리를 가르치는가?

14-33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 면에서 시작 부분(1:8-15)과 비슷하다
1.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다(참조, 1:8)
 2.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도직을 변호한다(참조, 1:13, 14)
 3.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려는 마음을 확인해 준다(참조, 1:10, 13)
 4.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바울이 가는 것을 그들이 돋기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스페인, 참조, 1:13)
- 나.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이 또 암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서신의 도처에서 암시되거나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9-11 장; 14:1-15:13에 잘 드러나 있다.
- 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초대교회의 갈등에 대한 암시가 또한 나타난다. 그는 15-19 절; 1:2, 5에서 자신을 변호한다.
- 라. 이 문학적 단락은 두 주제를 가진다.
1.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도적 복음전도적 사역(참조, 14-21 절)
 2. 바울이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여행은 그가 로마를 거쳐가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참조, 22-23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5:14-21

¹⁴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¹⁵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¹⁶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¹⁷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¹⁸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¹⁹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²⁰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²¹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15:14

NASB

“내 형제들아 너희에 관해 나 자신이 확신한다”

NKJV

“내 형제들이 이제 나 자신이 너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

NRSV

“내 형제 자매들아 나 자신이 너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

TEV

“내 친구들아 내 자신이 너희가 확실하다고 여긴다”

JB

“내 형제들아 이것은 내가 너희에 대해 어떤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너희에 대해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헬라어 “나”(아우토 에고)는 매우 강조된 형태이다. 바울은 이 교회를 정말로 칭찬하고 있다(확신하다, 완료 수동 직설법).

바울은 14 절에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3 가지를 확인해 준다 (1) 그들은 선한 일로 가득하다[현재 능동 직설법] (2) 그들은 지식으로 가득하다[완료 수동 분사] (3) 그들은 서로를 권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현재 수동 분사]. 이 절은 그들에게 새로운 내용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들었고 받아들인 복음을 설명하고 명료하게 하려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15 절).

■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앞에 나온 구인 “나 나 자신”처럼 “너희 너희 자신”도 강조를 나타낸다. “가득한”(페스토스)은 “가득 찬” 또는 “충만한”을 뜻한다. 바울이 이 용어를 단지 두 번 사용하는데, 둘 다 로마서에 나온다(1:29; 15:14).

“가득차다”(플레로오)는 완료 수동 분사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참조, 1:29; 8:4; 13:8; 15:13, 14, 19). 그는 또한 명사형인 플레로마를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참조, 11:12, 25; 13:10; 15:29), 형용사형은 그의 서신에서 어느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온전한 복음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신자를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 신자들은 그들이 필요로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다. 그들은 이런 확신을 완전하게 받아 누릴 필요가 있다.

■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1) 문맥적으로 바로 앞 단락인 14:1-15:13과 관련하여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다—불명료한 성경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갖는 신자의 사랑을 말한다. 이것은 14:6; 15:2 과 이곳에서 사용된 “선함”이 일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써 지지를 받는다. 또는 (2) 이 용어들은 믿음과 인내, 정통적 교리와 정통적 실천을 포함하는 전체 복음과 관련을 갖는다.

15:15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그는 그 교회의 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글로는 담대하나 사람은 약하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은 고후 10:2, 12; 11:21에 나온다. 바울의 담대함은 그의 회심과 소명과 복음에 대한 지식에서 왔다.

■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신(참조, 11:13; 15:16) 하나님의 은혜(참조, 1:5; 12:3; 고전 3:10; 15:10; 갈 2:9; 액 3:7-8)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직과 권위를 주장하는 방법이었다(참조, 1:1, 5).

15:16 “일꾼이 되어 . . . 직분을 하게 하사 . . . 제물로 드리는 것이 . . . 받으실 만하게” 16 절과 17 절에는 여러 개의 제사 용어와 구가 들어 있다. 27 절에서 “직분”은 제사장의 일을 말한다. 이것은 히 8:2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일인(참조, 출 19:5-6; 사 66:20)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참조, 빌 2:17)으로 바울은 자신을 여겼다. 교회에게 이 복음전도의 과제가 주어졌다(참조, 마 28:18-20; 뉴 24:47). 벤전 2:5, 9 와 계 1:6에서 교회는 구약의 제사장적 용어로 불린다.

▣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다시금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민족(이방인)들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받아 들여졌고 또 거룩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그려하다라고 선언한다(참조, 고전 6:11).

15:17-19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행동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참조, 17 절), 그리스도 안에서(참조, 17 절), 성령의 능력으로(참조, 19 절). 또한 30 절에서도 삼위 이신 하나님이 언급됨을 주목하라. 비록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개념은 나온다(참조, 마 3:15-17; 28:19; 행 2:33-34; 롬 8:9-10; 고전 12:4-6; 고후 1:21; 13:14; 앱 1:3-14; 4:4-6; 딘 3:4-6; 벤전 1:2). 8:11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15:18-19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사역이 효과적이었음을 여러 방법으로 말한다: (1) 말로써 (2) 행동으로써 (3) 표적으로써 (4) 놀라운 일로써 (5) 성령의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5 항의 “성령”과 관련하여 한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어떤 헬라어 사본은 “성령”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많은 변이에서와 같이 이러한 추가 혹은 영감되지 않은 명료성은 본문의 진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문을 필사하던 후기 서기관들이 신약의 구를 표준화 시키려는 시도를 일반적으로 했다.

15:18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이었다. 예수의 복음은 창세기 3 장의 타락으로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경건한 삶으로 뒷바침된다.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이다!

▣ “말과 행위로” 이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19 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명백한 연관이 있다.

15: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 두 용어는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참조, 고후 12:12)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함께 사용된다(참조, 14:8-10; 16:16-18, 25-26; 20:9-12; 28:8-9). 이 용어들은 동의어적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는—기적 혹은 회심—불확실하다. 이것은 여기서 또 다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열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사역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한 사역 또한 명백한 표적으로써 확인해 주셨다.

▣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것은 플레로오의 완료 능동 부정사이다(참조, 14 절). 이것은 바울이 지중해 동편에서 그가 말씀 전하는 사역을 마쳤다고 믿었음을 나타낸다(참조, 23 절).

▣ “일루리곤까지” 달마디아로 알려진 로마의 이 도는 그리스 반도(마케도니아) 북서쪽에 있는 아드리아해 동편에 있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행한 사역의 범위에 이 지역을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다(참조, 20:1-2). “~까지”는 “~의 경계에” 혹은 “~의 지역에서”를 의미할 수 있다.

15: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것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취한 선교 전략이었다(참조, 고전 3:10; 고후 10:15-16). 그는 복음을 듣고 영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이교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는 보통 로마제국의 대도시와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있던 도시들을 택하여 그곳에 설립된 교회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제자삼을 수 있도록 했다.

15:21 이것은 70 인역 사 52:15 의 인용으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듣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이 예언을 그의 선교전략으로 취했다.

개역개정 15:22-29

²²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²³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²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²⁵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²⁶ 이는 마계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²⁷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²⁸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²⁹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15:22 “그러므로” 이 이유는 20 절에서 설명되었다.

■ “여러 번 막혔더니” 이것은 미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그는 거듭 거듭 길이 막힘을 경험했다(참조, 1:13). 누가 막았는가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의 길을 막은 자는 하나님, 사탄, 악한 백성, 혹은 복음을 전할 다른 기회였을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음을 기억하라. 고린도에서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가 자신의 여행 계획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서 오는 공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여행 계획이 거듭 거듭 좌절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절은 제한된 지역적 개념으로서 소아시아나 지중해 동쪽 지방으로 보아야만 한다. 바울은 이 지역의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중 몇 곳에서만 전한 것이다.

■ “또 여러 해 전부터 . . .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종종 표현했다(참조, 1:10-15; 행 19:21; 23:11).

이 점에 있어서 고대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는데 UBS⁴의 본문비평적 각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κ, D, F, G, L 은 22 절에서 사용된 “많은”(풀뤼스)를 가지지만, B, C, P 사본은 “여러”(이카노스)를 가진다. 아마도 후기의 서기관들은 바울의 과장법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15:24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바울은 로마제국의 서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참조, 고후 10:16). 그는 사도행전의 끝 부분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 네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다. 목회서신(딤전, 딤후, 디도서)은 이 네 번째 여행 시에 기록되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는 어떤 대문자 헬라 사본인 κ, C, 라틴 별게이트역, 콥턱역에서 딤후 4:10 에 “고울”이라는 지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1 세기 말 무렵 그가 기록한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5:7에서 바울이 “서쪽으로” 여행했다고 말한다.

▣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이 구는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설교할 다음 목적지로 가도록 돋는 것을 말하기 위해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문적 관용어가 되었다(참조, 행 15:3; 고전 16:6, 11; 고후 1:16; 딤 3:13; 요 삼 6 절). 로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한 구제 기금에 기여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서쪽으로 선교여행을 하는 것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

15:25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용어는 종종 기금을 모금하는 것과 관련된다(참조, 31 절; 고전 16:15; 고후 8:4; 9:1). 1:7 의 특별주제: 성도를 보라.

15:26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은 여러 해에 걸쳐 (1) 갈라디아와 소아시아(참조, 고전 16:1-4) (2)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참조, 고후 8-9 장)로부터 이러한 모금을 받았다. 그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참조, 행 11:30; 12:25). 이것은 초대교회의 두 날개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도왔다. 이방인 교회들이 “기쁘게” 이 일을 행했다고 설명된다(참조, 26, 27 절).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그리스도인과 배고픔

I. 서론

- 가. 배고픔은 인류와 피조물의 타락으로 인한 현상으로서 항상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
- 나. 배고픔은 악과 고통이라는 문제의 한 면이다. 이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보상하고 벌하시는 방법으로 농업적 축복이나 저주를 사용하시지만(신 27-28 장), 이것은 모든 불신자에게 대한 것은 아니다(마 5:45). 배고픔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인류의 또 하나의 분명한 모습이다. 배고픔의 문제는 실제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동기와 우선권의 문제이다.
- 다. 배고픔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다. 교회 안과 세상에서 보는 물질적 필요에 대해 신자가 하는 반응은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나타낸다.

II. 성경의 자료

가. 구약

1. 모세

- ㄱ. 고대 이스라엘이 드렸을 세 가지 십일조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신 14:28-29)
- ㄴ.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을 정해놓고 있다(출 23:11; 레 9:10; 23:22; 신 24:19-22)
- ㄷ.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따로 비싸지 않은 희생제사 규정을 갖고 있었다(레 14:21)
- ㄹ.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 대해 동정을 갖고 돋는 자세를 가져야 했다(신 15:7-11, 참조, 롬 29:16; 30:25; 31:16-23)

2. 지혜문학

- ㄱ.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축복이 주어졌다(시 41:1)
- ㄴ. 가난한 사람을 돋는 것은 하나님을 돋는 일이었다(잠 14:31; 17:5; 19:17)

3. 예언서

- ㄱ.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며 궁핍한 자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요구하셨다(사 58:6-7; 미 6:8)
- 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전파된 점은 이것에 대한 한 증거였다(사 61:1-2)

- ㄷ.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회적 착취를 질책했다(암 2:6-8; 5:10-13; 미가서)
- 나. 신약
1. 복음서
 - ㄱ. 가난한 자들을 돋는 것이 권고된다(막 10:21; 뉘 3:11)
 - ㄴ.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에게 우리의 사회적 사랑을 나타내는 여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 사실상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은 예수님을 돋는 것이다(마 25:31-46)
 - ㄷ. 막 14:7 이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의 결여를 나타낸다고 주장할 때, 심한 오해가 있었다. 이 절은 그의 독특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 ㄹ. 사 61:1-2 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을 말한다(눅 4:18; 7:22; 14:21).
 2. 바울
 - ㄱ.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의 현금을 드리는 개념을 배웠다(롬 15:26; 고전 16:1; 고후 8:4, 6, 19; 갈 2 장).
 - ㄴ. 바울은 은혜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다(엡 2:8-10).
 3. 야고보(신약의 지혜문학)
 - ㄱ.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데 사회적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병든 것이다(약 2:14-17).
 - ㄴ.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말했다!
 4. 요한
 - ㄱ.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변화된 삶에 기초함을 주장한다(요일 3:17-18).

III. 결론

- 가. 인간의 비참함과 필요는 인류의 죄와 관련이 있다. 배고픔의 여러 측면은 이렇다:
1. 어리석은 행동(잠 19:15)
 2. 하나님의 처벌(신 27-28 장)
 3. 영적 섬김과 관련됨(고후 11:27)
 4. 문화적 환경(탐욕, 관념 등)
 5. 물질적 환경(기근, 홍수, 우박 등).
- 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돌보신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
- 다. 행동하는 교회는 인간의 필요(육체적 및 영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1. 개인의 직접적인 행동
 2. 교구/교회의 공동체적 행동
 3. 변화를 위한 정치적 기구
- 라.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우리의 문화와 개인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후 8-9 장).
- 마.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손을 펴 국내와 국외, 교회와 세상에 있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
- 바. 도움은 대 위임(마 28:18-20)의 빛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것이어야 한다. 도움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15:27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 축복에 참여했다면(참조, 롬 10-11 장),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도와야 했다.

15:28

NASB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마치고 그들의 열매에 내 인을 둔 때에”

NKJV

“내가 이것을 행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인친 때에”

NRSV

“내가 이것을 완성하고 또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한 때에”

TEV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을 위해 모금한 모든 돈을 그들에게 전달한 때에”

JB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하고 모금한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때에”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와 부정과거 중간태 분사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짐을 쌈 물건에 인을 치는 일반적 방법으로 그 내용물의 안전을 확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바울에게 맡겨진 모든 금액이 보내져 받게 됨을 바울이 입증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현금을 한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고 있다(참조, 행 20:4). “인”에 대하여는 4:11의 특별주제를 보라.

15:29 *플레로오/플레로마* 또 쓰이고 있음을 주목하라. 14 절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5:30-33

³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³¹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³²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³³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5:30 “너희를 권하노니 . . .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것들은 강한 의미를 갖는 헬라어 용어들이다. 처음 단어는 12:1에서도 사용되었다. 두 번째 것은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씨름하고 있을 때 사용되었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의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참조, 고후 1:11; 엡 6:18-20; 골 4:3; 살전 5:25; 살후 3:1).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경험은 어려운 일로 드러났다(참조, 31 절). 그가 로마에 도착했지만 자신이 가졌던 생각대로는 아니었다. 9:3의 특별주제: 중보기도를 보라.

15:30-33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 소원을 나타낸다: (1) 그가 유다에 있는 그의 적들로부터 구출받는 것(참조, 행 20:22-23) (2) 이방인 교회들의 선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잘 받아들여지는 것(참조, 행 15:1 이하; 21:17 이하) (3) 그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러 오는 것이었다.

15:30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용어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순(~와 함께)*과 *아고니조마이(싸우다)*. 다투다, 진지하게 씨름하다, 참조, 고전 9:25; 골 1:29; 4:12; 딤전 4:10; 6:12의 합성어이다. 바울은 강한 **부정사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의 현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그와 함께 로마교회가 적극적으로 씨름해 줄 것을 요청한다.

15:31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이것은 교회 전체에서 오는 반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의 반대나 유대주의자들의 반대를 뜻한다(참조, 11:30, 31).

15:32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요청으로 끝맺는다: (1) 그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올 수 있기를 위해서 (2) 그가 그들과 더불어 쉬는 시간을 갖기를 위해(부정과거 중간태[디포] 가정법은

신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사 11:6 에도 이 단어가 있다. 바울은 사 11:1, 10 을 12 절에서 인용한다). 바울은 성숙한 신자들 사이에서 갖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필요로 했다(참조, 고후 4:7-12; 6:3-10; 11:23-33)!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했다. 체포와 심문과 수년에 걸친 옥살이가 팔레스타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5:33 “**평강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된 놀라운 호칭이다(참조, 6:20; 고후 13:11; 빌 4:9; 살전 5:23; 살후 3:16; 히 13:20).

■ “아멘” 1:2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신약의 신자들에게 구약은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4-5 절; 고전 10:6, 11)?
2. 왜 바울은 9-12 절에서 구약을 인용하는가? 이 내용이 기르치는 커다란 진리는 무엇인가?
3. 로마서의 어느 부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나타나는가?
4. 로마서의 어느 부분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는가?
5.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 현금을 해야 할 이유로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15-28 절)?
6. 무엇이 바울의 선교전략이었는가? 왜 그는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는가?
7. 어떻게 또 왜 바울은 자신의 제사장적 사역이 제사장 나라이인 이스라엘(출 19:5-6)과 또 교회(벧전 2:5, 9; 계 1:6)와 연결된다고 설명하는가?
8. 하나님은 30-33 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로마서 16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개인적 인사	뵈뵈 자매를 천거함	인사	개인적 인사	안부와 축복의 말
16:1-2	16:1-2	16:1-2	16:1-2	16:1-2
	로마의 성도들에 대한 인사			
16:3-16	16:3-16	16:3-16	16:3-5a 16:5b-7 16:8-11 16:12-15 16:16	16:3-5a 16:5b-16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피하라		마지막 교훈	경고와 첫 후기
16:17-20	16:17-20	16:17-20	16:17-20a 16:20b-21	16:17-20
	바울의 친구들로부터의 인사			마지막 인사와 두 번째 후기
16:21-23	16:21-24	16:21 16:22 16:23		16:21-23
			16:22 16:23	
송영	축도		마지막 기도와 친양	송영
16:25-27	16:25-27	16:25-27	16:25-26 16:27	16:25-2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돋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27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함에 있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참조, 빌 4:3); 뵈뵈 1 절; 브리스가 3 절; 마리아 6 절; 유니아(혹은 유니아스—만일 그렇다면 남자임) 7 절;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12 절; “그의 어머니” 13 절; 율리아 15 절; “그의 자매” 15 절. 사역에 있어서 여자의 자리에 대하여 교리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신자들이 은사를 받은(참조, 고전 12:7, 11) 전임 사역자들이다(참조, 앱 4:12). 성경은 남자가 머리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말한다. 이 명단에서 우리는 여집사 뵈뵈와 여사도였을 유니아(참조, 율 2:28; 행 2:16-21)를 본다.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고전 11:4-5을 14:34과 비교할 때 볼 수 있듯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전술 때문이다.
- 나. 이러한 이름에서 인종적 배경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라
1. 유대인 신자: 아퀼라, 브리스가, 안드로니고, 유니아, 마리아[어떤 사본에는 마리암으로 되어 있음]
 2. 로마의 귀족의 이름: 브리스가, 암블리아, 아벨레, 나깃수, 율리아, 빌롤로고;
 3. 유대인 귀족의 이름: 아리스도불로, 헤로디온
- 다. 1-16 절은 바울의 개인적 인사임에 비해, 17-20은 글을 마치며 주는 거짓 교사에게 대한 경고이다. 21-23에서 선교팀은 고린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라. F. F. 브루스가 쓴 텐델 신약주석에서 16 장에 대한 내용은 매우 유용하다. 만일 당신이 이 장에 나오는 이름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기 원한다면 266-284쪽을 읽으라.
- 마. 어디서 편지가 끝나는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고대 헬라어 사본들의 경우 14 장, 15 장(P⁴⁶ 사본), 16 장의 끝 부분에 편지를 마치는 내용이 여러 번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종결인 16:25-27은 P⁶¹, K, B, C, D 사본 및 로마의 클레멘트(주후 95년)가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다.
- 24 절은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P⁶¹, K, B, C 와 라틴 벌케이트 및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사용한 헬라어 사본에 빠져 있다. 사본적 변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브루스 M 맷츠거, 헬라어 신약에 대한 본문비평적 주석, 533-536쪽을 보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6:1

¹내가 젠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²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16:1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것은 여집사 뵈뵈를 추천하는 편지의 내용이다. 그녀는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 가지고 갔을 것이다. 신약에는 이러한 종류의 소개나 추천을 하는 편지의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참조, 행 18:27; 고전 16:3; 고후 3:1; 8:18-24; 빌 2:19-30).

▣ “뵈뵈” 그녀의 이름은 “밝은” 혹은 “빛나는”이다.



NASB, NKJV	“교회의 종인”
NRSV	“교회의 집사”
TEV	“교회를 섬기는”
JB	“교회의 여집사”

이것은 디아코노스라는 용어이다. 이것은 대격 단수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역자/종을 가리키는 헬라어이다. 이것은 15:8에서 그리스도께 사용되었고 앱 3:7; 골 1:23, 25에서는 바울에게 사용되었다.

신약과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쓰여진 초기 교회의 글에는 여집사직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 신약에서 지역교회의 사역을 감당한 여자들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목회서신에서 “과부의 명부”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참조, 딤전 3:11; 5:3-16). RSV, 확대성경, 필립역은 16:1에서 “여집사”라고 번역했다. NASV, NIV는 각주에 이 단어를 넣었다. NEB 역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 표현했다. 신자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으며, 전임사역자들이다(참조, 앱 4:12).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한다. 우리의 전통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야 한다! 초대 교회의 집사와 여집사들은 종이었지 최고 실행위원회가 아니었다.

M. R. 빈센트는 단어 연구, 제 2권, 752쪽과 1196쪽에서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에 속하는 사도적 현장은 교회의 여성 조력자들의 임무와 안수를 구분하였다고 말한다.

1. 여집사
2. 과부(참조, 딤전 3:11; 5:9-10)
3. 처녀(참조, 행 21:9 와 아마도 고전 7:34)

이러한 임무가 포함되었다:

1. 병자를 돌봄
2. 신체적으로 펫박받은 자를 돌봄
3. 신앙을 인해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함
4. 새 신자들을 가르침
5. 여자들이 침례(세례)받는 것을 도움
6. 어떤 이들은 교회의 여신도들을 돌봄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I 구약

- 가. 문화적으로 여자들은 재산으로 여겨졌다.
1. 재산 목록에 들어 있었다(출애굽기 20:17)
 2. 여자 종에 대한 대우(출애굽기 21:7-11)
 3. 여자가 맹세한 것을 사회적 책임이 있는 남자가 무효화 시킬 수 있었다(민수기 30 장)
 4. 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여인들(신명기 20:10-14; 21:10-14)
- 나. 실제적으로는 상호 친밀감이 있었다
1.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음(창세기 1:26-27)
 2. 부모를 공경함(출애굽기 20:12[신 5:16])

- 3. 부모에 대한 존경(레위기 19:3; 20:9)
 - 4. 남자와 여자가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민수기 6:1-2)
 - 5. 딸들이 상속권을 가졌다(민수기 27:1-11)
 - 6. 언약 백성의 구성원(신명기 29:10-12)
 - 7. 부모의 가르침을 지킴(잠언 1:8; 6:20)
 - 8. 혜만의 아들들과 딸들(레위 가족)이 성전에서 음악을 인도함(역대상 25:5-6)
 - 9. 아들과 딸이 새 시대에 예언할 것임(요엘 2:28-29)
- 다. 여자들이 지도자직을 가졌다
- 1.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불림(출애굽기 15:20-21)
 - 2.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여자들이 성막의 건축에 참여함(출애굽기 35:25-26)
 - 3. 여선지자 드보라(참조, 삿 4:4)도 모든 지파를 이끌었다(사사기 4:4-5; 5:7)
 - 4. 요시아 왕이 불러 온 여선지자 훌다는 새로 발견된 “율법 책”을 읽고 해석하였다(열왕기하 22:14; 역대하 34:22-27)
 - 5. 경건한 여인 룻은 다윗이 조상이 되었다
 - 6. 경건한 여인인 에스더 왕비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구했다

II 신약

- 가. 유대와 그리스-로마 세계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이등국민으로서 약간의 권리나 특권만을 가졌다(마케도니아는 예외임)
- 나.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은
- 1.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들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눅 1-2 장)
 - 2. 경건한 여인인 안나는 성전에서 섬겼다(눅 2:36)
 - 3. 루디아는 신자로서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다(행 21:8-9)
 - 4. 빌립의 네 딸은 여선지자들이었다(행 21:8-9)
 - 5. 뵈뵈는 젠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다(롬 16:1)
 - 6. 브리스가(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요 아볼로의 선생이었다(행 18:26; 롬 16:3)
 - 7.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여러 여인들이 있다(롬 16:6-16)
 - 8. 유니아(KJV)는 아마도 여자 사도였을 것이다(롬 16:7)
 - 9.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동역자였다(빌 4:2-3)

III 어떻게 오늘날의 신자들이 성경의 다양한 모본 사이에서 균형을 취할 것인가?

- 가.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 진리나 문화적 진리를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적용할 영원한 진리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 1. 우리는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 2. 우리는 역사적 제한을 분명히 받는 영감된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 ㄱ. 이스라엘의 예배(즉, 의식과 예식) (참조, 행 15 장; 갈 3 장)
 - ㄴ. 1 세기의 유대교
 - ㄷ.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한 역사적 제한을 진술한다
 - (1) 로마의 이교도적 법 제도(고린도전서 6 장)
 - (2) 종으로 남음(고전 7:20-24)
 - (3) 금욕(고전 7:1-35)
 - (4) 처녀로 지냄(고전 7:36-38)
 - (5)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고전 10:23-33)

(6) 주님의 만찬에서 적합지 않은 행동(고전 11 장)

3.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우리는 계시를 중대하게 여겨야 하지만, 역사적 적용을 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문화와 특정 시대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 나. 성경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가 당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은 적절한 해석을 위한 기초이며 중요한 면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만 한다. 이제 여자들이 지도력을 갖는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된다(해석상 실제 문제에 따라서 이 용어가 정의될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 목회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역자들이 있었는가? 여집사들이(참조, 롬 16:1) 지도자로 여겨졌는가? 고전 14:34-35과 딤전 2:9-15에서 여자들이 공적 예배를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이 주장한 점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이 점을 어떻게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바울의 문화나 내가 속한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울 당시 너무 제한시켰다면, 오늘날은 너무 개방적일 것이다. 나는 바울의 말과 가르침이 1 세기의 지역적 상황을 위한 제한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내가 누구라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속한 문화가 영감받은 저자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한편 여성 지도자들의 성경적 예가 있는데(심지어 바울의 글에서도, 참조, 롬 16 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11-14 장의 공예배에 대한 논의에서 나온다. 11:5에서 만일 여자들이 머리를 덮었다면 여자들이 공예배에서 설교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4:34-35에서 바울은 그들이 잠잠히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집사들(참조, 롬 16:1)과 여선지자들(참조, 행 21:9)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나로 하여금 바울의 언급(여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을 1 세기의 고린도와 에베소로 보는 자유를 갖게 한다. 이 두 교회에는 여자들이 자기들이 새로 갖게 된 자유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브루스 민터, *바울이 떠난 후의 고린도를 보라*). 이러한 문제는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들의 사회를 접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 왔을 것이다. 복음이 더 효과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했다.

오늘날의 상황은 바울이 살던 때와 정반대이다. 훈련받아 명료하게 사역을 하는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회중을 이끌도록 하지 않게 한다면 복음이 제한을 받는 것이 현대의 상황이다! 무엇이 공예배의 궁극적 목적인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닌가? 여성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바울을 따르고 싶다; 나의 신학은 주로 바울신학이다. 나는 현대의 여성신학에 의해 지나친 영향을 받거나 조종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노예제도, 인종차별, 광신, 성적 탐닉 등과 같은 부적절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진리에 대해 느리게 반응해 왔다고 느낀다. 교회는 또한 오늘날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도 느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여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나는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본문으로 그들에게 다시 죽임을 채워서는 안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해석가로서 나는 고린도가 매우 무질서한 교회였음을 안다. 카리스마적 은사가 존중되었고 또 과시되었다. 여자들은 이러한 것에 쉽게 사로 잡힐 수 있다. 나는 또한 에베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안다. 그들은 여자들을 속였고 그들을 에베소 가정교회에서 대리 설교가로 이용했다(참조, 딤전 후)

다. 추가적인 독서 자료

1.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61-77쪽)
2.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 신약의 해석학적 이슈들
3. 왈터 C. 카이저, 피터 H. 데이빗, F. F. 브루스, 맨프렌 T. 브랜치의 성경의 어려운 말들(613-616, 665-667쪽)

▣ “교회”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는 “~로 부터”와 “부르심을 입은”의 두 단어에서 왔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불러 내신 사람들을 뜻한다. 초대교회는 세속적 용법(참조, 행 19:32, 39, 41)에서 이 용어를 가져와 사용하였는데, 70 인역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참조, 민 16:3; 20:4). 초대교회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연속으로서 자신들에게 사용했다. 그들은 새 이스라엘이었고(참조, 롬 2:28-29; 갈 6:16; 베전 2:5, 9; 계 1:6), 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성취였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마 28:18-20; 뉴 24:47; 행 1:8).

이 용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도시의 세속적 모임, 행 19:32, 39, 41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백성, 마 16:18 과 에베소서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역 교회의 믿는 회중, 마 18:17; 행 5:11(이 절들에서 예루살렘 교회)
4. 집합적인 이스라엘 백성, 행 7:38, 스데반의 설교에서
5.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행 8:3(유대와 팔레스타인)

▣ “겐그리아” 이것은 고린도의 두 항구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동편에 있었다(참조, 행 18:18).

16: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것은 프로스 테코마이의 부정과 거중간태[디포] 가정법으로서 “손님으로 친절하게 영접하다”이다(참조, 빌 2:29). 바울은 이 여인을 신뢰했고 교회가 그녀를 영접하고 그를 대신하여 돋기 원했다.

▣ “성도” 이 단어는 “거룩한 자들”을 뜻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지위 뿐 아니라 그들의 경건한 삶도 포함하는 것이다.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새로 얻은 지위를 점진적으로 구체화 한다. “성도”라는 용어는 빌립보서의 한 곳(4:21) 만을 제외하고는 항상 복수형으로 나온다. 빌립보에서도 이것은 집합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가족, 몸의 한 부분이 됨을 의미한다. 오늘날 서양의 교회는 성경적 믿음의 이러한 공동체적 면을 약화시켰다! 1:7의 특별주제: 성도를 보라.

▣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두 가정법이 있다. 처음 것인 파리스테미(부정과 거 능동)는 “도울 수 있게 대기하다”이다. 두 번째인 크레조(현재 능동)는 “무엇이 필요하든지 돋다”를 뜻한다(참조, 고후 3:1).

이것은 순회 사역자들에 대한 물질적 공급을 가리킨다. 이것은 추천을 하는 편지의 목적이다.



NASB, NKJV

“여러 사람의 조력자가 되었음이라”

NRSV
TEV
JB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음이라”
“이는 여러 사람에게 그녀가 좋은 친구가 되었음이라”
“매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았음이라”

프로이스터스라는 이 용어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물질적 혹은 재정적 도움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원래 부유한 여자 후원자를 가리킨다. 뵈뵈가 로마로 여행하는 점(참조, 1절)과 그녀가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참조, 2절), 이 내용은 그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개역개정 16:3-16

³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⁴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⁵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맷은 열매나라 ⁶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⁷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간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⁸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⁹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¹⁰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¹¹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¹²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베시에게 문안하라 ¹³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¹⁴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¹⁵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¹⁶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3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는 “브리스길라”로 그녀를 부른다. 그녀는 종종 자기 남편보다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참조, 행 18:18, 26; 고전 16:19; 딤후 4:19). 아마도 그녀가 로마의 귀족이었거나 부부 중 우세한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바울과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 또는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동역자”라고 부른다. 그는 아마도 로마교회가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이 부부를 통해 들었을 것이다.

16:4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것은 “사형집행인의 도끼”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온 관용어이다. 성경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 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잠잠히 있다.

■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 부부로부터 받은 우정과 적극적 도움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의 섬김을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까지 확장시킨다. 얼마나 커다란 확인이요 감사의 말인가! 이것은 그들이 아볼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을 일컬을 것이다(참조, 행 18:24-28).

16:5 “교회”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불러 내심을 받은 자들”을 뜻한다. 헬라어 구약성경인 70인역에서 이 용어는 히브리어 키할에 대한 번역으로서 “회중”으로 번역되었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的 자연적 계승자요 완성으로서 자신들을 이해했지, 분리주의자들의 그룹으로 보지 않았다. 16: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저의 집에 있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만났다(참조, 16:23; 행 12:12; 고전 16:19; 골 4:15; 롬 2장). 교회 건물은 3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났다.

- “에배네도” 이 사람의 이름은 “찬양받은”을 뜻한다.
- “처음 맺은 열매” 그는 고전 16:15에서 스데반의 권속으로 말해진다.
- “아시아에서” 이것은 오늘날 터키의 1/3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서쪽에 위치했던 로마의 도였다.

16: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는 로마교회에서 온 선교사였을 것이다. 많은 수의 놀랍고 경건한 신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잘 알려져 있다.

16:7 “나와 함께 간했던”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간힘을 말하는가에 대해 잘 모른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다(참조, 고후 4:8-11; 6:4-10; 11:25-28). 그는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및 기타 여러 곳에서 감옥에 갇혔었다(참조, 에베소서, 고전 15:32; 고후 1:8).

■ “유니아(스)” 이 이름은 남성형이나 여성형인데, 액센트 부호에 의해 구분해야 한다. 고대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는데 P⁴⁶, κ, B, C, D, F, G, P 사본에는 “유니아”에 액센트가 나타나지 않는다. 액센트가 있는 여성형은 B², D², 0150 사본에 나타난다. 이른 시기의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과 벌게이트역, 콥턱역 및 제롬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는 여성형인 “율리안”으로 되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서기관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이 여성형은 16:15에 나타난다. 7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아마도 (1) 바울과 함께 간힌 두 명의 유대인 신자이었거나 (2) 형제 자매이었거나 (3) 남편과 아내였을 것이다. 이것이 여성형이고 또 “사도들”이란 구가 “열 두 사도”가 아닌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여성인 사도를 말한다.

“유니아스”란 이름이 로마의 문학이나 비문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유니아”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로마인의 가족명이었다. 사역에 함께 한 여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린다 L. 벨레빌이 쓴 *여성 지도자와 교회*, 188쪽의 각주 42 항을 보라.

■	
NASB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NKJV	“사도들 가운데 드러난”
NRSV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빼어나고”
TEV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잘 알려지고”
NJB	“뛰어난 그 사도들에게”

이것은 열 두 사도를 가리킬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거나 혹은 “사도들”로 알려진 많은 수의 사역자들에게 잘 알려졌다(참조, 행 14:4, 14; 18:5; 고전 4:9; 갈 1:19; 빌 2:25; 살전 2:6). 이 문맥은 앱 4:11에서처럼 후자인 더 큰 무리를 가리키지만, 정관사는 열 두 사도를 뜻한다. 1:1의 특별주제: 보내다(아포스텔로)를 보라.

■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뜻한다.

16:8-16 이 부분에 나오는 이름들에 대하여 학자들은 잘 모른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이름과 섬긴 내용은 신약과 초기의 기독교 저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흔했던 노예의 이름과 로마 귀족의 이름과 유대인 가족의 이름이 섞여서 나오는 점이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부유한 자유인과 순회하는 설교가들이었다. 페르시아에서 온 외국인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다(참조, 3:22; 10:12; 울 2:28-32[행 2:14-21]; 고전 12:11; 갈 3:28; 골 3:11)!

16:8 “암블리아” 이 이름은 브리스가와 유니아처럼 잘 알려진 로마 가족의 이름이었다.

▣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이라는 용어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대해 마 3:17; 17:5에서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서 가져 온 호칭일 것이다(참조, 마 12:18, 사 42:1의 인용임).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신자들에게 사용한다(참조, 1:7; 17:8, 9; 고전 4:14, 17; 15:58; 앱 6:21; 빌 2:12; 골 4:7, 9, 14; 딤전 6:2; 몬 16절).

16:9 “우르바노” 이 이름은 “도시 거주자” 혹은 “도시 출신”이라는 뜻이다.

▣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이 장 전체에 걸쳐 “주 안에서”와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이다. 이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한 구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 “스다구” 이것은 “귀”(곡식의 이삭)를 뜻하며 드문 이름이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것은 시저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

16: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관용적 표현은 시험을 거쳤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를 가리킨다. 2:18의 특별주제를 보라.

▣ “권속” 어떤 학자들은 이 구가 아리스도불로의 가정 일을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인지 가족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점은 “나깃수의 권속”이 있는 11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아리스도불로” 어떤 학자(라이트혹)은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립파 I세(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의 형제라고 본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이 이두매 왕족에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낸다.

16:11 “헤로디온” 이 사람은 헤롯 가계에 속한 노예였을 것이다.

▣ “나깃수의 가족 중” 이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잘 알려진 종을 가리킬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점은 복음이 로마의 황실에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보인다.

16:12 “드루배나” 이 이름은 “고상함”을 뜻한다.

▣ “드루보사” 이 이름은 “섬세한”을 뜻한다. 그들은 서로 자매였을 것이고, 어쩌면 쌍둥이였을 것이다.

▣ “많이 수고하고” 이 용어는 “지칠 때까지” 일함을 나타낸다.

▣ “버시” 이것은 “페르시아 여인”을 뜻한다.

16:13 “루포” 이 이름은 “붉은” 혹은 “머리가 붉은”을 뜻한다. 로마에는 잘 알려진 루포가 있었다(참조, 막 15:21). 이곳에 나오는 루포와 로마의 루포가 같은 사람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견해이다.



NASB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NKJV, NRSV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TEV “주를 섬김에 있어서 뛰어난 일꾼인”
JB “택하심을 입은 주의 종”

이것은 문자적으로 “선택된 자”이다. 여기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섬기는 삶의 양식과 관련이 있다. 그의 모친에 대하여도 바울이 큰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16:14 “허메” 이것은 행운의 신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1 세기 헬라-로마 세계에서 매우 흔한 종이름이었다.

16:15 “모든 성도에게” 1:17 의 특별주제: 성도를 보라.

16:16 “거룩하게 입맞춤” 누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고 또 언제 어디서 그랬는가에 대한 초기의 기록이 없다. 회당에서 가진 인사 방법이 교회에서도 계속되어 사용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남자가 남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또 여자는 여자에게 입을 맞추었다(참조, 고전 16:20; 고후 13:12; 살전 5:26; 벤전 5:14). 이 인사법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해받았다. 따라서 중단되었다.

개역개정 16:17-20

¹⁷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¹⁸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¹⁹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²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6:17 이 경고는 예상치 못하게 이 문맥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17-18 절에 있는 목록은 거짓 교사들이 하던 일들이다.

1. 그들은 분쟁을 일으켰다
2. 그들은 신자들의 길에 거치게 하는 것을 두었다
3. 그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었다
4. 그들은 자기들의 비열한 식욕을 섬겼다
5. 그들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였다

이러한 목록은 14:1-15:13 에 나오는 약한 신자 및 강한 신자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

▣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계속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갈 1:8-9; 살후 3:6; 요이 10 절).

16:18

NASB, NRSV

TEV “그들 자신의 식욕”
NKJV “그들 자신의 배”
NJB “그들 자신의 탐욕”

이것은 문자적으로 “배”를 가리킨다(참조, 빌 3:19; 딘 1:12).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거짓 교사들은 종종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었고 강력한 개성을 가졌다(참조, 콜 2:4).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함에 있어서 종종 매우 논리적이었다.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신 13:1-5; 18:22; 마 7 장; 빌 3:2-3, 18-19; 요일 4:1-6에 나온다.

▣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계속적인 속임을 가리킨다. 새로 믿은 자들이나 순진한 신자인 이들은 분명히 취약했다(“악에 대한 경험의 없었다”).

16: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것은 1:8을 가리킨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과장법이다.

▣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다(참조, 마 10:16; 뉘 10:3).

16:20 “평강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호칭이다(참조, 15:33; 고후 13:16; 빌 4:9; 살전 5:23; 히 13:20).

▣ “속히 사탄을 너희 밭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창 3:15에 대한 암시이다. 신자들과 메시아의 관계는 신자들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준다(참조, 요일 5:18-20).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며 책임이다. 이 문맥에서 사탄은 교회가 대위임에 대한 초점을 잃게 하는 거짓교사들을 이용해 혼동과 분열을 극대화 시킨다.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하지만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는 자들로부터 어두움과 악을 몰아낸다. 이 주제에 관한 좋은 책으로는 클린턴 E. 아놀드가 쓴 영적 전쟁에 대한 3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특별주제: 개인적인 악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악을 선에 대한 큰 원수로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다른 쪽의 여지를 제공하거나 사람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야웨의 종으로 말한다.
2. 하나님께 대항하는 옛 원수의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성경이 아닌)의 글에서 페르시아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어서 랍비적 유대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들을 놀랍도록 뚜렷하면서도 선택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만일 누구든지 악의 문제를 성경신학의 관점(각 책 또는 저자별, 장르별로 연구하고 개요를 구별하는)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상이한 견해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경 이외의 자료를 가지고 악에 대해 연구하거나 세계종교에 대한 성경 이외의 자료나 동방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악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로마의 강신술에 의해 신약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권위를 받아들이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념의 발전은 반드시 점진적인 계시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민속전승이나 서양문학(즉, 단테, 밀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단단히 해야한다. 계시에는 어느 정도 신비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 악의 기원에 대해, 악의 목적에 대해 모든 면을 다 알도록 하지 않으셨으나, 그는 악의 패배를 계시하셨다!

구약에서 사탄 혹은 고발자는 세 가지 종류로 사용되었다

1. 사람인 고발자(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 23, 25; 시 109:6)
2. 천사인 고발자(민 22:22-23; 습 3:1)
3. 악령인 고발자(대상 21:1; 왕상 22:21; 습 13:2)

신구약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 3 장의 뱀이 사탄으로 알려졌다(지혜서 2:23-24; 애녹 2 서 31:3), 하지만 그 이후에서도 이러한 해석은 랍비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했다(참조, *Sot 9b* 와 *Sanh. 29a*). 창 6 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애녹 1 서 54:6에서 천사로 이해되었다. 내가 이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논란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어 온 것임을 밝히려는 이유에서다. 신약의 고후 11:3; 계 12:9에서 이러한 구약의 모습은 천사들의 개인적인 악(즉, 사탄)으로 설명되고 있다.

개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결정짓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당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이유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강한 유일신 사상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겔 7:14; 사 45:7; 암 3:6). 모든 것의 원인은 야웨께로 돌려져 그의 유일하신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43:11; 44:6, 8, 24; 45:5-6, 14, 18, 21, 22).

가능한 정보로는 (1) 육 1-2 장으로서 여기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로 나온다 (2) 사 14 장; 겔 28 장인데 사탄의 자궁심에 비유된 근동 왕들(바벨론과 두로)의 교만이 나온다(참조, 딤전 3:6).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교차되는 느낌을 갖는다. 에스겔은 사탄으로써 두로왕을 표현하고(참조, 겔 28:12-16) 이집트 왕을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비유함(겔 31 장)으로써 에덴동산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교만으로 일어난 천사의 반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의 특별한 정체와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간접적인 본문은 그것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조직신학의 경향인 신구약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 다른 저자, 다른 책, 다른 장르에서 취한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퍼즐의 한 조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알프레드 에더샤임(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간, vol. 2, 부록 XIII [748-763 쪽]와 XVI [770-776 쪽])은 랍비적 유대교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추론적인 귀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랍비들의 저술은 이 부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달랐다. 나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일에 있어서 천사의 중재적 역할과 반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랍비적인 관념이 야웨와 인간의 적인 천사장의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란(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에 나오는 두 높은 신들(아키만과 올마자, 선과 악)에 기초한 이원론은 야웨와 사탄으로 표현된 유대적으로 축소된 이원론으로 발전되었다.

신약에는 악의 발전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랍비들의 저술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록된 내용도 묵시적 장르로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 7, 12-13). 비록 사탄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는 아직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다(참조, 마 4:1; 뉴 22:31-32; 고전 5:5; 딤전 1:20).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제어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에 대한 존재가 있지만,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구원의 이전과 이후 양쪽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승리가 온다. 악은 패배하였고 제거될 것이다!

▣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일반적으로 끝맺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참조, 고전 16:23; 고후 13:14; 갈 6:18; 빌 4:23; 골 4:18; 살전 5:28; 살후 3:18; 계 22:21). 이것은 아마도 그의 손으로 직접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편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참조, 살후 3:17; 고전 16:21; 골 4:18).

개역개정 16:21

²¹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21-23 이 절들은 후기이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인사를 함께 보냈다.

16:21 “누기오” 이 사람은 (1) 의사 누가(참조, 골 4:14) 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관용적 표현이거나 (2) 구레네 누기오(참조, 행 13:1) 또는 (3)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것이다.

■ “야손” 이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머물렀던 집의 주인인 야손일 것이다(참조, 행 17:5-9).

■ “소시바더” 이 사람은 아마도 행 20:4에 나오는 베레아의 소바더일 것이다.

개역개정 16:22

²²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16:22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바울은 서기관(아마누엔시스)을 통해 자신의 편지를 기록했다(참조, 고전 16:21; 갈 6:11; 골 4:18; 살후 3:17). 나는 바울의 시력이 나빠서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지면을 줄일 수 있는 작고 빽빽한 문서를 쓸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참조, 갈 6:18).

개역개정 16:23

²³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23 “가이오” 이 사람은 (1) 행 18:7의 가이오 디도 유스도 (2) 더베의 가이오(참조, 행 19:29; 20:4; 고전 1:14) 혹은 (3) 요삼 1절에 나오는 가이오일 것이다.

■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이것은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손님접대였다. 어떤 부유한 신자들은 여행하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이 사람과 같은 자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여 함께 모여 행사를 갖기 위한 장소로 제공했다. 가정 교회들은 100여 년 동안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16:1의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를 보라.

■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는 행 19:22; 딤후 4:20에서도 언급된다. 그는 바울과 관련을 가진 순회사역을 했다.

■ “구아도” 이 이름은 라틴어로 “네 번째”라는 뜻이다. 그는 아마 라틴어로 “세 번째”라는 뜻을 가진 더디오의 형제였을 것이다(참조, 22절).

16:24 이 절은 고대 헬라어 사본인 P^{46, 61}, §, B, C, 0150 사본에 있지 않다. 이 절은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16:23의 뒤에 나오고 어떤 사본에서는 16:27의 뒤에 나오기도 한다. 이 절은 바울이 쓴 원래 내용이 분명히 아니다. NASB, NRSV, TEV, NJB 역에서는 이절을 생략하고 있다. UBS⁴는 이러한 생략에 “A”(확실함) 등급을 준다. 이것은 편지를 끝맺으려는 시도로서 다양한 헬라어 본문에서 14, 15, 16 장의 마지막에 있는 끝맺는 송영의 문제와 결부 된다.

개역개정 16:25-27

²⁵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²⁶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²⁷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6:25-27 이것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축도는 14 장과 15 장의 끝 부분에도 나온다. 이 문맥은 책의 중요한 주제를 재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 송영이 다음의 내용을 뜻한다고 이해한다

1. 회람되는 에베소서의 앞에 나오는 편지였다
2. 로마로 가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 이유로서
 - ㄱ. 바울이 결코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었음에도 26 명의 사람들에게 그가 문안하고 있는 점
 - ㄴ. 16 장에 처음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점
 - ㄷ. 이 송영이 헬라어 사본에서 여러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는 점을 듣다.

바울이 두 개의 사본을 만들어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1-14 장의 내용은 로마에, 1-16 장의 내용은 에베소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1) 초기의 이러한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여행을 했고 (2) 로마서의 어떤 헬라어 사본에도 16 장이 없는 경우가 없으며 (3) 14:1-15:13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암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6:25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로서 신약에서 3 번 사용되었다(참조, 앱 3:20; 유 24 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들을 능하게 하시는지를 주목하라.

1. 바울의 복음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3.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신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는 일
신자들은 복음의 지식으로써 능하게 된다. 이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신비”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통일된 목적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타락보다도 앞서서 있었다(참조, 창 3 장). 이 계획에 대한 암시가 구약에 드러났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또한 예언서의 보편구원과 관련이 있는 구절들). 그러나 이 전체의 일정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참조, 고전 2:6-8).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울은 이 구속적 계획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신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참조, 고전 4:1; 앱 2:11-3:13; 6:19; 골 4:3; 딤전 1:9). 그러나 그는 이것을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1. 이방인들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완고하게 됨.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이신 예수를 영접하도록 작용할 것이다(참조, 롬 11:25-32).
2.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졌다(참조, 롬 16:25-27; 골 2:2).
3. 신자들이 재림의 때에 가질 새 몸(참조, 고전 15:5-57; 살전 4:13-18).
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으심(참조, 앱 1:8-11).
5.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유업을 받을 자임(참조, 앱 2:11-3:13).
6.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가 결혼의 용어로서 설명됨(참조, 앱 5:22-33).

7.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을 가져옴, 즉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6:5, 11-13; 8:21)을 인간 안에 회복하심(참조, 창 1:26-27; 5:1; 9:6; 골 1:26-28).
8.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참조, 살후 2:1-11).
9. 신비에 대한 초대교회의 요약적 진술은 딤전 1:16에 나온다.

16: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 신비 혹은 계획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참조, 액 2:11-3:13).

■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신비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나타내셨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구성되는 신약교회의 설립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었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 “영원하신 하나님”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영원한

로버트 B. 거틀스톤은 그의 책 구약의 동의어에서 “영원한”이란 단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는 신약에서 40회 이상 사용되었다. 영생과 관련을 갖고 사용되는데, 영생은 부분적으로는 현재 누리는 선물이고 부분적으로는 미래적인 약속이다. 이것은 또한 롬 16:26에서 하나님의 한계없는 존재하심을 말하고, 히 9:12; 13:20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한계없는 효력을 가짐을 뜻하며, 롬 16:25; 딤후 1:9; 딸 1:2에서는 이전의 세대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마 18:8; 25:41; 유 7절에서 영원한 불을, 마 25:46에서는 영원한 별을, 마 3:29; 히 6:2에서는 영원한 심판 혹은 정죄를, 살후 1:9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가리킨다. 이 성경구절에서 이 단어는 최종성을 뜻하는데, 이러한 심판이 실행될 때는 유예기간으로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의 기회를 회복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또 영원히 지나가버리게 됨을 분명히 나타낸다. 영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하여, 인간의 수명이 존재하는 나머지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불신의 도덕적 무게가 어떠한 지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조금만 알 뿐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를 빼버리지 말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충실히 붙어 있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318-319쪽).

■ “모든 민족이 . . . 알게 하신 바”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이것은 헬라어 문장에서 강조를 위해 마지막에 위치한다.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들어 있던 전 세계에 하나님은 복음을 제시하셨다(참조, 창 3:15)!



NASB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시는”
NKJV	“믿음에 대한 순종을 위해”
NRSV	“믿음의 순종을 가져 오시려고”
TEV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시는”
JB	“그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가져오시려고”

이 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1)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나 (2)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혹은 (3) 복음에 대한 처음 순종과 계속적 순종을 가리킬 것이다. 순종은 신학적으로 회개와 믿음의 개념과 함께 가야만 한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

16: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것은 유일신 주의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신 6:4-5). 기독교도 유대교와 똑같이 한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나 예수의 충만한 신성과 성령의 충만한 위격은 우리로 “삼위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도록 요구한다.

■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3:23 의 설명을 보라.

■ “아멘” 1:2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바울이 결코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로마교회의 이 모든 사람들을 그가 어떻게 알았는가?
2. 여집사직에 대하여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참조, 16:1; 딤전 3:11; 56:3-26)?
3. 이 장에 이렇게 많은 수의 여성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점은 무엇을 뜻하는가?
4. 거짓 교사들의 접근방법과 그들의 메시지를 설명하라(17-18 절).

부록 1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종종 헬라적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이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주전 336-323)의 정복 시기부터 시작하여 800년간(주전 300-주후 500) 지중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였다. 이것은 간소화된 고전 헬라어였고 또한 여러 면에서 헬라어의 새로운 모습을 지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제2언어가 되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글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읽었고 인용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점은 우리로 신약성경을 융통성없는 문법구조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신약의 헬라어는 독특하면서도 (1) 칠십인역 (2) 요세퍼스 등의 유대 저작 (3)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성경의 문법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코이네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코이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에는 유동성이 있다. 여러 면에서 이 헬라어는 단순화한 문법의 시기였다. 문맥이 우리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단어들은 오직 커다란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를 오직 (1) 저자의 특징적인 스타일 (2) 특별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헬라어 형태와 구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코이네 헬라어는 우선적으로 동사적인 언어였다. 종종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 대부분의 주절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옴으로써 그 중요성을 보인다. 헬라어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3 가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제, 태, 범에 나타난 기본적인 강조점(어형론 또는 형태론) (2)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사전적 의미) (3) 문맥의 흐름(구문론).

I. 시제

- 가. 시제나 시상은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완료적” “미완료적”으로 불린다.
1. 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외에는 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그일의 시작, 계속, 또는 결과는 말해지지 않는다.
 2.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직선상에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 나. 시제는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1. 그 일이 발생했다 = 부정과거
 2. 그 일이 발생하여 결과가 남아있다 = 완료
 3. 그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결과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과거완료
 4.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5.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미완료
 6.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미래
- 어떻게 이 시제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구원하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단어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시제가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부정과거 - “구원받았다”(참조, 롬 8:24)
 2. 완료 - “구원받아 그 결과가 계속된다”(참조, 액 2:5, 8)

3. 현재 - “구원받고 있다”(참조, 고전 1:18; 15:2)
4. 미래 - “구원받을 것이다”(참조, 롬 5:9, 10; 10:9)

- 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두면서, 해석자는 원저자가 왜 이러한 시제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시제는 부정과거이다. 이것은 보통의 동사형태로서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혹은 “약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맥에서 그 정확한 뜻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과거의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나타난다. 만일 다른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1. 완료시제. 이것은 결과로 남아있는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과거와 현재시제의 결합이다. 보통은 남아있는 결과 혹은 완료된 행동에 초점이 있다. 예: 앱 2:5 과 8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2. 과거완료시제. 이것은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료와 같다. 예: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었다”(요 18:16).
 3. 현재시제. 이것은 끝나지 않았거나 미완료인 행동을 말한다. 보통 사건의 계속성에 강조가 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요일 3:6, 9).
 4. 미완료시제. 이 시제가 현재시제에 대해 갖는 관계는 완료와 과거완료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완료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일이 지금은 그쳐졌거나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예: “그 때에 모든 예루살렘에 그에게 나아오고 있었다” 혹은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에 그에게 나아오기 시작했다”(마 3:5).
 5. 미래시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조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에 있지 않다. 이 시제는 종종 어떤 사건의 확실성을 말한다. 예: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 5:4-9).

II 태

- 가. 태는 동사의 행동과 주어와의 관계를 말한다.
- 나. 능동태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며 강조점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 다. 수동태는 동사의 행동을 외부의 것에 의해 주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의 요인은 전치사와 격으로 표시된다:
1. 직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휘포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행 22:30)
 2. 간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디아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3. 사람이 아닌 경우로 엔과 기구격으로 표시됨
 4. 어떤 때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기구격으로만 표시됨
- 라.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일으키며 또한 그 동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한다. 종종 저자의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는 태로 불린다. 이 형태는 절이나 문장의 주어에 어떤 면에서 강조점을 둔다. 영어에는 없는 태이다.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용통성이 있다. 몇 가지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귀 - 주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예: “자신을 목 매달았다”(마 27:5).
 2. 강조 - 주어가 자신을 위해 행동을 함. 예: “사탄이 빛의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후 11:14).
 3. 상호작용 - 두 주어의 상호작용. 예: “그들이 서로 상의했다”(마 26:4).

III. 법(혹은 “모드”)

- 가. 코이네 헬라어에는 4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동사와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저자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직설법)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 나. 직설법은 적어도 저자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헬라어의 법중 유일하게 한정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시상은 이차적이다.

- 다. 가정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설법 미래와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차이점은 가정법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종 “했었을지도” “였을지도” “할지도” “했을지도”로 표현된다.
- 라. 희구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나타낸다. 가정법보다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희구법은 어떤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말한다. 신약에서 드물게 나온다. 바울의 유명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럴수 없다”(흠정역,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 15회 사용되었다(참조, 롬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다른 예는 뉴 1:38; 20:16; 행 8:20; 살전 3:11에 있다.
- 마. 명령법은 가능한 명령을 강조하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며 다른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와 3인칭으로 한 요구에서 명령법은 특별한 용법을 갖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명령은 현재형과 부정과거 시제로만 나온다.
- 바. 어떤 문법가들은 분사를 또 하나의 법으로 본다. 이것은 신약 헬라어에서 매우 흔하며 대개는 동사적 형용사로 정의된다. 이것은 본 동사와의 관계에서 번역된다. 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영어성경을 참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번역본 성경은 매우 유용하다.
- 사.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은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 점을 갖고 있다.

IV. 헬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책들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 가. 프리벡, 바바라와 디모티.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그랜드래피트: 베이커, 1988.
- 나. 마샬, 알프렌. 헬라어-영어 행간 신약성경.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76.
- 다. 마운스, 윌리엄 D.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93.
- 라. 섬머즈, 레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핵심. 내쉬빌: 브로드만, 1950.
- 마.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과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연구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V. 명사

- 가. 구문적으로 명사는 격으로 구분된다. 격은 어떤 어형변화를 가진 명사가 한 문장에서 동사와 다른 품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 격의 의미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변화는 여러가지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의 구분을 위해 전치사의 사용이 발달되었다.
- 나. 헬라어의 격은 다음의 8 가지로 구별된다:
 1. 주격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개 문장이나 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서술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이다” 혹은 “~이 되다”의 동사와 사용된다.
 2. 소유격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격은 “어떤 종류?”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준다. 종종 “~의”란 의미를 갖는다.
 3. 탈격은 소유격과 같은 어형변화를 갖지만,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 장소, 자료, 기원, 정도 등에 있어 분리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로 부터”에 해당한다.

4. 여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면을 가질 수 있다. 종종 이것은 간접목적을 나타낸다. 종종 “~에게”란 의미를 갖는다.
5. 위치격은 여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위치, 공간적 장소, 시간이나 논리의 한계를 나타낸다. “안에, 위에, ~에, 가운데, 동안, 에 의해,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는다.
6. 기구격은 여격 위치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도구나 협력관계를 나타낸다. 종종 “에 의해” 혹은 “와 함께”로 번역된다.
7. 목적격은 행동의 결말을 나타내며,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주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답을 준다.
8. 호격은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었다.

VI 접속사와 관계사

- 가. 헬라어는 매우 많은 관계사를 갖고 있기에 매우 정확한 언어이다. 접속사는 생각(절, 문장, 문단)을 연결한다. 전치사없이 자주 나오기에 종종 석의에 있어 중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여준다. 종종 접속사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 나. 여기에 몇 가지 접속사와 관계사의 뜻을 제시하였다(이 자료는 주로 H. E. 다나 줄리어스 K. 만티가 공저한 *신약성경헬라어의 매뉴얼* 문법에서 발췌했다).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 ㄱ. 에피, 에페이데, 호포데, 호스, 호태, 호탄(주어) – “언제”
 - ㄴ. 헤오스 – “하는 동안”
 - ㄷ. 호탄, 에판(주어) – “언제나”
 - ㄹ. 헤오스, 아크리, 메크리(주어) – “까지”
 - ㅁ. 프리브(부정사) – “이전에”
 - ㅂ. 호스 – “이래,” “언제,” “할 때”
 2. 논리적 접속사
 - ㄱ. 목적
 - (1) 허나(주어), 호포스(주어), 호스 – “하기 위하여,” “그래서”
 - (2) 호스테(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3) 프로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에이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ㄴ. 결과(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서로 가깝다)
 - (1)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2) 허나(주어) – “그 결과”
 - (3) 아라 – “그래서”
 - ㄷ. 원인 또는 이유
 - (1) 가르(원인/효과 또는 원인/결론) – “위하여,” “왜냐하면”
 - (2) 디오티, 호티 – “왜냐하면”
 - (3) 에페이, 에페이데, 호스 – “때문에”
 - (4) 디아(목적격과) 그리고 (관사와 쓰인 부정사와) – “왜냐하면”
 - ㄹ. 추론의
 - (1) 아라, 포이눈, 호스테 – “그래서”
 - (2) 디오(강한 추론적인 접속사) – “그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 (3) 윤 –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 (4) 토이눈 – “따라서”
 - ㅁ. 부사적 또는 대조
 - (1) 알라(강한 부사) – “그러나,” “외에는”
 - (2) 애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편”
 - (3) 카이 – “그러나”
 - (4) 멘토이, 윤 – “그러나”
 - (5) 플렌 – “그럼에도”(주로 누가복음에서)
 - (6) 윤 – “그렇지만”
 - ㅂ. 비교
 - (1) 호스, 카소스(비교절을 이끔)
 - (2) 카티(합성어에서, 카소, 카소티, 타소스페르, 카사페르)

- (3) 호소스(히브리서에서)
- (4)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5) 예 – “보다”
- ㅅ. 계속 또는 시리즈
 - (1) 테 – “그리고,” “지금”
 - (2) 카이 – “그리고”
 - (3) 테이 – “그리고”
 - (4) 허나, 윤 – “그래서”
 - (5) 윤 – “그 때”(요한복음에서)
- 3. 강조적 용법
 - ㄱ. 알라 – “확실히,” “정말,” “사실상”
 - ㄴ. 아라 – “정말,” “확실히,” “정말로”
 - ㄷ. 가르 – “그러나 정말로,” “확실히,” “사실”
 - ㄹ. 데 – “정말”
 - ㅁ. 에안 – “조차”
 - ㅂ. 카이 – “조차,” “정말,” “사실”
 - ㅅ. 맨토이 – “정말”
 - ㅇ. 윤 – “정말,” “결단코”

VII 조건절

- 가. 조건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절을 가지는 문장이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해석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 이유, 원인을 제공하여 왜 본동사의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4 가지의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은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단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 나. 조건절의 제 1 유형은 비록 “만일”이라는 말로 나타나지만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여러 문맥에서 이것은 “~이므로”로 해석된다(참조, 마 4:3; 롬 8:31).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제 1 유형이 사실상 진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논쟁에 있어서 논쟁점을 드러내거나 오류를 뚜렷이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마 12:27).
- 다. 조건절의 제 2 유형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로서는: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눅 7:39).
 2.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요 5:46).
 3.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나는 그 분의 종이다”(갈 1:10).
- 라. 조건절의 제 3 유형은 가능한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그 행동의 개연성을 예측한다. 대개 우연히 일어남을 내포한다. 본동사의 행동은 “it”절에 있는 행동에 부수하여 일어난다. 예로서는 요일 1:6-10; 2:4, 6, 15, 20, 21, 24, 29; 3:21; 4:20; 5:14, 16 이 있다.
- 마.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한층 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된다. 사실상 이런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는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없다. 벤전 3:14 의 앞 부분에 제 4 유형의 부분적인 예가 나온다. 행 8:31에서는 뒤 부분에 제 4 유형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VIII. 금지

- 가.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된 떄 불변화사는 종종(그러나 항상은 아님)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서는: “땅위에 너의 재물 쌓기를 멈추어라”(마 6:19);

“너의 인생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어라”(마 6:25); “너의 육체의 부분을 잘못함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어라”(롬 6: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를 멈추어라”(엡 4:30); “포도주에 취해 있기를 멈추어라”(5:18).

- 나. 부정과거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때 불변화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 조차 하지 않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는: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조차 말라”(마 5:17); “근심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마 6:31); “너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말라”(딤후 1:8).
- 다. 이중부정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은 부정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결코, 절대로 아니” 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니.” 예로서는: “그는 결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요 8:51); “나는 결코, 절대로 아니…”(고전 *:13).

XI 관사

- 가. 코이네 헬라어에서 정관사 “그”는 영어의 관사와 유사하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것”으로서 단어, 이름, 또는 구에 관심을 끌게한다. 신약에서 저자마다 그 사용법이 많이 다양하다. 정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시대명사처럼 대비를 하는 기능
 2. 이 전에 나온 주제나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
 3. 문장에서 주어를 해당되는 동사에 연결시키는 기능. 예: “하나님은 영” 요 4:24; “하나님은 빛”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 4:8, 16.
- 나. 코이네 헬라어는 부정관사(a, an)를 갖지 않는다.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1. 어떤 것의 특징이나 특성에 초점이 있다
 2. 어떤 것의 그룹에 초점이 있다.
- 다. 신약의 저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XI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강조점을 나타내는 경우들

- 가. 신약에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일정하고 격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 나. 우리는 이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과 그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말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에 아무런 문법적인 고려점이 없다는 것이다. 예: 룸 6:10(2 회).

다.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

1. 코이네 헬라어는 양형변화가 있는 언어로서, 어순이 영어처럼 고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저자는 기대되는 일반적인 어순과 다음의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다
 - ㄱ. 저자가 독자에게 강조하기 원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 ㄴ. 저자가 생각하기를 독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 ㄷ. 저자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2. 헬라어의 일반적 어순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정되는 일반적 어순은 다음과 같다:
 - ㄱ. 연결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보충어
 - ㄴ. 타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목적어
 - (4) 간접 목적어

- (5) 전치사 구
- ㄷ. 명사 구에서
 - (1) 명사
 - (2) 수식어
 - (3) 전치사 구
- 3. 어순은 석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
 - ㄱ. “오른손을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와 바나바 교제의”(갈 2:9). 이 구에서 “교제의 오른손”이 나뉘어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
 - ㄴ. “그리스도와”(갈 2:20)이 맨 앞에 나온다. 그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다.
 - ㄷ. “그것은 조금씩 많은 다른 방법으로”(히 1:1)가 맨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가 대비되고 있다.
- 라. 일반적으로 강조의 강도는 다음에 의해 나타난다
 1. 동사의 어형변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대명사의 반복. 예 “나, 나 자신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
 2. 예상되는 접속사의 부재 혹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있는 연결용어의 부재. 이것은 접속사의 생략으로 불린다. 연결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서 주의를 끈다. 예:
 - ㄱ. 산상수훈, 마 5:3 이하(항목을 강조)
 - ㄴ. 요 14:1(새 주제)
 - ㄷ. 롬 (:1(새 단락)
 - ㄹ. 고후 12:20(항목을 강조)
 3. 단어 혹은 구를 같은 문맥에서 반복함.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엡 1:6, 12, 14). 이 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4. 관용어 혹은 언어(소리)유희를 이루는 용어의 사용
 - ㄱ. 완곡어법 - 타부시 되는 주제를 대신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죽음대신 “잠”(요 11:11-14) 혹은 남성 성기대신 “발”(룻 3:7-8; 삼상 24:3).
 - ㄴ. 둘러서 표현하기 - 하나님의 이름대신에 “하나님의 왕국”(마 3:21) 혹은 “하늘에서의 소리”(마 3:17)로 표현.
 - ㄷ. 수사법
 - (1) 불가능한 과장(마 3:9; 5:299-30; 19:24).
 - (2) 다소의 과장(마 3:5; 행 2:36).
 - (3) 의인화(고전 15:55).
 - (4) 모순(갈 5:12).
 - (5) 시적 본문(빌 2:6-11).
 - (6) 단어들의 발음을 사용한 언어적 기교
 - ㄱ) “교회”
 - 1) “교회”(엡 3:21)
 - 2) “부르심”(엡 4:1, 4)
 - 3) “부르심을 입은”(엡 4:1, 4)
 - ㄴ) “자유로운”
 - 1) “자유한 여인”(갈 4:31)
 - 2) “자유”(갈 5:1)
 - 3) “자유한”(갈 5:1)
 - ㄹ. 관용적 언어 - 대개 문화와 언어에 독특한 표현법:
 - (1) “음식”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4:31-34).
 - (2) “성전”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2:19; 마 26:61).
 - (3) “미워함”은 히브리어의 불쌍히 여김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창 29:31; 신 21:15; 뉘 14:36; 요 12:25; 롬 9:13).
 - (4) “모든” 대 “많은.” 사 53:6(“모든”)을 53:11, 12(“많은”)과 비교하라. 이 용어들은 롬 5:18, 19에서 처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 5. 한 단어 대신에 완전한 언어적 구를 사용하기. 예: “주 예수 그리스도.”
- 6. 애우토스의 특별용법
 - ㄱ. 관사와 함께(설명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같은”으로 번역된다.
 - ㄴ. 관사없이(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강화된 재귀대명사로 번역된다—“그 자신,” “그녀 자신,” 또는 “그 자신.”

- 마. 헬라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 사항들에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분석적 사전과 헬라어/한국어 행간 성경.
 2. 여러 현대 번역본, 특히 다른 번역이론을 가진 번역본의 비교연구. 예: “축어적 번역본”(KJV, NKJV, ASV, MASB, RSV, NRSV)와 “등가번역본”(윌리암스, NIV, NEB, REB, JB, NJB, TEV).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개언어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3. 요셉 브라이언트 로더햄의 강조 성경(크레겔, 1994)의 사용.
 4. 매우 문자적 번역본의 사용
 - ㄱ. 1901년판 미국표준역
 - ㄴ. 로버트 영이 쓴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가디안 출판사, 1976).

문법의 연구는 지루하지만 적절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위의 간략한 정의, 설명, 예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 책에서 제공한 문법적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돋기위함이다. 이 정의들은 너무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의들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신약의 구문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할 뿐이다. 바라기는 이 정의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문법은 이런 항목 중 가장 유용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역사적 상황, 문학적 맥락,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병행되는 성경귀절이 있다.

부록 2

본문비평

이 주제는 본 주석에 나오는 본문비평적 용어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요를 사용할 것이다

-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 가. 구약
 - 나. 신약
-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으로 불리는 이론과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II.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가. 구약

1. 맛소라본문(MT) – 히브리 자음 본문은 주후 100년에 랍비 아퀴바에 의해 고정되었다. 모음부호, 악센트, 난외주, 쉼표, 본문비평 각주는 6세기에 첨가되기 시작했고 9세기에 완성되었다. 이 일은 맛소라로 알려진 유대인 학자의 가족에 의해 되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본문의 형태는 미쉬나, 탈무드, 탈굼, 페슈타, 벌게이트의 것과 같은 종류였다.
2. 칠십인역(LXX) – 전통은 70명의 유대학자들이 프톨레미 2세(주전 285-246)의 후원 아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70일 동안 번역을 하여 마쳤다고 말한다. 이 번역본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와 있다. 칠십인역은 자주 랍비 아퀴바의 본문(MT)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한다.
3. 사해사본(DSS) – 사해사본은 주전의 로마시대(주전 200-주후 70)에 “에세네파”로 불리는 유대교 분리주의파에 의해 쓰여졌다. 사해주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은 맛소라사본과 칠십인역을 뒷받침하는 히브리어 본문과는 약간 다른 계열로 보인다.
4. 어떻게 이들 본문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는
 - ㄱ. 칠십인역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돋는다
 - (1) 칠십인역의 사 52:14, “많은 이가 그를 보고 놀라게 되듯이.”
 - (2) 맛소라본문의 사 52:14, “많은 이가 너를 이해 당황하게 되듯이.”
 - (3) 사 52:15에서 칠십인역의 대명사적 차이는 확인된다
 - ㄱ) 칠십인역,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 ㄴ) 맛소라본문, “그래서 그는 많은 나라를 흘을 것이다”
 - ㄴ. 사해사본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돋는다
 - (1) 사 21:8의 사해사본, “그 때 보는 자가 외쳤다, 내가 파수대위에 섰다.”
 - (2) 사 21:8의 맛소라본문, “그리고 나는 외치기를 사자! 내 주여, 나는 낮에 . . . 계속해서 파수대 위에서 있습니다.”
 - ㄷ.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이 사 53:11을 명확하게 한다
 - (1) 칠십인역과 사해사본, “그의 영혼이 구로한 후에 그는 빛을 보게 된가, 그는 만족하게 된다”
 - (2) 맛소라본문, “그는 보게 된다. . . 그의 영혼의 구로, 그는 만족하게 된다.”

나. 신약

1. 5,300개가 넘는 헬라어 신약성경 사본의 전체나 일부분이 현존한다. 85개 정도가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268개는 전체가 대문자로(언설)로 된 사본이다. 후기인 9세기 경부터 훌림체(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헬라어 사본이 기록된 형태의 숫자는 약 2,700개이다. 우리는 또한 성구집이라 불리는 예배에 쓰인 대략 2,100개의 성경 필사본의 목록을 갖고 있다.

2. 신약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대략 85 개의 헬라어 사본이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사본은 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3-4 세기의 것이다. 어떤 사본도 신약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적은 변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급하게 쓰여졌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변이를 갖는다.
3. 시내사본은 히브리 자음 **¶**(알레프) 혹은 (01)로 알려져 있는데, 티센도르프에 의해 시내산에 있는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것이며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4. “A” 혹은 (02)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5. “B” 혹은 (03)로 알려진 바티칸 사본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으며 4 세기 중엽의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6. “C” 혹은 (04)로 알려진 에프라미 사본은 5 세기의 사본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7. “D” 혹은 (05)로 알려진 베자 사본은 5-6 세기의 사본이다. 이것은 중요한 “서방 본문”이다. 이것은 많은 첨가를 갖고 있고 흡정역본의 기초가 되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8. 신약의 사본들은 세 그룹 또는 네 그룹으로 대별되며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을 함께 갖는다.
 - ㄱ.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
 - (1) P⁷⁵, P⁶⁶(주후 200 경), 복음서
 - (2) P⁴⁶(주후 225 경), 바울서신
 - (3) P⁷²(주후 225 경), 베드로서 유다서
 - (4) B 사본으로 불리는 바티칸 사본(주후 325 경), 구약과 신약 전체
 - (5) 오리겐은 이 본문그룹을 인용한다
 - (6) 이 그룹에 속한 다른 사본들은 **¶**, C, L, W, 33
 - ㄴ. 북 아프리카의 서방 본문
 - (1) 북 아프리카의 교부인 터툴리안, 사이프리안의 인용과 고대 라틴역
 - (2) 이레니우스의 인용
 - (3) 타티안의 인용과 고대 시리아역
 - (4) 베자 사본(D)은 이 그룹에 속한다
 - ㄷ. 콘스탄틴노플의 동방 비잔틴 본문
 - (1) 이 본문 그룹에 속한 사본은 5,300 사본의 80%에 이른다
 - (2) 시리아 앤디옥의 교부인 카파도시안, 크리소스톰, 데오도렛의 인용
 - (3) C 사본, 복음서만
 - (4) E 사본(8 세기), 신약 전체
 - ㄹ. 네 번째로 가능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본문”이다
 - (1) 이것은 주로 마가복음에만 있다
 - (2) P⁴⁵와 W가 이에 속한다.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的 이론과 문제점

가. 어떻게 변이가 생겼는가

1. 부주의 혹은 실수(아주 많은 경우가 해당됨)
 - ㄱ. 손으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두 비슷한 단어의 두 번째 단어로 눈이 옮겨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를 놓치게 되는 것(비슷한 단어 탈락)
 - (1) 중복되는 글자나 구를 보지 못하고 빠트리는 것(중자탈락)
 - (2) 헬라어 본문의 구나 문장을 반복하는 실수(중복오사)
 - ㄴ. 귀로 듣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틀리는 것. 종종 철자의 오류는 헬라어의 비슷한 소리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 ㄷ. 이른 시기의 헬라어 본문은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마침표가 전혀 혹은 거의 없었고 단어사이의 구분도 없었다.
2. 고의적
 - ㄱ. 필사자의 본문에서 문법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
 - ㄴ. 다른 귀절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에 만들어진 변화(병행귀절의 조화)

- ㄷ. 차이를 보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본문을 하나로 길게 조합하는데서 만들어진 변화(합성)
 - ㄹ.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본문을 고치는 것에서 만들어진 변화(참조, 고전 11:27; 요일 5:7-8)
 - ㅁ. 이전의 서기관이 난외에 기록한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나 적절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자료를 그 다음 서기관이 본문으로 생각하여 생기는 변화(참조, 요 5:4)
- 나. 본문비평의 기본 원리(본문에 상이점이 있을 때 원래의 본문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지침)
1. 가장 이상하거나 문법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2. 가장 짧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3. 다른 것은 모두 같은 수준에 있을 때, 가장 오래된 본문이 역사적으로 원본에 더 근접하기에 더 무게가 있다.
 4. 지역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5. 요일 5:7-8의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으로 주요한 논제를 다른 시기의 사본적인 다양성이 있는 경우에, 교리적 색채가 약한 본문이 더 선호되는 본문이다.
 6. 다른 본문에 있는 상이점들의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7. 이러한 어려운 차이점들을 다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용을 두 가지 소개하면
 - ㄱ. J. 해롤드 그린리의 책, 신약의 본문비평 개론, 68쪽:
 “어떤 기독교 교리도 논란이 되는 본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학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감받은 원래의 본문이야말로 가장 정통이고 교리적으로 강하기 위해 그가 가져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다.”
 - ㄴ. W. A. 크리스웰은 베밍햄 뉴스의 그렉 개리슨에게 그(크리스웰)는 “적어도 오늘날의 대중에게 전해지기까지 수 세기에 걸쳐 번역가들을 거친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영감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나는 본문비평을 대단히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마가복음 16 장의 마지막 철반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감되지 않았고, 단지 조제되어졌다…당신이 그 사본들을 고찰해 볼 때, 마가의 책의 결론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군가 그것을 침가했다…”
 남침례교단의 주요 순회전도자도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 요 5에서도 명백히 “삽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다의 자살(참조, 마 27 과 행 1)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살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만일 이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크리스웰은 덧부치기를 “본문비평은 놀라운 과학 자체이다. 이것은 단명하지 않는다, 부적절하지도 않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중심적이다…”

III. 사본의 문제(본문비평)

- 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1. R. H. 해리슨의 **성경적 비평: 역사적, 문학적, 본문적**
 2. 브루스 메츠거의 **신약성경의 본문: 전승, 개악, 회복**
 3. J. H. 그린리의 **신약본문비평 개론**

부록 3

용어해설

고등비평.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과 문학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성경해석의 방법이다.

고의적 다의성.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뜻을 갖거나 혹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결과를 낳는 표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요한은 일부러 다의성(두 가지 뜻)을 지닌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성경. 이것은 1633년에 발행된 엘제빌의 헬라어 신약성경에 적용되었다. 이 역본은 기본적으로 후기의 몇 헬라어 사본과 에라스무스(1510-1535)의 라틴어 역본, 스테타누스(1546-1559), 엘제빌(1624-1678)에 기초한 헬라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의 본문비평개론, 27쪽에서 A. T. 로벗슨은 말하기를 “비잔틴사본은 실제적 공인성경이다.” 비잔틴사본은 초기의 헬라어 사본의 세 계열(서방, 알렉산드리아, 비잔틴)에서 가장 가치가 적다. 이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손으로 쓰여지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한편, A. T. 로벗슨은 또한 말하기를 “공인성경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본문을 우리들을 위해 보존해 왔다”(21쪽). 이 헬라어 사본전통은(특히 1522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3판) 1611년에 출판된 흄정역의 기초를 이룬다.

관용적 표현. 이 단어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각 단어의 일상적 의미와는 맞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구의 사용을 가리킨다. 현대적 예로서는: “그것은 상당히(끔찍하게) 좋았다” 혹은 “당신은 나를 정말 웃긴다(죽인다)”이다. 성경 역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구문.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가리키는 헬라어 용어이다. 완전하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문장에서 각 품사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다룬다.

귀납법. 이것은 논리나 추론의 방법으로서 부분에서 출발하여 전체로 나아간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경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접근방법이었다.

그리스도 중심적.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 되심을 나타낸다. 나는 이 용어를 예수께서 모든 성경의 주님이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는 성경의 완성이요 목적이시다(참조, 마 5:17-48).

동의어. 이것은 어떤 단어들이 정확하게 혹은 매우 비슷하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비록 어의적으로 어떤 두 단어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어떤 문장에서 의미의 변함없이 단어들을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서의 세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다. 즉 시의 두 행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03:3).

네스토리안주의. 네스토리우스는 5 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훈련받았고, 예수께서 완전히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두 본질을 가지셨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정통적인 교리인 한 본질과 달리하는 것이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요 관심사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있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과 그 자신이 교육받았던 안디옥학파의 연루에 의해 반대되었다. 안디옥은 역사적-문법적-분문중심의 성경해석의 본산지였고, 알렉산드리아는 4 중해석(우화적)의 본산지였다. 네스토리우스는 완전히 면직되었고 추방되었다.

디아스포라. 이것은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특별한 헬라어 용어이다.

랍비적 유대교. 이것은 바빌론 유수(주전 586-538)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각 지역에 있던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문화, 사교, 예배, 성경연구의 장이 된 회당은 국가적으로 종교생활의 구심점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의 종교”는 제사장들의 종교와 쌍벽을 이루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서기관적 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지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탈무드)의 실제적이고 율법적 해석으로 특징을 짓는다.

맞소라본문. 이것은 9 세기 히브리 구약성경 사본으로서 유대 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왔으며 모음부호와 다른 분문주석과 관련된 참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구약성경에 기초를 이룬다. 이 사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 특히 사해사본 이사야서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약어로 “MT”라고 불린다.

무라토리안 단편. 이것은 신약의 정경목록이다. 주후 200년 이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기독교의 신약성경과 똑같은 27 권을 제시한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들이 4 세기에 있었던 주요 교회회의 이전부터 이미 “실제적으로” 정경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형론. 이것은 특별한 해석방법이다. 유추적인 심볼에 의해 구약의 성경귀절과 연관되는 신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해석방법이었다. 이것의 오용을 막기위해서는 신약에 기록된 명확한 경우로만 그 사용을 한정지어야 한다.

묘사적 표현. 이것은 구약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용된 관용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오감으로 알 수 있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묵시문학. 이것은 유대문학에서 독특하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세계열강들이 유대를 공격하여 지배하던 시기에 비밀스런 형태로 기록된 글을 뜻한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구속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문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많은 용어들로 인해 매우 상징적이고 환상적이다. 이 방법은 진리를 여러 가지의 색, 숫자, 환상, 꿈, 천사의 중계, 비밀 암호같은 단어들, 선과 악의 날카로운 이원론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장르에는 (1) 구약에서 에스겔 (36-48 장), 다니엘 (7-12 장), 스가랴 (2) 신약에서 마 24; 막 13; 살후 2 와 계시록이 있다.

문단. 이것은 산문으로 된 문학형태의 기본적 해석단위이다. 이것은 하나의 중심주제와 그것의 전개를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미미한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원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문자적.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본문중심의 역사적 해석방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이 인간 언어의 정상적이고 분명한 의미와 연관됨을 뜻한다.

문학장르. 이것은 시나 역사적 이야기처럼 사람의 의사전달이 취하는 독특한 표현을 가리킨다. 모든 종류의 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외에 각 문학장르마다 독특한 해석학적 절차가 있다.

문학단락.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주요 개념에 따른 구분을 지칭한다. 단락은 몇 절, 몇 문단, 혹은 몇 장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중심주제를 갖는 독립적인 단위이다.

바티칸역.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원래 구약 외경 신약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분은(창, 시, 히, 목회서신, 론, 계) 유실되었다. 이것은 원본의 글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본이다. “B”로 표시된다.

별게이트역. 이것은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이다. 로마천주교회의 기본적 또는 “공통의” 역본이 되었다. 주후 380년에 번역되었다.

반대의. 이것은 히브리 시행의 평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세 가지 설명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시행의 관계를 나타낸다(참조, 잠 10:1; 15:1).

베자사본. 이것은 주후 6 세기의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사본이며, “D”라고 명명된다. 이 사본은 복음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사본은 서기관의 수 많은 추가기록으로 특징을 이룬다. 이 사본은 “공인성경”的 기초를 이루며, 흡정역본의 배후에 있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변증론자(변증론). 이것은 “법적방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증거와 이성적인 논증을 제시하기 위한 신학의 한 분야이다.

변증법. 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역설적인 양면을 포함하는 통일된 답을 구하는 사고방법이다. 많은 성경적 교리는 변증법적 짝을 이룬다, 예정—자유의지; 안전—성도의 견인; 믿음—행위; 결단—제자도; 기독교인의 자유—기독교인의 책임감.

병행귀절.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경자체가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자이며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불확실하거나 이중적인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관한 성경귀절을 모두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가장 명확한 본문을 파악하게 돋는다.

본문비평. 이것은 성경사본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원래의 본문이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문비평이 요구된다. 이것은 상이 점들을 설명하고, 구약과 신약의 원본(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을 파악하려고 한다. 종종 “하등비평”이라 불린다.

분석적 사전.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모든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돋는다.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단어의 변화와 기본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행간에 번역이 들어가 있는 성경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신약성경의 헬라어 문법과 구문적 형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돋는다.

사본.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개 다른 종류로 구별하는 방식은 (1) 사본이 기록된 재료(파피루스, 가죽) 혹은 (2) 글자자체의 형태(대문자체 혹은 홀림체)이다. 약어로는 “MS”(단수) 혹은 “MSS”(복수)로 나타낸다.

사해사본. 이것은 1947년에 사해근처에서 발견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일련의 고대사본들을 가리킨다. 이 사본들은 1세기 유대 문파의 종교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사본들이었다. 로마의 점령으로 인한 압력과 열심당원들이 60년 대에 시작한 전쟁은 그들로 두루마리 사본들을 동굴이나 구멍속에 있는 항아리에 밀봉하여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돋고, 맘소라 사본이 매우 정확하며 주전의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확인해 준다. 이 사본들은 “DSS”라는 약어로 표현된다.

석의. 이것은 어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행해지는 어떤 접근법을 의미하는 전문적 용어이다. (본문으로부터) “읽어 내 옴”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의 목표가 역사적 상황, 문자적인 문맥, 구문과 당시의 단어 의미에 비추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선험적. 이것은 “전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기존에 받아들여진 정의나 원리 혹은 사실이라고 가정되는 견해에 기초한 논리전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점검이나 분석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성경의 유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성경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전제적 확신은 성경에서 평행되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성경적 권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것은 원저자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한 바를 이해하는 것과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권위는 성경자체를 우리의 유일한 권위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적절한 성경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 의미를 제한하여 역사적-문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구사전. 이것은 성경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구사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성경의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한다 (2) 같은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포함하는 절을 비교 할 수 있게 한다 (3)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한글성경의 어디에서 같은 단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4) 어떤 단어가 성경의 어떤 책, 혹은 저자별로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5) 성경에서 어떤 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참조, 왈터 클락의 어떻게 신약성경 헬라어 연구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54-55쪽).

세계이해와 세계관. 이것은 서로 같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둘 다 창조와 연관된 철학적 개념이다. “세계이해”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계관”은 “누가” 창조했는지를 말한다. 이 개념은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창조인지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창세기 1-2 장의 해석에 있어 중요하다.

시내사본.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이 사본은 독일 학자인 티첸도르프에 의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예벨 무사에 세워진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레프”[א]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전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 가운데 하나이다.

신인동형. “인간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의 뜻을 지닌 이 용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용어로써 표현되고 있다(참조, 창 3:8; 왕상 22:19-23). 물론 이것은 유추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과 관련된 용어외에는 달리 우리가 사용할 용어가 마땅히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지만 제한적이다.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는 3 세기와 4 세기 초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는 예수께서 선재하신 분이심을 인정했으나 아마도 잠 8:22-31에 기초하여 신성은 부인했다(성부와 같은 본질이 아님). 그의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그 주교는 주후 318년에 시작되어 여러해 동안 계속된 논쟁을 일으켰다. 아리안주의는 동방교회의 공식적 신조로 받아들여졌다. 주후 325년의 니케아회의에서는 아리안주의를 정죄하고 성자의 신성과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제자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많은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관찰과 분류에 의한 지식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특색을 이룬다.

안디옥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법은 주후 3 세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한 우화적 방법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방법의 핵심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점이었다.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일반적인 문학작품으로 이해했다. 이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질을 갖고 계신지(네스토리안 주의) 혹은 한 본질을 갖고 계신지(완전히 하나님께서 있고 완전히 인간이신)에 대한 논쟁에 연관되었다. 이들은 로마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페르시아에 다시 정착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들의 해석학적 기본원리는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되었다(루터와 칼빈).

알렉산드리아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방법은 주후 2 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플라톤주의자였던 필로의 해석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것은 종종 우화적 방법으로 불린다. 종교개혁 때까지 이 방법이 횡횡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모이셋 실바, 교회가 성경을 잘못해석했는가?(아카데믹사, 1987)을 보라.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으며, 구약, 외경, 대부분의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주요 사본중의 하나이다(마태복음 일부분과 요한복음, 고린도후서를 제외한). “A”라고 칭해진 이 사본과 “B”(바티칸사본)이 일치할 때,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원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야웨(여호와).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 출 3:14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이다”的 뜻을 갖는 히브리 동사의 원인을 야기하는 형태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부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이름 발음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신하여 사용했다. 이것이 이 언약적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이유이다.

양자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초기의 견해중 하나였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이었으나 그의 침례시(참조, 마 3:17; 막 1:11) 혹은 부활시(참조, 롬 1:4)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양자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때에(침례, 부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양자삼았다(참조, 롬 1:4; 빌 2:9). 이것은 초대교회와 8 세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성육신)을 바꾸어 놓아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견해는 성자이시고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 그의 모범적인 삶을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상 주시고 그를 높이셨는가를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그가 이미 하나님이셨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선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그가 더 명예를 얻게 될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부의 뜻을 그가 온전히 이루심을 인해 성부께서는 어쨌든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를 영예롭게 하셨다.

어원론. 이것은 어떤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어 연구를 말한다. 어원적인 뜻을 암으로써 특별한 용례에 따른 의미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 주요 관점은 어원론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단어가 동시대에 지닌 뜻과 용례에 있다.

어의론적 세계. 이것은 한 단어와 관련된 뜻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통털어 지칭한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역동적 등가번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 “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충점을 맞춘 “의역” 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튜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히 읽을 것인가*, 35쪽과 로버트 브랫쳐의 TEV 서론에 나와 있다.

역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사실이면서 서로 간에 긴장이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역설은 반대방향에서 진리를 제시한다. 성경의 많은 진리는 역설적(혹은 변증적) 짝으로 나타난다. 성경적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별들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이루는 별들로 구성된 성단과 같다.

연역법. 이것은 논리에 의해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별한 적용으로 나아가는 논리나 사고방법이다. 이것은 귀납법과 반대되는데, 귀납법은 관찰된 특별한 사실로 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론)으로 나아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뜻한다.

영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개념이다. 이것의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지주의. 이 그룹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지식은 2 세기에 쓰여진 영지주의 작품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의 초기적인 모습은 1 세기(혹은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

2 세기의 발렌티안과 세린티안 영지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물질과 영은 상호-영적(존재론적 이원론)이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형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 하나님과 물질사이에 유출(애온 혹은

천사적 수준의)이 일어난다. 가장 마지막 혹은 가장 낮은 존재는 구약의 야웨인데, 그는 우주(코스모스)를 형성했다 (3) 예수는 야웨와 같은 유출의 결과이지만 좀 더 높은 계급, 즉 참 하나님과의 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는 그를 가장 높지만 아직 하나님에 비해 낮고, 성육신한 신은 확실히 아니었다(참조, 요 1:14).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었고 아직 신적 존재였다. 그는 영적 환영(참조, 요일 1:1-3, 4:1-6)이었다 (4) 구원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지식(암호)은 천상의 영역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주의 또한 요구되었다.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다;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을 위해 구원과 영성이 천사적인 영역(에온들)을 통하여 비밀스런 지식(암호)으로 합쳐졌다 (2) 다른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금욕적 삶을 참된 영성의 증거로 강조했다.

영해. 이것은 성경귀절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무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우화화와 동의어이다.

왜곡.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한 강한 선입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하여 공평한 견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선입관적 입장을 취하게 한다.

우화. 이것은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에서 출발한 성경해석 방법이다. 이것은 알렌산드리아의 필로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성경을 자신의 문화나 철학적인 체계에 상응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아래 성경의 역사적 상황과/혹은 문학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뜻을 찾으려고 했다. 예수께서 마 13 장에서 바울은 갈 4 장에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우화적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화가 아니라 모형적인 해석방법이다.

원저자. 이것은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저자/사람을 의미한다.

율법주의. 이것은 규정이나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규율을 지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계를 덜 중요시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둘다 중요한 요소이다.

의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 “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촉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튜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히 읽을 것인가, 35쪽에 있다.

인용을 위한 성경사용. 이것은 성경의 어떤 절을 그것의 문학적 단위가 갖는 직접적 포괄적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저자의 의도로 부터 그 절(들)을 빼내게 되고, 대개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여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읽어 들어가기. 이것은 석의의 정반대 방향이다. 만일 석의가 원저자의 의도를 “읽어 내는 것”이라면, 이 용어는 이질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자연질서(롬 1:19-20)와 도덕적 의식(롬 2:14-15)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 19:1-6과 롬 1-2에서 말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특히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특별계시와 구별된다.

이 신학적 용어는 크리스챤 과학자(예, 휴지 로스의 글)들의 “현 지구”운동에 의해 재 강조되었다. 그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자연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다; 이것은 특별계시(성경)와 구별된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자연질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점은 현대의 서구의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놀라운 새 기회이다.

장르. 이것은 문학의 다른 종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이 용어의 핵심은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형태로 문학작품을 구별짓는 것에 있다: 역사적 이야기체, 시, 잠언, 묵시문학, 법률.

전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해를 뜻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슈에 대해 성경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의 견해나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 전제는 왜곡, 선형적인 생각, 가정, 또는 기준 지식 등으로 불린다.

정경. 이것은 독특하게 영감되었다고 믿어지는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일컫는다.

조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돋는다.

조직신학.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항목별(신, 인간, 죄, 구원 등)로 제시한다.

종합. 이것은 히브리시의 세 가지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어떤 것에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행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 “점증적”인 평행법으로 불린다(참조, 시 19:7-9).

주석. 이것은 특별한 형태의 연구도서이다. 이것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그 책의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책은 적용에, 어떤 책은 보다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다루고 있다. 이 책들은 유용하지만, 반드시 자기 스스로 기초적인 공부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주석을 사용하든지 그 주석가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된다.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여러 종류의 주석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지혜문학. 이것은 고대 근동(그리고 현대)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문학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시, 잠언, 짧은 글 등을 통하여 자라가는 세대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 내용은 공동체 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다. 성경에서 읍기 부터 아가서 까지 야웨의 존재와 그분께 대한 예배를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 경험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종교적 사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장르이다. 이 장르는 모든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술로서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현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탐구했다. 그들은 종종 전통적인 종교적 견해에 도전했다(읍기와 전도서). 그들은 인생의 비극에 대한 가벼운 견해들에 대항하여 균형잡히고 긴장이 느껴지는 답을 주고 있다.

취사선택. 이것은 본문비평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다른 헬라어 사본들로부터 원래의 필사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을 찾기 위해 본문을 선택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 방법은 어느 한 헬라어 사본의 계열이 원본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격한다.

친필본. 이것은 성경의 원본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맨 처음 손으로 쓰여진 원본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사본들의 사본들만 남아 있다. 이 사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본문의 상이점들에 대한 원인이 된다.

칠십인역. 70 인역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다. 전통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위해 유다의 70 명의 학자들이 70 일동안 마쳤다고 한다. 전통이 말하는 연대는 주전 250년 전후(사실상 그 번역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이 번역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이 사본은 히브리 맛소라 사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고대 역본이다 (2) 이 사본은 주전 2-3 세기에 유대인들이 해석한 내용을 보여준다 (3) 이 사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기 전에 이해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을 알게 한다. 약어로 “LXX”로 칭한다.

탈무드. 이것은 경전화된 유대 구전전통을 일컫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두로 이 내용을 주셨다고 믿는다. 사실상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친 유대 교사들의 지혜를 집대성한 것이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다른 본문이 있다: 바빌론 탈무드와 짧으면서 미완성의 팔레스타인 탈무드.

토라. 이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히브리어 용어이다. 이것은 모세의 책(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을 일컫는 공식적인 명칭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부분이다.

파피루스. 이것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책의 재료이다. 강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들었다. 그 위에 가장 오래된 헬라어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다.

편협. 이것은 지역에 따른 신학적/문화적 배경으로 둘러싸여 생기는 왜곡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를 뛰어넘는 성경진리의 이해와 그 적용에 장애를 준다.

플라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였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자들과 후기의 어거스틴을 통하여 그의 철학은 초대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환영으로 이해했고 영적 원형의 복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신학자들은 후에 플라톤의 “형태/개념”을 영적 세계와 동일시했다.

하등비평. “본문비평”을 보라.

해석학. 이것은 석의를 하는 원리들을 일컫는 전문적 용어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들과 예술/은사의 조합이다. 성경해석학은 대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일반적 원리들과 구체적인 원리들. 이 원리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문학적 종류에 기인하다. 각기 다른 타입(장르)에 적합한 지침들이 있지만 어떤 공통의 전제들과 해석의 과정을 공유한다.

행간삽입성경. 이것은 성경원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뜻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자료이다. 한글로 된 성경을 원어마다 그 바로 밑에 해당되는 뜻을 제시한다. “분석사전”과 더불어 사용함으로써 이 책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형태와 기본적 뜻을 제공한다.

환유법. 이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이 그것과 관련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끓고 있다”는 뜻이다.

부록 4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의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궁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떤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